



DOSAN 2022 Essay Collection

Young Korean Academy 발행/최영배 편집

목차

제1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실시를 축하합니다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5
제1회 [도산에세이] 수필대회에 부치는 인사 및 제언 장철우 목사, 대회장	7
제1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주최하면서 서경원,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	9
DOSAN 2022 심사평 김재동 박사, 심사위원장	11
제1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창수, 흥사단 오렌지카운티(OC)지부 지부장	13
DOSAN 2022 최영배, 북미한인교수협회 회장	15

당선작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 - 흥사단 운동론을 중심으로 김상안	16
---	----

가작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Justice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Lens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and Philosophies Dorothy Joo Kowal	36
---	----

도산사상의 실천방안 모색 김용환	72
바다 위에 떠 있는 산 배수지	114
참가작	
도산사상의 실천적 과제 최주석	136
도산의 향기를 찾아서 김범	145
A True Patriot of Korean Independence 김평춘	175
대왕비문에 실린 신라 임나가라(新羅任那加羅) 출처 이돈성	200
'거짓말문화 척결 국민행동'이 시급하다 한겸택	265
색인	315
DOSAN 2022 행사 포스터	316

제1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실시를 축하합니다



몇 달 전 흥사단 미주위원부가 주관하여 OC흥사단과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가 공동으로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하여 접하고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더우기 이 프로그램은 LA 뿐만 아니라 전 미주와 한국 등 그 외에도 누구나 어디서나 글로벌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산에세이 콘테스트”가 각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미 서울에 있는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도산안창호 독후감 모집을 초중고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는 제23회로 지난 도산선생 탄신일인 11월 9일(도산안창호의 날)에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산선생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상을 남기셨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를 창설하여 그 사상을 전파함은 물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흥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도산선생의 사상과 흥사단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계승 발전시켜야만 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1963년에 시작한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동량을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도산선생의 사상과 생애에 관한 문헌들을 널리 보급하여 읽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이번에 실시하는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년 실시하여 크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뉴욕의 장철우 대회장님과 흥사단 미주위원부 서경원 위원장님, 북미한인교수협회 최영배 회장님,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데이빗 곽 회장님, 정영조 단우님, 주정세 단우님과 이기욱 단우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도산에세이 콘테스트” 프로그램이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재실

제 1 회 [도산에세이] 수필대회에 부치는 인사 및 제언



금년에 흥사단 미주위원부에서 [도산의 한민족 경영]이라는 대주제 아래, 도산사상의 현대화 및 세계화라는 소주제로 국제 수필 공모전이 이뤄졌다. 오래동안 준비되었고 긴 시간에 걸쳐 이뤄진 사업이다.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산선생을 배우게 하는 정도였지만, 우리 행사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평소에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을 후손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를 토로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미주에서의 제 2의 흥사단 운동은 2003년도 뉴욕지부가 재창립하면서 도약의 기회를 가졌다. 과거 필라, 워싱턴 DC, LA 에 지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활동한 젊은 단우들이 유입된 덕분이다. 지속적인 흥사단 운동의 성장을 기대하였으나, 새로운 젊은 단우들의 배가가 쉽지 않았고, 처음에 입단한 단우들은 세월과 함께 정체된 안타까움을 항상 느껴왔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념적인 갈등은 흥사단 내부에 균열이 생겼고, 흥사단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더믹사태는 흥사단 운동을 위축시킨 한 계기도 된다.

그러나 코로나사태 덕분에 Zoom의 시대를 열었고, [도산 에세이] 공모전을 전세계를 향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에 실제 응모한 지역은 미서부, 동부, 샌프란시스코, 한국에서까지 미쳤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과업은 '흥사단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고,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이번 행사 감사를 드린다. 금년에 홍보해둔 것을 잘 살려 앞으로도 더욱 일찬 열매를 맺길 바란다.

오늘 우리의 조국은 정치적 혼돈과 이념의 갈등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백여년전 도산이 부르짖던 애국.애족의 참된 길을 다시 찾는 일이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도산은 이조 오백년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은 바로

'거짓'때문이라 통분하셨다. 거짓이 나라를 팔아버렸고, 조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흥사단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고 민족앞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소중한 과업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죄다 할 수는 없다. 한줄기 맑은 '샘물'과 같은 역할로 진실한 사회, 유정한 사회로 바꾸며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잡아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흥사단 미주위원부와 공동주관으로 나선 O.C 흥사단과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공모전에 응모한 여러분과 광고 및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한다.

2022 년 12 월 4 일

대회장 장철우목사

제 1 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주최하면서



2000 년도부터 미주위원부(10 개지부)를 맡으면서 갖가지 꿈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 팬더믹사태가 모든 것을 움추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연히 지부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황폐한 땅에도 새싹이 돋듯이, 이달 12 월 17 일(토) 필라델피아지부에서 제 109 차 흥사단 미주대회를 준비해줘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우선 주변의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시카고. 특히 토론토지부까지도 함께 결성할수있는 기회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부에서는 LA 지부가 월례회 개최 등 도산선생을 기리는 각종행사를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도산의 한민족경영]이라는 대주제아래 [흥사단의 현대화 및 세계화]라는 명제를 걸고 제 1 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OC) 지부와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의 공동 주관으로 공모전을 10 월말에 마감하고 11 월 18 일자로 심사위원들의 ZOOM 미팅을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있어서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수협회의 회장이신 최영배교수께서는 처음부터 기획. 광고. 개인적인 통신 등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주셨고, 협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 극정적인 응원을 한결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도산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주셨고, 앞으로 한국학연구소 등과의 연계성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YTV America 의 자막광고를 보고, 손가락 관절로 어려움을 무릎쓰고, 영문으로 응모해주신 분은 어릴 때 도산선생을 '신'이셨다는 선친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김재동박사님을 포함해 심사위원 6 분들 (주관처 각 3 명씩)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문섭교수께선 심사위원 Zoom 미팅에 참석해주셨고, 오명자선배단우께선 해외 여행도중 호텔방 어두운 조명아래에서 한글로 된 7 편의 글을 보셨다는 고생담을 토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부터 발상했고, 초기엔 홍명기회장(미주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장)께서 호쾌한 응락속에서 시작했으나, 홍회장님의 갑작스런 타계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 미주와 한국에 계시는 흥사단 단우들의 협력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현시점 흥사단의 갈급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응모자의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강한 메시지를 무겁게 주었거나, '나 스스로가 도산이 되어' 세상에 뭔가를 토로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다음해엔 질높고 풍부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2022 년 11 월 30 일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 서경원

DOSAN 2022 심사평



제 1 회 국제 <도산 정신> 공모전에 국내외 전역에서 총 9 분이 작품을 보내 왔습니다. 원래 공모전 공고에 대학생/대학원부와 일반부를 나누어 각기 당선작을 뽑기로 했는데,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대학원부부의 응모자가 없는 관계로 일반부 응모작만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9 편의 응모 작품 가운데 7 편은(한국 2 편, 미국 5 편) 한글로 쓴 작품이고, 나머지 2 작품은 영어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9 편 모두 우열을 가려내기 힘든 좋은 작품이어서 심사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읽고 분석하여 개별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Zoom 모임에서 입상자를 선정해 냈습니다

우선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한글/영어권, 국내/국외 형평성 까지도 감안하여 정성껏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도산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해 흥사단이 처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심도있게 제안해 주신점을 높이 사서, 당선작에 <도산사상의 실천적 방안>을 쓰신 '김 상안' 응모작을 뽑기로 심사위원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다음 가작으로 한국에서 응모한 '도산사상의 실천방안 모색'(김 용환), 영어권의 'Diversity, Equity, Inclusion & Justice...(Dorothy Joo Kowal), 도산의 인품과 삶을 주제로 쓴 '바다위에 있는 산' (배 수지)등, 세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해 냈습니다.

그외 입상작에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을 내주신 나머지 다섯분 응모자에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원 '참가상'으로 우대해 드리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심사를 맡아주신 세분의 교수님을 포함한 여섯명의 심사위원들과 이 고귀한 상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정해 주신 '이창수' Orange County (OC) 흥사단(YKA: Young Korean Academy) 지부장님과 재미한인교수협회(KAUPA: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최영배' 회장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심혈을 기울여 응모해 주신 아홉분의 지혜가 흥사단의 차세대 '도산 정신'구현에

자양분과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따뜻한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년 11 월 18 일

심사위원장 김재동 (Young Korean Academy)

심사위원 오명자, 김인배 (Young Korean Academy)

서문섭, 강석, 오탈환(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제 1 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마무리하면서



1996 년도에 이곳에서 흥사단의 선배단우들을 만난 것은 어느 데니스식당에서 안재훈 송재승 이장훈 선배님과 이병도군이 전부였다. 그당시는 모임이나 장소가 없었다. 월례회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그러면서도 LA 를 흥사단 미주위원부라고 불렀다. 광복후 흥사단 본부를 서울로 옮긴 후 LA 를 줄곧 미주위원부라고 불렀다. 간혹 흥사단에 관한 손님들이 오갈 때나, 독립유공자선배중에 본국으로 봉송식이 있을 때 모였다. 해방후 반정부 성향의 운동을 줄곧 펼쳤으니, 당시 정부로부터

늘 경계대상이었다. 큰 기념행사를 치뤄도 화환하나 서로 나누지 않았을 정도였다.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을 흥사단 것이라고 말로만 외쳤지, 오래동안 그걸 감당할 인적 물적자원이 없었다. 그래도 백영중전위원장님의 후원으로 사무실을 얻고 작게나마 모이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서의 학생 아카데미출신들 중심으로 필라. 워싱턴 DC. 서북미(타코마). 뉴욕. 동남부 (아틀란타) 등지에서 자생적으로 지부가 생기고, 새로운 모습의 흥사단 미주위원부가 요청되었다. 심지어 토론토까지 확장되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북미주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변모했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LA 에 지부를 따로 설립하기도 했다.

각지부별로 도산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함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위원부에서 꾸준하게 방향제시를 해주지 못했다. 창단 백년이 되었어도 주된 모임은 도산선생의 탄생일과 서거일과 창단기념식 정도였지만, 그역시 벅찼다. 본인은 명실상부한 흥사단 미주위원부 총무를 초창기부터 여러해 맡았었고, LA 지부도 창립후 첫회기 2 년간을 총무를 겸임했다. 오래동안 여러 면에서 단절된 상태였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신문지상에 '제 2 의 도산, 제 3 의 도산, 작은 도산'을 외쳐도 보았다.

근간에 주변으로부터 "흥사단이 왜저래?" "흥사단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말을 빈번히 들었다. 이러한 말을 듣던 중, 세상은 아직도 흥사단에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느껴졌다. '흥사단 운동의 미래상'을 어딘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찾을 수가 없을까 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

2019 년도 초에 OC 흥사단은 코로나 팬더믹사태로 집회장소를 잃어버렸다. 고유의 전통인 애국가와 단우회의 노래를 부를 곳이 없어졌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듯이 그해 10 월말부터 Zoom 미팅을 시도했다. 이때 Virginia 에 계시는 최영배교수(KAUPA 회장)께서 참여했다. 서로 뜻이 통해 '흥사단 운동의 미래상'을 추구하는 [도산에세이]를 펼치게 되었다. 애초부터 최영배교수의 기획력으로 구상되었고 광고되었고 또 추진되었다. 참으로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았다. 행사의 광고가 유럽, 동남아, 호주, 남미,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아마 남극기지에도 도달되어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인은 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흥사단에 몸담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흥사단 단우들과 주변에서 한마디의 망설임 없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다. 장철우목사님, 김재동박사님, 림관현선배님, 박광해단우님, 이기욱단우님, 정영조선배님, 주정세선배님, 김재실선배님,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광도원회장님, YTV America 의 조길원부사장님, 액셀인쇄소 백사장님, Sandy Kwon 님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밖에도 응원하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특히, 도산에세이 콘테스트의 결과를 한권의 문집으로 나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해 주신 최영배교수님, 서문섭교수님과 따님 Minnah Seoh 님의 정성의 손길에 거듭거듭 감사드린다.

이번 계기로 흥사단 운동이 거듭 나게 되고, 도산선생의 사상과 정신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고 또 드높이 날아가길 간절히 고대한다.

2022 년 12 월 1 일

이창수, 흥사단 오렌지카운티(OC)지부 지부장

DOSAN 2022



이번에 처음으로 제1회 도산 국제수필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주 흥사단과 북미한인교수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교적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큰 흐름에 발맞추어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응모된 모든 작품들을 하나로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그마한 시도들이 민족의 스승이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평생 온전히 바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심과 깊은 삶의 철학을 우리가 더욱 본받고 실천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 하신 YKA USA OC 지부장이신 이창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모든 원고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교정하여 주신 서문섭 박사님과 따님 Mlannah Seoh 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최 영 배, 북미한인교수협회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회장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

(흥사단 운동론을 중심으로)

김 상 안

세계적인 위인들은 조국과 그들이 활동한 시대에 그들의 정신을 각인시켜 놓는다고 한다. 루터가 독일에, 낙스가 스코트랜드에 자신의 정신을 새겨 놓았던 것처럼, 현대 한국에 정신적 유산을 남긴 사람을 꼽는다면 도산 안창호가 될 것이다.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그를 가장 가깝게 모시고 지냈던 고 장리욱의 말씀이다. “내가 믿는 한 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다루어 보기는 도산이 그 처음이 아닌가 한다. 또 내가 믿는 한 그는 이렇게 과학적 태도를 갖고 또 그 방법을 활용하여 나아가는 도산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과학이니 또 그 방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조차 갖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도산에게는 우리 국민이 좀 더 깊이 알고 또 이해하여야 할 면이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계획성이다. 즉 기본적인 민족의 역량을 배양, 또 축적하는 것을 골자로 삼은 치밀한 계획성을 보이는 면이다. 도산의 이 계획성은 일상 평범한 언동거지에서부터 위대한 민족 경륜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의 논리성, 또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었다”(장리욱, 도산의 인격과 생애 P11-14)

그러면 도산은 어떠한 사상체계를 견지하고 있었는가?

도산이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 그 지배 아래 신음하던 때였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 독립 국가를 세우고 근대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같은 과제에 대응해 도산의 사상적 모색은 우리 겨레의 독립과 번영이라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따라서 그 본질은 역시 한국 근대 민족주의라는 한 마디 말 속에 집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의상 그의 사상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준비론으로도 부르는 독립 전쟁 준비론, 둘째는 민주 국가 건설론, 세째는 흥사단 운동론이다. 이들 사상은 그의 총체적 민족

운동 구상 속에 나타나 있다.

도산이 남긴 유품 중 작은 수첩에는 민족 운동 체계를 도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요약해 놓고 있었다.(흥사단 교본, 2010)

1. 기초는 신애, 충의, 용감, 인내 등의 덕목을 갖춘 인물들을 공고히 단결하게 하여 민족 운동의 간부들로 육성되는 단계.
2. 진행준비는 위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학업단이나 실업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계,
3. 완전준비는 학업단과 실업단의 활동에 의해 각 부문의 전문 인재가 배출되고 재정이 비축되는 단계,
4. 진행결과는 드디어, 독립 전쟁을 결행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민족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
5. 완전결과는 마침내 일제를 구축하고 광복을 실현하여 이상적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

위의 민족 운동 단계를 보면, 1 단계는 흥사단 운동론, 2와 3 단계는 독립 전쟁 준비론, 그리고 4와 5 단계는 민주 국가 건설론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도산의 총체적 민족 운동 구상 속에서 흥사단은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 수립에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전한 인격과 유능한 자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인격훈련과 단결훈련을 시켜 민족 운동의 간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도산의 민족 운동 구상은 한국 민족의 독립과 번영이라는 과제에만 한정되지 않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도산이 본 당대의 한국 현실은 국가적으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식민지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근대화에 뒤쳐져 낙후된 까닭에 문명 부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행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 의식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 달성에 그치지 않고 독립 이 후에 까지 미쳐 되찾은 나라를 문명 부강한 나라로 가꾸어 한국 민족 전체가 행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가 민족 운동 구상도에서 조국 증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다 문명 한국, 행복 한국의 건설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또한 한국민의 현실과 과제가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약소 민족들 공통의 현실이고 과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행복 실현이라는 과제는 비단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목표가 아니고 전 인류 공통의 염원이기도 했다. 도산에게 한국 민족의 행복은 동시에 전 인류의 행복 실현이라는 궁극적 지향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산의 생애와 행적에서도 그가 먼저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할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족의 혁신과 개조를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실행 조직으로 신민회와 청년 학우회 그리고 흥사단을 창립한 것과 아울러 일제를 축출하고 한반도 위에 새로운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립협회와 신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 독립당 등을 만들거나 이끌었던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독립 이후의 한국, 나아가 모든 인류가 함께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한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민족과 전 인류의 행복까지 연결시키는 매우 광범위한 사상체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박만규, 흥사단과 민족 운동, 2003)

도산의 사상은 흥사단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흥사단 운동은 어떠한 이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장리욱은 “흥사단은 우리 민족이 있는 한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할 단체이다. 흥사단 운동이란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지어 판단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민족을 의미있게 지켜주는 단체이다” 고 말한 바 있다.

흥사단 약법 전문을 기초한 주요한은 “흥사단 창단 이념이라는 제목의 강연(1969/5/9 제 587 회 금요 개척자 강좌)에서 약법 전문에 내포된 흥사단 운동의 이념적 특성을 정리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골간으로 재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흥사단은 민족을 이념의 구심점으로 삼아 설립된 단체이다. 흥사단은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민족을 중심 개념으로 삼는다. 서구에서 근대 민족 국가(Nation- State)는

산업화 및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형성되었다.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관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이념을 형성하여 현대 사상의 지배적 경향을 이루게 되었다. 근 현대 사회에서 민족은 가장 의미있는 공동체의 모형이다. 흥사단은 근대 한국의 형성기에 일제에 의해 좌절된 근대적 민족 국가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역사적 운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한 여러 단체 가운데 기독교적 복음 세계의 확대라는 종교적 목적을 지닌 여러 단체들의 활력이 컸으나 흥사단은 종교에 구속받지 않고 민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국가의 지리적 경계가 느슨해진 지구촌 사회에서도 민족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닌다. 흥사단 이념의 기저에 있는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수주의와 구분되는 것으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과 통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둘째, 흥사단은 역사의 변화를 믿는 발전적 역사관을 가진 단체이다. 도산은 일찌기 개조의 철학을 역설하였다. 그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개조하고 인격을 개조하고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이상적인 수준과 단계로 발전시켜 가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조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였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와 역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정신이 바로 발전적 역사관이며 이는 도산 사상에 근거한 흥사단의 철학적 역사관이다.

세째, 흥사단은 인간의 기본 능력을 신뢰하는 단체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변화는 물론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지닌 존재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흥사단은 인간을 사회와 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발전의 기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흥사단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꾼을 기르며 그를 통해 일을 도모하려는 교육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의 변화 보다는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새 사람 만들기' '새 사람 되기'에 역점을 두는 운동관을 견지하고 있다.

네째, 흥사단은 Elite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단체이다. 흥사단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Elite의 역할과 지도력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이념적 특징을 갖는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면 핵심 세력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의 핵심 세력인 Elite를 양성하자는 것이 흥사단이다. 흥사단의 '흥사(興士)'는 문사와 무사를 두루 아우르는 인물로서의 선비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 Elite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의 올바른 사업 방향과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일꾼을 말한다. 흥사단에서 말하는 Elite 는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직종과 직업이든지 그 분야의 일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흥사단이 키우려는 인물과 지도력의 핵심은 자신부터 참되기를 힘쓰고, 신의를 지키며, 용기있게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 있다. (흥사단 교본, 1996 pp 65-67)

도산 사상은 우리 민족(특히 청년,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먼저 도산이 청년, 학생들에게 부치는 메시지부터 살펴 보자.

인격 완성, 단결 훈련

대한 청년 제군에게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하여야만 될 말이 많으나 경우로 인하여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다만 그 중의 몇 가지만을 말하려 한다. 지금 우리는 참담 비통한 고해에서 헤메이며 암흑한 운무 중에 방황 주저하고 있다. 이 비상한 경우에 처한 대한 청년 제군이 이 고해를 헤쳐 나아갈 길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오늘 일반 민중에게 큰 기대를 많이 가진 제군, 또 스스로 큰 짐을 지고 있는 제군이 하여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쓸 것은 인격 훈련,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현하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하여 냉대시 하는 이도 있고, 또는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인격 훈련이나 단결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앉아 있겠느냐고 이것을 배격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때이기 때문에 인격을 훈련하고 단결을 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대한 청년이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을 하고 아니 하는 데 우리의 사활 문제가 달리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며,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을 것이다. 만일에 힘을 떠나서 목적을 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공상이다. 제군이여! 일은 힘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만일 이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 하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 제군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사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여 본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의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의 민족적 결합력이 박약한 것이다. 우리가 일찍 패망한 것이 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요지 부동하고 굳센 민족적 결합력이 있는 후에야 성공을 기대할 것이다. 민족적 결합력이 선결 문제요, 이른바 방침 계획은 둘째 문제다. 만일 결합력이 공고만 하고 보면, 그 결합체가 때를 따라 방침과 계획은 고치어 가면서 능히 목적을 도달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결합된 힘이 없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없지 아니한가.

우리가 일찍 단체 생활의 훈련이 부족한 민족인 것을 자인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특별히 단결을 훈련하여 공고한 대 결합력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단결 훈련보다 인격 훈련에 있어서는 더욱 냉담시하는 이가 많은 줄 안다. 이것은 큰 착오의 생각이다. 현시 세계 각 방면의 각종 운동이 있는 중에 그 운동이 힘있게 진행되고 성공되는 것은 그 운동 중에 건전한 인격을 가진 분자가 많은 때문이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운동이 퇴축하며 실패하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건전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표방하고 단체를 조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힘있는 운동이 되어지지 못하고 간판만 남는 것이 한탄이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직에 합당한 지식, 조직에 합당한 신의, 이것을 갖춘 그 인격없는 것이 한 큰 원인이다. 단결의 신의를 굳게 지키며 조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고서는 간판 운동이 아닌 실제적 힘있는 운동을 할 만한 결합을 이루기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고해를 벗어나고 활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할 일이 여러 가지지마는 제군이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이 큰 관계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오늘부터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을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기본적인 인격은 어떠한 것이며 훈련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 것과 단결 훈련의 실체가 무엇인 것은 앞날의 연구에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제군이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이 필요한 것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며, 오직 인격을 훈련하되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부터 협동적으로 하여 전 대한의 산과 들을 물론하고 인격 훈련을 목표로 한 운동이 편만하기를 바란다. (동광, 1931년 2월호)

유학생들에게 새 소망을 주다

도산은 1925년 미국에서 3개월 가까이 중동북부 유학생들을 찾아 그간의 독립운동의 정황을 설명하고 민족정신을 불려 일으킨 것은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국가 건설에 새로운 희망을 일깨우는 작업이었다.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고학을 하며 장래는 물론 독립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논쟁을 벌였을 때 도산의 기쁨과 희망은 가슴이 벅찬 일이었다. 지난 20여 년간의 해외 활동에서 보지 못했던 젊은이의 지성과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의학을 전공하던 이용설은 '허둥지둥 대던 유학생들의 심정에 한 줄기 밝은 빛을 주었고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표현했다. '우리 민족에게 해외 한인사회에서 도산이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유학생들에게 새 소망을 주었으며 그의 민족의 장래에 대한 토론 후 흥사단에 가입하지 않은 이가 별로 없을 정도였다'. 도산은 많은 유학생들에게 '오늘의 대한 학생'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가 조국의 근대화에 직접 기여했고 해방 후 미 군정과 정부 수립 후, 현대화 작업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윤병욱,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 2005 박영사, PP472-475 참조)

오늘의 대한 학생

오늘이라 함은 과거나 미래를 말함이 아니요 현시에 되어진 경우를 말함이며 대한 학생이라 함은 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이를 가리킴이외다. 무릇 학생은 누구든지 할 것없이 다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준비를 하는 자외다. 생존과 번영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되는 것이므로, 활동 그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며 많으면 크게 번영하고 적으면 적게 번영할 것입니다.

그런즉 인류 사회의 생존은 사람의 활동에 있고, 사람이 활동할 무기를 잘 준비함에

있고 이 무기를 예비하는 자는 곧 학생이외다. 그러므로 대한의 학생된 이는 먼저 대한 사회로부터 세계 어느 사회든지 나아가 활동할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활동에는 허명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이 있습니다. 무슨 취지서나 발기문이나 신문 지상에서나 어디나 버젓하게 성명이나 쓰는 것은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실제상 자기가 마땅히 할 직분을 이해하는...(원본 탈락) ...경우에 의지하여, 또 미국이나 중국의 학생은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 의지하여 준비하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외다. 대한의 학생은 대한의 오늘 날 경우에 의지하여 준비하여 가지고 대한 사회에 또 세계 사회에 나아가 활동하여야 되겠습니다.

직분을 이행한다 함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한다 함인데 의무로 말하면 자신의, 친족에, 동족에, 국가에, 세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각각 그 의무를 잘 이행하려면 먼저 자기의, 가족은, 동포는, 사회는, 국가는 아울러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하 우리는 민족적으로 남과 다른 경우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 문화는 극도로 쇠퇴하고, 신문화는 지금 움돋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 구도덕은 깨어지고 신도덕은 없어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영. 미국의 학생들은 그 부모나 동네의 연장자되는 이가 선진자 계급에 있으므로 그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마는 오늘 대한의 청년은 선진자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하는 이 없는 가련한 이들이 제맘대로 국내 국외에 뛰놀아 무엇을 배우려 합니다. 또 다른 나라 학생들은 학자가 넉넉하여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우지마는, 우리 대한 학생은 그렇지 못하외다. 비교적 학비가 덜드는 문학이나 신학 같은 것은 배워도 공학 같은 기술적 학문은 좀체로 배우게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유혹이나 물들기 쉬운 험악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오늘 날 이와 같은 가공한 경우에 처한 대한 학생으로서 그 직분은 매우 크외다. 이 학생된 이의 손으로 우리의 집이나 사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멸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대한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의 흉내나 내지 말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학생들에게도 다행이 되고 온 민족에게도 다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남은 알든지 모르든지 대한 민족에 대한 헌신적 정신과 희생적 정신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한 민족을 다시 살릴 직분을 가진자로서 이 정신이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자주라 독립이라 평등이라 하는 것은 다 자기를 본위로 하는 이기적이외다. 어떤 때의

일시적 자극으로 떠들다가도 그 마음이 까라지면 다시 이기심이 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본위로 함은 이것이 진리요 자연이외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몸과 목숨을 내놓고 부모나 형제나 동포나 국가를 건진다 함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외다 이 헌신적과 희생적으로 하여야 부모와 형제가 안보되고 민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동시에 자기의 몸도 있고 생명도 있으려니와 만일 이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몸과 아울러 사회가 더 보전되지 못하는 법이외다. 가령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여기도 헌신적과 희생적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대한 학생된 이는 옛날에 자기의 명리를 위하여 과거하려는 듯이 하지 말고 불쌍한 내 민족에 대한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길러야겠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이 정신이 더욱 필요하외다. 학생이 되어서 무엇을 좀 안 후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만큼 모르는 자기의 부형이나 마을의 어른들에 대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따라서 제 민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동족을 저주하고 질시하고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만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여기어야 옳고, 남의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저주할 것이 아니라 포용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동족을 위하여 헌신적과 희생적으로 힘쓸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이는 걸핏하면 제 동족의 결점만을 들어 가지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 사람은 더 잘 배울 기회를 가졌거나 좋은 때를 만났더라면 누구보다 조금도 못할 인종이 아니외다. 그러므로 제 동족에 대한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체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옳겠습니다. 제 동족에 대한 긍휼심이 적으면 외적에게 대한 적개심이 빈약한 법이외다.

세째,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겠습니다. 대한의 일은 대한 사람된 내가 할 것인줄 아는 동시에 대한 사람된 이는 누구나 다 분담하여 가지고 공동적으로 하자 함이외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을 저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이에게 소위 야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결과에 하려는 일은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분쟁이 생깁니다. 제가 무엇을 다한다고 하다가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고로 과거의 성공이 없음과 장래가 아득한 것을 보고는 곧 비관하여 낙망합니다. 나와 다른 이가 다 함께 할 것으로 아는 이는 자기는 비록 성공을

못하더라도 다른 이가 성공할 줄을 믿고 또 자기 당대에 못 이루고 죽더라도 자기 후손이 이어서 할 것으로 여기면서 낙망이 생기지 않고 오직 자기의 할 직분을 다할 뿐이외다. 그 민족 전체에 관계되는 사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고 전 민족의 힘으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하여 나의 직분을 다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온 민족이 협동하여야 할 정신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너와 내가 다 함께 한다는 관념이 절실하여지는 날에야 성공이...(원본 탈락)...있어야겠습니다. 협동적 관념이 있어지면 공통적 주장과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 이 협동적 정신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여 두어야 공통적 큰 사업에 나아가서도 협동적 실행이 있어지겠습니다.

이 위에 말한 것은 정신 방면을 말한 것이외다. 이제는 실질 방면에 들어가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함이외다. 전문 지식을 못가지겠거든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기술이라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말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그 살아갈 만한 일을 참으로 지어야 사는 세상이외다. 실제에 나아가 그 일을 지으려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학식이나 기예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있고야 자기와 가족과 및 사회를 건집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옛날 진사 대과를 과거 보러 다니던 관념으로 허영을 위하여 공부하는 이가 많습니다. 실사회에 나아가 직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실지의 학문을 배우려는 이는 적고 아무 대학을 마치었다는 이름이나 얻기 위하여 법과 같은 데로 들어가서 사각 모자 쓴 사진이나 박아서 보내는 것으로 성공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졸업한 후에는 다시 더 학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직업을 표준하지 않고 허영적 영웅을 표준하는 이가 많을 듯 하외다. 만일 실지 학문을 배워서 정당한 사업에 나아가지 않고 흰수작과 난봉이나 부리면 그는 차라리 학교에 아니 다니고 집에 있어서 부모를 위하여 소먹이고 풀 베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 학생은 인도자가 없는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구제 방법을 말하려 합니다. 곧 오늘의 대한 학생은 제각기 산산이 헤어져 있지 말고 다 함께 뭉치어 그 뭉친 덩어리로 한낱 선도자를 삼아서 여기 속한 이들이 자치적 훈육을 받으라 함이외다. 그리하면 힘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훈육을 줄 만한 선도자와 완전한 훈육의 기관을 가진 다른 선진국 학생들도 오히려 자치적 훈육의 지도를 취하거든 하물며 아무것도 못 가진 오늘의 대한 학생으로서 어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국내 국외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양의 단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향이외다. 이렇게 일어난 단체들이 또 각각 서있지 말고 다 한데로 모여 하나가 되면 그 힘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촛불은 ...(원본 삭제)...끄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널리 불쌍한 동족에게 비추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이가 많을 줄 믿습니다. (동광, 1926년 12월호)

다음은 도산 사상을 청년 학생들의 가슴에 아로새긴 흥사단 아카데미운동의 탄생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자.

흥사단 아카데미운동

흥사단은 창단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과 광복이라는 절대 절명의 민족적 과제를 정신적 구심점으로 하여 활동해 오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과제는 해방된 조국을 어떻게 재건하고 부흥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부흥은 시대적 과제이며 유행어가 되었다. 그리하여 흥사단의 접두사로 '민족부흥운동'이라는 구호를 덧붙이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6.25가 일어날 때까지 많은 인물들이 민족부흥의 깃발아래 모여들어 흥사단 운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러나 6.25 이후 자유당 정권이 전횡을 강화하고 흥사단우에 대하여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면서부터 입단자 수가 급격히 줄어 들다가 4.19 혁명으로 새 봄을 맞는 듯 했으나 급기야는 1961년 5.16 쿠데타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 후 약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1963년 활동이 재기되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각종 모임과 잡지 <새벽>을 발행하며 노력하였으나 새로운 단우의 확보는 어려웠다.

1950년대 후반부터 흥사단이 늙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와 함께 청소년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956년 연차 대회 대회사에서 주요한은 새 세대의 청년에게 바톤을 넘겨줄 시기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1960,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흥사단은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임원회에서는 흥사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전문

위원회, 지방 조직의 부활, 흥사단 부흥회, 순회 강연, 도산 전기 보급 등이 그것이다.

1961년 창단 기념 대회는 연 3일에 걸쳐 다채롭게 진행되어 밝은 미래를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1963년 7월까지 긴 겨울이 닥쳐왔다. 긴 동면 끝에 정부 당국에 사회 단체 등록 절차를 마치고 새롭게 활동을 전개하면서, 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청소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요청은 드디어 '아카데미'란 새로운 청소년 운동체로 구체화 되었다.

1963년 9월 1일에 제정된 '세포의 조직과 운영 요강'에 따라 각 지역 분회 조직과 청년 아카데미, 대학생 아카데미, 고등학생 아카데미, 중학생 아카데미, 소년 아카데미를 창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아카데미와 분회가 창립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분회보다 오히려 아카데미가 먼저 창립되었으며, 그 후 오랫동안 지방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체의 생명을 아카데미에 의하여 유지 되었다.

이처럼 세포 조직의 확대와 아카데미 조직의 활성화에 따라 흥사단은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갔다. 새 기관지를 발행하고 수 백회에 걸친 전국적인 순회 강연을 통하여 도산 사상과 흥사단 주의를 전파하였다. 이 순회 강연회에는 주요한, 장리욱, 안병욱, 신상초 등의 단우를 포함하여 저명한 단 내외 인사들이 참여 하였으며, 이들의 열정적 활동은 도산 사상을 청년 학생들의 가슴에 아로새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활발한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늘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는 재정적 기반의 확충이었으나 각종 모금 운동과 저축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로써 흥사단이 내건 인격 혁명과 민족주의 이념은 젊은 청소년 층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직과 운영 및 독특한 의식과 선배 단우들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그 집단에 소속된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 후부터 대학생 아카데미는 전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향하는 학동아리로 변화하였다. 유신 이 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학생 운동 중심의 아카데미 운동은 저항적 투쟁적 성격이 점점 강화되면서 거의 모든 아카데미가 완전히 학생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대체로 대학생의 의식화 커리큘럼을

통해 세계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철학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실천적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학습과정을 거친 대학생 아카데미는 비록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대체로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단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는 한편, 이념상의 이질화 문제와 아울러 관리의 통제에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본부 임원회에서 아카데미 조직 관리 및 지도 지침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1980 년도에 들어 오면서 설상 가상으로 군사 정권에 대한 대학가의 저항과 반체제 운동이 가속화되고 아카데미 회원들이 각 대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 본부는 물론 지방 조직들이 음으로 양으로 압력과 감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단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지도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기성 단우들의 소극적인 지도 노선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전통적인 흥사단 이념 자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단의 지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분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단우인 지도 교수와 지도 교사가 있는 몇개 지부 산하의 소수 아카데미를 제외하고 이미 흥사단의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탈되거나 거의 와해됨으로서 아카데미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학생 아카데미 운동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 내적으로는 조직이 급격하게 증대했으나 이를 관리할 지도 역량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한 조직 체계의 이완과 이념상의 이질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대 외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학생 사회의 가치관 및 학생 운동 양상의 변화에 흥사단이 과학적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아카데미 운동은 한국 학생 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양적, 질적 성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흥사단 내적으로는 조직을 확산하고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우 양성에 기여했다. 현재 흥사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거의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입단을 하지 않았지만 수 많은 아카데미 출신들이 흥사단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 마디로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발전된 한국 사회를 이끈 일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아카데미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단 지도부로서는 힘에 벅찼고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 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각 대학 학생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전통적 흥사단 운동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하여 단의 단결력을 해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 단의 노령화, 노쇠화를 막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탄생된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은 한 세대 동안 그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사단 교본 2010)

도산 사상의 실천 사례로서 제시한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바로 흥사단 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이어진다. 이들을 다시 10 가지로 구분해 본다.

1. 흥사단 운동의 이념상의 이질화 문제
2. 조직 증대로 인한 총체적 관리 능력 부족
3. 지도자의 부족과 지도력의 한계
4. 조직 체계의 이완화 현상
5. 청년, 학생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6. 학생 운동의 과격화, 비판 세력의 등장
7. 재정적 기반의 부족
8. 흥사단의 높은 문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9. 엄격한 입단 제도
10. 입시 중심 교육체제로 인한 편향된 교육적 관심

도산 사상(흥사단 운동론)의 실천적 방안

흥사단 운동의 이념적 특성에서 밝혔듯이 흥사단은 엘리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단체이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면 핵심 세력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의 핵심 새력인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것이 흥사단이다. 그동안 흥사단은 아카데미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핵심 세력인 수 많은 엘리트를 배출시켰다. 이들 때문에 한국의 국력은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세계 각국에 퍼져서 국위를 떨치며 살고 있다. 따라서 흥사단의 이념도 창립 이념을 근간으로 하되 역사를 딛고 새로 변화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꾼 '온 인류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흥사단 운동을 세계화 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흥사단은 사회 발전을 위한 경험과 지적 자산을 다양하게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산이 내다본 발전적인 역사관을 토대로 민족을 인류 공동체로 개조의 원동력을 인류의 지속 가능 원동력으로 개념화 해 나간다면 흥사단 운동은 세계적인 지적 정신적 수출자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도산 사상의 핵심인 흥사단 운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흥사단 운동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흥사단 운동의 Mission 과 Vision Statement 를 명료하게 기술해서 흥사단이 무엇을 하자는 단체인지 먼저 알릴 필요가 있다.

흥사단은 인간의 기본 능력을 신뢰하는 단체이다. 인간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자아 혁신과 동맹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 혁신과 동맹 수련은 사회적 실천과 봉사로 꽃을 피우게 된다.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를 위한 세계 시민 정신으로까지 확대된다. 도산이 휘호로 남긴 애기 애타(愛己 愛他)의 정신이 바로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사상 체계 속에 자리 잡은 가치로서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그는 민족개조론의 구체적 표현인 흥사단 사상을 통해서 수련을 매우 강조했다. 덕. 체. 지 세 방면의 수련을 통해 자기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봉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때 이웃이란 가까운 친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 나가면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타는 봉사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본다.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은 바로 애기 애타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구상을 해 보았다.

Mission(사명)

흥사단 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롭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Elite 들을 단합하고 실천 봉사하여 인류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명을 갖는다.

Vision Statement (비전 선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자신부터 참되기를 힘쓰고 신의를 지키며 용기있게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온 인류의 행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Elite 는,

1. 자아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2.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는 사람이다.
3. 단체 활동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4.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는 사람이다.
5. 공익을 우선하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연결(Net-work)하고자 하는 사람은,

1. 지역사회 지도자(Leaders)
2.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다양한 시각과 열정을 보이는 사람
4.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
5.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우리가 하려고 하는 Program 은

1. 애기애타 Leadership Academy (가칭 K-academy Training Center)

흥사단 목적 조문에는 2 대 강령으로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을 내 세우고 있다. 이것을 도산의 애개애타 리더십으로 개념화 하고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 덕목(Leadership Qualities)과 원칙(Leadership Principle)을 제정해서 International Leadership Training Center 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흥사단에서는 이미 새로운 인재양성 운동으로 리더십 훈련 자료를 많이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도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미래사회리더스쿨,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 경험을 살려서 국제적인 리더십 훈련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2. 흥사단 봉사대 (가칭 K- Corps) 조직과 활동

흥사단이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갖고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구상이다. 리더십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과 기존 단우들이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 이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흥사단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 일부터 점진적으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국제적인 봉사단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3. 전문가 포럼 (가칭 Heung-sa Forum)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Projects 를 추진하는 일이다. 주제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각종분쟁해소, 지역사회 소득증진, 인종 갈등해소, 보건 위생 등에 대한 세미나, 포럼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도 흥사단 운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앞서 흥사단 운동의 과제로 조직의 관리와 운영체제에 문제가 많았다. 흥사단 운동이 세계적인 동질성을 지닌 조직의 확대로 연결되게 하고 지속적인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높은 수준의 통찰과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흥사단 조직은 현재 본부 밑에 지부와 해외 자치 조직으로 위원부가 있고 지부 밑에 분회와 아카데미를 두는 기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기본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지만, 세계화 측면에서 볼 때 해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과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엄격한 입단체도를 완하시켜 간단한 신원 확인 및 임원회의 승인 절차로 단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종, 국적,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서활동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고 사업이 책정되어도

운영 기금이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이 기회에 흥사단 재단(가칭 Heungsadan Foundation)도 조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흥사단 운동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집중적인 멀티 미디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아울러 Network System 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21 세기는 Internet 과 Digital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되는 지식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유통 속도가 가속화되는 반면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된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제도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자기 주도적 활동을 전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흥사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검색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Multi Media 환경을 구축해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Multi Media 의 이점은,

1. 정보의 가공 편집이 용이하다.
2. 상호 대화 형태의 조작성이 가능하다.
3. 전송이나 출력에 의한 정보의 저질화를 방지한다.
4. 정보의 검색이 용이하다.
5. 대용량 정보의 압축과 복원이 가능하다.
6. 패킷 통신 기술로 편리하게 송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현대는 한 마디로 Network 시대라 할 수 있다. 전문적 분야나 특정 공통된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활동으로 Networking 은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 각 단체와 조직에서 매일 Network 로 이루어진 삶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Network 를 확장하라고 한다. Global Network 는 문화와 언어, 세대 그리고 지리적 간격을 메우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흥사단의 세계화는 Multi Media 의 환경 구축과 Global Network 의 확장에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

맺는 말

장리욱은 도산의 사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도산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많은 젊은 세대 가운데는 그의 인격과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상의 체계나 본질을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만일 누군가 도산에게 그 일생을 그대로 살 수 있게 한 그 사상과 이념, 또 그 힘은 무엇이었던가,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 것인가? 지금 내가 헤아리는 한 도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이것이다’ 하는 식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같은 책, P66)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오늘 도산의 사상과 주의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는 길은 그의 직접적 답변보다는 오히려 그의 생활을 살펴 보면서 그 이면에서 줄곧 흐르고 있는 그 힘의 성격과 또 그 정도를 알아보는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남긴 수첩 속에 도표 형식으로 짜여진 민족 운동 구상과 그의 행적을 살펴 찾아 낸 사상이, 독립 전쟁 준비론, 민주 국가 건설론, 그리고 흥사단 운동론이었다. 그 중에서 흥사단 운동론은 그의 핵심 사상으로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대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탄생된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은 한 세대 동안 그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흥사단 운동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흥사단 운동론은 우리가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적, 정신적 수출자원으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흥사단의 이념과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어디서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Multi Media 구축과 Network 를 확장해 나간다면 도산이 꿈꾼 온 인류의 완전한 행복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한 글과 책

- 장리욱, 도산의 인격과 생애, <나의 사랑 한반도야>
- 주요한 편, 안도산 전서, 1979 서울 샘터사
- 흥사단 교본 1996 , 2010
- 박만규, 흥사단과 민족운동, 도산학회 편
- 윤병욱,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 박영사 2006
- 도산사상연구회 편, 도산사상연구 1986 제 1-4 집
- 이만열, 코리언 아메리칸의 역할 모델, 도산학회 편

김상안



<약력>

1976년 미국에 이민, 자영업을 하면서 흥사단에 입단하여 흥사단 미주위원부 산하 서북미 지부장을 역임하고 도산 안창호의 인격과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도산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역한인사회에 봉사함.

미출간 저서로 “힘을 기르소서” (칼럼)와 “미주한인이민역사” (강의록)가 있음.

tacomakim253@gmail.com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Justice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Lens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and Philosophies

Dorothy Joo Kowal

Introduction:

As neither an undergraduate student or a graduate student, I write this essay in the spirit of respect, admiration, and with an offering of my sincere and humble thoughts on the correlation between Dosan Ahn Chang-ho's work as an activist and leader in the equity, inclusion and justice space in the early 1900's and the work of such leaders and educators now. As the Director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t an independent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 in Northern California, I found great comfort and meaning in the ways Dosan Ahn Chang-ho led through service, and purported the notion of independence, power, strength, and freedom as something that must be nurtured within ourselves before we can make national or even global change. In this essay I will connect my equity and inclusion work with young people in education to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Dosan Ahn Chang-ho and Heung Sa Dahn, as well as offer my ideas and opinions on the ways in which Dosan Ahn Chang-ho's thoughts can be utilized in mobilizing student leaders working for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justice. This essay may not feel as academic in nature as some, but speaks to my own experience developing young leaders in schools, my identity as a Korean American daughter of a 60 year long Heung Sa Dahn member, and an activist in my own right. I have spent most of my career mobilizing and inspiring student leaders towards growth in the following areas that can be aligned with or seen through the lens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teachings and philosophies:

- I. Affinity groups and empowering identity development
- II. Compassionate leadership of service in affinity
- III. Leadership that begins with internal character and self-awareness

- IV. Good character and "Sacred Unity" (allyship) as pillars of social justice-based leadership
- V. Facilitating brave spaces to ignite social change
- VI. The importance and fragility of democracy
- VII. Hope and joy as components of the marathon that is activism
- VIII. Pursuit of impeccable speech

I. Affinity Groups and Empowering Identity Development

When Dosan Ahn Chang-ho developed community organizations of like-minded individuals with a common set of values and principles, what we would call such groups today is "Affinity Groups." Affinity groups can be defined as a gathering of people with a shared identity, for example, race, ethnicity, religion, gender identity, etc... Affinity groups are for individuals who identify as members of the group and can speak to the experience of being a member of this group from the "I" perspective. We self-segregate into unofficial affinity groups naturally, whether it is based on one of the above factors, or purely based on interests or values. In my work with students over the past three years we have developed race-based affinity groups to develop leadership skills and self-empowerment in a safe and brave setting. The three objectives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se spaces include: developing self-awareness, developing awareness of others, and understanding bias, both implicit and explicit. Dosan Ahn Chang-ho was explicit in his belief in "character training." In the affinity groups, students can express shared experiences of marginalization, stereotyping, microaggressions and in so doing, find their inner strength through vulnerability, communication, listening, and developing a greater depth of empathy and unity through this process. I believe that this is similar to what Dosan Ahn Chang-ho accomplished through Heung Sa Dahn in 1913. If we were to instill more of the Heung Sa Dahn spirit into our affinity group development at my institution, I would suggest that Dosan Ahn Chang-ho would have wanted to see affinity groups more intentionally through a strategic lens. Rather than an operational

or tactical need to address student support, we would see our affinity groups as foundational to empowering student voices to move the needle on social justice outside our insular community. In practice, seeing the establishment of affinity groups for our school's most marginalized populations as holding a greater purpose beyond our community's needs, and envisioning what that would look like and mean, would bring in the spirit of Dosan Ahn Chang-ho's teachings. This would benefit seeing our internal work as directly connected to the world outside of ourselves in a tangible way. Dosan Ahn Chang-ho never thought small or selfishly. His vision was always for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all. In this spirit my strongest student leaders should hold as grand a vision as Dosan Ahn Chang-ho and consider allyship to others as a core value.

The Asian American identity development model offers yet another lens to see identity-based awareness as core to human emotional maturity (Kim J., 1981). Kim laid out a five-pronged model that was based mostly on Japanese Americans, but has resonance across other East Asian American identities. The stages include: *The Ethnic Awareness Stage*, *The White Identification Stage*, *The Awakening to Social-Political Consciousness Stage*, *The Redirection Stage*, and *The Incorporation Stage*. 70 years after Dosan Ahn Chang-ho came to California and saw the state of poverty of environment, spirit, and mind of his fellow Koreans in America, academics were just beginning to consider the ne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Asian identity, specific to living in a white country. In the type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ducation I am leading for teenagers today, we continue to go back to Kim's model to understand the unique nature of being Asians in America, however, if we applied Dosan Ahn Chang-ho's lens of personal development as a layer on top of Kim's model, what could be learned? What I am promoting here, is the academic adoption of Dosan Ahn Chang-ho's identity development concepts as counter or in congruence with existing models that appeared several decades later. For example, in the second to last stage: *Redirection*, Kim describes the following:

" The Redirection stage means a reconnection or renewed connection with one's

Asian American heritage and culture. This is often followed by a realization of White oppression as the culprit for the negative experiences of youth. Anger against White racism may become a defining theme with increases of Asian American self and group pride.”

If I were to reconsider this statement with Dosan Ahn Chang-ho’s philosophy about character development, I may replace “Asian American heritage” with “Korean heritage” and rather than “White” oppression, suffice to say “oppression” by whoever is holding power. The last stage, *The Incorporation*, is explained as follows:

“The Incorporation stage encompasses the development of a positive and comfortable identity as Asian American and consequent respect for other racial/cultural heritages. Identification for or against White culture is no longer an important issue.”

This last stage, is one that I see as holding even more congruence with Dosan Ahn Chang-ho’s goal of character training: empowered and self-regulated identity that comes from within, rather than in contrast to or in comparison to others, even if the others hold more power, privilege, wealth, etc...Holding Dosan Ahn Chang-ho’s thoughts on identity development as central to political activism and community organization seems like a natural connection to make, that modernizes the use of his teachings to potentially feel more relevant to young students today.

II. Compassionate Leadership of Service in Affi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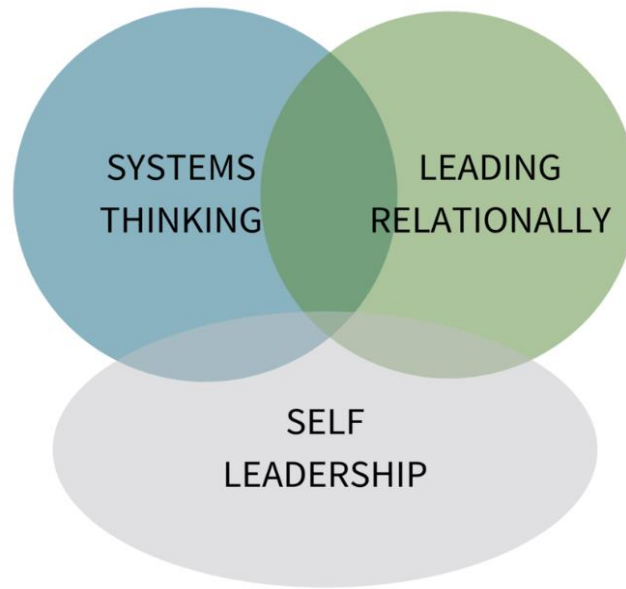
When I first read of Dosan Ahn Chang-ho’s service to his fellow Koreans upon his arrival to California, it brought tears to my eyes. I believe this to be for two reasons. First, his heartbreaking dedication to leadership of service, and secondly, his strategic approach that was rooted in compassion. In teaching students about race, class, and privilege in the U.S., there is now an academic commitment to discuss the farmworkers unions, community organizers Cesar Chavez, and Dolores Huerta. Living

in Sonoma County, an agricultural region, my students are keenly aware of the plight of the local migrant who is picking grapes under severe climate conditions that have rapidly changed the landscape of California over the past five years. They see the systemic racism, classism and negative aspects of capitalism playing out before their very eyes daily. We discuss it in class. We talk about the bracero program of the 1940's that temporarily allowed work permits to millions of Mexicans who were never paid, to "ease labor shortages," and the united farmworkers movement of the 1960's that led to more labor worker rights for some groups of people. Typically, the conclusion made by students is that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i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y have no power or privilege and continue to be disempowered, mistreated, and are seen as disposable by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academia, we approach this topic from a mostly systemic vantage point. We ask: "What are the systems that allow this to happen?" "Who does this benefit?" We do not tend to look at individuals being affected but look at the farmworkers as a monolith in need of policy and laws to have not just a better quality of life, but a fair and humane quality of life. If Dosan Ahn Chang-ho's teachings and thoughts were applied in the teaching of this important part of American history, we would examine his approach of starting with individual care and education as the first step or foundation to create eventual systemic change. The model of thinking that would place the lens of Dosan Ahn Chang-ho's approach explicitly alongside, or in conjunction with the following model of leadership would b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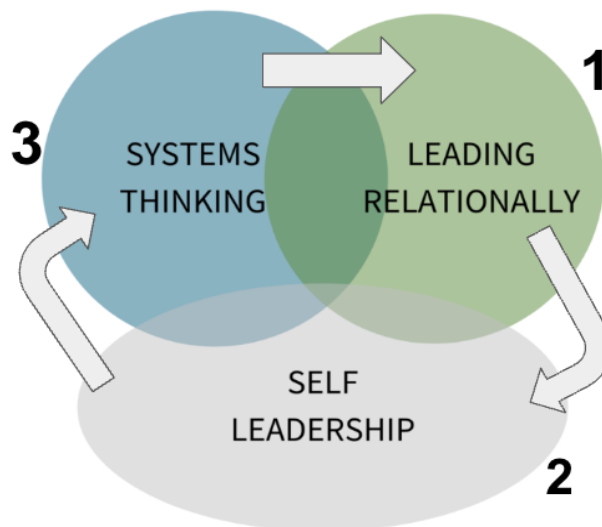
1. Compassionate Systems Leadership

(<https://www.compassionatesystemsleadership.net/>)

The model of CSL as laid out by the BC Compassionate Leadership Institute's Joanne Schroeder and Pippa Rowcliffe mimics much of Dosan Ahn Chang-ho's approach and I doubt these two Canadian directors of this institute knew anything related to his work or the work of Heung Sa Dahn. However, if we lay



Dosan Ahn Chang-ho's way of working with the Korean farmworkers of the early 1900's in California, the CSL model affirms his methods. I would only add arrows that would indicate the flow of this cycle with a clear starting point in the green area of "Leading Relationally."



Rather than a static model, it is a cyclical and iterative one where with a strong, character conscious leader can begin at 1 with compassion oriented leadership, this

will organically move the cycle to stage 2, where the relational leadership of stage 1 continues to infuse and inspire self-leadership in others with less power and privilege either economically, politically, educationally or otherwise. Leadership capacity is built within the community in the brave/safe space of affinity in stage 2 to pave the path for stage 3, which is an eventual system impact to change policy and power structures that are hurting the most marginalized populations. The layering of these two models was not hard to imagine. In terms of a modernization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and philosophies, or "realistic application" within the current context of national and global events and movements, I would suggest that more business leaders and business education leaders at institutions like but not limited to the Stanford School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School, or the Wharton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ake time to look at the real life application of the above model throughout Dosan Ahn Chang-ho's political and community organizing career. Currently, Stanford supports The 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Their mission and vision is as follows:

"While science has made great strides in treating pathologies of the human mind, far less research exists to date on positive qualities of the human mind including compassion, altruism and empathy. Yet these prosocial traits are innate to us and lie at the very centerpiece of our common humanity. Our capacity to feel compassion has ensured the survival and thriving of our species over millennia. For this reason, the 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and Education (CCARE) at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as founded in 2008 with the explicit goal of promoting, supporting, and conducting rigorous scientific studies of compassion and altruistic behavior. Founded and directed by Dr. James Doty, Clinical Professor of Neurosurgery, CCARE is established within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To date, CCARE has collaborated with a number of prominent neuroscientists, behavioral scientists, geneticists and biomedical researchers to closely examine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mpassion and altruism."

While this institute outwardly aligns itself with more medically related study, I would

make two cases that the incorporation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and philosophies throughout the coursework at Stanford's 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and Education hits both medically related discourse, as well as therapeutic rhetoric. In the first case,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bills have been proposed that define racism and anti-identity politics as a public health crisis. As reported by Harvard's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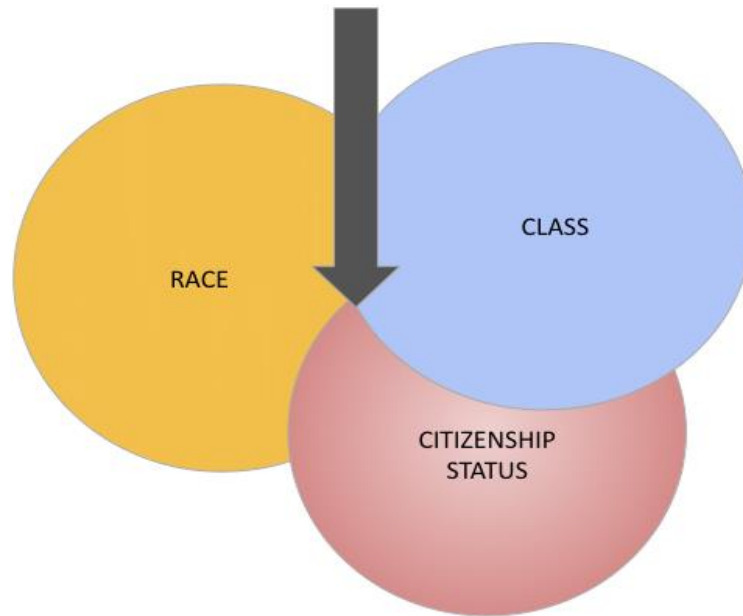
Since 2019, policymakers from more than 50 American municipalities and three states have formally highlighted racism as a public health crisis. And on September 3, 2020, Rep. Ayanna Pressley (D-Mass.) introduced the Anti-Racism in Public Health Act in Congress."

The mistreatment of Korean farmworkers and the subsequent squalor of their living conditions and habits that so troubled Dosan Ahn Chang-ho, was rooted in racism. The root idea that the lives of Korean workers were of less value than white Americans and the notion that they would do the work white Americans were unwilling to do, for less pay and far less respect, is reflective of the racism of the time, and persists today with Central American migrant workers. I believe what Dosan Ahn Chang-ho was shocked upon witnessing the state of these Korean farmworkers and how unhealthy their lives had become on all three levels of the human experience: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Back in 1900, he saw the health crisis that was rooted in the bias held by American landowners and policymakers. His viewpoint is absolutely and completely relevant today, not only with regards to farmworkers, but all labor workers, be they construction workers, retail store workers, or even people in direct service positions in social services: jail and prison workers, etc....His solution was not to fight the bureaucracy. He and his affinity group of Koreans in the U.S. had too little power and were in too great a minority. Instead, he focused his efforts on compassionate direct service without any expectation to be personally compensated or repaid financially or otherwise. I was heart-struck to learn that he himself went into the impoverished homes of these early Korean immigrants to clean their floors, their bathrooms and give them the items needed to keep their

bodies clean. He taught or re-taught them to be aware of food customs that were very different in the U.S. I cannot imagine this was an easy task. I also imagine at times it felt futile. But with time, this compassionate service allowed the self-leadership in these workers to emerge, because they started to respect themselves and their living accommodations. Why? It is because Dosan Ahn Chang-ho respected them first. He modeled a respect for their humanity when the white American landowners saw them as sub-human. They adopted this self-respect and self-leadership because Dosan Ahn Chang-ho modeled that they were indeed worthy and deserving of such. In the adjusted model of compassionate system leadership, I shared above, the central piece that ignites the cycle is relational leadership. Dosan Ahn Chang-ho was able to act on this stage of the cycle through building trust through affinity with his fellow Koreans. He saw himself as neither above nor below them. He merely saw it as his duty to help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trusted that this would someday set the stage for larger, systemic change in America as well as Korea.

Columbia School of Law Professor, Kimberlé Crenshaw “first publicly laid out her theory of intersectionality in 1989, when she published a paper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titled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The paper centers on three legal cases that dealt with the issues of both racial discrimination and sex discrimination: DeGraffenreid v. General Motors, Moore v. Hughes Helicopter, Inc., and Payne v. Travenol. In each case, Crenshaw argued that the court’s narrow view of discrimination was a prime example of the “conceptual limitations of ... single-issue analyses” regarding how the law considers both racism and sexism. In other words, the law seemed to forget that black women are both black and female, and thus subject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both race, gender, and often, a combination of the two” (Coaston, J. 2019). Thirty plus years later, we are studying intersectionality as early as middle school in some cases, to teach students how the intersections of identity matter, particularly in the overtly biased systems that unfairly target people of color, women, and non-binary people. As I come to understand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American agricul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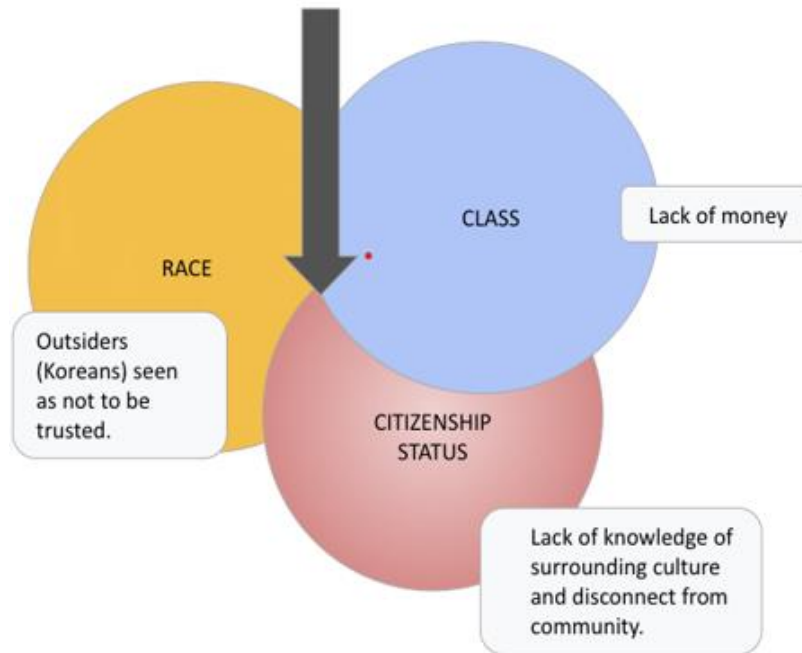
economies, particularly in California in the early 1900's, I see clear intersections of identity that Dosan Ahn Chang-ho had to first understand and relate to, and then find a way to turn into strengths and sources of pride, much the way we do through social emotional learning curriculum in lower, middle, and high school's today.



The intersections that resulted in a powerlessness that proved hard to overcome without the relational leadership of Dosan Ahn Chang-ho were race, class, and citizenship status. In Dosan Ahn Chang-ho's philosophy, these three areas would also be seen through the lens of his three key elements of power: money, knowledge, and trust.

The intersections of less power and privilege in the Korean identity in America at the time are elements of the living personal, economic and political experience.

Overlaying Dosan Ahn Chang-ho's methods of advancement of the Korean farmworkers through addressing the lack of privilege and power in these three areas of identity can be linked to Crenshaw's definition and highly utilized theory of intersectionality. To make Dosan Ahn Chang-ho's teachings more accessible and relevant to today's youth who are actively engaged in the discourse and activism aroun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 wonder about academics focusing on the



ways in which his theories and strategic plans connect to more modern-day legal terms like Crenshaw's "intersectionality." What would Dosan Ahn Chang-ho say about critical race theory?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The Model Minority myth? As a high school educator, it takes great effort to ensure that the authors as well as historical figures we are learning about represent a diversity of identities. Except for ancillary mention of Asian American activists like Yuri Kochiyama or Grace Lee Boggs, there is hardly mention of Asian figures prominent in the fight for justice in the U.S., particularly during any period prior to the 196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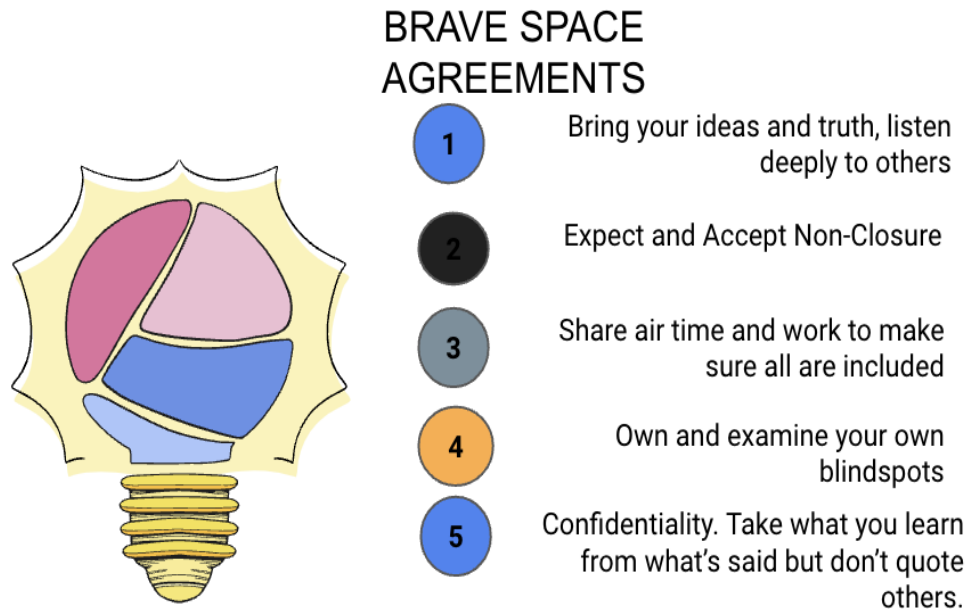
III. Leadership that begins with internal character and self-awareness

Dosan Ahn Chang-ho is also credited with tending to the moral beliefs and values of his fellow Koreans. "Personality is the basis of everything we do," and "Nothing could be successful without the 'personal revolution,'" are examples of his tenets. In the histor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S., early Black leaders were spiritual and religious leaders as well as community leaders. Reverend Doctor Martin Luther King Jr. is most notable, but we could also include Reverend Jesse James, as well as spiritual/political leaders that are more controversial, such as Louis Farrakhan, the

American religious leader of the Nation of Islam. The spiritual and personal character emphasis of Dosan Ahn Chang-ho's work should be studied and seen within the context of other civil rights leaders with similar focus on personal and spiritual development as tied to political and societal engagement. The bias in western educational systems usually shows itself in there being an emphasis on questioning the political motives of leaders who overtly communicate about spiritual character and that they should be scrutinized and even because of suspicion or at least skepticism. Rhetoric that is overtly spiritual or religious can often be seen as controlling. It can even be seen as somewhat "cultish" to speak too overtly about how one should *think*, although American politicians do this all the time in more covert ways with rhetoric that is watered down but still serves a dog whistle for certain groups. I must admit that in my own research of Dosan Ahn Chang-ho and Heung Sa Dahn, this bias has cropped up in me personally from an emotional and academic perspective. I have sometimes wondered if one person should have so much power and say in instructing large groups of people in how to think and act, even if I agree with the beliefs and values. My American upbringing has always centered freedom of thought and speech, which is a belief system that would counter Dosan Ahn Chang-ho's method in some ways as he created schools and curriculum to "train" personalities for what he believed would be the betterment of society. I also wondered about the social impacts of those who followed or did not follow his leadership. When I read his statutes and quotations out of context, as I am always reading his words in English translation, I feel in agreement. The concern here is that when I read his words, I accept that there is much lost in translation, and in most cases, I imagine I'm losing warmth and nuance, as the quotations often sound stern and controlling, and/or absolute. For example, in one text, Dosan Ahn Chang-ho is quoted as promoting "personality training." The translation here likely lacks depth and neglects that the English reader may interpret this as brainwashing of some sort. There is a dissonance I am conscious of as an English language reader and not a Korean language reader. Dosan Ahn Chang-ho's centering of moral integrity should be taught against the context of other leaders with similar methods with "nationalist" agendas, even if they are controversial in nature. History and

Politics courses in high schools such as mine could examine Dosan Ahn Chang-ho's leadership against the more extreme versions of religious-spiritual-political leaders. We have much to learn from how these types of leaders can create positive change in a harmonious way rather than focusing on how they can sometimes ignite the extreme fringes who are easily impressionable and often very vocal in ways that promote harm (e.g. xenophobic policies regarding travel bans, anti-Asian rhetoric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nd anti-democracy demonstrations most violently expressed at the United States capitol on January 6th, 2021). Understanding that spiritually minded political and social leaders can be forces of good, would be a helpful reminder that power in the spiritually devoted is not always dangerous. To do this well and fairly with regards to Dosan Ahn Chang-ho, a thorough examination of how his words is translated must be prioritized.

Part of my job as a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ducator at the independent high school where I work, is to build capacity in student leaders who are in fairly early stages of their own identity development.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leading any meeting or group is what we call: Brave Space Agreements. At the core of these agreements is a mutual and unified assumption that all members/students will make a conscious effort to be aware of self and others. As I consider Dosan Ahn Chang-ho's schools of thought and character building that he created throughout his life, I wonder how these agreements would be translated to the specific needs of Korean citizens at the time. As a matter of teaching, in initiating a culture of Brave Space agreements, drawing connections back to historical activists who made self-awareness and sound character central value pillars of their work would resonate and ground student leaders, many of whom feel like lone pioneers in their communities. The following image is the key slide that is shown at the beginning of ever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student meeting, and every affinity group student meeting. These agreements, I believe, would be welcomed and supported by Dosan Ahn Chang-ho and Heung Sa Dahn members.



The rhetoric around activism, be it in academic, social, or even social media-based settings needs to be accessible, so we ensure all student leaders have as similar an understanding of the same principles as possible. This being the case, I believe a commitment to thoroughly going through written work by and about Dosan Ahn Chang-ho currently in Korean, should be translated with modern sensibilities by scholars who themselves are fully able to capture the nuances that do not seem to be present in the material I have come across regarding Dosan Ahn Chang-ho and Heung Sa Dahn. This would better complete the picture of his commitment to leadership rooted in internal character and self-awareness by matching the tone of language and word choice that better represents the spirit of his words. This is a point of dissonance that needs to be corrected to truly give life to Dosan Ahn Chang-ho's thoughts and the spirit, belief and values behind them. Dosan Ahn Chang-ho was known as a talented and effective orator. This is a hallmark of strong social justice leaders. Losing the eloquence that was present in his speeches due to dated or sub-optimal translation is an issue that seems easy enough to address to begin the process of initiating realistic use of his teachings in academic settings as well as settings focused on community organizing and justice initiatives.

IV. Good Character and “Sacred Unity” as Pillars of Social Justice Based Leadership

We have already examined the concepts of good character, character building and “personality training,” but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 of “unity,” or “sacred unity,” Dosan Ahn Chang-ho established the core principles for Heung Sa Dahn. In the spirit of language having nuance, synonyms for “sacred” include dedicated, venerated, and revered. In other words, a deeply respected sense of collective unity could be an apt interpretation of Dosan Ahn Chang-ho’s words about principles of Heung Sa Dahn. When I consider how the spirit of this principle of “collectively respectful unity” resonates with my students who are social justice leaders, the concept of allyship comes to mind. There are many ways to be **an ally**, defined by Merriam Webster as:

“...one that is associated with another as a helper; a person or group that provides assistance and support in an ongoing effort, activity or strug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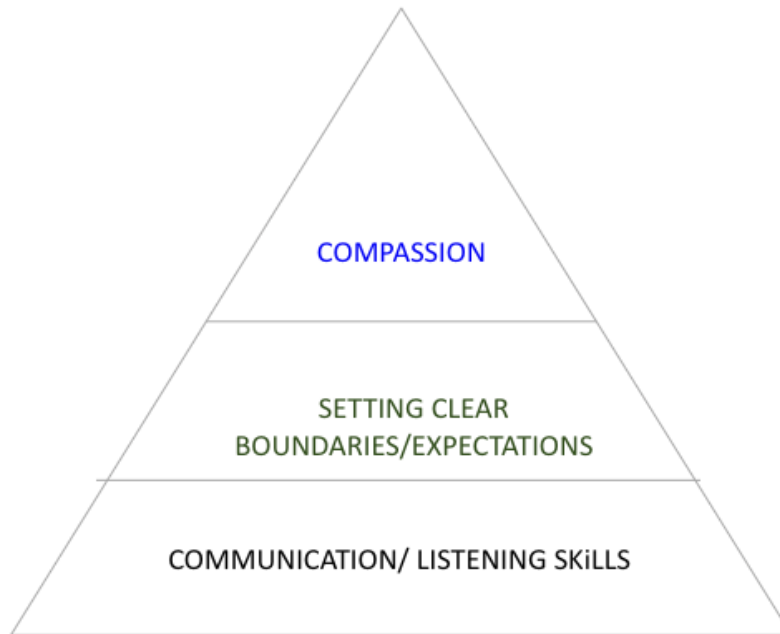
Allies in current social justice movements include Asians protesting for Black Lives Matter, and cisgender men and women fighting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Allies can be outsiders to a particular affinity group like in the examples above, but allies can also be the role people embody for each other in spaces such as m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groups, student affinity groups, or early affinity groups like Heung Sa Dahn, who were united for a purpose and who were at the time marginalized and/or disenfranchised. When I read Dosan Ahn Chang-ho’s words, “Sacred Unity,” I had an impulsive rejection of the word “sacred” being used as socio-political rhetoric. But if I define “sacred unity” as collective commitment to allyship, often of folks who hold less power and privilege, my heart and mind opens to this principle. Currently, on my school campus, student affinity group leaders of the following groups meet together regularly to support each other’s groups: LatinX Affinity Group, Black Student Union, Multi-racial Multi Ethnic People of Color Group, Asian Affinity Group, LGBTQIA+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gender Plus) Affinity group, and the Jewish Affinity

Group (includes those who are religiously or culturally Jewish). In addition to supporting each other as leaders across groups, there are always two leaders within each affinity group to bring a sense of allyship to at least the group leaders, if the members are not as far along on their character and identity journeys. The sacred unity or collective respectful allyship that has been built across these groups has been affirming to see blossom over the years. The commitment to building capacity in these leaders has paid off. The students holding these positions have developed in their own maturity as related to their identities, but also as leaders, orators, facilitators, and listener-observers. They began their high school careers feeling disenfranchised, othered, on the fringes, and powerless. Now their voices are elevated, they respect themselves, and the school community respects their efforts in leading th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journey at their collective school. When I consider each of my student leaders' individual growth and development, the word "sacred," comes back to me in a welcomed way. Witnessing and having a part to play in young peoples' moral development is a unique and sacred gift, indeed. Although Dosan Ahn Chang-ho's rhetoric was theological, from the start, I would imagine that continually seeing the growth from the seeds he planted through Heung Sa Dahn and other methods, would make him a deeply faith-filled person.

V. Facilitating brave spaces to ignite social change

One of Heung Sa Dahn's goals and objectives is that: One shall practice love; love others as yourself; develop a community where love and compassion flourish. Without using the word "love" per se, which is challenging to use in school settings in the U.S., my student leaders have practiced the above principle of creating community that at its core, is rooted in the belief that belonging creates a sense of safety, which is essential to communities where all members thrive. Independent high schools in the U.S. are PWI's, white institutions, so belonging is most elusive to those students, faculty, and staff who do not identify racially as white, but identify as POC, people of color. Creating a space where all are loved, and all belong is challenging. We can start the proc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leadership councils where students elect to take my course in group facilitation and leadership of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justice focused student groups.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process by which to reach a point where compassion is a widely held value by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which does indeed, connect to Heung Sa Dahn's objective of creating communities based on principles of compassion and love.



This diagram shows the foundational aspects of establishing such spaces that I review in my curriculum. Here one can see that the foundation is fine-tuned communication skills that include active listening. Next comes the ability to set boundaries and expectations of the individuals and the group, and lastly, once the group can be seen and felt as a safe container, empathy and compassion are natural outcomes. Another way to visualize this is an iceberg, where empathy and compassion are what is visible and underneath the water line is the work and learning required to hold and maintain such empathy and compassion. As I consider how Dosan Ahn Chang-ho would scaffold his curriculum for student leaders today, I feel a profound assurance that he would not skirt away from the word "love," in Korean or English. In a non-religious educational environment, teachers are under a microscope of scrutiny

regarding language and content in the classroom. In my own personal experience at high school aged level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talk around words like “love” by using terms like “compassion,” “empathy,” “kindness,” and “care.” If I were to create a lesson around Heung Sa Dahn’s objective of “developing a community where love and compassion flourish,” I would be curious to know how students’ would interpret this as pertinent or irrelevant to their work as leaders and allies in this space.

VI. The importance and fragility of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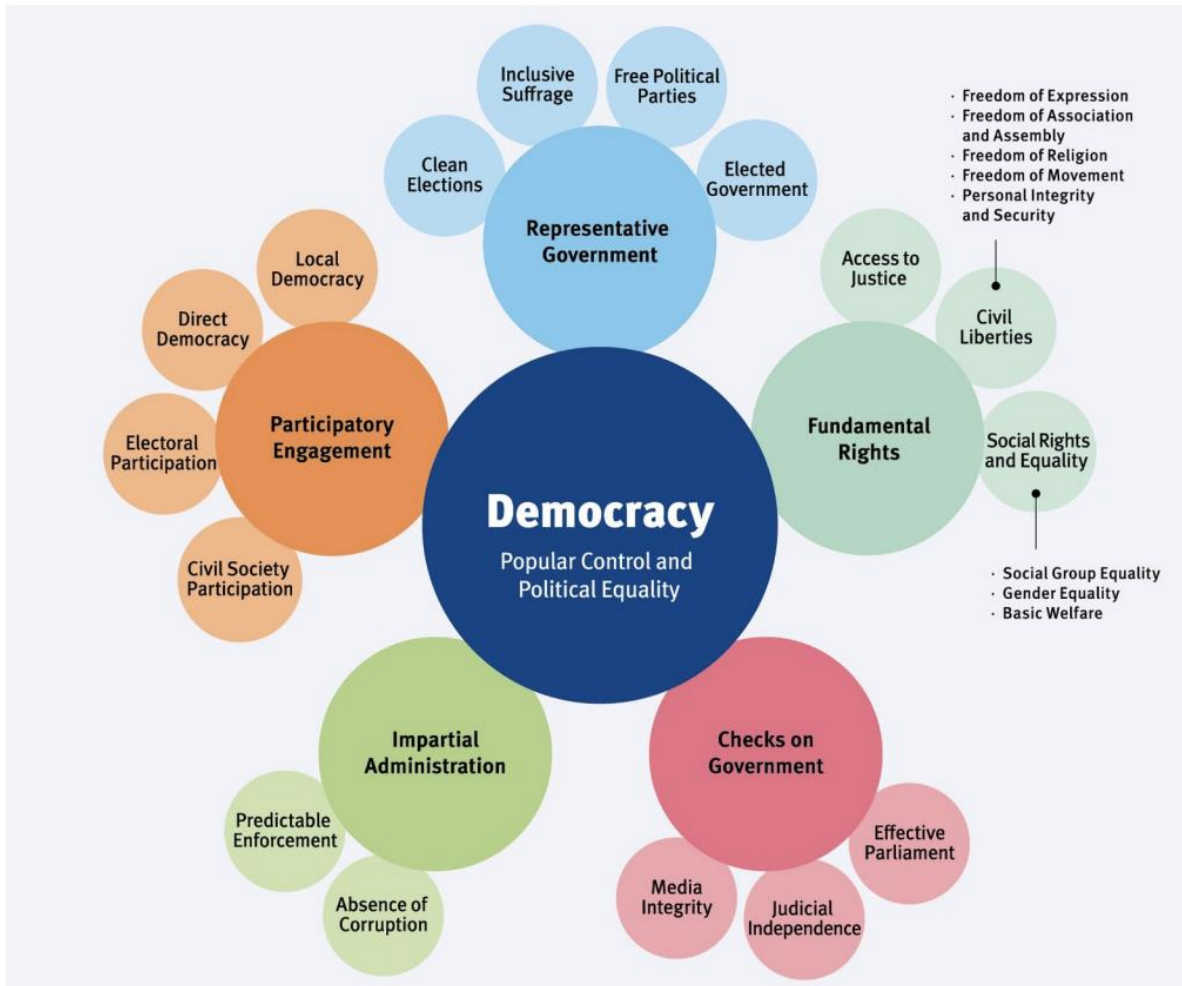
On January 6th, 2021, Americans were stunned by the brazen actions of fringe, far-right insurrectionists storming the Capitol. They were violently demonstrating the election of Joe Biden as the president to succeed Donald Trump. Everyday Americans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our lifetime. It was frightening, deeply disturbing and a gut punch of the reality that our democracy is reliant on the belief that people believe in it and respect its rules. Some people feel that we came extremely close to losing American democracy that day, and with it, our national and personal identities. I can only imagine the feelings Dosan Ahn Chang-ho and his fellow Korean citizens felt when their democracy and national identity was stripped away from them in 1910, not to be regained until 1945. If Americans had lost our democracy back in 2021, what w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our student groups to create spaces where, like Heung Sa Dahn, those “aspiring for democracy could remake oneself by developing and adopting the values, virtues and morals befitting a modern democratic citizenry” (yka.org.kr). My student groups have taken for granted that democracy exists, even if they acknowledge the gross inadequacies of our government to have a truly equal democracy for all Americans. Providing Heung Sa Dahn as a case study for our students as a direct response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ir full-on war against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would be an intellectual and relevant exercise against the backdrop of events that occurred on January 6th, 2021. Heung Sa Dahn’s overarching awareness of the delicate nature of democracy is validated by American civil rights leader, John Lewis, when he wrote:

“Voting and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c process are key. The vote is the most powerful nonviolent change agent you have in a democratic society. You must use it because it is not guaranteed. You can lose it.” It’s almost as if he knew the future. He wrote those words on his deathbed in July of 2020, six months before the insurrection.

When learning about the Israel and Palestine conflict in American schools, we often ask students to consider the psychological impact of being from a country that no longer exists. We ask students what it means to have your homeland disputed, and your identity negotiated or erased as a result. For most, it is inconceivable. Empathy is hard to grasp onto in these conversations because the experience is so utterly foreign. It was not foreign to Koreans in 1910, nor is it now. Koreans, in my experience, are keenly aware of the delicate nature of their democracy and therefore their existence. When learning about the Korean war, Americans also feel distance, or lack of empathy, even though many relatives and ancestors may have fought in this war. To consider the annexation of half a nation to an authoritarian dictatorial rule is unfathomable. Teachers like me can consider bringing in these real-world examples, including the response by leaders like Dosan Ahn Chang-ho, and his philosophy surrounding the rebuilding of democracy and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for Koreans. After the insurrection of the U.S. Capitol, the window for understanding how to appropriately respond if we were to lose our democracy, has widened. This is in many ways a sad realization, but an important one, nonetheless. One would hope the Capitol insurrection, and the fact that our democracy remained intact, is still a cautionary tale to those for whom the fall of democracy would affect most: our childre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provides the following conceptual framework of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 version 3 of their technical procedures guide titled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C. Tufis, 2019).

Figure I.1.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Conceptual framework



This framework succinctly lays out the concept that every constellation of circles (attributes of democracy) must function so as not to overwhelm the “Checks on Government,” which is only as just as the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spheres of media and the judiciary branches. Students should be asked to imagine every circle in this framework imploding. Where would community leaders need to start, at their own risk, to rebuild democracy? If it were me, I might suppose “civil liberties,” as did Dosan Ahn Chang-ho. After students are asked to consider this reality, Dosan Ahn Chang-ho’s strategy can be explored, investigated and ultimately translated to the present day. The glaring case study currently, would of course be Ukraine.

Throughout this essay, I have lauded Dosan Ahn Chang-ho's strategic choice to start with the personal, the internal strength of character. But in reflection, at the time, there may have been no other choice. Regardless of this, his success in this approach should be studied and seen as a source of hope in times where citizens have been stripped of their freedoms, rights, and dignity. The dangerous tipping point that Dosan Ahn Chang-ho was witnessing before his eyes is the gradual and eventual self-adoption of the belief that certain individuals (Koreans) were not worthy or deserving of such rights. Examples of this psychological phenomenon can be seen throughout American history and is examined in scholarly articles like Bertram Wyatt Brown's paper entitled: *The Mask of Obedience: Male Slave Psychology in the Old South*, published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88). In this paper, Wyatt Brown purports that there "is a conflict within his own personality; he recognizes **himself** as inferior," (p. 22). Upon arriving in California and seeing his fellow Koreans, Dosan Ahn Chang-ho saw a similar phenomenon happening when he witnessed the ways in which Koreans were living and behaving due to their indentured servant-like conditions. Essential questions that could guide related lessons could be phrased in the following ways: What does democracy truly mean when it only benefits those with privilege and power? Can it be called as such if for the individuals it disenfranchises and marginalizes, the effects are just as harsh as the complete dissolution of democracy (as occurred in Korea over 100 years ago)? What does it mean to be a truly democratic state for the nation as well as the individual? How is national culture tied to human culture? The guiding question in our world history and overall humanities arm of my school is: "How does geography shape culture?" As an add-on, in my classes, I could beg the antecedent question: "What shapes geography?" Short yet profoundly poignant answers could includ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slavery, war, genocide, xenophobia, power imbalances, economy and more.

VII. Hope and joy as components of the marathon that is activism

Given the chronic state of both existential and pragmatic crises over the years, most

notably exemplified by the global COVID-19 pandemic, it is easy to lose hope. How do we inspire young people to carry on the fight for independence and justice for all (not just those already in power), communicate the seriousness of this pursuit, whilst also being careful not to inadvertently create cynicism or zap joy or belief in progress or change. The lift cannot feel so heavy that hope is hard to reach, and the joy of community organizing becomes elusive. This is where I believe Dosan Ahn Chang-ho's rhetoric that was spiritual in nature, uplifted Koreans who had lost hope in their country, and therefore themselves. The positive nature of Dosan Ahn Chang-ho's statement below (that is translated into English) is palpable:

"As the entire Korean nation believes in the independence of Korea, Korea will become independent. If the world's justice wants the independence of Korea, it will become the independence of Korea. Since Heaven commands the independence of Korea, Korea will surely become independent." In reviewing notable quotes of Dosan Ahn-Chang-ho, a scholar could categorize and isolate quotations that are positively and joyfully charged in nature, to give example of rhetoric that can invigorate the seriousness of a pursuit of justice, without being solely grave in tone.

Another examples is as follows:

"I really do not want Japan to fall, but to be a good country. It will never be in Japan's interest to violate the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Rather than forcing 20 million people to include a grudge among the people, it would be a good thing for Japan to have 20 million people as a neighbor. Therefore, assert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s for the peace of the East and even the welfare of Japan."

This positive framing of Japan is truly remarkable given the circumstances, but rather than add to the darkness of despair, it brings a light to the humanity of Japan and the possibility and vision of being neighbors that mutually benefit from each other. In this quote, Dosan Ahn Chang-ho chooses to take the long view on Eastern global political relations, rather than a myopic and antagonistic one. Every civil rights leader

must communicate hope that even if we do not make progress in our own lifetime, we must see the act of protest, the act of organizing or the act of training our own personalities and leadership capacities as worthy acts of social justice in and of themselves- that even if the projected outcomes are not laid out in our favor, the procedures and practices that ultimately construct activist work, are just as important as work that produces short-term wins. American political leader and LGBTQ+ activist, Harvey Milks is quoted as saying:

“Hope will never be silent.”

In other words, activism is hope, and hope is activism. In the case of my students, and in the case of Heung Sa Dahn’s early members, the leadership of the group provided methods of self-directed and self-focused activism that was truly an act of hope and rooted in a belief that eventually, progress would come, if not in our own lifetimes, in lifetimes to come.

When respected civil rights leaders pass away, a good portion of the world grieves. Many civil rights leaders of the 1960’s, such as John Lewis, are now elderly and have passed on. Women’s rights leaders like Ruth Bader Ginsberg, also have passed on, leaving holes in the fabric of social justice advocates that have garnered a significant level of power and privilege as related to the ability to fight injustice. Their parting words of advice have usually included words about keeping on in the fight to end injustice, because it is one that has spanned centuries. John Lewis left us such advice in an opinion editorial for the New York Times that went to print on the day he passed, July 17, 2020:

“You must also study and learn the lessons of history because humanity has been involved in this soul-wrenching, existential struggle for a very long time. People on every continent have stood in your shoes, through decades and centuries before you. The truth does not change, and that is why the answers worked out long ago can help you find solution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

John Lewis was adamant in his call to action, and shares that our actions are but one part of what has long since existed, and will continue to be one that is everlasting and ever ongoing. Towards the end of the essay, he also urges us to be the generation that has finally laid down “the heavy burden of hate.” Student activist leaders knowing their place in history alongside the likes of John Lewis, Ruth Bader Ginsberg, or of course Dosan Ahn Chang-ho, hopefully invites a sense of hope that they are not alone presently, nor historically, in the battle for equality.

When considering the type of social movement Dosan Ahn Chang-ho created, his efforts clearly fall into the transformative/revolutionary quadrant of sociologist David Aberle’s social movement quadrants.

Aberle’s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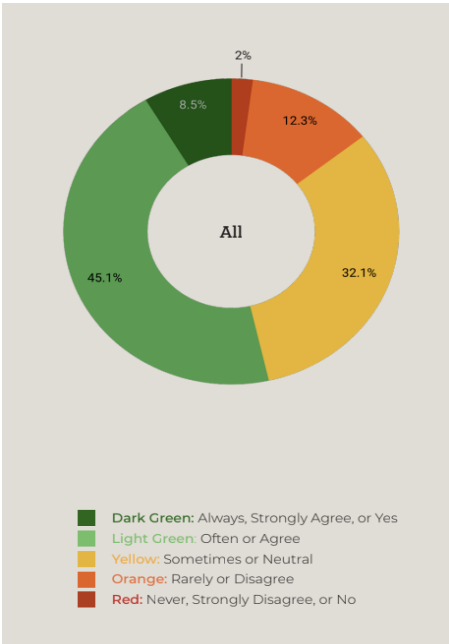
	Total Change	Partial Change
Individual Change	Redemptive (religious sects)	Alterative (personal improvement)
Social Change	Transformative (revolutionary, millennial)	Reformative (specific issues)

Such transformative and revolutionary change requires a long runway, although he had always hoped for as short a path to change as possible. The American high school cycle is four years long if the student graduates on time. Seeing gradual change that exceeds a four-year period to fruition is impossible for students who graduate and typically move away from their hometowns to pursue their colleg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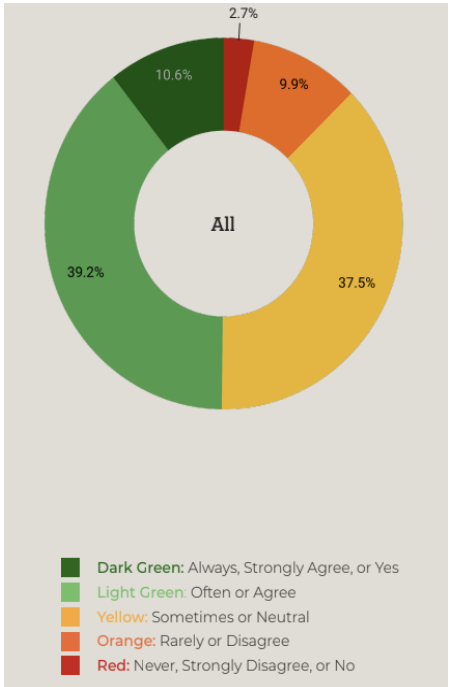
Working towards and hoping for change that one will never see is a lesson that is taught early in my activism clubs and courses. I constantly tell my student leaders that success is not measured in numeric outcomes of any kind, or in the creation of policies or practices only. It should be measured through analysis of the perception and feelings of belonging, inclusion and equity. That is sometimes the only tangible way for student leaders to see incremental growth that matters in the day to day lives of their friends and classmates, if DEI initiative timelines or runways exceed a four-year timeline. Due to this, constant inspiration and motivation is necessary. Inspiration can be found in the present-day actions and words of leaders, but also can be found historically, in even tougher times. Dosan Ahn Chang-ho's efforts to rebuild the identity of Koreans after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should be one such example.

At my current institution we did develop methods of inquiry and data visualization to share with our community the perception of equity and inclusion among our student body. This drives the areas of inquiry and action we pursue as an institution moving forward. Such methods are easy through Google forms, data studio and excel spreadsheets these days. Surveying is as easy as an email and five minutes of clicking from a menu of Leichhardt scales that signify levels of agreement. In the early 1900's it wasn't so easy. To understand the zeitgeist of the community and to have one's finger on the pulse of society, one had to be engaged, present, and **in** community. Thus, the necessity for the various school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Dosan Ahn Chang-ho founded, even if for nothing else, to act as a bellwether or temperature gauge. Imagine how progress over time, visualized, could inspire and inculcate hope in the communities of suffering Koreans at the time until 1945 finally arrived. Below you can see various charts from my current community's data collection regarding students' sense of inclusion and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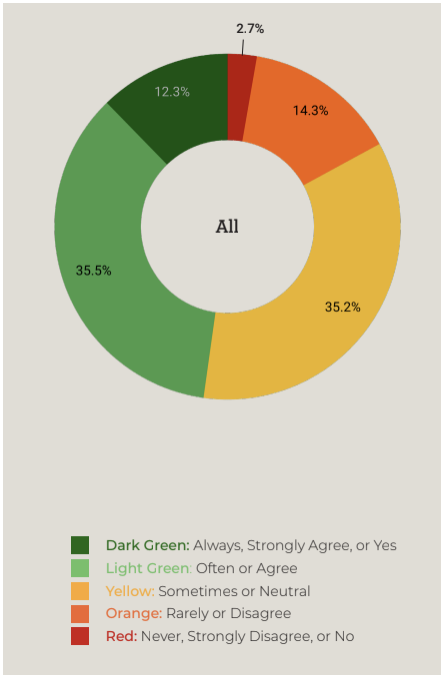
Statement 1: I feel connected to my school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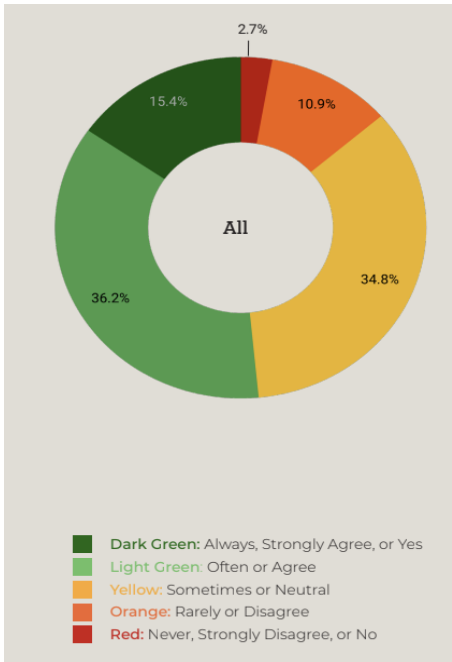
Statement 2: So far this school year, I feel different/other in this community.



Statement 3: I feel safe expressing my opinion, even when I am in the minority.



Statement 4: I see parts of myself reflected in school program (books read in class, lessons, theatre production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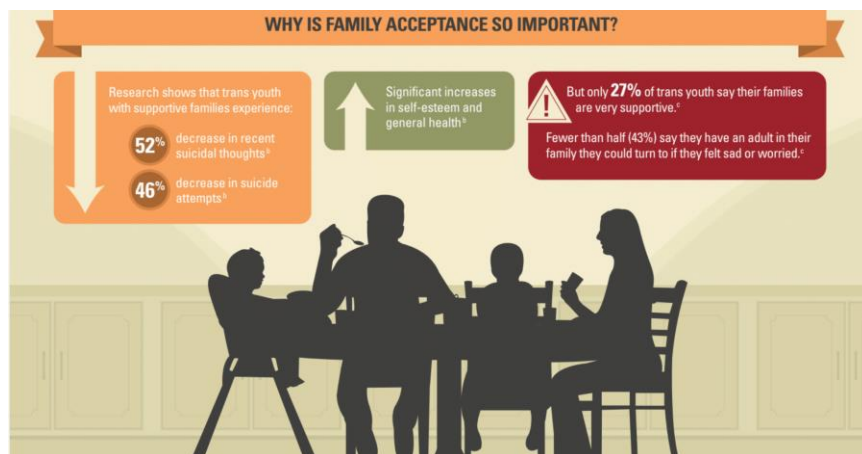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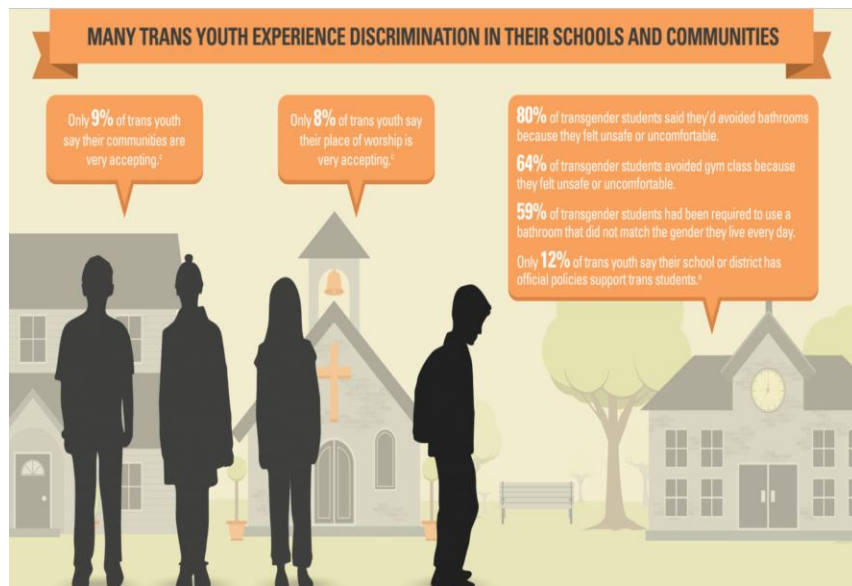
In total, we asked 12 questions and a set of identifier questions to better understand how certain groups felt against the entire student body as a whole. Again, all with the purpose of measuring progress over time, and to see if the tiny things were doing, even if we weren't seeing tangibl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overall data of the inclusion survey. This measure served,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to allow our leaders to see that while the results of their hard work might be hard to grasp, something positive is indeed happening in our student body as related to equity, inclusion, and ultimately the feeling of belonging. Without similar tools, Dosan Ahn Chang-ho relied on communication that was clear, respectful, fierce, and consistent. He urged Heung Sa Dahn members to seek the truth and respect reality. This i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my school's inclusion survey and resulting data dashboard. Seek the truth, respect it, and act on what you are seeing. That principle alone as motivation for data collection, regardless of method, is powerful and should be attributed to Dosan Ahn Chang-ho to give credit to his language around why we must personally seek data, and to not seek it as purely an institutional exercise.

VIII. Pursuit of impeccable speech

Dosan Ahn Chang-ho preached integrity, honesty and sincerity. If one is to uphold and elevate these values, it comes to cross that one must be impeccable in these areas in speech and language. Understanding and using correct terminology, labels and vocabulary for various identities is something that is worthy of our effort, particularly as related to marginalized racial groups and 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people. Early in our curriculum, student leaders in th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group are educated by their peers regarding their preferred pronouns (e.g., she/her; he/ him; they/them, and more if we include neo-pronouns). By prioritizing the correct gendering and labeling of folks in the minority we are expressing that we see them, they are just as valuable as the majority, and they are worthy of being identified in the ways that affirm their own sense of identity. In this way, as Dosan Ahn Chang-ho implores us to do, we are sincere in our efforts of inclusion and "sacred unity." The Trevor Project, a non-profit organization to suppor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 identifying teens administers a teen mental health survey yearly, as do other organizations like The Campaign for Southern Equality. In these surveys, the data resoundingly points to the need to include, respect, acknowledge LGBTQ+ identities in our families as well as institutions as a matter of health and survival.

The following images from *The Campaign for Southern Equality's* resource titled: *Supportive Schools for LGBTQ+ Students: A Guide to Policies and Best Practices* show us statistics around LGBTQ+ teen health and survival:



Data collected by the Campaign for Southern Equality shows the impact of supportive families on self-esteem and general health, as well as on statistics related to suicide and suicidal ideation. Imagine if there were school communities that prioritized the support of these students. We are beginning this process at my school through our student leadership, and where we begin is where Dosan Ahn Chang-ho would have wanted us to: with sincerity, integrity and honesty. For our students we merely layer this imperative onto our commitments of impeccable communication and brave space agreements that I discussed earlier in this essay.

Conclusion

I must admit to my beginner level knowledge of Dosan Ahn Chang-ho's life and efforts in the pursuit of re-establishing not only democracy in Korea, but the Korean cultural identity on a national and more importantly, personal scale. I share many traits with my father, a 60 year-long committed and highly involved and spirited Heung Sa Dahn member, that I noticed since I was in middle school. Since I was twelve years old, I always had a position on the student government at my schools. Whether it was class president, student body vice president or editor of the high school newspaper, I couldn't help but to lead others. I felt called to do so, but I also always wanted to. My father has also always been a leader in his family, amongst his friends, and in his alumni organizations, not to mention within Heung Sa Dahn. Similarly, to my father, even amongst my friends and peers, I have a sense that I am looked up to for advice, wisdom and direction. I nurtured this part of myself by studying to get my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license (MFT) and earning a master's degree in psychology to become a licensed psychotherapist. Like my father, I am also deeply committed to my communities. There is a reason why I work in schools, and it's because of the joy and inspiration I find in multi-generational communities whose underlying purpose is to create leader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 find motivation in supporting young people to find their voice, develop their identities, and become allies for those who need it most. My father and I also share a work ethic that is what has enabled me, a forty-three-year-old mother of a

five- and six-year-old who works two jobs, to write a thirty-page essay on a topic that I am only beginning to understand. When I consider our shared personal positive attributes, I can now, knowledgeably, consider these as similar to those of Dosan Ahn Chang-ho, and for this realization I am truly proud.

Professionally, I also see links to my work as a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ractitioner, to that of Dosan Ahn Chang-ho, a charismatic leader, yes, but also a dedicated educator with a compassionate service leadership mindset. Teachers in America are under-paid, under-valued, and under-respected. Even in independent schools, we are reaching a point, economically, that only those who don't really need the income can afford to be educators. This is a dangerous path to go down because as a matter of survival, all all teachers will eventually be purely hobbyists or enthusiasts rather than true scholars. Dosan Ahn Chang-ho clearly did not establish his schools to gain property or earn a good living, in fact, doing such had the opposite effect. Recalling Dosan Ahn Chang-ho's journey and the "why" behind his educational commitment to young Koreans, I am inspired and reminded that my participation in the social justice journey that was established long before I or my father were born, is through my work as an educator, and any payment in that regard is truly a blessing and I welcome it.

If I were to change or incorporate three practices next week with regards to my part in the school's data, instructional or curricular systems it would be the following.

Curriculum change:

Incorporate the language and historical civil rights and social justice efforts of Dosan Ahn Chang-ho into my leadership curriculum to both inspire and make connections between historical and current day iss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Show and establish Koreans as activists which is a counter narrative to the model-minority myth.

Instructional change:

Consider ways in which to add student voices and community organizer voices to the classroom so that students are hear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voices outside of my own. Consider older generations sharing their experience of social justice activism either as a participant or an observer. Instill a sense of respect for what older generations have been through and establish the timeline of activism in a way that goes both forwards and backwards in time.

Data systems change:

I would create a student team to review the data from our most recent student belonging/inclusion survey and gather information in focus groups on their thoughts, analyses and understandings of the student experience. In other words, capture qualitative data against the quantitative data that we have captured over the past two years. The spirit behind this would be to use data to promote community and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sacred unity," as Dosan Ahn Chang-ho has wisely asked us to do.

Many young people these days tell me they feel like the world is ending. They do not wish to have children because they do not feel confident that the world, they bring them into will not oppress them. They are facing existential crises and pragmatic ones that range from global warming and fossil fuels to the denigration of our human faculties to connect with each other peacefully and respectfully after seeing the deadly 2017 KKK march in Charlottesville, Virginia, and the Capitol Insurrection in 2021. They look to us, to me, to guide them towards hope and a possibility for a future that is peaceful and in John Lewis's words, free of the "burden of hate." When I put myself in the shoes of Dosan Ahn Chang-ho, I imagine that it did feel like the world was ending when the Japanese violently colonized Korea. People, particularly young people, needed hope, and he was wise enough to understand that such hope began with leaders like him believing in his fellow Koreans, and instilling in them self-awareness, respect, and kindness, to move

forward as a group in the face of uncertainty (at best). I will carry forth this teaching from Dosan Ahn Chang-ho and through this essay feel invigorated to carry a light for my students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The original essay contest question is: What is the realistic application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s? I am torn because the realistic application feels so obvious. His teachings clearly resonate in my professional and content field on every level, from leadership development, to self-awareness, to activism education and community values. The pathway to application in curriculum is easy to imagine and execute. I want to reiterate the first step is to modernize the English translation of his writing, and writing about him, Heung Sa Dahn, and the historical context around his leadership in both the U.S. and Korea. The language must be accessible to young English readers and currently, this is not the case. Secondly, I would make the case to raise awareness of Heung Sa Dahn in Asian American Activist organizations that include high school aged members. Lastly, I would lean on one of Dosan Ahn Chang-ho's principles of "sacred unity" or in my own words: "collective respective allyship," and find ways for Heung Sa Dahn to support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ovements like Black Lives Matter. Heung Sa Dahn as an organization can show care, kindness, and respect for those outside of their affinity, who still share an experience of historical or current marginalization or in many cases, outright oppression.

When I consider Dosan Ahn Chang-ho's legacy, it's one that invokes those of us who identify as social justice activists to respond, and respond locally through educational avenues, and through empowering people of all ages through compassion and service leadership mindsets. I feel grateful at the end of writing this essay that I now have a deeper appreciation for Dosan Ahn Chang-ho, but more importantly, a deeper appreciation of my father's commitment to Heung Sa Dahn and his identity as a member of this organization. I am humbled by his continual commitment to Dosan Ahn Chang-ho's ideals, the service he continues to do for his community through technology support, his artistic woodcarvings, and his dedication to his community across all generations.

Resources not listed within text:

- Kim J. (1981) The process of Asian American identity development from Sue, et al. (1998).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Sage Productions. Thousand Oaks, CA.
- Coaston, J. (2019) *The Intersectionality Wars*. Vox.com
- Tufis C. (2019)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International Institute of Global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Wyatt Brown B. (1988) *The Mask of Obedience: Male Slave Psychology in the Old South*. *American Historical Review*

Dorothy Joo Kowal

Experienced Administrator | MA Counseling Psychology | she/her/hers | (415) 609-9233 | dotjkowal@gmail.com

Director of Diversity, Equity, Belonging and Inclusion experienced in using an equity and inclusion lens to effectively influence and create workplace culture, policy, and practice. Proven skills in **project management, surveying and data analysis,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DEI leadership curriculum development and coaching**. Proven success in **building inaugural DEI department, affinity groups**, and belonging culture with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DIRECTOR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2020-PRESENT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TASK FORCE LEADER 2018-PRESENT

Sonoma Academy, Santa Rosa, CA

Provide leadership and guidance to Head of School, Board of Trustees, Administration team re: and DEI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 Researched, developed, recommended and implemented DEI roadmap to fulfill goals and vision for short and long term. Incorporate DEI goals into overall organization.
- Design and deliver professional development curriculum to drive DEI concepts, behavioral change competencies.
- Oversee affinity group development and facilitation.
- Communicate with administrators, trustee's faculty and staff re: DEI strategy, mission, and operational tactics and methods of measuring progress.
- Help cultivate culture of inclusivity and equity in learning/working from home environment during distance learning due to COVID-19.
- Advise and partner cross functionally with faculty and operational departments in DEI initiatives.
- Review and advise HR practices including employee identity data tracking, recruitment, hiring, onboarding.
- Drive cultural community event planning, communication, marketing.
- Project manage inclusion dashboard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corresponding report.

DEI CONSULTANT 2020-PRESENT

Coach leadership teams in areas related to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social justice. Clients include independent schools, parochial school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DOSAN 2022 ESSAY COLLECTION

- Coach and mentor teams and leaders in best practices and policies regarding race, class, gender identity, culturally responsive leadership.
- Facilitate virtual and in-person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working with teams to design and curate programs specific to the needs, goals and challenges of an organization.

PRESENTER/FACILITATOR 2021-PRESENT

California Teacher Development Collaborative, San Francisco, CA

Design and delive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ing fo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 Create curriculum related to equity and belonging for virtual formats relevant to participants across the country.
- Programs include *Asian Educators for Black Lives Matter*, *Centering Equity in College Counseling*, *APISA Study Group: Deconstructing the Model Minority Myth through Our Lived Experience*

DIRECTOR OF COLLEGE COUNSELING 2018-2021

Sonoma Academy, Santa Rosa, CA

Guided families in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asserting fit over brand, addressing barriers to access, and highlighting the individual behind the applicant.

- Visi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understand current admissions and campus climates.
- Interpreted college admissions data with a DEI lens and presented reports to key stakeholders.
- Developed and maintained strong relationships with key college admissions decision makers nationally, internationally.
- Coach and advise students and families regarding college choice and admission based on data and expertise in the field.
- Report out to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regarding college admissions statistics, trends, and predictions.

DIRECTOR OF GUIDANCE & COUNSELING 2018

Woodside Priory School, Portola Valley, CA

Oversaw student support teams in areas of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in grades 6-12 as related to learning differences, mental health diagnoses, behavioral concerns, and other SEL related concerns

- Advised school leaders on student wellness initiatives and programming.
- Researched and presented data regarding teen mental health and intersections of identity.
- Managed college counseling, academic resource counseling, and social-emotional counseling depts.
- Provided social-emotional support and on-going guidance and counseling for students.

DIRECTOR OF COLLEGE COUNSELING 2015-2018

ASSOCIATE DIRECTOR OF COLLEGE COUNSELING 2013-2015

Woodside Priory School, Portola Valley, CA

DIRECTOR OF GUIDANCE AND COUNSELING/COUNSELOR 2010-2013

Mercy High School, Burlingame, CA

TEACHER, PSYCHOLOGY 2011-2012

Mercy High School, Burlingame, CA

CLINICAL EXPERIENCE

SF General Infant Parent Program, intern, San Francisco, CA

La Cheim Therapeutic Behavioral Services of Contra Costa County

New College Community Clinic, San Francisco, CA

Eden Counseling Services, Castro Valley, CA

Private Practice, therapist

EDUCATION and CERTIFICATION

Williams College, BA English

Argosy University / New College of California, MA Counseling Psychology

LMFT (Marriage Family Therapist),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s

CONFERENCE ENGAGEMENTS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NAIS Conference) *Social Justice Communication Philosophy & Strategy*, 2022
NAIS People of Color Conference, *Post Inclusion Dashboard: Becoming a Learning Institution*, 2022
EDGENUITY, Panelist, *Practical DEI Strategies for Administrators and Leaders*, 2021
EDGENUITY, Panelist, *Practical DEI Strategies for Teachers: Identifying Common Micro-aggressions and Implementing New Strategies to Foster Inclusion*, 2021
NAIS People of Color Conference, *Inclusion Dashboarding*, 2021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dmissions Counselors (NACAC), *College Counselors as DEI Change Agents*, 2021
Carney Sandoe Women's (Re)Institute Conference *Keynote Speaker*, 2021
Carney Sandoe FORUM/Diversity, *College Counselors as DEI Change Agents*, 2021

ORGANIZATIONS/BOARDS

The Presentation School, Sonoma, CA, Trustee (2021-present)
People of Color in Independent Schools (POCIS) Northern California Board of Directors (2021-2022)

ARTICLES/PUBLICATIONS

Independent School Magazine: *Conversation: The power of affinity spaces for Asians, Pacific Islanders, and South Asians*, Winter 2022
Kiddom.co: Teachers Should Say "Gay": Supporting LGBTQIA+ Students in the Crosshairs of Anti-Identity Legislation, 2022
Kiddom.co: Supporting First Generation College-Bound Students, 2022
Independent School Magazine: *A Non-Traditional Path to Leadership*, Fall 2021
Medium: *The Self-Gaslighting of An Asian American*, 2021

Dorothy Koval Resume 2022

도산사상의 실천방안 모색

김용환

I. 머리말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1878-1938)는 1878년 대동강 하류 평남 강서 도룡섬에서 태어났다. 선대는 대대로 평양 동촌에서 살았지만, 부친이 대동강 하류의 도룡섬으로 이주하였다. 8세까지 한문을 수학하고 9세에서 14세까지는 강서군 심정리에 머물면서 김현진(金鉉鎭)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당시의 유가전통 교육활동은 선비로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선비의 도덕기상은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 기풍이었다. 당시 유가의 수신서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四書)와 『시경』, 『서경』, 『역경』의 삼경(三經)이다. 도산도 유가의 수신서를 교재로 삼아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들 수신서를 중심으로 '경경위사'(經經緯史)태도를 중시했는데, 이 방법은 경학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씨줄로 삼아 입체적으로 삶을 탐구하는 공부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경위사와 병행하여 문장수사를 위한 '도기론'(道器論)도 함께 연마하였다. 선비라면 흔히 현실도피자로 보는 경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신연마가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시 도산은 수신연마의 과정에서 서당의 선배, 필대은(畢大殷)을 알게 되었기에 그로부터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즈음 조선사회에서는 서양 열강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자력갱생의 새로운 방안으로 겨레의 얼을 파악하고 정신교육과 함께 의식개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도산의 학문연마 시기에는 현실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었기에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학문탐구와 수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공주의(大公主義)'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점차적으로 구축하였다.

도산은 1895년 17세 때 경성으로 올라와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에 입학한 뒤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입교를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무장을 강화하였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지식을 섭렵하면서 신지식을 터득함을 계기로 삼아 겨레의 생활의식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산은

과수원에서 굴을 따는 교포들에게 자주 말하기를, “굴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오, 겨레의 얼을 회복하는 첩경이지요.”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도산은 겨레의 정신을 회복하여 동포들 생활수준을 높이도록 의식각성의 길이 소중함을 일찍부터 가슴에 새기었다.

『논어』에 의하면, 임방이 예(禮)의 근본에 관한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자께서는 “훌륭한 질문이구나!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해야 하고, 상은 형식적이기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¹라고 답변하였다. 예의 근본정신은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함에 있고 형식보다 슬퍼함에 있다. 형식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예의 근본이다. 도산에게 ‘예(禮)’는 인간의 순수 감정이 흐르는 ‘유로(流路)’로서, 민족감정을 바르게 통하는 통로로서 필요하였다. 예는 사람의 도리이자 순수감정의 유로로서 도산을 만난 사람들은 예의 반듯한 그 모습을 떠올리곤 하였다.

이에 도산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양성하고자 1913년 5월,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는 겨레의 순수감정을 고양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실력배양에 도움이 되는 민족사상의 조직이자 도산사상의 결정체로 작용하였다. 이 흥사단을 통해 도산은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에 해당하는 분열의식을 극복하고 협동과 단결을 고취하고자 결심했다. 아울러 수고는 자신이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리는 일상의 대공정신으로 공손과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였다. 흥사단이 일제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를 넘도록 역사를 이어온 것에는 대공주의를 담는 그릇으로서 흥사단이 존재하였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역사적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어딘가를 향해 ‘길을 가는 인간(homo viator)’으로서 구도적 인간을 묘사하였다. 세기말적이며 종말론적 풍토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현실도피서가 아니라 영혼차원을 모색하고 초월성취를 목말라 한다. 이러한 초월지향의 행위는 절망적인 한계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일제탄압을 받고서도 개신희망의 싱그러움을 유지하게 했다. 도산의 사상은 무실역행 사상으로 시간의 제한 속에서 인고세월을 감내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대공의 뜻을 가슴에 아로새길 수 있기에 선악의 치열한 대립을 오히려

1 『論語』 「八佾篇」, ‘禮與其奢也寧儉 喪與其易也寧戚’

상대화하며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품고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었다.

도산의 선비기개는 그 뿌리가 남명 조식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중기,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은 성리정신에 눈을 뒀고, 선조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문을 올렸다. 선비정신이 있었기에 죽음에 초연하였으며, 비판적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로서 원기가 흠어지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선비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남명의 전언처럼, 선비는 ‘나라의 으뜸 되는 기운’이다.

선비정신은 외유내강(外柔內剛), 청빈검약(淸貧儉約), 박기후인(薄己厚人), 억강부약(抑強扶弱),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이다. 이는 올곧은 정신을 항상(恒常)의 도심(道心)으로 유지한다. 선비정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의병활동과 저항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일본제국주의 국권침탈에 항의해서 자결하는 등 국가 위기 시에는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역할을 했다. 어릴 때부터 선비정신이 몸에 밴 도산에게는 개인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대공주의 태도가 생활습관이 되었다.

선비는 과거(科擧)를 통해 관료가 되거나, 산림(山林)을 지키며 학파 또는 정파의 영수가 되거나, 또는 난세에 처하여서는 벼슬하지 않고 숨어사는 은일(隱逸)로서 산다.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선비는 의리명분(義理名分)을 중시하고, 학행일치(學行一致)하며, 극기복례(克己復禮)하고 상생(相生)하는 가운데 선비정신을 유지하면서 대공주의에 투철(透徹)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선비정신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道理)”을 제시하고 인간 세상을 정화하는 도덕실천에 있다. 선비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도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비판지성’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 비판적 기능의 핵심은 ‘절의(節義)’이다. 절의는 ‘절개’와 ‘의리’가 결합된 말로서, 절개는 올바른 신념이나 신의를 굽히지 않으려는 깨끗한 태도를 가리킨다. 절의태도가 선비정신의 중추를 이룬다. 절의는 불굴의 기개이며, 위압이나 유혹을 거부하고, 공분(公憤)으로 신념을 지켜나가는 불굴의 기개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패륜 행위를 비판하며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死六臣)'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로서 남효온의 『육신전(六臣傳)』에 의하면,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들로서 절의파의 선구자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저항하며 결사항전을 주장하다 청나라로 끌려가 참형을 당했던 삼학사(三學士)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화의를 반대하고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가 인조가 항복한 뒤 중국 선양으로 끌려가 참형당한 홍익한·윤집·오달제로서 절의를 몸t 실천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의병활동을 하다가 단식 자결한 최익현(崔益鉉: 1833~1907),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에 스스로 순국한 황현(黃玹: 1855~1910)은 국난에서 절의를 지킨 선비였다. 절의는 지금 힘들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상관연동의 사유방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역사흐름에 대한 신뢰에서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며 거래열 살리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퇴계역시 선비를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는 것이며 저쪽에서 '부(富)'를 가진 것이라면, 나는 '인(仁)'을 지키는 것이고, 저쪽이 벼슬을 가진다면 나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부귀를 넘어서 절의를 지키려는 삶의 태도에서 선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인의 사회역할이 커지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망에 대한 성찰과 도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조선의 선비정신을 온몸으로 물려받은 도산은 민족을 살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대공주의 가치와 전망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비전은 민족희망을 일깨우기 위해 생활실천을 그 요건으로 삼는다. 일상의 평상심을 통해 구현할 때 비로소 이념은 일상생활에 반영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 대공주의 실천 그리고 대공주의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남북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못한 오늘의 현실에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통일실천의 전략으로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와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대공주의 가치

도산은 민족을 살리려는 사상의 기초를 대공주의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민족독립 운동계에는 좌우익 사이의 협력을 포함하여 민족적

대동단결을 이루어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 혹은 대독립당운동(大獨立黨運動)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 운동의 배경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먼저, 삼일독립운동을 기점으로 민족주의 운동진영과 사회주의 운동진영 사이에는 일제반격으로 점차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또한 좌우합작의 민족협동전선론과 맞물려 중국의 국공합작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일부의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와 타협하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924년부터 무렵부터 국내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좌우합작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1927년 신간회로 나타났고 만주지역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의 산발적 논의를 실천적 단계로 이끈 주도적 인물이 도산 안창호였다. 그는 미국에서 귀환하여 상해 도착 이후 대독립당운동을 위한 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삼일운동 이후 중국에 건너와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등에서 활약했던 도산은 1924년 말,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 가족과 국민회 분만 아니라 흥사단 등의 튼튼한 지지기반을 두었던 미국에서 1년 동안 체류한 다음, 도산은 1926년 5월, 상해에 돌아왔다.

이때 도산은 독립운동을 추진할 대독립당 결성과 함께 국외 독립운동의 근거가 될 이상촌 건설의 구상을 유지하였다.² 계속되는 독립운동가의 분열 이탈과 극심한 재정난에 부딪혀 임정은 존폐기로에 처하였다. 임정의 의정원(議政院)에서는 귀환도산의 도산을 국무령으로 선출하고 그의 도착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도산은 자신의 대공주의 구상에 의거하여 취임을 거부하였다. 도산은 홍진(洪鎭)을 국무령에 천거하고 자신은 임시정부경제후원회(臨時政府經濟後援會)를 조직하고 경제후원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도산은 임정존속이 가능해진 다음에 비로소 대독립당운동에 전개할 수 있었다.

도산은 1926년 7월 8일 삼일당(三一黨)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혁명운동과

2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1947. p.388.

임시정부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두 시간 동안의 연설을 통해 상해에서 대독립운동의 전개를 만방에 고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수고 자주독립의 신국가 건설에 매진하려는 뜻을 천명하였다. 이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민족과제로서 대공의 민족주의 혁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는 민족대동단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민족복지, 공공이익, 국가요청을 전제로 한다. 경제관점의 이상사회건설의 설계도로서 민족해방주의, 자유민주주의, 상호부조주의 장점을 종합하여 새롭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주의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도산은 당면 정책으로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네 가지 평등을 주장하였다.³ 이처럼 도산이 오십 평생 생각한 인생관과 정치철학을 종합 정리한 것을 일컬어 대공주의이다. 무엇보다도 도산은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공통표어를 마련할 목적에서 '대공주의'라는 용어를 창작하고, 이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는 곧 민족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민주사회의 도의적인 정치경제규범이다.

도산은 조국앞날은 점진개혁이나 실력양성론이 현실여건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기에 민족혁명으로 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일본과 효율적 투쟁을 위해 대혁명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도산의 주선과 후원에 힘입어 임정 국무령에 취임한 홍진(洪鎭)도 취임식에서 대독립당운동의 전개를 포함한 3개조의 정강을 발표 하였다. 이에는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새로운 운동을 전제하고, 민족을 망라한 공고한 당체를 조직하며, 세계의 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연락 가능한 우방과 제휴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던 원세훈(元世薰)은 일찍부터 조선공화국 수립 등에 가담함으로써 임정반대 노선을 걸어왔지만 대독립당운동 결성에 즈음하여 도산과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이에 1926년 10월 하순, 북경에서 조성환(曹成煥)을 대표로 하고 원세훈, 장건상 등 23명을 회원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단위 조직, '유일독립당북경촉성회(唯一獨立黨北京促成會)'가 결성되었다. 선언서에서 '하나의 기치아래 모이고 하나의 호령아래 모여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3 위의 책, pp. 5-6

전제하고, 그 역사적 성공사례로서 소련공산당과 중국국민당 그리고 아일랜드의 신페인당을 열거한 다음 '민족의 행복과 자유를 생각하는 동서 혁명자들이 각각 일정한 주의 강령과 훈련 규율 아래서 일당에 결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폭적인 찬성을 받았다.

당시 만주에는 100만이 넘는 교민을 상대로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참의부의 3부 체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저변에는 청년동맹, 농노동맹 등의 단체가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의 지도를 받아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좌우합작이 큰 과제로 등장하였다. 당시 도산이 참석했던 신안둔회의(新安屯會議)는 3년 동안 지속된 만주지역 유일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우익은 사상적 흐름에 따라 청년층으로부터 소외가 가중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1924년의 중국 국공합작은 좌우합작의 성공모델로 작용하였다. 대독립당운동은 코민테른 방침과 사회주의자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28년에 접어들면서 상해에서의 유일당운동은 좌우합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노선에 있어 착오를 면치 못하였다. 결국 상해의 독립운동계는 민족주의자 진영, '한국독립당'과 사회주의자 진영의 결집체, '유호한국독립당자동맹(留扈韓國獨立黨者同盟)'으로 나뉘었다.

서북파의 도산 계통과 기호파의 이 동령 계통의 합작을 중심으로 범민족진영의 한국독립당 창당 작업은 1929년 말에서 193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1930년 1월 25일, 비밀리에 28명 발기인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당의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이전과 구별되는 한국독립당의 면모를 갖추었다. 비록 좌우합작은 실패하였지만 민족단결을 골격으로 하는 대공주의가 한국독립당의 창당취지가 됨으로써 좌우합작으로 직진하기보다 거래일에 뿌리를 두는 대공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의 분기점을 이루었다.

이처럼 대공주의는 거래의 얼을 견지하는 큰 사업이념이며 백년교육의 실천이념이자 이상촌 건설을 위한 사회개혁 이념이다. 그가 가장 미워한 것은 거짓과 위선이었으며, 가장 사랑한 것은 진실이었다. 거짓이 협잡과 위선을 낳는데 그치는 것이 나니라 공사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 불신을 낳고 불신은 민족불행을 낳기에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 도산은 나라를 사랑하며 극기수양의 인간관을 견지하였다. 그는 흐트러진 말이나 행동을 싫어하였으며 절도가 배어있었고 예의범절에

투철하였으며, 대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를 권장하였다.⁴

도산은 대공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삼대 평등강령을 주요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조소앙은 이를 '삼평등주의'로 발전시켰다. 대공주의에 투철하였기에 도산은 진실과 사랑, 봉사를 통해 애국활동으로 일관하였다. 먼저, 무실, 역행, 충의, 용맹의 4대 정신을 통해 진실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신뢰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봉사정신이다. 민족이라는 대공(大公)을 위해 적극적이며 무조건적인 봉사를 권장하였다. 결국 도산은 애국애족의 진실성을 유지함으로써 만인의 사표가 될 수 있었다.

도산이 독립국가 건설을 설계하고자 제시한 대공주의는 반일독립과 현대 민주주의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이었다. 정치적으로 보통선거제와 경제적으로 토지 국유제 그리고 교육에서의 국비의무제를 통한 민족평등실현이었다. 이처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속에서 사회경제적 평등이 강조된 자주독립의 신민주국가 건설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과 평화연대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세계를 지향하는 구상이었다. 도산의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독립국가구상은 1920년대 말, 한국독립당의 강령으로 정착됨으로 이후 전개되는 중국 민족진영의 공통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조소앙에 의해 삼균주의로 계승 발전하였다.

일본제국주의와 타협하려는 일부 반민족세력과 극단적 공산주의 세력의 대두에 의해 직면에 처했던 한국민족주의와 민족운동전개에서 대공주의는 과거 군자(君子)의 인격에 비견하는 품격을 주문하였다. 학식과 덕행이 높은 유덕자(有德者)의 모습은 높은 관직에 있는 유위자(有位者)의 모습을 능가하는 품격이다. 유위자(有位者)까지 군자로서 지칭함은 벼슬을 얻어 정치하는 일을 직분으로 삼는 기회주의자까지 수용함을 의미한다.

군자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를 얻고자 생명을 함부로 걸지 않기에 '군자불입위방(君子不入危方)'을 중시한다. 또한 군자와 교류는

4 거래열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거래열을 빛낸 역사인물 100인, 38 안창호』, (서울: 경인문화사, 2008), p. 206.

담박하기가 물과 같아 집착과 욕심이 없기에 '군자지교담약수(君子之交淡若水)'이다. 고결함과 청결함이 군자 같다하여 대나무를 군자, 연꽃과 국화를 군자의 꽃이라 부른다.⁵ 군자인격을 비유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사군자(四君子)'라고 일컫는다. 선비는 벼슬살이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에 강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비가 '나라의 원기(元氣)'로 인정되고, 선비정신으로서 '사기(士氣)'를 진작시켰다. 도산에 나타난 선비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 아끼고 중시할 대공의 가치이다.

도산이 미주에서 결성한 한인들의 단체는 1905년 '공립협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다. 비록 해외에서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든 생활이었지만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 1908년 장인환(張仁煥), 전명운(田明雲) 등이 일본의 식민화에 앞장섰던 스티븐스(D. W. Stevens)를 저격하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1909년 2월, '국민회'라는 이름을 표방하였다. 이 명칭에는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서의 '국민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회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독립된 언론과 교육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산은 지속적으로 국민대표회의 개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도산, 여운형, 김규식 등이 '국민대표회기성회' 조직위원으로 선출되고, '국민 대 결속'을 제창하는 '국민대표회준비위원회 선언서'를 발표하였다.⁶

또한 서울 광고 아래 청계천변에 자리 잡은 삼각동에 오랫동안 기억할 역사적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곳이 있다. '경술국치'로 겨레가 슬픔과 분노에 잠겼던 1910년 9월, 이곳 한옥 2층 건물에서 도산과 백암 박은식, 육당 최남선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결성하였다. 이 광문회는 고전수집과 보존, 출판과 반포를 역점사업으로 내세웠다.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더라도 멈출 수 없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겨레얼을 민족혼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대광의 문화운동이다. 조선광문회가 펴낸 책 중에 충무공의 『난중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민속학 등 많은 고전들을 조선광문회를 통해 수집하고 발간하였다.

5 줄고, 「선비정신과 대동사회」,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안동: 동아문화사, 2014), p. 142.

6 박찬성, 『민족주의의 시대』, (서울: 경인문화사, 2007), p. 226.

특히 『우리말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내외상황 악화로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이후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 김두봉, 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수정, 정리한 말모이는 뒷날 『우리말 큰 사전』의 모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광문회는 삼일운동의 실질적 발상지이며 온상이었다. 광문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삼일운동을 계획하였으며 이곳에서 육당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으며, 손수 문선-조판까지 하였기에 2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주의, 국민주의로 번역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독립 국가를 영위하는 이념으로 이해되었다. 국권의 상실과 민족의 분단에 놓인 20세기 도산생존 당시의 민족주의는 현상위기를 타파하려는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1918년,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으며 국내외 지식인들이 동요할 즈음에 도산은 '전쟁종결과 우리의 할 일'에서 '해외 한인이 대동단결을 이루겠느냐 하면 아직은 몽상뿐이요 실로 못될 일이다. 대동단결을 이루려면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서 그 전제로서 '대동집할 할 상식, 큰 단체를 옹호할 만한 중추력, 중추의 중심으로 단체를 통어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한다.'⁷고 주창하였다.

도산은 당시 민족주의 진영 일부에서 대동단결을 주장하고 독립운동 개시를 주창한 데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대동단결 선언'에 대해 대동단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독립운동 개시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하자거나 외교노력으로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 승인을 요구했지만, 도산은 당시 상황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시점에서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일에 불과하다.'⁸고 보고 자신의 지론, 대공주의에 입각하여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정신의 고취를 근간으로 '단군에 대한 숭봉과 존사는 후손으로 당연한 일'⁹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러 단군 선양을 위한 삼성사 건립 기성회를 조직했다.

7 도산기념사업회 편 『안도산전서』 (서울: 범양사, 1990), p.85.

8 위의 책, p.84.

9 이지원,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문화운동론의 성격」 『국사관논총』 51, p.133.

도산은 대공주의 근거한 민족개조와 관련하여 실력을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919년 12월 27일, '물방황(勿彷徨)' 연설에서 시작하여 '힘을 기르소서'라는 당부를 편지에도 남기도 본격적으로 연설하지 시작한 계기는 춘원이 귀국하고 난 1921년 7월 이후였다.¹⁰ 1922년, 춘원 이광수의 논설,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은 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민족의 비극원인과 개조할 초점으로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사회성의 결핍 등이 금일쇠퇴에 빠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도산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1924년, '따스한 공기' 연설에서 나타났고, 백암과 함께 '신민(新民)'을 자주 거론하였다.

도산이 조직한 신민회는 국내 인사와 해외 교포를 두루 망라한 거대한 조직으로서 하와이, 블라디보스토크, 멕시코 등지의 교포를 합하여 회원 수가 국내 12만 명, 해외 10만 명 등 총 22만 명에 이르렀다.¹¹ 당시에는 이민자와 교포를 중심으로 활발한 단체 결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과 부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교육진흥과 학교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춘원은 스승이면서 아버지처럼 모시던 도산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자 칩거하여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 성과는 『유정』 작품으로 나타났다. 도산의 대공주의 정신표상으로 강한 조선인에 대한 염원은 일제압박을 받은 조선인의 원한이 깊어가고 복수의지가 나타날 때 대공주의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1930년대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전환해야 하는 힘든 시기였지만, 새롭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주의를 넘어서는 가치관의 도입이었다. 이에 도산 대공주의는 새로운 민족주의 지평이었다.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는 한국민족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애국애족의 인생관을 함유(含有)하고 있다. 당시 일제 강점이 장기화되자 이에 순응하여 이기적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아적 이익추구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었다. 동시에 민중계층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낸 일부 극단적 화회주의자들은 계급주의와 국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족가치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10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서울: 미지북스, 2013), p.309.

11 윤경로, 「신민회 창립과 전덕기」 『한국근대사의 성찰과 고백』 (서울: 한성대출판부, 2008), p.146.

이에 도산은 애국애족의 가치관 함양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은 이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난다. “오늘날로 보아도 요새 일부 청년들이 제 정신을 잃고 러시아로 조국을 삼고 레닌을 국부로 삼아서 레닌의 배설물까지 달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¹²

물론 이념갈등의 대립이 나타났지만 도산이 강조하고자 한 측면은 민족적인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지연에 따른 분파성의 극복은 물론이거니와 사상 차이에 따른 정파규합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삼일운동 이후에는 급속히 세력이 커진 좌파 세력과의 제휴가 필수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는 각 세력 간의 이해 조정뿐만 아니라 좌우 합작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바탕제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음이다. 우리는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표현에 주목한다.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¹³

도산은 대장부의 기개를 갖추고 좌우합작의 대동사회 구현에 앞서기보다 민족을 위하는 대의명분의 대공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 대동사회보다 대공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이다. 그의 대공주의는 가치론적으로 영성인본주의 가치를 드러낸다. 지연, 혈연, 학연 등 각종 연줄로 얽혀 살아가다보면 사람 사이는 편견과 소외를 조장하기에 차별대우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는 모름지기 자기가 맡고 있는 학급이나 반의 학생들을 모두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무제약적인 자유를 누리는 현대인도 공허한 자유에서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를 살려내는 자유를 향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은 대공주의 실천에서 살펴본다.

Ⅲ. 대공주의 실천

도산은 대공주의 일상실천을 위해 흥사단의 4대 정신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12 김구, 『백범일지』 (서울: 우선문화사, 1984), p.197.

13 주요한, 『안도산전서』 (서울: 三中堂, 1971), p.5.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4대 정신의 생활화이다. '무실'을 '참되기를 힘쓰는 것'이라면, '역행'은 '행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이 둘의 만남으로서 '무실역행'은 도산사상의 핵심가치로서 선비의 무실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도산은 '대공주의'를 통해 민족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모색하고 '무실역행'을 통해 민족독립과 번영을 위한 힘의 원천을 찾았다. 이러한 가치개념에는 민족국가 건설에는 진실한 도덕주체의 확립에 대한 도산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민족에 대한 충성과 불의에 대한 용감한 투쟁정신을 담고 있다.

『논어』에는 공분(公憤)을 긍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공자께서 계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여덟 줄로 뜰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¹⁴ 팔일무(八佾舞)는 천자에게 허용된 춤이다. '일(佾)'은 사람이 줄을 지어 추는 춤으로 가로와 세로에 같은 인원의 정방형으로 배치된다. 팔일무는 가로와 세로에 여덟 명씩 줄을 서서 모두 64명이 추는 것이 정형이었다. 당시는 신분에 따라 의식에 쓰는 춤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 천자는 팔일무(八佾舞, 64명), 제후는 육일무(六佾舞, 36명), 대부는 사일무(四佾舞, 16명), '사'는 이일무(二佾舞, 4명)를 추게 되어 있다.

공자가 계씨에 대해 분노한 것은 계씨가 제후 신분으로 당연히 육일무를 보아야 되는 도리, '예(禮)'를 그르쳤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보니 팔일무를 보게 되고 천자권력을 넘보기까지 하였다. 공자는 계씨의 행동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여 공분(公憤)을 토로하였다. 계씨의 행동을 보고도 참아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제나라에서 돌아온 공자가 관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자양성에 진력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었다.

공자는 삼한의 근거지를 제거함으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니 삼도(三都)를 허무는 일이었다. 삼도는 계손 씨 비(費), 숙손 씨 후(郈), 맹손 씨 성(郕)들이 다스리는 도시이다. 공자의 말을 들은 정공은 세 곳의 성곽을 예법에 맞게 헐어고자 했다. 세 가문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싸움은 치열하였다. 위기에 몰린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천하를 주유(周遊)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동사회 염원이 나타났다. 이는 심산유곡의 도화원, 수호지의 양산박사회, 녹해서인(錄海西人)의 해인국과 연관된다. 새 대동사회의 도래를

14 줄고, 앞의 글, p. 145. 『論語』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可忍也' 參照.

선언한 한말 태평도, 오두미도, 명왕출세(明王出世)와 미륵강생을 대망하는 명교의 비밀결사에서도 대동사회를 건설하여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논어(論語)』 「팔유(八佾)」에 의하면, 대동사회 구현과 연관된 정명사상이 나온다. 공자께서 '오랑캐 나라에 군왕이 있는 것이,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고 했다. 유교 정치이념은 위로는 왕으로 부터 아래는 백성에 이르기 까지 수신하여 왕이 강압적 권위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덕치(德治)를 하는 것이다. 덕치인식이 없는 나라의 왕은 폭군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많다. 공정성으로서 정의구현이 덕치의 요건을 이루었다.

도산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한인 동포를 순방할 때마다 이를 알리는 기사들이 재미한인 사회미디어에 보도되었고, 도산을 소재로 하는 시가 작품들이 「신한민보」에 발표되었다. 도산은 재미한인사회 지도자인 까닭에, 그의 행적은 재미한인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도산은 생전에 '도산의 꽃동산'을 통해 조선에서 도산이 체류한 경험이나 상황을 알려주었다.

'도산의 꽃동산'을 시가 소재로 다룬 홍언(洪焉) 작가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곳곳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도산에 대해 '도산의 꽃동산을 떠나면서', '산옹의 여식수산에게'에서는 도산을 연꽃을 활용하여 '군자'에 비유했다. '버들을 옮겨 심으며'에서는 조국 독립을 성취하고 민족을 구원할 '삼한공자'라고 일컬었다. 홍언 작가는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를 「신한민보」에 발표함으로써, 도산을 재미한인 사회에 알리고 민족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굳혀갔다. 두 사람 관계는 동지관계이다.¹⁵

중국 상하이에 있던 도산은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에 변화하는 중국정세를 알리고자 그해 11월 6일, 홍언 작가에게 편지를 보냈다.¹⁶ 이 편지는 '홍언 동지 회감(洪焉 同志 回鑑)'¹⁷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도산이 홍언을 '동지'로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15 김아연, 「홍언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연구」 『인문과학』 80, 2021.2. p.45.

16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浩全集』 8(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 2000), pp. 631~637.

17 위의 책, p. 631

있다. 또한 흥언 작가는 1938년 11월 10일자 「신한민보」에 발표된 “다시 와서 보는 도산의 꽃동산”의 발문(跋文)에서 “그날 밤 홀로 앉아 선생의 재미생활로부터 꽃동산을 생각하는 그때에 비로소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심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동지의 정에서 느껴지는 정이 필경 나로 하여금 애절한 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¹⁸고 술회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흥언 작가는 도산을 ‘동지’로 여겼으며, 흥언 또한 도산의 서세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였다.

1911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빌딩의 「신한민보」의 주필을 맡은 흥언 작가는 1911년 11월 1일 회사에 첫 출근을 하기 위해 하루 전, 10월 31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도산은 한일병합조약 이전에 일제에 탄압 받던 한인들의 러시아 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회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서 1910년 8월 23일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후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등을 거쳐 1911년 9월 28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도산이 흥언 작가보다 샌프란시스코에 한 달 먼저 도착하였다. 그들의 만남은 1911년 12월 4일 리버사이드에서 북미지방총회 의회가 폐막된 후, 도산이 각지를 순행하고 하와이로 갈 계획으로 흥언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회장으로, 도산은 대의원으로 선정되어 대한인국민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시기였다. 1907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설계를 입안하였는데, 1913년 5월 13일, 도산이 그 뜻을 살려 흥사단을 창단하였다.

이때 서울 남부 출신, 흥언 작가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창립단우’ 자격으로 흥사단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인연으로 흥언 작가를 비롯한 송종익(宋鍾翊), 장리욱(張利郁) 등 흥사단우는 도산의 가족과 1917년부터 함께 살았다. 1층은 흥사단이, 2층은 도산 가족이 거주하였다. 이 집에는 흥언 작가의 시가에 등장하는 ‘도산의 꽃동산’이 있었다. 도산의 장녀, 안수산이야기에 수록된 ‘도산의 꽃동산’에 얽힌 일화들도 소개되어 있다.

도산은 가능한 집에 머물면서 정원을 돌보았다. 그는 마당에 토란, 늘어진 버드나무, 과꽃, 그리고 장미덩굴과 같은 식물을 심기 좋아했다. 그는 연못을 파고 그 주변에 돌을 빙 둘러 놓고는 연꽃을 심고자 물을 채워 넣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도산에게는

18 「신한민보」, 1938년 11월 10일자, p. 3.

위안거리였다. 나무, 돌, 덩굴, 관목, 꽃, 그리고 갖가지 식물 하나하나에 도산만이 아는 이야기와 뜻이 새겨져 있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늘어진 버드나무가 그러했다. 그는 버드나무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버드나무에 수년 동안 애정을 나타냈다. 도산에게 늘어진 버드나무는 향수와 그리움의 표상이었으며,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뛰어오르거나 잡아채며 놀았다. 아이들은 늘어진 가지들을 잡아당기기를 좋아했다.

도산은 아이들을 위해 사시나무들을 심어주었다. 그는 삼각형 잎사귀로 아름답고 짙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시나무가 캘리포니아의 태양 별 아래서 노는 아이들에게 좋은 피난처라는 알아차렸다. 도산은 흰 국화, 백합, 새빨간 붓꽃, 그리고 더 많은 장미 덩굴을 심었다. 그는 꿈의 동산을 자기방식대로 꾸몄지만, 아내 혜련에게는 야채를 심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했다.

하루는 도산이 심은 장미 옆에 옥수수를 심었다. 이는 부부사이의 유일한 싸움원인이 되었다. 그는 현관 앞에 세워진 태극기와 그 옆에 똑같은 크기의 미국 성조기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녀는 실용적이어서 반찬거리를 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원을 꾸미는 계획을 다시 짜면서, 꽃과 채소를 공평하게 심기로 합의하였다. 도산은 마당 왼편에 정원을 가꾸고, 아내 혜련은 오른편에 채소를 가꾸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시나무 아래에서 놀았다.

이처럼 도산이 계획한 '도산의 꽃동산'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조화를 이루는 품위 있는 동산이었다. 도산의 아내, 혜련(惠鍊)은 도산에게 있어 '도산의 꽃동산'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로서 자녀들과 흥사단우들의 반찬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옥수수 등 채소를 기르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두 사람은 다툼을 화해로 바꾸어 마당의 왼편에는 '도산의 꽃동산', 오른편에는 혜련의 채소밭을 조성하였다. 도산은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간경화, 위하수증 등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1938년 3월 10일,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일생을 마감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뒤, 1938년 11월 10일, 17일, 24일에 흥언 작가는 "다시 와서 보는

도산의 꽃동산"을 「신한민보」에 연재하여 '도산의 꽃동산'을 회고하였다.¹⁹

'일생이 소술한 나는 소술한 가을을 당하여 고인의 생각이 간절함으로 며칠 전 도산의 옛 동산을 다시 찾아가 연당과 낙엽이 깔린 정원에서 선생이 남긴 자취를 찾아 기록하니 선생의 재미생활의 일화를 엿볼 수 있다.'라고 회고하며, 1917년에 도산이 가족과 같이 이 집으로 옮겨와 흥사단의 사무실과 꽃동산을 만들었으니 이십여 년이나 되었음을 상기한다.

실제로 도산이 '도산의 꽃동산'에 머물 기회는 많지 않았다. 도산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과 한국인 동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집을 자주 비웠다. 흥언 작가는 도산이 '도산의 꽃동산'을 가꾸던 일을 "선생의 재미생활의 일화"로서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살펴보면, 도산이 꽃과 나무를 좋아하였으며 집에 머무는 동안 '도산의 꽃동산'을 돌보는 일에 진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34년 10월 1일,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그가 장녀 안수산(安壽山)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다. '너희들이 매우 바쁘지마는 뜰을 깨끗하게 거두고 화초를 잘 길러라. 이것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을 양성하는 한 과정'이라고 언급한 데서 드러난다.

사랑을 인생최고의 진실이라고 여겼던 도산에게 있어 화초를 가꾸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과제였다. 1935년, 도산의 가족은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라고 불리는 맥클린톡(McClintock)으로 이사하였다. 도산의 아내는 도산의 사후에 '도산의 꽃동산'에 심어진 버드나무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버드나무는 안창호에게 향수와 그리움의 상징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도산이 만들어 준 놀이터였다. 버드나무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추억하는 표상이었다. 도산아내, 혜련은 1938년 3월 하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이때 흥언 작가에게 '도산의 꽃동산'에 있던 버드나무를 새 집으로 옮겨 심어주기를 부탁하였다.

이 버드나무에 대해 흥언 작가는 1938년 11월 17일자 「신한민보」에 게시된 "다시 와서

19 「신한민보」, 1925년 11월 12일, p.1.

보는 도산의 꽃동산(2)"에서 '뒤뜰의 팔작 나무'에서 "선생이 다시 미국에 돌아온 후 1925년 3월, 콜링가에서 꺾어다 심어 둔 것이라"고 술회하였고 도산이 버드나무를 심은 까닭에 대해 버드나무의 "그 성질이 아무데서나 잘 살고 쉬이 자라며 또 그 가지가 무성하여 여름에는 능히 두터운 그늘을 덮혀 줌이라"²⁰고 밝혔다. 도산아내의 뜻을 존중한 흥언 작가는 도산의 장남 안필립(安必立)과 함께 '도산의 꽃동산'에 가서 버드나무를 꺾어 새 집의 서너 곳에 나누어 심었다고 전한다.

흥언 작가는 도산의 사후에도 도산 가족과 교유를 유지하고,²¹ 도산의 자취를 추억하며, '도산의 꽃동산'에 대한 도산의 애정을 마음 속 깊이 기렸다고 할 것이다. 꽃을 사랑하는 결과는 사용하는 문장이 향기가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에 작가는 꽃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흥언 작가의 꽃 사랑과 꽃 사랑의 실천방안으로 글쓰기 행위는 도산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추모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산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의 하나로 꽃을 사랑함이며 '도산의 꽃동산'에 연꽃·타로 토란·과꽃·장미덩굴·버드나무·사시나무·흰 국화·백합·새빨간 붓꽃·장미 등 다양한 화목을 심고 가꾸던 일과 궤적을 함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도산의 대공주의는 일상생활에서 꽃을 사랑하고 가꾸는 실천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는 생전의 모습과 사후모습으로 나뉜다. 먼저 도산의 생전, '도산의 꽃동산' 시가의 내용을 살펴본다. 꽃동산 주인의 국내 체류로 적막한 '도산의 꽃동산'에서 조국의 광복을 기원한다.

“밤 속 있는 동산 달빛이 울연한데 이슬 꿈을 꾸고 새들도 잠들었다.
외로이 가는 사람 홀로 돌아와 말없이 방황하며 꽃 없이 느끼는 것
물 마른 연 당숙 군자화 소식 없고 거친 꽃동산이 변해서 풀밭이라.
가을 깊어 갈 때 국화를 못 보면 춘광 돌아올 때 장미도 그럴 테지
이 동산 꽃 없는 것 주인 같음이라 춘광 원망하며 가을을 슬퍼하라
여기서 깨닫는 것, 무궁한 봄가을에 동산 주인이요, 강산 주인이니!”²² ”

20 「신한민보」, 1938년 11월 17일, p. 3.

21 「신한민보」, 1938년 9월 8일, p. 2.

22 「신한민보」, 1935년 12월 26일, p. 3.

도산의 꽃동산”은 퇴락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정회를 노래했다. 또한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풀밭으로 변하고 꽃이 없는 까닭을 주인신세에 비유하면서 주인의 부재를 탄식한다. “도산의 꽃동산”이 창작된 1935년, ‘도산의 꽃동산’ 주인으로 도산이 국내에 있었지만, 주인이 부재할 때 주인을 대신하여 ‘도산의 꽃동산’을 가꾸던 도산 가족은 맥클린톡으로 이주하였다. 가을이 깊어감에 국화, 봄이 돌아옴에 장미를 보기 어려움을 예감하면서 봄별의 따사로움에 대한 원망과 가을의 서늘함에 대한 슬픔도 더 이상 부질없음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친 것은 ‘동산’과 ‘강산’은 ‘공간’ 범주에 속하며, ‘주인’은 ‘동산’과 ‘강산’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흥언 작가는 ‘도산의 꽃동산’을 보고 과거에 ‘도산의 꽃동산’을 가꾸던 주인으로서 도산을 상기하고, 1935년에 ‘강산’의 조국에 주인이 체류한 사실을 연상하였다. 꽃동산 주인의 국내 체류로 말미암아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황폐해진 ‘도산의 꽃동산’을 재현하며 슬픔을 토론한다. 다음은 도산사후를 기린 “도산의 꽃동산을 떠나면서”에서 구체적으로 당시의 생활모습을 단편적으로나 엿볼 수가 있다.

병든 잎 너도 차마 옛 가지를 못 떠나 청의 벗고
그대로 달려오니 바람 조석으로 흔들다 고요하며
철 안든 적은 꽃 그 누구 보랴만 쓸쓸한 동산 위
양지에 피었다고 지는 햇별조차 돌이켜 비추도다.
하물며 가는 사람 자영화 수양버들 홍장미 노국화
옛날에 늙지 않던 춘광 생각하면 병든 잎 적은 꽃
명년 다시오면 이나마 있을 것인가 연당 돌아보며
처량히 느낀 것, 물 없이 뭉친 부용군자 신세로세.²³

위의 “도산의 꽃동산을 떠나면서”에서는 ‘가는 사람’이 ‘도산의 꽃동산’에서 병든 버들잎으로, 개화 시기 아니지만 양지에 핀 작은 꽃으로 ‘도산의 꽃동산’의 현재를 묘사한다. 도치법을 활용하여 주인 돌봄 있어 라일락·수양버들·붉은 장미·황국화가 생기

23 「신한민보」, 1936년 2월 6일, p. 3.

있던 '도산의 꽃동산' 과거를 회상한다. 아울러 해체를 시도하여 병든 버들잎, 양지에 핀 작은 꽃이 "내명년 다시오면 이나마 있을 것인가" 반문함으로써, 미래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처럼 퇴락한 '도산의 꽃동산'에서 연못의 연당을 보고 물 없이 멍친 부용을 목도한다. 부용은 연잎 중 가장 둥글고 큰 잎이다. 그런데 '부용', '군자'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흥언 작가는 '부용'과 '군자'를 연결하는 잠재적 지시물, 연꽃을 추론하고 연꽃을 매개로 연꽃의 전형적 이미지로서 군자를 연상한다. 흥언 작가는 연못에 물이 말랐지만 곳곳하게 남아 있는 부용상황과 군자의 신세를 동일시한다. 군자는 아름다운 명성과 덕성을 드날린 사람이며 뜻이 깨끗하고 행실이 올곧은 사람이다. 군자맥락에서 '군자'는 '도산의 꽃동산' 주인이자 독립운동가, 도산으로 그 범위를 점차로 넓혀갔다고 할 것이다.

도산은 '대공주의' 사상을 표방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도산의 꽃동산'을 가꾸었고, 일제강점기에 굳건하고 변함없이 지조를 지켰다. 이에 따라 조선선비의 표상, '군자'를 활용하여 도산에 대한 흥언 작가의 존경을 나타낸다. '군자'를 도산으로 간주하면, 연못에 물이 말라 부용만 남아 있는 상황은 한일병합조약으로 조국을 상실한 도산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연못의 물은 부용에게, 조국은 도산에게 각각 근원적 생명력의 상징이다. 이처럼 '도산의 꽃동산'의 부용은 흥언 작가로 하여금 도산을 떠오르게 하고, 국권을 상실한 조국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은 도산의 호를 산옹으로도 쓰기에, 도산이 사랑하는 수산을 나타내는 시, "산옹의 애녀 수산에게"를 살펴본다.

산옹 집에 있어 깊은 정 매였던 것은 품 속 수산 뜰아래 부용이라
강남서 돌아올 때 산옹은 흰 머리요 수산 다방머리 부용 푸르렀다
대전에 열린 철창 산옹은 어떠한가? 부용 없었지만 수산 부용같이
어쩌면 내 강산에 이부용 옮겨다가 군자화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²⁴

이 시는 도산과 그의 장녀 안수산 그리고 부용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 1절은 도산이

24 「신한민보」, 1936년 3월 19일, p.3.

1919년 4월 1일, 뉴욕에서 출발하여 5월 25일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기 전, '도산의 꽃동산'에서 어린 안수산이 도산 품에 안겨 있던 일을 회상하고, 뜰아래 부용이 있는 정경을 상상한다. 제 2절은 산옹이 1924년 11월, 상하이를 떠나 12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겼고, 안수산은 10세가 되어 다박머리가 되었으며, 안수산이 성장하는 사이 부용도 자라 푸른빛이 나타남을 회상했다.

그런데 제 3절에서 도산은 1935년 2월 10일, 대전형무소에서 출감한 이후 국내 체류했기에 '도산의 꽃동산'에는 부재하였고, 부용도 '도산의 꽃동산'에 없음을 상기한다. 이에 작중의 화자는 부용을 성인 안수산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국내 체류하는 도산과 부용은 분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제 4절에서 부용을 도산이 체류하는 '내 강산'에 옮겨 심고 '군자화'로서 연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싶은 의지를 표현한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군자로 상징되는 도산이 민족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의 결실, 광복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 국권회복 의식을 담고 있다. 도산의 생사(生死)에 따라 '도산의 꽃동산' 소재의 시가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거점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흥언 작가는 도산 생전에 도산이 대전형무소에서 출감한 이후 국내에서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도산과 공적 유대를 표출하였다. 그런데 도산 사후는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배제한 채 동지를 잃은 슬픔을 토로하거나 절제함으로써 도산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작가로서 자신과 도산관계를 회상하면서 도산의 생사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고 시적 사유범위를 드러낸다.

이처럼 독립운동가인 흥언 작가와 도산은 1911년부터 동지로서 교류하였다. 도산의 로스앤젤레스의 집은 흥사단 경기도 대표였던 흥언 작가를 비롯하여 흥사단우들이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한 곳이다. 이 집에는 도산이 손수 가꾼 '도산의 꽃동산'이 있었다. 흥언 작가는 '도산의 꽃동산'을 소재로 시가 작품을 「신한민보」에 발표하였다. 흥언 작가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시가를 보고서 다음 같은 소회를 확인할 수 있다. '도산의 꽃동산' 주인의 국내체류로 적막한 '도산의 꽃동산'은 조국광복의 기원을 드러낸다. 도산의 생사에 따라 시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본다.

「신한민보」 시가는 미주지역 한인들이 국문노래를 통하여 애국애족, 독립추구, 이민생활 애환, 실향의식 등으로 목적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 흥언 작가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는 작가로서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서정문학이다. 동지 도산과 함께 '도산의 꽃동산'을 회고하면서 흥언 작가로서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도산은 로스앤젤레스 집에 조성된 '도산의 꽃동산'에서 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는데, 흥언 작가는 도산의 국내 체류 또는 절명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도산의 꽃동산' 소재시가를 발표함으로써 도산의 꽃 사랑을 마음 속 깊이 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의 대공주의 생활덕목을 네 가지 덕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소질 개발에 역점 두고 소질개발에 성실로 임하는 무실(務實), 남에게 봉사하고, 함께 베푸는 행위로서 배려(配慮)를 실천하는 역행(力行), 공공안위를 포함하여 영성의무를 숭선수범하는 충의(忠義), 조화를 위한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며 균형과 보살핌을 위해 용맹한 용감(勇敢)의 네 덕목이다. 이를 통해 도산의 꽃동산은 대공주의의 사례로서 조국과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대공주의 이념에 따른 실천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도산이 끼친 도덕적 공공성에 대해 깊은 감화를 느낄 수 있다.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나 평양의 송실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계통 교사를 지낸 김익상 의사는 삼일운동 이듬해, 1920년에 항일운동을 결심하고 북경을 떠나 의열단에 가입했다. 의열단은 무력투쟁노선을 지향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약산 김원봉(若山 金元鳳, 1898-1958)이 이끄는 강경한 의혈 독립운동단체이다.

반면에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오성윤 의사도 1920년 가을, 의열단에 가입한 후 압록강대교 폭파 등 대일투쟁계획을 수립한 의기 투철한 남아 대장부였다. 두 사람은 1922년 3월, 일본의 육군대신 출신의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뒷날 총리대신 역임) 육군대장이 상해 도착한다는 정부를 입수한, '의열단' 본부로부터 처단밀명을 받고 상해에서 만나 거사준비에 들어갔다. 거사 당일인 3월 28일, 적장 다나카 일행이 상해 황푸탄에 도착하여 하선하자, 대기하던 오성윤이 적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동승한 영국인 승객, 스네트 부인이 앞서 나오다가 그 총탄에 맞는 바람에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는 도산이 미주에서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직을 맡아 독립운동 방략을 수립하고, 연통제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등 행정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시절이었다. 도산은 임정요인의 자격으로 불의에 희생당한 스넬트 부인의 남편을 찾아가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전언과 함께 보상금까지 전한 일이 있었다.

오늘날 이유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총동적 인명살상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테러를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여러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공주의 실천에 따른 대원칙을 실감할 수 있다. 선인들의 투쟁방법에서 처단해야 할 당위적인 원흉만을 저격할 뿐, 그 밖의 인물은 절대 해치지 않는 대공주의 원칙에서이다.

도산의 대공주의 실천에서 높은 도덕적 공공성의 귀감은 인류에게 불멸의 귀감이자 영원한 교훈이 되고 있다.²⁵ 그래서 권총으로만 저격할 뿐 폭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1932년,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거사 때 폭탄을 사용한 것은 무리들 전부가 예외 없이 침략의 원흉들이었기 때문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소행으로 판명된 2001년, 미국이 치른 '9.11테러사태'의 전형을 되돌아 볼 때, 대공주의 이념의 실천으로 그 과정도 면밀하게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IV. 대공주의 전망

도산의 대공주의 전망은 민족독립과 거레얼 살리기 관점에서 통섭의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접목할 경우 대공주의는 영성인본주의와 상관한다. 무엇보다 영성으로서 인간 순수한 본래성을 강조한다. 이미 동력을 상실하고 역할을 다해가고 있는 서양 근대의 세속주의에 대한 개신 인본주의이다. 이는 기독교의 휴머니즘은 물론이고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보편적 영성까지 아우른다. 영성인본주의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배치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오늘날 많은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도산이 말하는 대공주의는

²⁵ 홍일석, 『나의 조국 대한민국』 (서울: 동서문화사, 2014), p. 71.

독립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제공된 것이지만, 민족국가 건설 이후에는 거래열을 지속적으로 살려가는 영성인본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감싸며 자연을 초월하는 '포월(包越)'의 청사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서구 근대화로 말미암은 다양한 문명혜택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한다. 이에 도산의 대공주의 전망은 영성인본주의로 사회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거래열을 살리고 보편적 자아, '참 나'의 존재를 자각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묘리를 나타낸다.

이제는 서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출세 지향적' 삶보다 영성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단순하고 소박하며 친환경적인 삶을 선호하는 대중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권위의식이나 허위의식을 부정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주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실심형성 자세를 요청한다.²⁶ 이에 오늘날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다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과거 조선선비가 꿈꾼 사회는 '대동세계(大同世界)'이다. 대동세계에서는 개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천하일가의 이상을 담고 있다. 공의를 구현할 관료등용과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구현은 당위적 삶의 도리라고 간주한다. 대동사회 표상은 천하위공(天下爲公), 균평(均平), 지덕태평(至德太平), 동우동락(同憂同樂), 동리동재(同利同財) 등이다. 이에 대동사회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치·사회·경제의 균평(均平)과 조화(調和)를 중시하면서 도덕성군의 출현을 기대하였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공의(公義)가 구현된다. 현자를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으로 하여금 여생을 보내도록 일할 여건을 보장하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람이 있으며, 과부와 홀아비를 돌보며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적령기에 결혼 상대가 있으며 여자도 재혼할 수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도 아니한다.

음모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도적이거나 난적도 발생하지 않기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26 줄고, 「담헌의 생태적 실심」, 『유교와 종교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9), p.334.

없으니 대동사회이다. 대동사회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규범을 신뢰하며, 실천을 통한 정상적 사회기능 회복을 기대하고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대동사회 구현사례로는 조선의 사림정치(士林政治)의 원조(元祖),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의 '지치주의(至治主義)'에서이다. 그는 백성이 골고루 혜택 받는 사회, 성리이념이 두루 미치는 이상건설 비전으로 개혁정치를 단행했다. 이 밖에 육당의 불함문화론에 근거한 동이문화(東夷文化)²⁷, 심산유곡의 도화원(桃花園), 녹해서인(錄海西人)의 해인국도 대동사회의 이상과 연관된다.

도산은 대동사회에 대해서 대공주의를 이념의 표상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기독영성과 유학선비가 함께 아우러진 이념이다. 인간 영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동산에 꽃을 키우고 사랑하는 심성으로 인간존엄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 길을 통해 민족을 지켜가고 겨레얼을 지속적으로 살리며 계승한다. 대공의 꽃동산 사회는 대동사회가 아니라 영선자각을 바탕으로 인간존엄 사회를 꽃동산으로 일구는 사회이다.

일찍이 서양의 엑카르트(Meister Eckhart)는 신과 신성을 구별했다.²⁸ 신은 삼위의 하느님으로서 속성을 지녔지만, 신성은 일체속성을 떠난 하느님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근저와 인간 이성의 근저가 영성에서 '하나'가 된다는 주장이다. 엑카르트는 자신의 연혼의 근저이자 신성근저로 돌파해 들어가며, 신비주의 영성을 체득하였다. 엑카르트의 영성세계는 도산이 꿈꾸던 대공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종교 사이의 담을 넘나드는 다종교적 영성, 종교와 비 종교, 성과 속, 참과 거짓의 이분법을 벗고 초월하는 위상이 주목받는다. 종교 아닌 영성 세계가 열리며, 하느님 너머의 신성을 만난다. 욕망 충족을 위한 이기심의 번뇌 망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영성의 텅 비고 고요하며 광명 충만한 밝은 세계의 대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다 참되고 자유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 겨레얼을 살리고 어렵게 쟁취한 독립 국가를 생명을 서로 살리며 더불어 행복한 '상생공복(相生共福)'의 국가로 일구어 갈 수 있다.

27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p. 292.

28 김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3), p. 17.

역사적으로 인본주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 조선인물로서 천도교 2세 교주 해월신사(海月神師) 최시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는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三敬)사상을 전개하며, 스승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넘어 사인여천(事人如天), 즉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섬기듯 하라'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으로 전개했다.²⁹ 실제로 도산이 살던 조선조 말기를 함께 살면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다. 해월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사랑의 인본주의 사례를 남겼다. 그는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했다고 말하라'고 할 정도로 인간존엄을 믿고 실천하였다.

영성인본주의는 서양 근대의 세속화된 이성으로 인간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기반으로 만물을 이어주고, 매개하며 화해시키는 인본주의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자로 보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영성에 기반을 두고 도산의 꽃동산처럼 꽃이 만개하도록 따사로운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영성인본주의는 함께 이어주고 매개하기에 '공사공매(公私共媒)'를 중시한다. 활사(活私)로서 인간존엄을 유지시키고 이어주는 가운데 보다 큰 '공(公)'으로 열어갈 수 있다. 좌우합작으로 연대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대동사회가 아니다. 민족독립, 겨레얼의 살림, '인간존엄의 지킴이'라는 진실에 충실하기에 지속적으로 새 밝힘 할 수 있다.

영성인본주의는 하느님의 성령 은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자연적 은총으로 여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 주어져 있듯이 영성으로 이미 주어진 은총이다. 유교의 대동사회에 대해 도산이 대공주의를 주장하며 진실한 가치창조에 목숨을 건 동기와 꽃동산을 멋있게 일구려는 노력을 통해 영성인본주로서 대공주의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성인본주의도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신축성과 역동성을 발휘한다. 다음 구절은 흥언 작가의 "군자화를 읊기며" 시에 나오는 삼구이다.

물 마른 연당에서 연화 읊길 적에
 샅을 들어 주시는 보살도 고마워라.
 홀연히 느끼는 것은 '애련자(愛蓮者)'.³⁰

29 줄저, 『도덕적 상상력과 동학의 공공행복』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2), p. 126.

30 「신한민보」, 1943년 4월 8일, p. 2.

이처럼 “군자화를 옮기며” 시조는 도산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 흥언 작가가 지은 시조이다. 1924년 12월,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도산은 1925년 3월, 흥언 작가와 함께 ‘도산의 꽃동산’ 연못에 연꽃과 캘리포니아 콜링가에서 꺾은 버드나무를 심었다. ‘군자화를 옮기며’의 초장과 중장은 작가가 도산과 함께 ‘군자화’로서 ‘연꽃’ 심는 일을 재현하고, 중장의 ‘삽 들어 주시는 보살’로서 도산을 상기한다. 작중화자는 과거의 일을 회상한 이후, 종장에서 ‘애련자’로서 연꽃을 사랑했던 도산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

연꽃을 매개로 절명한 도산에 대해 생자애도와 그리움을 토로한다. 흥언 작가에게 도산이 보살로 비친 사실에 주목한다. 도산이 입버릇처럼 말한 진실은 고려시대 보조국사의 ‘진심(眞心)’을 떠올린다. 지눌은 범부마음을 망심의 좁은 마음이라고 지칭하고, 보살마음을 진심이라 했다. 또한 그는 진심을 불변하는 본체와 대상에 따라 변하는 작용으로 나누었다.

진실한 마음 본체는 ‘비고 고용하며 영묘한 앎’으로 불변한다면, 이는 마음이 본래부터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자성(自性)으로서 정혜(定慧)이다. 진실한 그 마음은 모든 심리활동 배후의 부동심이며, 언제나 활동을 멈추지 않는 알아차림의 앎으로서 ‘지(知)’이다. “이는 대상을 접하여 분별하는 인식이 아니며, 깨닫는 지혜도 아니다. 이는 곧 진여성품으로서 우둔한 허공과 달리 성(性)으로 스스로 안다.”³¹

앎으로서 지(知)는 대상지향의 앎이 아니며 수시로 변하는 마음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마음의 본래성품 자체이다. 이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나뉘기 이전의 청정하며 밝은 마음이다.³² 이러한 앎은 성인이나 범부나 붓다나 중생이나 선인이나 악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진심의 본체이다. 이 불변하는 본체가 마음의 성품으로 중생심에 그 바탕으로 깔려 있어 온갖 차별상을 비추어 알아차린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비고 밝은 ‘허명(虛明)’ 작용의 진심에 근거한다.

진심은 앎이 없이 아니 평온한 생각으로 두루 비추는 고로 초목과 다르고, 미움과

31 안진호 역해, 『절요』 (서울: 법륜사, 1976), p. 766.

32 백운경한, 조영미 옮김, 『백운화상어록』 (서울: 동국대출판부, 2019), p. 124.

애착을 내지 않는 고로 망심과 다른즉, 대상을 대함에 비고 밝으며 미움과 애착이 없어서 앎이 없는 아는 진심이다.³³

그런데 진심본체와 달리 진심작용은 그 작용에 따라 나뉜다. 진심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슬에 비유한다. 맑고 투명해야 주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진심의 바탕이 비고 앎이 있어야 다양한 묘용을 산출할 수 있다. 만물을 상대하려 한다면, 진심본체는 텅 비고 깨끗해야 한다. 앎은 불변하는 진여자체 속성으로 영성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 어떤 특정한 마음작용이나 상태와 동일시될 수 없는 '비고 고요하며 영묘한 앎'으로서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지(知)'는 모든 오묘함에 드는 문으로 '중묘지문(衆妙之門)'이다.

중생이 모양만 쫓아가며 모양에 사로잡혀 흔들릴 때, 보살은 진심본체인 텅 빈 충만을 알아차리기에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세계와 통한다. 이에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의 경애가 열린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 충만세계를 일컬어 인연에 따른 연기(緣起)에 대비하여 '성기(性起)'라고 지칭하며, 진심묘용으로 일관한다. 이에 흥언 작가가 도산에게서 진심묘용 보살을 느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일에 단지 상(相)에 따라 굴러간다. 그런 까닭에 일상 속에 진심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며 목전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만약 성(性)을 아는 사람이라면 움직이고 베풀에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³⁴

보살은 진심고요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주변의 인연에 대해 밝고 투명하게 반응한다.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주관을 잃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 되며, 어디서나 밝은 지혜로 널리 비추기에 보광명지(普光明智)이다.³⁵ 민족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처한 위치를 통감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 옳고 그른지 판단하며 민족장래를 위해 차분하지만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사리(私利)'보다 공동책임을 먼저 생각하기에 대공(大公)에 대한 향심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33 김탄허 역해, 『현토역해 보조범어』 (서울: 교림, 1982), p. 85.

34 위의 책, p. 68.

35 줄저, 『한국윤리교육』 (서울: 좋은 기업위드, 2016), p. 82.

또한 대공(大公)을 일상에 반영하고 밝게 처신한다. 이처럼 공적(空寂)하며 '명명불매(明明不昧)'한 실재는 결국 영혼차원과 같은 것이 아닌가?³⁶ 보살로서 밝은 마음이 있어야 변절자가 있더라도 우국충정(憂國衷情)을 유지하고 조국독립과 거래열 살리기를 지속한다. 공(公)과 사(私)의 사이를 매개함으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구현한다. 민족의 '공(公)'과 개인의 '사(私)'를 살려 꽃동산의 묘용을 이룬다.

이에 위로는 진심본체를 구하며 아래로는 중생교화의 보살묘용을 지속한다. 영성의 알아차림은 대상에 의존하는 대상 지향적 앎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마음상태에 상관없이 항시 존재하는 성품자체이다. 이러한 성품자체는 일체 모양을 벗어나 자유롭기에 순수성과 보편성을 통해 현상을 다양하게 인식한다. 색깔을 눈이 보려면, 눈 자체가 특정 색깔과 특정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어 있어야 되는 것과 같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엑카르트는 '초탈'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경애를 '가난'이라고 했다. '초탈'과 '가난'은 상통하기 때문이다. 엑카르트는 가난수행을 물질적 무소유뿐만 아니라 마음 비움의 무소유까지 함유한다. 도산 또한 철저한 가난을 통해 자신의 영혼근저이자 신성근저로 돌파했으며, 보살의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가서 영성극치 차원으로 텅 빈 총만의 '대공(大公)'을 발견했다고 할 것이다.

피조물을 초탈하여 마음이 '비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마음이 '무(無)'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탈은 번뇌와 망상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일체모양을 마음에서 덜어 내야 비로소 무심의 순수성을 회복한다. 숨겨져 있던 영혼근저가 드러나면, 밝은 빛으로 이루어진 단(丹)의 불꽃을 마주한다. 영성이 가난하면 모든 영성을 받아들이듯이, 영성열매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라고 할 것이다. 영혼불꽃은 비고 자유로우며 거추장스러운 묶임을 해체하여 신비적 합일 속에서 '영원한 현재'로서 재탄생한다고 할 것이다.

황금빛의 단(丹)과 자신이 영성으로 하나라는 일체감 속에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

36 김희성, 『지눌의 선사상』, 서울: 소나무, 2006. p.123.

평안에 머문다.³⁷ 엑카르트에게 초탈은 우리 자신의 내적 문제로서 다가왔다. 먼저 자기 자신을 놓아 버린다. 세계를 놓아 버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놓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놓아 버리면, 왕국이든 명예든, 모든 것을 놓아 버린 경애에 든다. 자기 부정으로서 초탈은 온 세계를 얻는다. 자기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무'는 사물 하나하나가 영성의 밝은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닌다. 초탈(超脫)은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

또한 초탈은 외적 사물을 행한 관심과 집착으로부터 영혼을 다잡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 이에 영혼은 하나의 고양된 앎으로서 영성인본주의의 참 뜻을 지향한다. 아울러 초탈은 세상을 외면하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챙김을 지속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떠나 하느님의 빛 아래서 순수하고 고귀하며 아름답게 사는 법을 터득한다.

초탈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신의 근저로서 신성의 '무(無)'에 이르는 데, 이는 하느님으로 꼭 참이다.³⁸ 나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섬김의 하느님을 해체하고 절대적 '하나'의 경애에 이르기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참 가난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원초적 근원으로 퇴행하는 신비적 합일은 창조를 두 끝에서 극복함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를 동시에 타파함으로 명실상부한 '대공(大公)'에 이른다. 대공은 '이름붙일 수 없는 별거벗은 그 자체로서 하나'이다. 철저한 비우기, 철저한 가난으로 돌파함으로 '신비주의적 무신론'에 가까운 인간긍정의 인본주의로 돌아온다. 이는 공(公)이 사(私)를 함께 매개하는 '공매(共媒)'를 통해 공(公)과 사(私)의 양변을 함께 비우기에 공공(公共)의 대공(大公)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불법(佛法)을 밖에서 구하지 아니한다.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임제선사의 포효(咆哮)처럼 붓다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비는 나약한 인간모습은 진정한 영성의 깊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떳떳한 인간, 한 오라기 웃도 걸치지 않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무의도인(無依道人)'의 자세는 영성인본주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37 자허, 『숨 명상 깨달음』 (서울: 도서출판 다해, 2004), p. 219.

38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3), p. 254.

자신의 내면에 근원적 생명력이 작용함을 잊어버리고 밖에서거나 남에게서 구한다면, 근원적 생명력 뿌리를 외면하고 종교 이름으로, 신앙 이름으로 자기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며 헤매는 타율적인 삶이다. 민족 구성원으로서 독립을 외치면서 가족 돌봄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도산이 돌파의 영성인본주의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돌파를 통해 도산은 영혼근저, 존재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독립을 외치며, 고귀한 보살행을 실천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영성인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침묵사원으로 빛이나 소리의 모습으로 신이 찾아온다.³⁹ 이에 엑카르트가 주장하는 세 종류의 탄생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삼위일체로서 성자탄생은 영원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말한다. 또한 시간 속에서 하느님이 인간본성을 입은 성육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유일하며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탄생이다. 아울러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아들 탄생이다. 이 탄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보편사건이다. 이는 불교전통에서 붓다와의 인연으로 보살이 탄생하는 이치와 흡사하다.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 아들로써 탄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중에서 세 번째 경우는 하느님이 싫든 좋든 자신의 독생자 같은 아들을 나의 영혼 속에서도 탄생해야 한다는 자명성을 함축한다.

우리 영혼근저에 탄생하는 하느님의 아들은 영원한 성자 하느님과 본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 전통적 기독교사상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본성상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입양된 아들이다. 엑카르트는 이 둘 사이의 거리마저 돌파함으로 무화하였다. 성자 하느님과 영혼으로 입양한 하느님 아들 사이에는 본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탄생하여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죽음은 초탈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탈은 순수한 보편적 인간성,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 되실 때 취한 인간성을 은폐하면서 우연적인 개인특성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하느님은 영원히 자기 아들을 낳으신 분이며,

39 줄저,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서울: 좋은 기업 위드, 2018), p. 153.

우리도 그 분과 조금도 다름없는 하느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자(使者)'로서의 모습이다. 아울러 우리도 완벽한 신인합일의 존재임을 계시로 드러내는 '계시자(啓示者)'로서의 모습이다. 하느님 아들로써 탄생은 역사적 일회성을 벗어나 되풀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에 점차로 커져가는 '대공(大公)'이다.

결국 하느님 아들의 탄생은 삼위일체의 내적 신비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적 예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영성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보편적 사건이어야 한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진리가 되어야 하며 그 진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 자신의 진리이어야 비로소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로써 탄생하는 길이 보편적으로 열린다. 그리스도 탄생이 나 자신의 탄생이 되지 않고서는 부족함을 유지한다. 성경에서도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른다."⁴⁰고 말한다. 문제는 과연 인간이 하느님 아들로써 경험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이다. 인간은 본성을 발휘하지 못해 하느님과 소외되어 죄악의 삶을 지속하는가? 성부 하느님은 신성 깊이에서 인간을 그의 모상으로 창조했으며, 끊임없이 성자 하느님을 낳으며 영혼근저에서 지속적으로 아들을 출산한다.

그런데 수많은 인간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살사상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생이 본래 깨달음인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구속하고 있지만 보살수행으로 그 깊이와 외연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시각(始覺)을 열어야 비로소 성불의 길에 들어선다. 또한 이는 인간본성과 수행의 깊이와 은총이 겹치는 문제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과 같은 형상이기에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이 일체형상을 초월한 초형상적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빛으로부터 초자연적 빛, 그리고 은총의 빛으로부터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자수행이든 기독교는총이든 온갖 모양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형(脫型)'과 영혼 속에 하느님 형상을 다시 새기는 '입형(入型)'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⁴¹ 여기서 탈형이 초탈과 돌파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면, 입형과 변형은 하느님의 초자연적 은총으로 바뀐다.

40 「마태복음」, 11장 27절.

41 김희성, 앞의 책, p. 248.

초탈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취한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함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보살로서 공덕을 쌓고자 마음을 여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동시성이이다. 초탈의 노력이 선행됨으로 말미암아 은총이 공공작용을 일으켜 대공을 성취한다. 영성의 깊이에서 하나 된 자의 모습은 고귀한 인간으로의 복귀이다. 청청에는 자성청정과 함께 번뇌 망상으로 더럽혀진 더러움을 제거하는 이구청정(離垢淸淨)이 있다. 보살수행으로 이구청정을 통해 자성청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회복이다. 이처럼 엑카르트의 영성세계는 보살수행의 진심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空)을 넘어 불성상주(佛性常住)와 은총에 의한 신성일치(神性一致)는 영성회통을 가능하게 하기에 도산의 대공으로 수렴된다. 상징이 상징임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 상징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의 상징에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실제로 종교의 상징체계를 통해 자유롭게 인간존중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다. 이에 도산 대공의 깊이만큼 영성인문주의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일회성으로 하느님 아들이고, 우리는 하느님 은총에 의해 대공지평으로 하느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는 자녀이다. 개신교는 타종교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고, 경직된 성경관점에 기초한 편협한 태도를 반영한다.⁴²

자기 자신의 절대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성인문주의로 대공에 이르는 길이다. 진속불이와 성속일체 사이에는 영성이 경계해야 할 자기집착 자기절대화의 유혹이다. 자기포기와 자기초월의 겸손한 영성에게 자기부정의 자기실현의 길, 영성인본주의 길이 열려 있기에 도산의 대공정점에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영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 살림의 '활인(活人)'에 관심을 가지기에,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지향한다. 종교 아닌 종교, 세속 아닌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영성인본주의의 깊이로서 대공에 도달한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수단화하는 그릇된 삶으로부터 영성의 토대위에서 만물을 통합하고 화해시키는 넉넉한 통전의 시각이 요청된다. 못 생명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민족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여리고 부드러운 영성으로 대립과

42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서울: 삼인, 2015), p. 34.

소외를 넘어 생명의 한 뿌리에서 와서 또 다른 뿌리로 돌아가기에 못 생명을 공공으로 이어주고 품으며 보담을 수 있다. 참 나의 발견과 자기실현은 사회적, 우주적, 신적 차원을 아우른다. 대공의 영성인본주의 비전을 통해 참 나를 깨친 사람은 나와 너, 나와 사회, 나와 우주, 나와 신 사이의 공고한 벽이 허물어진다. 영성의 넉넉한 회통기반은 편협하고 경직된 이성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인간성이 우주만물의 이치라는 성리학의 '성즉리(性卽理)'는 양명학의 '심즉리(心卽理)'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생의 맑고 투명한 진심(眞心)이 불심(佛心)이라는 견해는 신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인간 '내면의 빛(inner light)'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찍이 맹자도 '우리가 마음을 알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⁴³고 천명하였다.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사천(事天)'이다. 섬김 대상은 인간과 만물 위에 균림하는 초월존재가 아니라 인간내면을 감싸고 수평이동과 멀어짐을 일삼는 포월(包越)의 존재이다.⁴⁴ 개신신학도 대공의 길로 비추면, 편협하고 배타적 견해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다. 도산의 대공의 길에 이르는 영성인본주의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영성의 존재라는 관점이다.

하느님의 초자연적 특별은총에 대비되는 자연적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성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보살사상의 '진심(眞心)'으로 엑카르트의 '지성(intellect)'과 상통하기에 데카르트의 이원적인 사유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성인본주의는 일상의 자아, 이기적 자아에서 벗어나 무아 혹은 탈아, 초탈과 죽음을 통한 참 나, 대공의 길을 무한히 열어갈 것이다.

구원은 자기 밖의 어떤 높은 존재에게 자신을 전부 헌신하는 과정에서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가 되는 소외체험이 아니라 선험적 영성을 살아가며 자신을 실현하는 참된 자기실현이다.⁴⁵ 세속적 휴머니즘이 끝없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욕망의 상식적 사회에서 도산의 대공을 추구하는 영성인본주의는 무소유의 삶, 보살공덕 구현의 서원의 삶, 자유로운 삶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추구한다.

43 『孟子』 「盡心章句」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卽 知天矣'

44 줄저, 『한국윤리교육 백문백답』 (서울: 좋은 기업 위드, 2016), p. 363.

45 김희성, 『영적 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21), p. 794-5.

이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서원(誓願)은 '협공(狹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大公)'을 향한다. 이는 겨레얼의 성통공완(性通功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성통'은 수행을 통한 개인차원의 깨침이라고 한다면, 깨침 이후의 사회실천으로서 공완을 이행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조천(朝天)할 수 있다. 홀로 수련하여 홀로 건강해지고 홀로 불로장생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깨침을 사회적인 공공실천으로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겨레얼에 근거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는 한민족의 오랜 정신적 뿌리에 해당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재세이화(在世理化)의 바탕이다. 또한 성통공완은 인간을 일신(一神), 하느님과 직접 연결한다. 삼(三)인 인간을 일(一)인 하느님과 하나가 되니 이 이치를 『삼일신고』에서 밝히고 있다. 성통은 하느님 세계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내면에 하느님이 내려와 계시니 '일신강충(一神降衷)'이요, 진성이 하느님이니 진성을 통하면 하느님 광명에 접근할 수 있기에 '성통광명(性通光明)'이다.⁴⁶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겨레얼도 성통공완을 통해 홍익인간·재세이화를 달성한다고 할 것이다.

성통공완의 정신은 대공의 영성인본주의로 작용하여 편협함을 해방하여 육체로부터 인간영성을 고양한다. 여기서 체득되는 빛은 찬란(燦爛)하고 소리는 경이로우며, 지복을 느끼는 영성능력은 한없이 고양된다. 그 길에서 인간은 존엄을 회복하고 걱정거리, 두려움, 분노, 모멸감의 잡초들은 하나씩 제거되고 사라진다. 진리 향한 마음은 도의 본성을 인간 마음으로 전환시켜 인성에 들리는 명령으로 소리를 들려주기에 도덕 감시와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마음의 본체를 도산의 대공(大公)이라 한다면, 무형의 대공이 발현하는 작용은 영성묘용(靈性妙用)이다. 영명한 본성으로서 이러한 영성근저에는 겨레얼이 숨 쉬고 내면진심이 흐르며, 내 안의 그리스도, 보살로서의 서원이 함께 살아 움직이기에 천지만물을 환하게 비추며 심정적으로 영묘함을 알아차린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46 줄저,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서울: 좋은 기업 위드, 2018), p.338.

도산은 평생 아내에게 치마감 한번 사준 적이 없었으며, 자식에게 연필 한 자루 사줄 겨를도 없이 민족독립에 일생을 바쳤다. 가족보다 국가의 비중이 컸기에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안락(安樂)보다 민족의 대공(大公)을 위하고 겨레의 일을 찾아 구국에 매진한 참다운 애국자의 삶이었다고 할 것이다. 도산사상의 여러 갈래 넷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밝혀진 진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합쳐져 대공주의의 가치에 합류한다. 대공주의는 일종의 통섭개념으로 각 합류점마다 창발성(emergent properties)의 가능성을 열어준다.⁴⁷ 도산은 유가사상을 포함하여 학문연마 시기에는 현실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었기에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학문과 수양에 의하여 세상을 대공주의(大公主義)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에 입학한 뒤 기독교 입교를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무장을 강화하였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지식을 섭렵하면서 겨레의 생활의식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13년 5월, 흥사단 설립을 계기로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를 넘도록 역사를 이어왔다. 그 배경으로는 대공주의를 담은 그릇으로서 흥사단이 존재하였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역사적인 명맥을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공주의에 투철하였기에 도산은 진실과 사랑, 봉사를 통해 애국활동으로 일관한다. 무실, 역행, 충의, 용맹의 4대 정신을 통해 진실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신뢰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갔다. 이는 민족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낳았다.

민족이라는 대공(大公)을 위해 적극적이며 무조건적 봉사를 권장하였다. 결국 도산은 애국애족의 진실성을 유지함으로 만인사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도산의 대공주의 가치, 대공주의 실천 그리고 대공주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도산은 독립국가 건설을 설계하고자 대공주의 가치를 표방하였다. 당시는 반일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이 지상과제였다. 정치적으로 보통선거제와 경제적으로 토지국유제 그리고 교육에서의 국비의무제를 통한 민족평등실현이었다. 정치자유가 보장되는 속에서 사회경제평등이 강조된 신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세계시민과 평화연대를

47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장대익 옮김,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11), p. 17.

구축하는 구상이었다. 도산의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독립국가구상은 1920년대 말, 한국독립당의 강령으로 정착됨으로 민족진영 공통이념이 되었으며, 1930년대는 조소앙에 의해 삼균주의로 계승 발전하였다.⁴⁸ 서북파의 도산 계통과 기호파의 이 동령 계통의 합작을 중심으로 범민족진영의 한국독립당 창당 작업은 1929년 말에서 193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1930년 1월 25일, 비밀리에 28명 발기인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당의강령을 채택함으로 이전과 구별되는 한국독립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좌우합작은 실패하였지만 민족단결을 골격으로 하는 대공주의가 한국독립당의 창당취지가 됨으로써 좌우합작으로 직진하는 것이라기보다 겨레얼에 뿌리 두는 대공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을 이루었다.

대공주의는 겨레의 얼을 견지하는 큰 사업이념이며 백년교육의 실천이념이자 이상촌 건설을 위한 사회개혁이념이었다. 도산이 가장 미워한 것은 거짓과 위선이었으며,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진실이었다. 거짓이 협잡과 위선을 낳는데 그치는 것이 나니라 공사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 불신을 낳고 불신은 민족불행을 낳기에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 도산은 나라를 사랑하며 극기수양의 인간관을 견지하였다. 또한 도산은 대장부의 기개를 갖추고 좌우합작의 대동사회 구현에 앞서기보다 민족을 위하는 대의명분의 대공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서 대동사회의 구현보다 대공주의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대공주의는 영성인본주의 가치를 드러낸다. 지연, 혈연, 학연 등 각종 연줄로 얽혀 살다보면 편견과 소외를 조장하기 쉽다. 도산은 대공주의 일상실천을 위해 흥사단의 4대 정신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4대 정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그대로 실천함을 말한다.

‘무실’을 ‘참되기를 힘쓰는 것’이라면, ‘역행’은 ‘행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이 둘의 만남으로서 ‘무실역행’은 도산사상의 핵심가치로서 선비의 무실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산은 ‘대공주의’를 통해 국가건설의 청사진과 민족번영을 위한 힘의 원천을 찾았다. 도산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한인 동포를 순방할 때마다 이를 알리는 기사들이 재미한인 사회미디어에 보도되었고, 도산을 소재로 하는 시가 작품들이 「신한민보」에

48 박만규, 「三均主義 정립의 민족운동사적 배경 고찰」 『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p. 1093.

발표되었다. 도산은 재미한인사회 지도자인 까닭에, 그의 행적은 재미한인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도산은 생전에 '도산의 꽃동산'을 통해 조선에서 도산이 체류한 경험이나 상황을 알려주었다. 여기서 자신의 꽃동산을 가꾸어 민족의 꽃동산으로 이어주고 매개하려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대공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함께 살려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홍언(洪彦) 작가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곳곳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도산에 대해 "도산의 꽃동산을 떠나면서", "산옹의 여식수산에게"에서 도산을 연꽃을 활용하여 '군자'로서 비유했다. 아울러 "군자화를 옮기며" 시조에서는 '삽 들어 주시는 보살'로서 도산을 상기했다. 보살은 남을 나의 안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자로서 사무량심의 모습이다.⁴⁹ 이처럼 홍언 작가에게 도산이 보살로 비친 사실에 주목한다. 도산이 평소 입버릇처럼 말한 진실은 고려시대 보조국가 진심(眞心)을 떠올리게 한다. 지눌은 범부마음을 망심의 좁은 마음이라고 하고, 보살마음을 진심의 마음이라고 구별한 것과 진심을 불변하는 본체와 대상에 따라 변하는 작용으로 나누었음을 상기한다.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사적 차원의 '사리(私利)'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기에 참된 주인이 될 수 있고, 대공(大公)에 대한 지향성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또한 대공(大公)을 일상생활에 반영하고 밝고 투명하게 처신한다. 이는 구슬이 주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면 더러움이나 흠이 없이 깨끗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보살로서 밝은 마음이 있어야 매국노, 변절자가 있더라도 우국충정을 유지하고 조국의 독립과 겨레얼 살리기 운동을 지속한다. 공(公)과 사(私) 사이에서 서로 이어주고 매개함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구현한다. 민족차원의 '공(公)'과 개인차원의 '사(私)'를 함께 살려 독립을 성취하면서 꽃동산을 가꾸며 묘용을 이룬다. 아울러 도산의 대공주의는 민족독립과 겨레얼 살리기 관점에서 그 전망을 통섭 차원으로 조망할 수 있다. 현대에 접목할 경우 대공주의는 영성인본주의와 상관한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깊고 넓은 면을 탐구하고 깨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49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서울: 광복사, 2015), p. 326

종교의 '심층구조'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⁵⁰ 이는 기독교의 휴머니즘은 물론이고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보편영성까지 아우른다. 영성인본주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배치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오늘날 많은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도산이 말하는 대공주의는 독립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제공된 것이지만, 민족국가 건설 이후에는 거래열을 지속적으로 살려가는 영성인본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감싸며 자연을 초월하는 포월(包越)의 청사진이다. 여기서 대공은 하느님과 영혼이 둘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붙일 수 없는 별거벗은 그 자체로서 하나'이다. 철저한 비우기로 돌파함으로써 '신비주의적 무신론'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긍정, 인본주의로 돌아온다. 이는 공(公)이 사(私)를 함께 매개하는 '공매(共媒)'를 통해 공(公)과 사(私)의 양변을 함께 비우기 때문에 공공(公共)의 대공(大公)을 살린다고 할 것이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끝없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욕망의 상식적 사회에서 도산의 대공을 추구하는 영성인본주의는 철저한 무소유의 삶, 보살공덕 구현의 서원의 자유로운 삶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추구한다. 이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서원(誓願)은 협공(狹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大公)을 끊임없이 지향한다. 이를 통해 거래열의 '성통공완(性通功完)'을 계승한다. 이 정신은 영성인본주의로 화용하여 편협한 의식을 해방하여 육체로부터 무한의식으로 인간영성을 고양한다. 영명본성으로서 영성근저에는 거래열이 살아 숨 쉬고, 내면에는 진심어린 민족서원(民族誓願)을 도산대공으로 아우른다.

참고문헌

『논어』

『맹자』

거래열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거래열을 빛낸 역사인물 100인』 경인문화사, 2008.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복사, 2015.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분도출판사, 2003.

_____,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6.

50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9), p. 16.

- ____, 『영적 휴머니즘』, 아카넷, 2021.
-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삼인, 2015.
- 김 구, 『백범일지』, 우선문화사, 1984.
- 김아연, 「홍언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 연구」 『인문과학』 80, 2021.
- 김용환, 「담헌의 생태적 실심(實心)」, 『유교와 종교학』, 서울대출판부, 2009.
- ____, 『도덕적 상상력과 동학의 공공행복』, 모시는 사람들, 2012
- ____, 「선비정신과 대동 사회」,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동아문화사, 2014.
- ____, 『한국윤리교육 백문백답』, 좋은 기업 위드, 2016.
- ____,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좋은 기업 위드, 2018.
- 김탄허 역해, 『현토역해 보조법어』, 교림, 1982.
- 도산기념사업회 편 『안도산전서 상중하』, 범양사, 1990.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1947.
- 도산사상연구회,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학문사, 1995.
-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 흥사단출판부, 2004.
- 백운경한, 조영미 옮김, 『백운화상어록』, 동국대출판부, 2019.
- 안병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안창호』, 한국사론』 10, 1981.
- 안진호 역해, 『절요』, 법륜사, 1976.
-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장대익 옮김,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11.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9.
- 이지원,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문화운동론의 성격」 『국사관논총』 51.
- 자허, 『숨 명상 깨달음』, 도서출판 다해, 2004.
- 장규식, 『도산 안창호의 민족주의와 시민사회론』, 도산사상연구』 6, 2000.
- 장리욱, 『도산의 인격과 생애』, 대성문화사, 1970.
-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71.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2013.
- 홍일식, 『나의 조국 대한민국』, 동서문화사, 2014.



저자약력

1975-1989 서울대 학사, 석사, 철학박사
 1987-2020 충북대 윤리교육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3-1994 프랑스 소르본 대학 단독연구교수
 1995-1997 충북대 대학신문사 주간교수
 1997-1998 충북대 기획연구실장
 1998-1999 캐나다 밴쿠버 U. B. C. 공동연구교수
 2007-2009 충북대 출판부장
 2011-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회장
 2013-2014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공동연구교수
 2014-2015 단군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자아각성과 윤리』, 법인문화사, 1992.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명상』, 충북대출판부, 1997.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열화당, 1998.
 『현대사회와 윤리 담론』, 충북대출판부, 2003.
 『종교와 역사(공저)』, 서울대출판부, 2006.
 『겨레얼 살리기 I ~Ⅲ(공저)』, 윤일문화사, 2007.
 『겨레얼을 빛낸 역사인물 100인(공저)』, 경인문화사, 2008.
 『한류와 한사상(공저)』, 모시는 사람들, 2009.
 『유교와 종교학(공저)』, 서울대출판부, 2009.
 『100 Korean Heroes and Heroines(A co-author), Oriental Light, 2009.
 『세계윤리교육』, 충북대출판부, 2010.
 『한국철학사전(공저)』, 동방의 빛, 2011.
 『도덕적 상상력과 동학의 공공행복, 모시는 사람들』, 2012.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동아문화사』, 2014.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좋은 기업 워드, 2018.

『장수시대 장수윤리』, 충북대출판부, 2019.

『문화세계의 창조와 세계시민』, 한국학술정보, 2020.

『동아시아의 공통가치를 찾아서, 권 I ~IV(공저)』, 동양일보 동양포럼, 2021.

『사랑하며 웃으며(현대시조)』, 현대시학, 2021.

『행복하며 깨치며(현대시조)』, 현대시학, 2022.

이메일: sunyanan@chungbuk.ac.kr

바다 위에 떠 있는 산

배수지

1902년 제물포항을 떠나 증기선을 타고 한 달간 항해를 했으니 뱃멀미는 오죽 했을까? 태평양을 건너 망망대해에 산처럼 솟아있는 하와이를 보고 “도산이다!” 소리 지른 안창호는 그때부터 호를 도산 이라고 지었다.

일제 강점기에 부각되는 항일독립운동가들 중에 우리가 미주에서 활약한 서재필, 박용만, 이승만 보다 안창호에게 더 친밀감이 가는 건 그의 활동 무대인 캘리포니아에서 도산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가족과 흥사단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당연한 일이다.

도산은 미주에서, 멕시코, 중국, 만주, 연해주와 국내에서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희망을 불러일으킨 민족교육계몽 지도자로서 청년 학우회, 대성학교,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상해 임시정부 조직을 완성했다. 그가 만든 초안은 서식 및 한자, 규칙이 헌법을 마주한 듯 보통 솜씨가 아니다. 후에 이광수가 수제자로, 주요한은 흥사단에서, 최남선은 흥사단의 전신인 청년학우회에서 활약했다. 도산은 웅변, 문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가족 사랑하듯이 인정도 많고 대인관계도 뛰어났다.

도산이 걸어온 길을 제대로 알기 위해 나는 《도산의 향기, 백년이 지나도 그대로》 책을 집어 들고 다시 읽었다. 이 책은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삶을 살다간 안창호의 일생을 그간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100년 만에 615 페이지로 축약한 다큐멘터리다. 참고문헌 약 60권과 신한민보 등 언론지에서 인용된 부분을 표기하면서 도산의 정신과 사상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방대한 분량에 다양한 자료들이 연대별 이라기보다는 중요 활동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법정 취조문에서는 ‘밥을 먹어도 독립, 잠을 자도 독립’ 이라고 외친 그의 결연한 의지와 굴하지 않는 단호한 면이 보인다. 시골 청년시절 대동강변에서 쾌재정 연설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상해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행한 웅변은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 연설과 비교되는 명연설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요즈음 넷플릭스 드라마를 짧게 몰아보기로 보듯이 수많은 에피소드 중 몇 개를 추려 일화로 보는 인간 안창호를 그려보았다.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는 전자책(e-book)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요즈음은 스마트폰 등 스크린 장시간 사용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탓에 책을 전처럼 읽는 세상은 아니지만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혹은 설거지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옛날 연속극 듣는 기분이 든다.

장리욱 (1895) 이 쓴 《도산의 인격과 생애》 책자에도 작은 도산으로 불릴만 하다며 놀라는 분들의 감동이 전해온다.

도산의 인생을 되짚어 보기 위해 나는 가끔 도서관을 찾는다. 미주에서 가장 많은 한국 책을 보유한 UCLA 도서관에서 북한서적 《세기와 더불어 1-6》 여섯권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만주, 간도 지방 역사는 어느 정도 알았으나 용어 선택이 좀 다를 뿐 북에도 항일 운동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설의 대가 안창호와 안신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놀랐다.

USC 도서관을 오랜만에 갔더니 그 많던 한국 역사책은 어디로 갔는지 얼마 없고 이미 USC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게 되어 대부분 뒤지면 스크린에 다 나온다. 이제 도서관의 책들이 점점 전산화 되고 있다. 전자책에서 키워드만 치면 관련 문구가 다 튀어나온다. 도서관에 걸린 미주 초기 이민자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을 확대한 대형액자가 신기했다.

로스앤젤레스 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도서관에 가면 한국 책들이 물론 많이 있다. 앞으로 한국내 서적 및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한국 책을 제일 많이 빌려 볼 수 있는 곳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된다. 미주에서 나온 독립운동사 책들이 잘 진열되어 있어 반가웠다.

중앙 도서관 (Central Library)에는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보다 더 많은 한국 책들이 있다. 무용가 최승희 책 표지가 눈길을 끌며 뒤적거리다가 나는 한국에서 펴낸 역사

시리즈 중에서 항일독립운동 책들을 한보따리 빌려왔다.

지난 팬데믹 동안 집에 있으면서 나는 유튜브로 주로 역사물을 보았다. 특히 제물포항에서 사탕수수밭 하와이로,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배 떠나는 괴나리봇짐 행렬과 일제가 싫어 고향 산천 땅을 뒤로 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으로, 만주별판으로 떠났으니 선조들의 그 참담한 마음 오죽했으랴! 1920년 벌어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열악한 소총을 갖고 싸운 독립군이 승리했으나 반격해오는 일본군이 쏘는 폭탄에 대항할 수가 없어 사상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다. 해방 이후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이념 갈등, 한국 전쟁 다큐 10부작 등을 보면서 차츰 희미해져 가고 있던 역사의식을 더듬어 하나 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근현대사를 보면서 도산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다. 해외 거주자로서 독립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산에 대해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했다.

우선 대한제국 여권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 온 최초의 한인 부부로 결혼 생활 37년 동안 한집에 함께 산 10여년에 불과한 도산이 비행기가 없던 시절 미국을 3회에 걸쳐 활동한 기록이 2차 인지, 3차 때 인지 혼동 되었는데 이번에 정리해 보았다.

<제 1차 방문 1902,9 -1907,1> 24세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를 경유하여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를 지나고 캐나다 밴쿠버를 지나 시애틀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도산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써준 추천서로 입국심사를 통과하고 학교에 입학한 노학생으로 2년을 다니며 스쿨보이 잡을 뛰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상투 쓴 인삼 장수와 까까머리 유학생이 싸우는 것을 보고 민족 계몽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1904년 도산은 리버사이드로 내려와 하와이에서 건너온 노동자들과 함께 뜨거운 날씨에 오렌지 농장 일을 한다. 이곳에 한인노동소개소를 설립하고 미주 본토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를 만들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도산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활발한 한인공동체가 형성된다. 당시 한인들은 강변이라는 뜻의 리버사이드 (Riverside)를 우리말로 부르기 쉽게 해변이라 표기하고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를 조직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리버사이드를 오가던 도산은 19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협회를 세우고 공립신보를 발행한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대지진에는 얼마나들 놀랐을까? 난리통에도 물 한 병에 \$1 씩 팔았다는 걸 보면 도산은 장사에도 소질이 있다는 얘기다. 신민회를 조직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1907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릭호}를 타고 국내로 들어간다.

<제 2 차 방문 1911.9-1919.5> 33 세

한일 합병이 되고 망명신세가 되어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신민회 동지 이갑을 만나고 폴란드를 경유하여 독일, 프랑스를 거쳐 영국 글레스코로 가서 {칼레도니아} 선편으로 뉴욕 엘리스 섬에 도착한다. 시카고를 거쳐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1915 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 3 대 회장을 한다. 같은 해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정한경을 만난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독립지도자들과 연계해 독립자금에 힘쓰고 이때 중가주를 방문해 독립정신을 더욱 고취 시킨다. 1917 년 {몽골리아} 선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이승만과 박용만의 싸움이 한창인 하와이에 들러 감동적 연설을 한다. 3 개월 간 하와이에 머물며 이승만과 박용만의 국민회 분규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승만의 불응으로 화합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로 귀환하고 멕시코에서 탈출한 박영순으로부터 재목동포들의 비참한 생활 소식을 듣고 1917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 선편으로 멕시코 만사니요 항구에 도착한다. 멕시코시티에 이어 유카탄 반도를 지나 메리다에 도착한다.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는 교포들이 선인장 가시에 찢려 노예처럼 고생하는 걸 보고 나라 잃은 설움에 서로 울었을 것이다. 한인들의 처우개선 등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북미실업 주식모금, 해동학교 설립 등의 활동을 하고 신광희를 미국으로 탈출시켰다. 1918 년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통관하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 1918 년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조선 독립의 때가 왔다 하여 대한인국민회에서 이승만, 정한경을 워싱턴으로 파견하고 파리강화회의에 청원서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입국 후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상해임시정부로 출발한다.

<제 3 차 방문 미주 1924, 11~ 1926, 3> 47 세

도산은 하와이에 3 일간 머문 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로스앤젤레스 집안에 흥사단과 국민회에서 봉사하던 흥언과 함께 연못을 파고 연꽃과 버드나무를 심었다. 1925 년 덴버를 시작으로 중동 북부에 산재한 동포들을 만난다. 뉴욕에서 이승만,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나고 4개월 여행을 마치고 장리욱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서재필을 국민회와 흥사단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접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동행한다. 1926년 3월 다시 상해로 떠나기 전 월슨마운틴에서 어쩌면 다시 미국에 못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장리욱과 석양에 물든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로 애국가를 부른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는 어땠을까?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SS 소노마호}를 타고 상하이로 향했다. 그 이후로 도산은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있는 미국땅에 더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다음으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와 청년학우회를 전신으로 한 흥사단 역사도 정리해 보았다.

1913년 도산이 송종익, 홍언 등과 흥사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단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도산이 멘토로서 전해준 절절한 가르침이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열망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1915년 도산 가족과 단소가 로스앤젤레스 벙커힐에 같은 주소로 이전한다. 1919년 도산은 상해에 가서 이광수, 주요한 등과 조선에 흥사단 조직을 의논했다. 1920년 조선에 혁명당 격인 수양동우회가 조직 되고 해외의 흥사단원과 조선 내에 수양동우회 사이에는 맥을 같이하고 있어 입단문답을 생략했다.

도산이 <미주에 있는 흥사단 동지들에게 보내는 글>에 보면 시대에 따라 흥사단 운동이 실력양성론에서 민족혁명론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혁명당을 별도로 조직해서 투사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흥사단을 훈련단체로 하고 수정 흥사단 명칭은 동우회로 해서 본단은 혁명정신의 유력한 한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각 동지에게 나누어 보내되, 절대로 적에게 입수되지 않도록 부탁한다.

흥사단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한국에 가는 방문비자가 거부될 정도로 차별을 당했지만 거수경례, 노랑과 빨강의 어깨띠,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전통과 개인의 인격 육성을 기초로 하는 무실역행 정신으로 건전한 공동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책을 덮으며 아직도 눈에 선한 일곱 장면들을 뽑아 내가 감독이라면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1908. 중국 역에서 삼등 표는 도산이 갖고 일등 표는 춘원에게 건네주는 장면

기차 내에서 몸수색이 심하다며 오히려 이광수를 걱정해주는 도산에게 춘원은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후에 상해에서 이광수는 도산이 말려도 허영숙 따라 국내로 건너간다.

1910. 황푸강 푸른 물결 위에서 상해로 가는 배를 달빛 아래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

이미 대한 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비자가 안 나와 중국에서 비자를 받아 탄 배가 일본에 경유하는 배인 것을 알고 등대섬에 급히 내린 조국 잃은 신세가 가련하다.

1912. 파나마 운하 공사 현장에서 등에 시멘트를 매고 나르는 장면

도산은 이때 노역으로 모은 돈에다 안혜련이 땀 흘려 보내온 돈을 합해 투병 중인 동료 이갑에게 \$300 을 송금하고 이를 받아든 이갑은 통곡한다.

1913. 북가주 농장에서 여비가 없어 못 온다는 조병욱을 만나러 가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

조병욱은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용만 독립운동가들의 무성의한 답에 절망하였지만 북가주 농장으로 직접 찾아온 도산에 굴복해 흥사단에 가입한다.

1917. 하와이에 들어서 이승만과 박용만의 분규로 갈라진 동포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화합하여 함께 나가자는 도산의 호소력에 감동한 교포들은 도산 주변에 모여들어 같이 머물기를 원한다.

1927. 길림에서 시국 연설하는 도산에게 김성주(김일성)가 질문하는 장면

도산이 세운 대성학교 제자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의 유창한 연설을 들으러 온 15 살

김성주 (1912) 는 실력 양성도 좋지만 무력 투쟁에 대해 질문한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길림 감옥에 투옥된 도산을 구출하기 위해 김성주는 구명운동에 앞장 선다.

1937. 서대문 감옥에서 콩밥에 추운날씨 모두들 덜덜 떨며 DDT 하얀 소독가루 세례를 받는 장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끌려온 추종자들은 도산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 하다가 도산이 추워도 당당히 걷는 모습에 위로를 받는다.

2022 년에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식은 팬데믹을 벗어나듯이 뭔가 마음가짐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는 기쁨이 있었다. 행사마다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펼치는 무용극이 돋보였다. 도산 역을 맡은 테너의 우렁찬 노래는 타운 주요 행사마다 등장해 도산 분위기를 이끌었다.

디즈니홀에서 감상한 코리아 판타지 교향곡은 단연 톱이다. 이 곡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표현하는 동방의 나라 서정적인 멜로디로 흐르다가 외부침입과 일제에 항거하는 침통한 가락으로 이어진다. 드디어 자유를 염원하는 애국가의 4 절까지 합창에 모두 힘이 솟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웅장한 심포니로 이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연주시간 30 분 내내 가슴을 울리는 교향곡이다. 애국가는 옛날에는 스코틀랜드 민요 곡조로 부르다가 1935 년부터 안익태가 작곡한 코리아환상곡에 삽입되었다. 안익태는 애국가 지휘를 1936 년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에서 그 뒤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단소에 머물며 근처 대한인국민회에서 지휘했고 1940 년에는 뉴욕한인교회에서도 지휘했다. 안창호(1878), 안중근(1879), 안익태(1905)는 평양출신으로 애국가 안창호 작사설에 믿음이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치호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도산은 작사가로도 손색이 없다. 거국가, 한반도가를 작사했기에 수궁이 간다. 후손들은 BTS 노래뿐만 아니라 코리아환상곡(Korea Fantasy)의 격동적인 음률에도 젖어들 것이다. 금년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디즈니 홀에서 이 놀라운 음악과 합창을 접할 수 있었다.

폴 게티 박물관 홍보행사가 열린 라디오코리아 앞 광장 무대에서 도산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된 대형 뮤지컬 분위기가 파란 하늘 아래

녹색 잔디와 어우러져 회색 계단을 오르내리며 부르는 합창에 나는 마치 노예의 합창이 떠올라 주먹을 쥐었다. 전체적인 뮤지컬을 가 보리라 마음먹은 건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뮤지컬은 삼일절 100 주년을 기념하는 2019 년 처음엔 리버사이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벨극장으로 이어졌고 팬데믹을 건너뛰어 오렌지 카운티 라미라다 극장에서 공연 되었다. 도산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도 나오기에 산 역사 교육장 이다. 출연진 모두가 역동적이어서 발전된 한류의 영향이 작품속에 반영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극 중에 펼쳐지는 삼일 독립만세 장면을 재현할 때 힘차게 외치는 만세소리, 총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토록 도산 바람이 미주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행사들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중에도 나는 도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놓칠 수가 없었다.

도산 우체국은 비록 허물어졌지만 그 벽에 걸린 초상화가 그리워진다. 언제 어디 가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도산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흥사단 단소는 신문 머리기사로 다음 공청회가 기다려진다. 도산에 관련된 것이라면 부지런히 쫓아 다녀야 한다.

도산 기념관 추진 기사를 접하고 몇년 전에 단체버스로 가서 도산 동상과 간디, 킹 목사 동상도 보고 기차길 옆 파차파 캠프를 둘러본 기억이 난다. 기념관은 언제 시작되는 건지 이제는 리버사이드가 로스앤젤레스 근교로 느껴진다.

미국에는 1 월에 마틴 루터킹 Martin Luther King Jr. Day, 2 월에는 링컨 워싱턴 President Day 가 연방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휴일로는 3 월에 멕시코 시저 차베스 Cesar Chavez Day 가 있고 우리에게는 11 월 9 일 Dosan Ahn Chang Ho Day 가 생겼다. 1919 년 3.1.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기념하는 2019 년에 안창호의 탄신 140 주년을 맞이해서 '도산 안창호의 날'이 제정되었으니 외국인에게도 도산을 알릴 기회가 왔다.

어느새 2023 년은 이민 120 주년을 맞이한다. 이민 100 주년을 맞이하는 시기부터 알게 된 도산에 대한 기억이 이 글을 쓰면서 전보다 폭 넓게 눈이 떠졌다. 나는 주변 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쫓아다니며 듣다가 도산에 관한 대화로 접어들면 분위기에 활력이 생긴다. 또한 차세대들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자랑스럽다며 두 눈을 깜박인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산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도산의 향기, 백년이 지나도 그대로》(2015) 책을 펴낸 흥사단 윤병욱 단우의 저서 및 공저 4 권에 얽힌 추억을 되짚으며 이 글을 맺는다.

1. 《**미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2003) : 1903 년 갤럭시호를 타고 온 선조 102 명으로 시작된 100 년 만에 짚어보는 독립운동을 나로서는 처음 접하면서 옛날에는 고조선부터 연대 외우기가 싫어 국사 시간에 취미가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 미주에 내린 이민 뿌리를 찾아가는 일이 흥미로웠다.
2.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2006) :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의 갈등과 각종 통계자료가 이채롭다. 그중 나는 특히 하와이 사탕수수밭,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 멕시코 선인장 농장에서 받는 임금과 땀 흘려 모아진 독립자금 분포에 관심이 갔다.
3. 《**Korean American Legacies**》 영문판(2007): 워싱턴 국회의사당 Korean American Day 기념식장에서 나는 항일독립운동과 이민 100 주년 사업이 미국 전 지역에서 펼친 2003 년 행사를 영어로 만든 책을 배포 했다. 책 뒷면에 그간 발간된 책, 홍보책자, 활약한 인물 사진이 눈길을 끈다.
4. 《**그대 가슴속에 살아 있고 싶다**》(2008):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내에게 띄운 편지 모음집으로 도산의 발자취를 짚어 볼 수 있다. 그 시절 쓰기 어려운 표현, 나의 사랑하는 혜련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쓴 편지에서는 일상생활의 지침까지 담긴 사랑이 전해온다. 멀리 떨어진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늘상 보내니 고생스러워도 듬직한 남편과 잘 자라는 다섯 자녀 키우는 맛에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도산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

Island In the Sea

After leaving Jemulpo Port in 1902 and a month-long journey on a steamboat. How much did they get seasick? Mr. Ahn Chang-ho, who crossed the Pacific Ocean and saw Hawaii rising like a mountain in the open sea, "It's Dosan!" Ahn Chang-ho shouted and called his pen name Dosan from then on.

Among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who appea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 are closer to Ahn Chang-ho than Seo Jae-pil, Park Yong-man, and Rhee Syng-man, who were active in America, because Dosan family and Hung Sa Dahn (Young Korean Academy) in California even after Dosan dies, can stay around us.

Dosan is a national educator who aroused hope with confidence as an independence and enlightenment leader in America, Mexico, China, Manchuria, Maritime Territory (Primorski kraj), and Korea. Dosan completed the Youth Student Association, Daesung School, Public Association, New People's Association,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eungsadan, and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The draft he made is not an ordinary skill as the format, Chinese characters, and rules faced the Constitution. Later, Lee Kwang-soo was a disciple, Joo Yo-han was active in the Young Korean Academy, and Choi Nam-sun was active in the Youth Student Association, the predecessor of Heungsadan. Dosan not only had excellent power of speech and writing skills, but also had a warm love in his heart and was compassionate and had excell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if he loved the country as a family.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Dosan's path, I picked up the book《The Scent of Dosan, Even After a Hundred Years》and read it again. This book is a documentary that summarized Ahn Chang-ho's life as a pioneer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to 615 pages in 100 years based on published data. The spirit and thoughts of

Dosan develop step by step, marking about 60 references and quoted parts from media outlets such as <Shinhan Minbo> newspaper.

The large amount and variety of material is based on major activities rather than chronological. In the court interrogation statement, we can see his determined will and unyielding determination when he shouted, "Independent even if I eat, independent even if I sleep." As a young man in the countryside, his name began to be known for his speech along the Daedong River, and his oratory at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New Year's celebration was compared to Fichte's <Addresses to the German Nation>, and you can feel the heat.

I note a human being, Ahn Chang-ho, who sees a few of the numerous episodes as tales, as if watching Netflix dramas for a short time these days.

《Dosan Ahn Chang-ho》 written by Lee Kwang-soo, can also be purchased as an e-book. Nowadays, people don't read books as before, because their eyes get worse due to the use of screens such as smartphones for a long time. I listen through audiobooks while driving or washing dishes, I feel like I'm listening to old soap operas.

《The Personality and Life of Dosan》 written by Jang Liuk (1895), the impressions of those who are surprised that Jang Liuk deserves to be called a small Dosan.

To look back on Dosan's life, I sometimes visit the library. At the UCLA library,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books in America, six North Korean books 《With The Century, 1-6》 were found. I knew some of the history of Manchuria and Gando, but the choice of terms was slightly different. I learned that there was a history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North Korea as well.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it contained information about Ahn Chang-ho (masters of speech) and Ahn Shin-ho (vice-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men's Alliance in North Korea). I went to the USC library after a long time, and there are not many Korean history books where they had a lot. They are already available on the USC website, so most

of them appear on the screen. When you type a keyword in an e-book, all related phrases pop up. The books in the library are becoming more computerized. It is interesting to see a large frame that enlarged a group photo of early immigrants in the U.S. hung in the USC library.

If you go to the library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Los Angeles, of course, there are many Korean books. As it plans to expand the electronic system for viewing books and materials in Korea, the place where you can borrow the most Korean books in the future. It is nice to see the book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on display.

The Central Library has more Korean books than the Koreatown Pio Pico Library. I borrowed a bunch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books from a history series published in Korea after the cover of the dancer Choi Seung-hee's book caught my eyes.

While staying at home during the last pandemic, I usually watched history on YouTube. They left Jemulpo Port to the sugarcane fields in Hawaii and Eneken Farm in Mexico. Leaving their hometown behind the Japanese colonial rule, crossed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and left for the Gando region and the plains of Manchuria. In 1920, Battle of Bongodong and Cheongsan-ri, the independence army that fought with poor rifles won but could not counter the bombs fired by the Japanese army, which were counterattacking, and saw a sad scene where victim increased.

After liberation, watching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ist and communist forces and the 10-part Korean War documentary, the old memories were revived one by one. While looking a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I wanted to find a way for Korea to become one in the teachings of Dosan's spirit and thoughts. As an overseas resident, I had to study Dosan in my way to connect the independence movement to the unification

movement.

First, Dosan, who was the first Korean couple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with Korean Empire passports and lived for 37 years of marriage, but only together about 10 years. Although there was no airplane, he came three times to the United States by ship. I was confused about the second record of being active or the third time, but I tried to organize it this time.

<First visit 1902, 9-1907, 1> 24 years old

From Jemulpo Port, crossing the Pacific Ocean via Yokohama and Tokyo in Japan, passing Hawaii, Vancouver in Canada, Seattle, and arriving in San Francisco. Dosan passed the immigration screening with a letter of recommendation written by Missionary Underwood. Dosan entered the school as an old student. One day, he saw a ginseng seller wearing a topknot and a student with short hair fighting on the street. Dosan decided to enlighten the nation.

In 1904, Dosan came down to Riverside and worked on an orange farm in hot weather with workers from Hawaii. A Korean labor agency was established and the first Korean village Pachapa camp in the mainland. Over the years, a Korean community has formed so actively that it is called the Dosan Republic. At that time, Koreans wrote Habyeon, which means riverside, as Habyeon to make it easier to call it in Korean. He organized a local associ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osan traveled between San Francisco and Riverside, established a Public Association in San Francisco in 1905 and published <Public Newsletter>.

How surprised was the great earthquake in San Francisco in 1906? Seeing that Dosan sold \$1 a bottle of water despite the chaos, it means that Dosan was also talented in business. To organize and spread the New People's Association, he entered Korea in 1907 on the {Doric} from San Francisco.

<2nd visit 1911, 9-1919, 5> 33 years ol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Dosan became an exile, took the Trans-Siberian Railway, in Saint Petersburg, he met Lee Gap, a comrade of the New People's Association. Via Poland to Glesco in England, via Germany, France and arrived at Ellis Island in New York by {Caledonia} ship. From Chicago, Dosan took the transcontinental train to San Francisco. In 1915, he became the 3rd president of the Central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In the same year, he met Jeong Han-kyung at the Chicago World Expo. In connection with independent leaders in Los Angeles, they will make efforts to fund independence and visit California to promote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1917, Departing San Francisco on the {Mongolia} line, he stopped by Hawaii, where the fight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and gave a touching speech. While staying in Hawaii for three months, he tried to resolve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ispute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but the reconciliation failed due to Rhee Syngman's refusal.

After returning to San Francisco and hearing the news of the miserable lives of Koreans living there from Park Young-soon, who had escaped in Mexico. From San Francisco by {San Jose} ship in 1917, Dosan arrived at Manzanillo Port, Mexico. After Mexico City, it passed through the Yucatan Peninsula and arrived at Merida. Seeing the Koreans working at Eneken Farm suffer like slaves from being knifed by cactus thorns, they would have cried over the loss of their country.

He carried out activities such as improving the treatment of Koreans, such as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eungsadan, North America Co. and the establishment of Haedong School, and made Shin Kwang-hee escape to the United States. In 1918, he cleared customs in Nogales, Arizona, and arrived in Los Angeles. In 1918, President Wilson's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said that the time for

Korea independence had come, a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ecided to send Rhee Syngman and Jeong Hankyung to Washington and send a petition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This period after entering the country, he works most vigorously and departs for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3rd visit 1924,11~ 1926, 3> 47 years old

Dosan arrives in San Francisco after staying in Hawaii for three days. In his Los Angeles home, Dosan dug a pond and planted lotuses and willow trees with Hong Eon, who served in the Young Korean Academy a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Starting in Denver in 1925, he met his compatriots scattered throughout the northern Middle East. After meeting Rhee Syngman in New York and Seo Jaepil in Philadelphia, Dosan arrived in San Francisco with Jang Liuk after a four-month trip. Seo Jaepil is invited San Francisco by the National Association and Heungsadan, and accompanies him to Los Angeles.

In March 1926, before leaving for Shanghai again, he looked up at the sky colored by the setting sunset with Jang Liuk and sang the Korean National anthem with tears, feeling that he might not be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gain at Wilson Mountain. What was the sound of the wind through the forest? Dosan took the {SS Sonoma} from San Francisco to Shanghai. Since then, Dosan had not been able to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where his beloved family lives.

Next, the history of the Heungsadan (Young Korean Academy), which is based on the Shinminhoe and the Youth Association, a secret association, was also summarized.

In 1913, Dosan founded Heungsadan in San Francisco with Song Jongik and Hong Eon, and others. The mood was hot with the desire to find the country through the desperate teachings that Dosan gave to the younger generation as a mentor.

In 1915, Dosan family and Dahnso (Heungsadan center) moved to the same address in Bunker Hill, Los Angeles. In 1919, Dosan went to Shanghai to discuss the organization of Heungsadan in Korea with Lee Kwang-soo and Joo Yo-han. In 1920, the Suyang Dongwoohoe, a revolutionary party, was organized in Korea, and the joining question and answer were omitted because it was in line with the overseas Heungsadan members and the Suyang Dongwoohoe.

According to Dosan's <Letter to Heungsadan companion in America>, it contain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Heungsadan movement from the theory of training skills to the theory of national revolution according to the times. The Revolutionary Party should be organized separately to actively train the character of fighters, and the Heungsadan is a training group, named Suyang Dongwoohoe, which is a powerful part of the revolutionary spirit. Distribute it to each companion but ask that the enemy never capture it.

The Heungsadan was discriminated against to the extent that a visitor visa to Korea was denied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Rhee Syngman. However, it aims to build a healthy community society with a spirit based on fostering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a tradition of hand in salute, yellow and red shoulder straps, and the national anthem verse 4.

Now, as I close the book, I want to pick out seven scenes that are still good to my mind. If I were a film director, I would like to make a movie.

In 1908. A scene where Dosan takes the third-class ticket and gives the first-class ticket to Chun-won at a Chinese station;

Chun-won is speechless when Dosan worries about Lee Kwang-soo, saying that the body search on the train is serious. However, later in Shanghai, Lee Kwang-soo follows Heo Young-sook to Korea even if Dosan stops him.

In 1910. A scene Dosan is waiting endlessly under the moonlight for a ship heading to Shanghai on the blue waters of the Huangpu River.

The Korean Empire has already been disadvantaged of diplomatic rights due to the Eulsa Treaty. Dosan has received a visa in China, which it hurriedly landed on the lighthouse of island after learning that the ship stops by Japan. It is sad that it has lost our homeland.

In 1912. A scene Dosan is carrying cement tied to his back at the Panama Canal construction site;

Dosan combines \$300 he collected through labor and the Ahn Hye-ryun sent sweetly. Dosan sent it to Lee Gap, a colleague who is struggling with an illness. When Lee Gap received it, he cried.

In 1913. A scene where Dosan goes to meet Cho Byung-wook, who cannot come because Cho has no travel expenses, at a farm in Northern California, and shook hands with each other;

Cho Byeong-wook was frustrated by the insincere answers of independence activists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in Hawaii. However, he surrendered to Dosan who came directly to the farm in Northern California and joined the Heungsadan.

In 1917. A scene of stopping by Hawaii and speaking in front of a compatriot divided by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s dispute;

Impressed by Dosan's appeal to unite and go out together in harmony, the Koreans gather around Dosan and want to stay together.

In 1927. A scene where Kim Sung-joo (Kim Il-sung) asks Dosan, who is spea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in Gilim;

Fifteen-year-old Kim Seong-ju (1912), who came to listen to Ahn Chang-ho's fluent speech with Oh Dong-jin, a student at the Daesung School founded by Dosan, asks questions about armed struggle, although good at developing skills. As soon as the speech is over, Kim Seong-ju takes the lead in a rescue movement to save Do-san, who is imprisoned in Gilim Prison.

In 1937. Everyone was shaking in the cold weather in Seodaemun Prison, and DDT white disinfection powder was sprayed on the body and covered;

Followers, who were brought to the Suyang Dongwoohoe, wondered what kind of expression Dosan would make, but they were comforted by seeing Dosan walking confidently even in the cold.

The celebration of the 815 National Liberation Day in 2022 had the joy of getting ou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ust like escaping the pandemic. Every event featured a dance drama in which the Korean flag was held while wearing a white jacket and black skirt. The tenor's roaring song, who played the role of Dosan, led the mood of Dosan by appearing at every major town event.

The Korea Fantasy Symphony at Disney Hall is the best. This music flows into the lyrical melody of the eastern country expressing the rivers and mountains of our peaceful motherland, and then leads to the sad melody that resists outside intrusion and Japanese imperialism. Finally, the entire chorus energizes up to the 4th verse of the national anthem which aspires for freedom. The East Sea and Mt. Baekdu... The finale ends with a magnificent symphony. The music touches our heart throughout the 30-minute performance time.

The national anthem was sung as a Scottish folk song in the past. However, it was inserted into the Korea Fantasy composed by Ahn Ik-tae in 1935. Ahn Ik-tae conducted the national anthem at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in San Francisco in 1936. Then he stopped by the Heungsadan Dahnsa in Los Angeles, conducted the

nearby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at the Korean Church in New York in 1940. Ahn Chang-ho (1878), Ahn Jung-geun (1879) and Ahn Ik-tae (1905) were from Pyongyang, and Ahn Ik-tae may have believed in the lyrics of the national anthem Ahn Chang-ho. Although it was released under the name Yoon Chi-ho, Dosan is a good lyricist. It is acceptable because Dosan wrote the lyrics for the Patriotic song and Korean Peninsula song. Our descendants will be immersed not only in BTS songs but also in the turbulent melody of Korea Fantasy. This year's Liberation Day also saw this wonderful music and chorus at Disney Hall.

There was a highlight event of the Dosan Musical on the stage in front of Radio Korea, where a promotional event for the Paul Getty Museum was held. I clenched my fists as I remembered the chorus of slaves singing up and down the gray stairs in harmony as the mood of a large-scale musical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blended with the green grass under the blue sky. I wouldn't be the only one who decided to go to the whole musical.

In 2019, the musical commemorated the 100th anniversary of March 1st, first in Riverside and then in Los Angeles' Ebell Theater, then skipping the pandemic. In 2022, it performed at the La Mirada Theater in Orange County. It is a live history education because not only Dosan but also the patriotic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gloomy Japanese colonial rule. All the cast members were dynamic, so I felt that the developed Hallyu (Korean Wave) influence was reflected in the work. When the scen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at unfolded in the play, tears rolled down my cheeks at the strong shouts of Manse (Hurray!) and gunshots.

I couldn't miss the newspaper article about Dosan, even chasing events like this, while the wave of Dosan happens in America.

Although the Dosan Post Office has been demolished, I miss the portraits on the wall. When and where can we meet again? I think of Dosan and live overcoming

difficulties whenever I face challenges.

The Heungsadan Dahnso is a newspaper headline and i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public hearing. If something is related to Dosan, I must diligently pursue it.

When reading the article on the promotion of the Dosan Memorial Hall, I remember going to the group bus a few years ago, seeing the statues of Dosan, Gandhi and Rev. King, and touring Pachapa Camp next to the railroad tracks. When will the memorial hall begin? Riverside is now felt as a suburb of Los Angeles.

Martin Luther King Jr. Day in January and Lincoln Washington President Day in February are federal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As a California holiday, there is Cesar Chavez Day in March, and we have 'Dosan Ahn Chang Ho Day' on November 9th. It is the birthday of Ahn Chang-ho. In 2019, commemo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nd the 140th anniversary of Ahn Chang-ho Day's birthday were enacted. There was an opportunity to inform foreigners of Dosan.

2023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immigration. The memory of Dosan, which I have known since the tim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immigration, opened my eyes wider than before as I wrote this article. I follow and listen to the precious memories of the people around me, and when I enter a conversation about Dosan, the mood is energized. The next generation also blink their eyes with curiosity, saying that they are proud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o fought for Korea. How will Dosan, looking into the future, view this era?

Lastly, I conclude this article by the memories about the four books written by co-authors and Heungsadan Dahn-woo, Yoon Byung-wook who published 《The Scent of Dosan, Even After a Hundred Years》 (2015).

1. 1.《**Korean American Society and Independence Movement**》(2003): I didn't have any hobbies in history because I did not want to memorize the chronological history of the past. However, I ran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00 years which began with 102 ancestors who came aboard the {Gallic} in 1903. It was interesting to find immigration roots in America through this book.

2. 《**I found a country outside the country**》 (2006): The conflict between Ahn Chang-ho,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are interesting. I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distribution of wages and sweat-collected independent funds from Hawaii sugar cane fields, Riverside orange farms, and Mexican cactus farms.

3. 《**Korean American Legacies**》 English version (2007): The 'Korean American Day' ceremony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D.C, I distributed this book on the event of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centennial project of immigr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from 2003. On the back of this book with portraits of active people, published books, and promotional brochures are eye-catching.

4. 《**I want to live in your heart**》(2008): Wherever Dosan went in the world, we can see the footsteps of Dosan with a collection of letters sent to his wife . In those days, it was difficult to write, letters written to my beloved Hye-ryeon, and to my children, love with guidelines for daily life were delivered. Even if it were hard, she would have been able to endure the joy of raising five children who grew up well and a reliable husband. Now Dosan is alive in my heart.



배수지

나의 처녀작은 지하철이 없던 1992년, 4.29 폭동이 일어난 한달 뒤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린 LA 폭동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다. 대부분 흑인 방화 울분을 썼는데 나는 시제를 21세기로 끌고 가서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타운에 몰려드는 광경을 상상으로 그렸다.

연락처: (213) 494-1990

[\(링크\) 선데이 저널에 실린 글](#)

1994년 진도 6.8 노스리지 지진으로 5시간 갇힌 상황과 한 달간 쉼터에서 겪은 체험 <흔들리는 세월>을 써서 중앙일보 논픽션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1999년 영재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집안에 틀어 박히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 나는 미드월셔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다. 한국일보 생활수기 <그들은 정상이 아니다> 글로 가작 상을 받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민족포럼> 편집주간을 맡으면서 책 출판과 각 단체 행사 코디네이터 일을 했다.

2011년 <We Are Here> 영어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입상했다. 도미(1980) 하여 미연방 우정국 근무(1981~1987) 중 느낀 인종 갈등과 똑같은 일의 반복을 접고 뉴욕시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1988) 해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했다. 중앙 도서관 Newsletter 에 실렸다.

2022년 도산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바다에 떠 있는 산>을 쓰게 되었다. ***

도산사상의 실천적 과제

도산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과 도덕국가의 완성

최주석

1. 서론

도산의 삶을 조망할 때, 독립운동에 전 생애를 바친 그의 의지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생애에서 보여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금자탑을 이루었다고 말할 때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본다.

대외적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도산에게서 무엇을 배우며 그 실천적 방향을 찾아서 그것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흥사단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단우들이 도산에게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본적 처방책이 한가지로 말해질 수도 없거니와, 있다 하여도 그것에 대한 노력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의 우리모습을 모색한 도산의 삶에서 특히 교육사상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2. 본론

1) 도산 교육사상의 근본

먼저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내 보면 먼저 부정부패, 부조리, 양극화(계층, 소득), 불평등, 능력주의, 정치를 바라보는 냉소주의, 방임형 개인주의, 지식, 관료인의 마피아식의 엘리트 의식, 맹목적 집단이기주의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 근원을 찾아내서 개혁의 일단을 마련해보고자 이 글을 쓰고자한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개혁의

이행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조그마한 결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으며 도산이 끝없이 추구한 복된 나라, 도덕적으로 재무장된 문화국가로 탄생할 수 있으리라는 열망을 갖는다.

연역적으로 피력하자면 도산이 늘 꿈꾸어왔던 인성교육과 자아혁신, 지도자 양성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산적한 현실적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 둘 해결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일거에 이루어질 수 없고 점진적으로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민관합동의 초지일관의 합심 또한 필요하다.

2) 도산의 교육사상의 실천

도산자신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확립시키고, 인격을 도모하여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 그의 구국의 첫 번째 목표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본인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평양에 점진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나라를 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물론 풍전등화의 쇠락한 나라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비범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면 시도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산의 큰 그릇의 면모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었겠다. 본인 자신도 미국 유학 시 목표는 교육학을 공부하여 나라로 돌아와서 교육부문에 헌신할 생각을 한 것만 보아도 그의 교육입국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그의 학문적 추구는 좌절되기도 하였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연히 목격한 한국인 인삼장수의 자리다툼이 더 큰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적 성취의 좌절은 그의 지도자상에 있어서 전혀 결격사유가 될 수가 없었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나라를 구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집념은 기존 인성학교의 확대 개편하여 모범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켜 한인 청소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려고 매진하였다. 인성학교는 초중교육을 위한 의무교육기관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산은 더 나아가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1924년 남경에 동명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처음 어학강습소를 설치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군사학, 병식체조를 가르치면서 신체단련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여기에서 도산의 선견지명과 조직적 사고방식의 지도자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예비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공계통의 전문인을 양성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이유는 이공과 학업을 통하여 취업진로를 개척하여 자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동명학원을 통하여 김 마리아를 비롯하여 차후의 독립운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3)도산 교육사상의 철학

위에 열거한 도산의 일련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한 나라의 교육이념을 찾아 볼 수 있겠다. 그 이념과 사상은 보편성, 무상의무교육, 민족교육, 교육평등, 인재 양성, 자아혁신 등이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도산의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지말자"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그의 지상의 최대 목적인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된 인간은 어느 사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고 본인의 자존감을 지닌 채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도산의 교육이념과 사상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야 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얘기한 보편성은 전 근대사회에서 오랫동안 야기된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는 계급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우고자 하는 누구도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고 도산은 보았다.

한 예로 구한말 시절 천대받았던 백정신분이 기독교로 전향하여 신문물을 받아들여 개안을 하였고 그의 자식은 세브란스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어 나라에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산은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교육은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무상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우리교육과정도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주어지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지만

인간평등의 측면에서도 당연지사라 볼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귀결점이다.

민주사회에서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개인자유이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구한말 도산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교육이었던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를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이 이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평등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교육의 문호는 열려있으며 본인의 노력에 따라 무한한 교육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양성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그 분야의 인재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자아 혁신 또는 인성 도야 등은 도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으로써 우리민족의 어려운 시기나 지금의 시대에도 교육을 통해서 가장 크게 접목시킬 수 있다.

밤하늘에 많은 별이 있듯이 우리의 내면에 도덕률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외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를 일구어 낼 수 있다.

4)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산교육사상의 필요성

개략해서 말하자면 그 시대의 도산의 교육사상은 일제침략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일제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독립정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또한 강조하였다. 또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시급하였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을 기르는 것이다. 지덕체의 자질을 갖추고 자신의 이상과 계획을 실행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행하였다.

지도자의 자질은 개인적 자아혁명에서 시작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각성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자아혁명은 개인적, 도덕적 혁신을 넘어서 국가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세, 태도, 인식, 그리고 실천을 의미한다.

개인적 이익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공리공론의 자세를 버리는 것, 선공후사의 책임감을 갖는 것, 과학적 정신을 가지고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 신뢰와 대의를 공고히 하는 것 이러한 도산의 교육사상은 누차 얘기했듯이 현재의 우리의 복잡 다대한 사회에 있어서도 통용이 될 뿐더러 미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변함이 없는 절대 절명의 법칙으로서 존재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현 사회의 문제점들,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사회가 병들고, 나아가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기 이전 우리 전 국민이 이러한 위기사항을 깨닫고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도산의 교육사상을 가지고 현재의 파행적인 현 교육제도를 뼈대까지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발전하기보다는 퇴보의 진흙탕 속으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5) 현재 교육제도의 폐해

나의 주장의 전개를 위해서 가장 요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싶다. 우리의 현재 교육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교육정책에 문외한들이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에서 백년지대계의 큰 그림이 나올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거듭 얘기한바 도산의 교육사상의 출발인 인성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확립시켜야한다고 본다. 인성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이지만 그것의

중착점은 사회에서의 교육이다. 아니 교육의 기간이 가정에서의 훈육시간을 엄청나게 넘어서기에 제도로서의 교육이 중시되어야한다.

학력지상주의, 능력주의 이러한 잘못된 사조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계층별, 소득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젊은이에게 진취성을 빼앗고 왜소함, 고립화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사회는 왜 대학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현실도 부익부 빈익빈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뿌려 자식에게 대학교를, 더 좋은 대학교를 보내 원하는 좋은 직장, 유학 등으로 능력을 키워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 집단적 이기주의, 마피아식 착취행위를 서슴없이 행동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건전한 도덕률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은 대물림에만 온 신경을 쓸 뿐 사회와 나라에 대하여 기여할 어떠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시작부터 인격함양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에서 인격함양의 기본적인 자세로서 정직함, 배려와 같은 진실한 태도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러한 인격적 요소는 무시하고 갈라치기, 편 나눔에 몰두하는 것에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무서움을 느낀다.

6) 현 교육제도의 변혁

교과과정에 대하여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술해서는 안 되고 진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에 따른 역사를 가르쳐야 맹목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도산의 교육이념에 비추어 나의 제언을 첨가하고자 한다.

초, 중고교에서 여름방학을 미국 제도를 본받아 대폭 연장하여 학생들의 자율행동 및 책임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것의 의미는 국가적 시설과 재원의 효율적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민간의 합동으로

제시하여줄 필요가 있다(예로 인턴십). 더불어 이 긴 여름 방학 때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국가와 학교에서 개발하여 일정기간 단체집단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견학의 기회와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땀과 노력을 쏟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배려의 미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국가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학교, 교사, 학생의 필수적 참여)

이제 우리 사회가 부단하게 갖는 관심의 핵심인 대학입시 제도를 생각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하면서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여 파행의 결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주었고 공교육의 실종과 사교육의 활성화로 정상적인 인성교육은 실종된 지 오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무겁고 험벗은 낡은 대학입시제도의 전면적 재편이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능력주의, 학벌주의에서 어떻게 탈퇴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미국제도와 독일제도의 일부를 원용하여 우리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민주사회의 핵심인 공정, 정의, 평등의 원리들이 여기에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첫째, 특화 고등학교의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이다(예 마이스터 고교, 산학협동). 기술전문학교로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 기업, 산업체와 연구소에 입사하여 기술 장인이 되도록 국가가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둘째, 대학의 통폐합,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대학의 난립과 부조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의 정리가 불가피한데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위해 2년제 대학을 활성화하여 현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간산업체, 창업의 전문성, 예술계, 문학계의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의 압축화로 가는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셋째, 4년제 대학의 소수 정예로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존립과 더불어 특성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공전문대학이거나, 외교부문, 의과부문, 정책부문, 언론부문의 특성화가 전문이 된 4년제 대학의 출현이 바람직하다. 학문적 영역과 더불어 전문적 분야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의 양성과 전문직 연구원의 발굴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의미한다. 대학원을 진학하여 교수요원이 되거나 대학을 나와 국가 정책, 외교, 국제통상업무에 관한 전문 연구위원이 되어 심도있는 국가기관에 종사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문요원(언어)이 몇백명씩 포진하여 외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 외교통상, 조약, 법규에 관하여 우리의 상상이상으로 많은 연구위원이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 합동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보완해야 한다.

3. 결론

초중고교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면서 인재를 양성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정의, 공정, 평등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대략적인 나의 주장에 보완할 점이 많지만 이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 의식구조의 쿠페르니쿠스 전환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민관합동으로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도산의 구국을 위한 교육사상은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현대에 더 절실히 강조되어야 하며 앞서 본인이 제시한 인성교육을

강조한 개략적 교육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와 자아혁신의 정신을 가진 우리의 사회는 더없이 원만하고 화평하고 법질서가 필요가 없는 정의로운 국가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공정, 정의, 평등에 기반을 둔 도산의 교육사상을 우리 민족 개개인이 도산의 삶을 반추하여 온몸으로 체득하여 주어진 막대한 시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 또는 현실참여가 필요할 때 앞장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나의 소망이다.



최 주석

통상단우, 흥사단 뉴욕지부

저는 흥사단 뉴욕지부 통상단우 최주석입니다. 뉴욕지부 창설과 더불어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흥사단이 100년을 넘어 이자리에 와 있지만 그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음이 눈에 보입니다. 현실적인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도산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본받아 비상의 나래를 펼쳤으면 합니다.

미주시민의 기본인 도덕성 함양이 나라발전의 기틀이 됨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1954년생

서강대학교 졸업

뉴욕 플래싱 거주

joochoi69@gmail.com

도산의 향기를 찾아서

김범 (Bowm Kim)

1. <도산 인터체인지, Intersection of Freeway 10 and 110, Los Angeles
2. <할리우드 필립안 별, 6201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8
3. <문게이트 식당, 8632 Van Nuys Blvd Panorama City, CA 91402
4. <도산 우체국, 3751 W 6TH ST. LA, CA 90020
5. <벙커 힐 흥사단 단소, 106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12
6.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3421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
7. <도산 패밀리 하우스 , 809 W. 34 St. Los Angeles, CA 90089
8. <대한인국민회, 1368 W Jefferson Blvd., LA, CA 90008
9. <도산기념관, Riverside, CA
10. <파차파 캠프, 3077 Cottage St, Riverside, CA 92507
11. <도산 동상, 3400 Market Street, Riverside, CA 92501
12. <로즈데일 묘지, 183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13. < 도산 스퀘어 광장, Jefferson Blvd & Van Buren Pl, Los Angeles

☆ 1. 도산 인터체인지, Intersection of Freeway 10 and 110,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시 한 복판을 가로 지르는 10 번 프리웨이와 110 번 프리웨이가 서로 만나는 곳에 '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 표지판이 있다.

매번 그 표지판 옆을 지날 때면 왠지 마음이 흐뭇해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차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인터체인지로 10 번 동쪽에서 110 번 남방으로 진입하는 곳과 110 번 남쪽에서 10 번 동방으로 진입하는 곳에 있다. 우버 운전을 하다 보니 그 길을 자주 다닌다.

운전 중에 표지판을 사진에 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옆을 지나칠 때마다 아쉽다.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두 표지판을 카메라로 찍어야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취재

전문용 카메라와 고급형 줌렌즈도 마련했는데 이참에 한 장면 찍어 두어야겠다. 2002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프리웨이 인터체인지에 이름을 올리는 표지판 법안을 상정했다. 2004년 6월 도산 안창호의 장녀 안수산과 아들 랄프안 등 후손들을 초청한 가운데 프리웨이 밑에서 표지판 헌정식이 거행되었다. 그때는 TV 방송 카메라 기자로 일하며 이민 100주년 행사를 꽤나 취재 다니며 찍었다. 그해 9월 프리웨이 인터체인지 진입하는 길에 가로 156인치(4m), 세로 42인치(1m) 크기로 표지판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표지판은 갱들의 지역 표시용으로 낙서(graffiti), 반달리즘(vandalism)이 끊임없이 발생해 오고 있다. 가주교통국은 '낙서 방지 재작업' 결정에 따라 낙서 지우기 반복과 훼손 못하게 표지판 위치를 높였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지역 순찰 강화로 문화재나 유적 등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올렸다. 또한 낙서가 되어도 원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Anti-graffiti' 보호용 코팅이 되어 있어 '도산 안창호'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귀퉁이에 또 노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눈에 거슬린다. 철망을 넘으면 낙서를 지울 텐데 나는 신나통을 들고 다시 오리라 마음 먹었다.

운전 중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어 나는 프리웨이 근처에 차를 세우고 표지판을 카메라 앵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았다. 가까이에서 프리웨이 양방향으로 달리는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나를 향한 도산이 빙그레 웃고 있다.

☆ 2. 할리우드 필립안 별, 6201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8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서 필립안 별 사인판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근처 바인/할리우드 (Vine/Hollywood) 지하철역이 생긴 뒤 역에서 빠져 나와 동북방향으로 길을 건너면 필립 이름이 새겨진 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차이니스 극장' 앞에 새겨진 손도장 보다는 한 등급 위인 '별 사인판'을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필립은 최초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배우로써 당당하게 새기었다. 오늘날 한류의 원조 격이다.

필립은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에 태어났다. 도산은 그 해에 태어난 장남을 '필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안필립(安必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필립의 스토리를 보면 코끝이 시큰해진다.

20세에 접어든 필립이 야채장사를 하면서 전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때였다. 필립은 아버지가 밖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이끌었다. 온 가족이 함께 매달려 생계를 유지했다. 이 무렵 필립은 할리우드 영화배우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산을 가까이 하던 동지들은 광대 노릇이라고 하여 필립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행여 도산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하는 걱정에서 였다. 심지어 필립이 좋아하던 뽀테 안경을 주위에서 누군가 못 쓰도록 뺏었다고 한다. 도산은 필립의 실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안경을 새로 사주기도 했다.(막내 필영과의 대화에서, 아버지 얼굴을 본적이 없는 필영은 아마도 후에 가족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배우를 본업으로 결정했을 때 모친 안혜련 여사도 반대했다. 그 당시에는 배우 일을 천하다고 여겼다. 1926년 아버지가 상해로 떠난 후 야채를 운송하던 필립은 타워(Tower) 야채시장의 과일 스탠드를 분양 받는 행운을 얻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아버지 안창호가 1927년 상해 만주 일대를 누비고 다닐 무렵 낙심하고 있을 큰아들에게 "네가 영화계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방면에 소질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오직 진실한 사람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는 것만이 나의 부탁이다."라며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 덕분에 필립은 배우 일을 하게 되었고 '영화도 예술이다. 기왕 할 것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어라.' 필립안은 아버지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당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도산이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훈훈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녹아 있다. 당시 부자간에 오고간 편지를 읽으며 나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필립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잘 있느냐. 네가 나를 대신하여 집안을 위하여 힘쓰

것을 고맙게 생각함은 다 말할 수 없다. 금년에는 꼭 집에 가서 너를 도우려고 하였더니 불행히 이같이 되어 뜻을 달하지 못하였다. 나는 평안하고 밖에서 드러주는 의복과 음식이 다 만족하니 근심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보낸 굴을 잘 먹었다고 말씀 드러라.
(1932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 3. 문게이트 식당, 8632 Van Nuys Blvd Panorama City, CA 91402

코리아타운에서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으로 가다가 405번 만나기 직전 밴나이스 길에서 내렸다. 조용한 시골 도로처럼 편하게 한참을 북쪽으로 달리다가 번잡한 시내로 접어들었다. 대형 상점을 끼고 있는 나즈막한 쇼핑몰에는 저녁 햇살을 맞는 주민들이 평온해 보인다. '문게이트 식당' 주소를 막 지나려는데 그야말로 세련된 건물이 눈에 확 띄일 정도로 장식된 기와 지붕이 퍽이나 인상적이다.

산 페르난도 벨리에 있는 파노라마시 최고의 식당으로 요리사들을 홍콩에서 초빙해 왔고 중국음식을 조리해내는 '필안스 문게이트' 식당 (Phil Ahn's Moongate 1954-1989)은 35년간 영업을 계속 했다.

옛날 사진과 비교해보면 'Phil Ahn's Moongate' 간판 글귀만 다를 뿐 같은 모양으로 'La Sierra Nightclub' 간판이 솟아 있다. 그 아래 문 입구에 둥근 원형 장식 벽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레스토랑의 외관이 고풍스럽고 지금 주인도 그 고급스러움을 지키는 모양이다. 낙서도 없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관리가 잘된 남미계 쇼핑몰이 자리잡고 있다. 앞 출입구 왼쪽으로 서 있는 기둥도 예나 지금이나 기와지붕을 받들고 있는데 지금은 출입문이 파킹장 뒤쪽에 있다.

넓은 파킹장에서 안으로 들어서면 옛날 시골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우물이 있고 두레박이 놓여있다. 역마차 큰 수레바퀴도 있고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이 군데군데 놓여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다. 우물터 옆 벽면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벽화가 있는데 무궁화 꽃 한 송이가 얼굴 크기 만치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 모습이 동양인이다. 도대체 이 벽화가 언제 그려진 것인지 문게이트 시절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안혜련 여사의 생일이면 대한인국민회, 여자애국단 동지들을 초청해서 자주 잔치를 베푼 곳으로 흥사단 단우들은 LA 에 오면 도산을 찾아뵙듯 방문 했다. 주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소로 적격인 이곳은 필립을 쫓아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모여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들렸을 때는 주중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주말 밤에만 운영한다고 한다.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데 쇼핑몰을 지키는 경비가 다가왔다. 호기심으로 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에게 이 식당이 역사적인 곳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갸우뚱 하는 그를 붙들고 나는 도산 가족 얘기를 해 주었다.

어머니 안혜련(1808-1969)은 도산이 세상을 떠난 뒤 장성한 5 남매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으며 흥사단원들에게는 일거리를 주었다.

장남 필립(1905-1978)은 영화배우이다 보니 사인해 달라는 손님이 줄을 섰고 이 지역 파노라마시 명예시장 직까지 도맡아 했다. 지금은 할리우드에 별 사인판이 있다.

차남 필선(1912)은 엔지니어로 타운 활동은 뜸했으나 형 필립을 따라 영화에도 몇 편 출연했다.

장녀 수산(1915-2015)은 해군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정보부로 이직되기 전 최초의 여성 포수 장교였다. 1944 년 해군에서 백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식당이 멀지않은 벨리지역 노스리지에 살았다. 문게이트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1950 년대 후반에 공직에서 사임했다. 자서전 《버드나무 그늘 아래 (Willow Tree Shade)》 책을 냈다.

차녀 수라(1917-2016)는 가장 가까이에서 안혜련 여사를 모셨다.

막내 랄프(1926-2022) 필영은 도산 얼굴을 본적이 없다. 우람한 슈퍼볼 선수출신인 그는 사람들과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금년 여름 그의 추모식이 거행 되었는데 교회의 크기에 비해 팬데믹 때문인지 참석인이 적어 아쉬웠다.

눈을 크게 뜬 경비는 건물 외관 이곳 저곳을 찍도록 안내하며 나에게 주말에 다시

오라며 손짓했다. 내부 시설이 궁금하여 주말에 다시 방문 했다. 지금은 남미계 나이트클럽으로 입장료는 없고 무기를 휴대했는지 점검한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을 가리기위해 신분증을 조사 한다. 나는 입장한 뒤 무대 옆 스탠드 테이블에 자리 잡고 맥주를 주문했다. 음악에 맞춰 그들이 춤추는 살사 댄스가 정겨웠고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남미인들이 편해 보였다. 이곳이 한 때 '필립스 문게이트' 이었다는 소개 액자라도 벽면에 붙여 놓으면 좋겠다. 나이트클럽 주인도 자랑스러운 도산의 행적을 알면 기꺼이 협조할 것 같다.

우버 손님을 태우고 그 옆을 지날 때면 저 건물이 옛날 유명한 영화배우가 운영했던 '필립스 문게이트' 식당이었다고 안내하며 구글서치에서 'Phil Ahn's Moongate'를 찾아보라고 말한다.

☆ 4. 도산 우체국, 375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하버드 길을 지나다가 도산우체국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근래 들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지하철 주변에 들어서면서 건설 붐이 일어 주상복합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도산 안창호 우체국 건물도 재건축을 위해 결국 팔렸다.

어느 때고 소포를 보낼 때면 부담 없이 드나들던 도산우체국인데 마침내 2022년 2월 문을 닫았다. 벽에 붙어 있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안창호의 컬러 초상화'와 독립 운동 업적에 대해서 설명된 커다란 액자는 어디에 가 있는지 이제는 도산의 흑백 사진을 보면 도산우체국 벽에 걸려 있던 컬러 초상화와 겹쳐 보인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이메일로 일처리를 하고 있어 우편량이 점점 줄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밀리지 않고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도 줄 설 일이 없어서 차츰 우체국 규모가 줄어드는 현실이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한인타운에는 큰 우체국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

2004년에는 미연방 정부가 소유한 건물에 최초로 한인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 코리아 타운에 있는 '샌포드 우체국 지국'을 'Dosan Ahn Chang Ho Station(도산안창호

우체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자는 요구를 연방 우정국이 받아들여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새로운 우체국 터를 한인타운에서 물색 중이라고 한다.

2022 년 여름 우체국 주차장에 중장비가 들어서더니 한 달 만에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다. 'US Post Office Dosan Ahn Chang Ho Station' 현판이 회수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 5. 벙커 힐 흥사단 단소, 106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12

1913 년 5 월 13 일 도산은 민족 수양에 힘을 키우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창립했다.

1915 년 도산 가족이 리버사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벙커힐로 이사오고 흥사단 단소로 함께 사용한다.

안창호와 가족이 살았던 '1 번가와 피게로아'에 위치한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1 층 사무실 앞에서 흥사단 노랑 빨강 띠를 어깨에 두르고 무실역행 구호를 외치며 흑백 단체 사진을 찍었다. 요즘 우리들 후줄근한 복장보다는 양복 정장에 날렵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깔끔한 표정들이다.

단우가 되기 위해 찾아와 문답 질문에 통과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돈독하게 우정을 쌓으며 조국 빼앗긴 울분에 나무벽을 주먹으로 치곤했을 것이다. 근처에 한국 음식점 하나 없는데 이해런 여사가 단원들에게 김치 담그고 떡국도 끓여 주지 않았을까 싶다.

벙커힐 언덕이 피게로아에서 힐 스트리트까지 다운타운 랜드 마크로 되어 있다. 2017 년 아카데미상을 휩쓴 라라랜드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노란지붕의 전차가 디즈니홀,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이 있는 벙커힐을 오르내리며 관광객을 몰고다닌다. 에인절스 플라이트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철도 위를 오르는 케이블카 같은 역할을 한다. 도산의 옛 활동무대인 이 부근을 지날 때마다 나는 벙커힐에서 태어난 차녀 수라가

근방에서 웬지 뛰어놀고 있을 것 같아 두리번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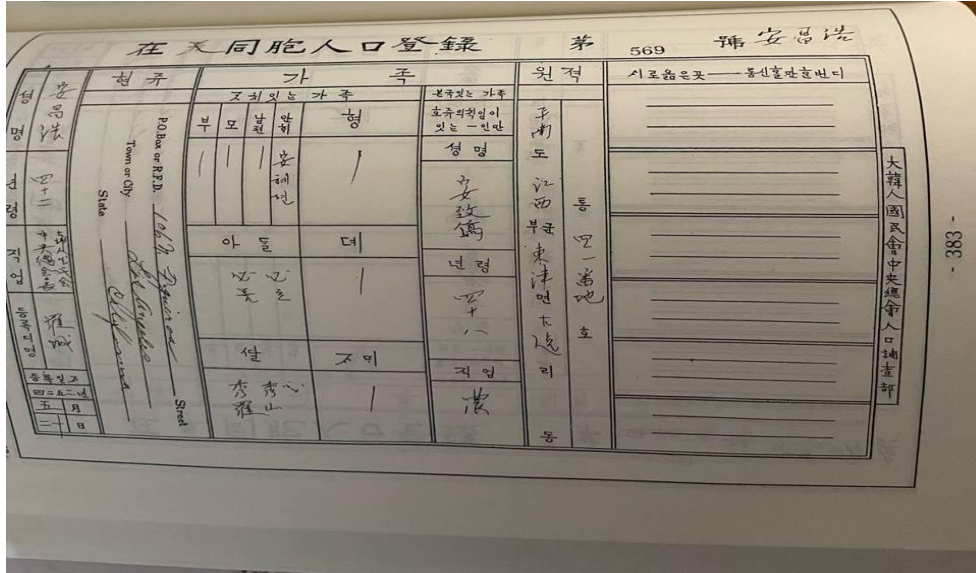
지대는 다소 높지만 경사진 곳이 아니었는데 빌딩과 도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대 고가도로와 터널까지 생기고 지금은 조그만 비탈길 공터로 밀려나 있다.

다운타운 손님을 차에서 내려놓을 때면 이 주소로 찾아와 카메라로 휘황찬란한 부근 빌딩을 배경으로 초점을 맞춘다. 아직 공터로 남아 있는 흙더미 언덕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 대한항공(KAL) 빌딩의 태극 마크를 배경으로 한 컷 눌렀다. 도산이 살았던 곳과 KAL 빌딩이 한 장 사진에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건축물이 밀려오기 전에 카탈리나 단소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도 유적지 등록을 하여 표지판이라도 세우면 좋겠다.

옛 흥사단의 위치였던 벙커힐에 흥사단 풋말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이 사인판 하나를 보기 위해 타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전 대한인국민회 16 권 시리즈를 떨리는 마음으로 귀하게 펼쳐보니 신한민보를 스캔해서 올린 자료를 묶은 것이었다. 한글세대에게는 어려운 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가운데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안창호 피가로아 주소를 알아내고 기뻐다. 미주 국민회 자료집 4 권 383 쪽에 재미동포인구 등록서에 '안창호'가 있다. 당시 거주 주소가 '106 N Figure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로 적혀 있다. [사진: 미주 국민회 자료집 4 권 383 쪽 첨부]



☆ 6.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3421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

한인타운에서 버몬트 길 따라 15 분 정도 내려가 제퍼슨 길 부근 모퉁이를 돌면 찾을 수 있다.

다운타운 벙커힐에서 살림집과 단소를 같이 사용해 오다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1932 년 4 월 현재의 (3412 S. Catalina St.) 단소를 구입했다.

흥사단 단소를 신축해 1935 년 이전하고 흥사단 대회 등 독립운동의 산실로 활동했다. 도산 살림집도 그 근처 주소로 자리를 잡았다. 도산의 업적 가운데 흥사단은 지금까지도 맥을 이어오고 있다. 더운 여름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따는 젊은이들을 도산이 방문해 흥사단에 가입시키고 대륙횡단을 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불러들여 힘을 길렀다.

그렇게 단소를 45 년간 유지해 오다가 그 뒤로 관리를 안 한 모양이다. 잡초가 무성하고 출입문은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고 선전용 광고물들이 쌓여있다. 근처 개발업자들이 눈독 들일만 하다.

2 층 침실에는 아마 30 명 정도가 머물면서 웃고 떠들던 메아리가 지금 바람결 따라 웅웅 내 귀를 맴돈다. 늘어진 팜트리 앞새들이 흥사단 2 층 건물을 바람이 부는 대로 거의 가리고 있다.

건물이 낡아서 흥사단 단소를 파헤쳐 옮겨가기에는 쉬운 일이 아닐텐데 그걸 트레일러에 싣고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역사 유적지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데 안타깝다. 단소를 로스앤젤레스 시에 역사문화기념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2차 공청회까지 무사히 통과되었다니 주소는 일단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도 흥사단은 젊은 단원들 (Young Korean Academy)을 모집해 역사탐방하는 신문 기사에서 특별하게 제작된 단체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았다. 단소 건물을 지켜내서 리모델링하고 빼격거리는 계단을 오르는 기회가 다시 온다면 민족의식을 깨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

며칠이 지나서 나는 제퍼슨과 버몬트 부근에 가는 손님을 내려놓고 단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쌓여있는 쓰레기 치우라는 경고 공문이 붙어 있었다. 근처 빌딩은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 건축현장을 배경으로 단소 건물을 찍었다. 차고 쪽을 보니까 인부들이 공사하고 있던 흔적이 있던데 개발업자들이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협상을 할런지 모르겠다.

종종 남가주대학교(USC) 학생들이 손님으로 내 차에 타는데 가끔 단소 옆을 지난다. 어떨 때는 새벽 2시에도 불이 켜 있고 입구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다. 굵은 자물쇠는 그대로 굳게 잠겨 있고 변화가 있는 걸 보니 무슨 사연이 있는 듯 하다.

USC 학생들이 내 차에 탑승하면 나는 어김없이 안창호 얘기를 꺼낸다. 한국인 학생일지라도 상상외로 도산을 모른다. 그들에게 안창호를 알리다 보면 전도사가 된 기분이 든다. 나는 금년 대학을 졸업한 딸에게 영문으로 된 이광수가 쓴 《Dosan Ahn Chang Ho》 책을 선물하며 “네가 이제 한인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려면 도산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7. 도산 패밀리 하우스 , 809 W. 34 St. Los Angeles, CA 90089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는 원래 남가주대학 (USC) 캠퍼스 안에 위치하지 않았다. 1935 년 흥사단 단소가 (3421 S. Catalina Ave.) 이전할 때 안창호 가족들은 맥클린토크 37 번가 (954 W. 37th St. McClintock Ave.) 로 이사했다. 도산 하우스는 당시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이곳에 실제로 도산은 거주하지 않았다.

1926 년 도산은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1932 년 윤봉길 의사의 홍콩 공원 의거 때 일경에 잡혀 수감생활을 하다가 응급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뒤 1938 년 3 월 10 일 경성제대 병원에서 별세했다. 가족이 비보를 들은 곳은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에서 살고 있을 때다.

부인과 자녀 필립, 필선, 수산, 수라, 필영이 살았던 곳으로 맏아들인 필립과 둘째 딸 수라가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에서 USC 를 다니기도 하였다.

안창호 가족이 이사를 간 후에 USC 가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이 건물을 구입하였다. 당시 학교 당국에서는 이 집을 철거해 학교 부지로 사용하려 하였다.

2002 년에 본격적으로 USC 한인 졸업생들과 미주 한인들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전 운동을 전개하며 모금 운동을 했다. 대학 역시 이 곳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004 년 캠퍼스 안에 그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2006 년에는 한국학연구소 건물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로 사용하기로 하고 다운니 길 34 번가 (Downey Way 34 St.) 에 새롭게 단장하여 일반인에게 개관하였다. 2014 년에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사적지로 지정하였다. 도산 패밀리 하우스는 평일 9 시에서 5 시까지 개관하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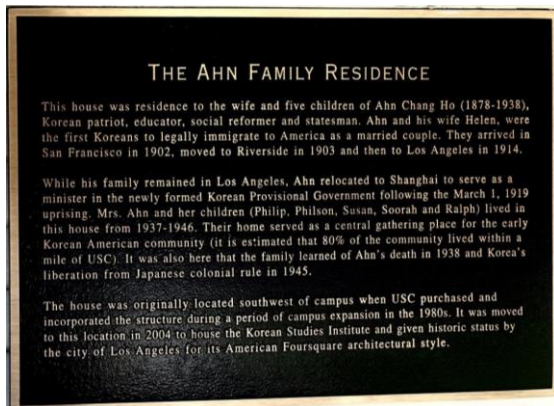
나는 오랜만에 도산 하우스를 찾았다. 남가주대학 (USC) 캠퍼스가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리모델링을 한 서양식 목조 주택으로 빨간 지붕에 연한 갈색 페인트를 칠한 벽에 도산 하우스 소개 현판이 있다. 아담한 2 층 목조건물로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호랑이

액자가 방문객을 환영한다. 1 층에는 도산 안창호 사진 및 한글과 영어로 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전에 건물에서 이전해 온 계단인지 2 층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계단에는 도산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2 층 사무실은 연구실 용도로 사용하고 계단에 걸린 사진 액자중 2 개가 흥미롭다.

벙커힐 흥사단 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 안혜련 여사 품에 안긴 아기가 벙커힐에서 태어난 수라이고 그 옆 소년이 필립일 것이다.

1925 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찍은 서재필과 안창호의 사진 액자가 걸려있다. 19 세 안창호가 서재필의 연설을 점심까지 굶어가며 듣다가 미국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함께 했으니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THE AHN FAMILY RESIDENCE



This house was residence to the wife and five children of Ahn Chang Ho (1878-1938), Korean patriot, educator, social reformer and statesman. Ahn and his wife Helen were the first Koreans to legally immigrate to America as a married couple. They arrived in San Francisco in 1902, moved to Riverside in 1903 and then to Los Angeles in 1914.

While his family remained in Los Angeles, Ahn relocated to Shanghai to serve as a minister in the newly forme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ollowing the March 1, 1919, uprising. Mrs. Ahn and her children (Philip, Philson, Susan, Soorah and Ralph) lived in this house from 1937 to 1946. Their home served as a central gathering place for the early Korean American community (it is estimated that 80% of the community lived within a mile of USC). It was also here that the family learned of Ahn's death in 1938 and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house was originally located southwest of campus when USC purchased and incorporated the structure during a period of campus expansion in the 1980s. It was

moved to this location in 2004 to hous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given historic status by the city of Los Angeles for its American Foursquare architectural style.

[하우스 입구에 붙어있는 현판 번역] 도산 안창호 가족이 살던 집

이 집은 안창호(1878~1938)의 부인과 다섯 자녀들이 살던 집입니다.

한국의 애국자, 교육자, 사회 개혁가, 정치가입니다. 안창호와 그의 아내 혜련은 결혼한 부부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그들은 190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1903년(1904?)에 리버사이드로 이사했고, 191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있는 동안, 안씨는 상해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1919년 3월 1일 봉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 여사와 그녀의 아이들(필립, 필선, 수산, 수라, 랄프)은 1937년부터 1946년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초기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모임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커뮤니티의 80%가 USC에서 1마일 이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됨). 1938년 안창호 선생의 죽음과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알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원래 USC가 1980년대 캠퍼스 확장 기간 동안 건물을 구입하고 통합했을 때 캠퍼스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에 한국학 연구소를 수용하기 위해 이 장소로 옮겨졌고 미국 포스퀘어 건축 양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로부터 유적지 지명을 받았습니다.

☆ 8. 대한인국민회, 1368 W Jefferson Blvd., LA, CA 90008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건물이 있는 곳에서 3블럭 건너 제퍼슨 길에 대한인국민회가 있다.

1938 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로 옮겨와 독립자금 모금, 신한민보 발행, 한글 교육 등 활약을 했다. 1969 년까지 유지해 오다가 해산하였다.

그 뒤 대한인국민회 단층 건물이 폐가처럼 되어가던 중 이민 100 주년에 맞춰 역사 유적지로 건물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열풍이 불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2003 년에 발족되었다. 그때는 타운 단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이고 나는 당시 보도기자로 ENG 카메라를 메고 복원기념식을 촬영했다. 건물 내 흙바닥에 있던 신한민보를 찍던 그 무거운 쇠덩어리 웅장한 윤전기가 인상적이었다.

건물 복원하면서 다락방 유물이 쏟아져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 같은 대형 태극기, 깃발, 재미인구등록 장부, 한글 교과서, 사진, 독립자금 재정지원서 등 서류와 활자로 찍힌 신한민보를 차곡이 묶은 신문철들을 보고 놀랐다. 감히 만질 수도 없었는데 USC 대학과 한국독립기념관이 참여해 특수 처리하는 디지털작업 과정이 연일 보도로 한창 뜨거웠다.

미주한인의 크나큰 자산과 신문 페이지를 재생하여 밖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와 보니 실내가 얼마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지 윤전기도 매트 위에 말끔히 놓여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어 놀랐다. 벽 패널 구석 QR 코드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영어, 한글설명이 나온다. 관련 자료도 영상 스크린 등 최신시설을 갖춘 전시관으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후손들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민족의 우수함과 자랑스러운 업적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으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금년 여름에 3 회째 진행 되었다. 이민사 초기 생활과 독립운동 자료를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여기 모여 단체 관람과 토론도 하고 이수하면 사회봉사시간 수료증과 기념품도 준다는 보도 사진에 흐뭇했다.

내부 전시를 둘러보다가 도산이 오렌지 농장에서 과일을 딸 때 담은 포대자루를 둘러 멘 사진이 강렬하게 눈길을 끈다. 도산뿐만 아니라 그당시 미주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연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선조들의 활동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정리된 이민사에 관한 책들이를 꽂혀 있던데 그 책들은 한정판으로 다 귀중한 고서들이다.

나는 요즘 카메라로 중요 페이지들을 찍어가며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다. 우선 대한인국민회 탄생과정이 국내외로 도산이 맹활약 하던 시기여서 제대로 알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통해 요약해 보았다.

(미주에서) 1903년 9월.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상향친목회 회장에 안창호를 선출한다. 190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상향친목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안창호, 기관지 '공립신보'를 창간한다.

(국내에서) 1907년 동경을 거쳐 국내로 귀국해 윤치호, 김구 등을 모아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했다. 1908년 평양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윤치호를 교장대리로 임명한 뒤 마산동 자기회사, 태극서관 등을 설립했다. 1909년 도산은 윤치호 등과 함께 흥사단 전신인 청년학우회를 결성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직후 배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혐의 불충분으로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미주에서) 1909년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를 통합하여 '국민회'를 결성했다. 1910년 2월. '국민회'는 '대동보국회'를 흡수하여 '대한인국민회'로 결성되었다.

(중국에서) 1910년 대한제국 여권은 말소되고 도산은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청도에서 독립운동가 회의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한일합병' 소식을 들었다.

(미주에서) 1911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분과와 임원을 완비한 완전한 조직구성을 하지 못한채 제 1대 회장에 최정익을 선출했고 제 2대 회장에는 윤병구가 선출되었다.

안창호가 재미 한인 독립운동단체로서 중앙총회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임시정부 격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 3 대 회장에 도산이 선출 되었다.

☆ 9. 도산기념관, Riverside, CA

2022 년 여름 리버사이드에 도산기념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두 후보지를 비교하는 기사를 보았다.

1 차 후보지는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스테이트 히스토리 파크 인근에 있는 10 에이커 규모의 땅으로, 오렌지밭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장점이다.

2 차 후보지는 리버사이드 '모킹버드 저수지'와 인접한 8.9 에이커 규모의 땅으로 주립공원인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팍'에서 남쪽으로 벤 뷰런 불러바드를 따라 0.5 마일 정도 떨어져 있지만 프리웨이 달리는 차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약 50 마일 거리를 운전해 한 시간 만에 도착했다. 내륙 지방이어서 뜨거운 날씨가 힘들었지만 나는 선조들의 땀을 생각하면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우선 리버사이드에서 1 차로 고려된 오렌지 농장 주소로 향했다.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로 농장 길에 접어들었더니 인적은 안 보이고 끝도 없는 오렌지 나무들 기둥에 여기가 낙원인가 초록과 노랑색 그리고 흙색 자연에 파묻히고 만다.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오렌지 농장보다 더 크게 계속되는 농장은 처음이었다.

옛날 수레와 농기구들이 붉게 녹슨 채 나무들 사이로 야외에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하나 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이런 기구들을 구입해서 우리 선조들의 오렌지 따는 경험을 좀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가슴에 광주리를 매달고 밭에 들어가 오렌지 따는 체험도 하고 싱그러운 즉석 오렌지 맛에 머지않아 선조들과 영상 대화를 나누게 될 날도 올 것만 같다.

도산이 샌프란시스코와 리버사이드를 오가며 민족 계몽에 힘쓰던 시기 무겁게 열린 오렌지를 광주리에 하나씩 담을 때마다 독립자금에 보태지고 머지않아 고향 갈 날이

가까워질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것이다. 오렌지 그늘 아래 모여 찍은 노동복 차림의 단체 사진을 보면 동네 어른들처럼 정겹다. 단체 야유회 사진 속에서 웃음소리와 고향의 봄 혹은 아리랑 노래에 흥겨운 장단도 들리는 듯하다.

나는 정신없이 카메라에 담다가 건너편 언덕 위 2 차로 고려되는 기념관 예정지를 더 가까이 찍으려고 다가가다 철망 울타리에 걸려 떨어질 뻔했다.

다시 차를 몰아 프리웨이를 타고 2 차 예정지로 향했다. 차를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지대가 높아 확 트인 리버사이드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옆에 캘리포니아 주 소유의 캐년 지대로 근처 건물은 없고 산등성이에는 터를 닦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팜트리와 오렌지 발의 아름다운 광경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오렌지 숲속 호수도 발아래로 보인다.

이 지역이야말로 오렌지 따담는 포대자루를 둘러 맨 노동복 차림의 도산 사진이 있는 대형 간판이 세워지면 제격이다. 프리웨이 달리다 빌보드가 가리키는 숲속으로 차들이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싱싱한 오렌지를 맛보고 거래하면서 도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기념관을 돌아보며 타민족에게 보다 홍보가 될 것이다.

리버사이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파란 하늘과 녹색 나무에 무너지도록 매달린 큰 오렌지와 흙 위에 굴러다니는 입 벌린 오렌지의 색상 조화가 생생히 살아 나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그 싱그러운 오렌지 맛에 베어 있는 도산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오렌지 하나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 10. 파차파 캠프, 3077 Cottage St, Riverside, CA 92507

리버사이드에서 기차길 따라 가다보면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1904 년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렌지농장이 있는 리버사이드로 오가며 민족계몽 운동을 했다. 아침이면 이송 트럭을 타고 오렌지 농장으로 향하며 야유회 계획도 하고 독립금 보태는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냈을 것이다. 차남 필선은 리버사이드에서

출생했다. 허름한 텐트촌 같은 곳에서 이해련은 기차소리에 잠을 깬 아기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쳤겠다.

1908년 뉴욕의 산본 회사에서 제작된 리버사이드 보험지도에 이곳이 Korean Settlement로 표시될 정도로 면적 2.96 에이커에 자리 잡은 파차파 캠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계약이 끝나고 본토로 건너온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모여들었다.

1910년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 명단에만 100여 명의 한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미주 본토 최초의 한인타운이 형성 되었고 특히 가을 수확시기에는 타지역에서 계절 노동자들이 오렌지 따러 모여 20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신민회가 창립되고 1907년 도산은 확장하기 위해 조국으로 들어갔다.

1911년 민족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의 모습을 강명화가 보고 '도산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대한인국민회 최정익이 제 1대 회장을 맡았을 때 강명화는 북미 총회 부회장이었다.

1913년에는 홍수로 오렌지 수확에 큰 손실이 생겨 일자리를 잃고 그곳을 떠나기 시작한다. 1918년까지는 리버사이드 한인 장로 선교회가 파차파 캠프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린 기록이 남아있고 결국 1936년 보험 지도에는 이 지역이 멕시코 거주지역으로 바뀌었다.

나는 몇 번이나 그 주변을 돌며 옛 흔적을 찾아 사진을 찍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철도 주변에는 녹슬은 고철들이 널브러져 있고 비포장 흙길이 왠지 정겹다. 100년 묵은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들이 늘어진 키 큰 팜쭈리 기둥 사이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 비록 허물어져 가는 지역이지만 간혹 토지를 세일한다는 광고판이 붙어 있다. 팔리기 전에 그 지역을 구입해서 파차파 캠프 체험 현장을 만들면 좋겠다. 나는 텐트 장비를 챙겨 파차파 캠프 부근에 자리잡고 새벽 기적소리를 타고 오는 도산의 기를 흠뻑 받고 싶다.

그 당시 파차파 캠프에 거주했던 3명의 경험담은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귀에 들리는

듯하다.

백광선(Mary Paik Lee)에 의하면 “목조 건물 약 스무 채가 있었는데 모두 한 층짜리였고 외형이 실용적인 형태였다. 커뮤니티 센터와 두 세대용 건물은 한 층 반짜리였다. 대부분의 목조 건물은 직사각형이었고 세 채의 건물은 정사각형 또 다른 건물은 알파벳 엘(L) 자 모양이었으며 모두 한 개씩의 창문이 있었다. 다섯 채는 창문 가리개가 있었고 열두 채는 타일 굴뚝이 있었다. 두 채의 건물에는 스토브 파이프가 있었지만 다른 두 채의 건물에는 굴뚝이 없었다. 이 목조 건물들은 일종의 판잣집으로, 당시 한인들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인들이 이곳에 1904 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고, 1930 년대에는 멕시코 거주 지역으로 바뀌었다.

차의석은 “이곳 남가주는 날씨가 화창하고 오렌지 농장과 옛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나는 행복했고 안정감을 느꼈다. 빨간색의 오두막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14 가와 철도길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파차파 캠프는 일종의 판자촌으로, 철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매우 시끄러운 환경이었고, 백인 주거 지역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이었다.

전낙청의 딸 엘렌 전은 가족이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로 이주한 상황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서 단지 옷 가방만 들고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로 이주했다. 그곳은 철도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파차파 캠프에는 약 스무 채의 조그마한 집들이 있었는데, 모두 똑같이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그 집들은 예전에 철도 건설 인부들이 사용하던 건물로, 철도가 완공된 이후 버려졌다고 한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Union Pacific Railroad) 회사 관리자들이 사용했던 이 층짜리 건물은 위층에는 방이 서너 개가 있었고, 아래층에는 부엌과 식당이 있었다. 파차파 캠프에는 후추나무가 흔하게 있었는데 나뭇가지는 축 쳐진 데다가 빨간 딸기 같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약간 음침했다. 리버사이드는 항상 더웠고 먼지가 날렸으니,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파차파 캠프의 후추나무를 최고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인들은 이곳에 1904 년부터 이주해 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곧 ‘한인 노동국’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였고,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가족을 맞이해 주었는데, 그는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우리 가족을 방 세 칸짜리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침대도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푸라기 위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또한 등유 난로와 램프가 있었고 부엌에는 쌀과 식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치도 있었다. 어머니는 감격하여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했다. 엘렌 전은 “비록 판자촌의 조그마한 집이었지만, 하와이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 그곳에 이미 한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쌀과 김치를 준비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 11. 도산 동상, 3400 Market Street, Riverside, CA 92501

파차파 캠프에서 차로 15 분 거리 다운타운에 있는 도산 동상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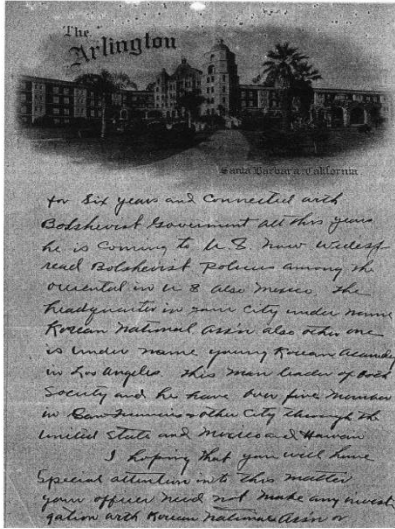
2001 년 한인들은 도산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 리버사이드를 찾는 한인 방문객들에게는 도산 동상 참배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한심한 도산 동상이 근처 간디 동상, 마르틴 루터 동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시가 내륙지방이라 덥긴 해도 위인들을 모시는 왠지 친근감이 도는 수준 있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길 건너 미국 역대 대통령이 묵었다는 호텔도 고풍스럽고 홀리데이 시즌에 모여드는 관광객들은 한류를 타고 도산 동상에서도 사진을 찍을 것이다.

안창호(대한민국장), 이해련(건국훈장 애족장), 필립안(대통령 표창), 안수산(대통령 표창) 한가족에 4 명이나 그리고 이해련의 삼촌 이암 (건국훈장 애족장), 숙모 이성례 (건국포장)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정도로 훌륭한 집안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도산을 이민국에 투서했다는데 나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 당시 투서 이미지와 이민국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에는 ‘투서, 이민국 조사, 추방’ 등 충격적인 키워드들이 눈에 띈다. 투서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후 도산은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시는 들어 올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첨부: 1.투서, 2.이민국 인터뷰]



투서
The
Arlington

Santa Barbara California.

for Six and Connected with
Bolshevist Government all this years
he is coming to U.S. Now Widespread
read Bolshevik politics among the
oriental in U.S. & also Mexico, the
headquarters in your city under named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lso other one
is under name young Korean Academy
in Los Angeles. This man leader of Both
Society and he have over five member
in San Francisco other city through the
limited state and Mexico and Hawaii.
I hoping that you will have
Special attention into this matter.
Your officer need not make any investigation
with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r

1. 투서 (여러 페이지 중 일부)
[번역]

알링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6 년동안(앞페이지 내용과 연결)
그리고 올해 내내 볼셰비키
정부와 연계되어 활동한 그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멕시코에 있는 동양인 사이에서 볼셰비키 정치를 폭넓게 전파하는 곳인데, 그 두 단체는 귀하의 도시에 본부가 있는 대한인국민회 와 엘에이에 있는 흥사단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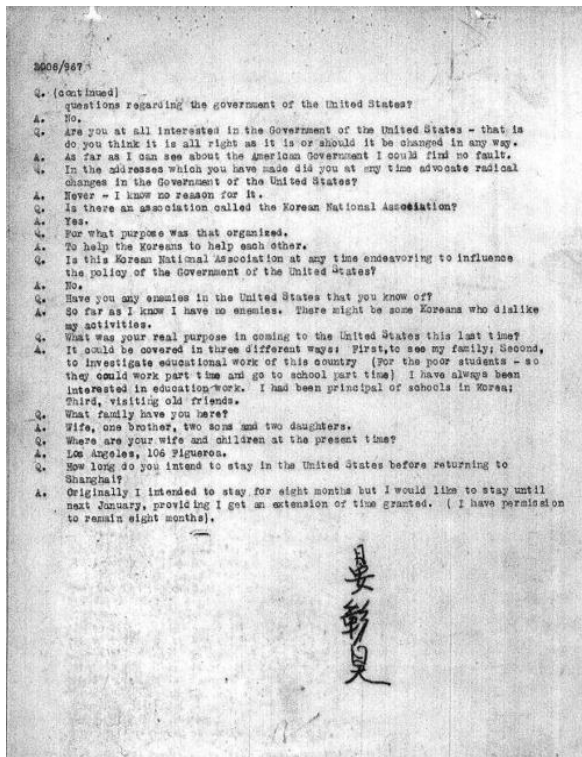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 그밖에 제한된 주 와 멕시코 하와이에 조직되어 있는 두 단체의 수장이다.

나는 귀하가 이 사안에 특별히 주목하기를 바란다.

귀하의 수사관은 대한인국민회 (또는 흥사단??)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없다.

1. 이민국 인터뷰

[이민국 조사(1925 년) 일문일답 일부 페이지]



Q. [continued]

questions regard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 No.

Q. Are you at all interested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that is do you think it is all right as it is or should it be changed in any way.

A. As far as I can see about the American Government, I could find no fault.

Q. In the addresses which you have made did you at any time advocate radical changes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 Never - I know no reason for it.

Q. Is there an association call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 Yes.

Q. For what purpose was that organized.

A. To help the Koreans to help each other.

Q. Is this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t any time endeavoring to influence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 No.

Q. Have you any enem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you know off

A. So far as I know I have no enemies. There might be some Koreans who dislike my activities.

Q. What was your real purpose in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his last time?

A. It could be covered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to see my family: Second, to investigate educational work of this country (For the poor students so they could work part time and go to school part time)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education work. I had been principal of schools in Korea;

Third, visiting old friends.

Q. What family have you here?

A. Wife, one brother, two sons and two daughters.

Q. Where are your wife and children at the present time?

A. Los Angeles, 106 Figueros.

Q.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before returning to Shanghai?

A. Originally, I intended to stay for eight months but I would like to stay until next January, providing I get an extension of time granted. (I have permission to remain eight months).

미국 이민국 조사 문답 [번역].

Q: [앞페이지에서 계속]

미국 정부에 관한 질문이요?

A: 아니요.

Q: 당신은 미국 정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즉, 당신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내가 미국 정부에 대해 볼 수 있는 한 나는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Q: 당신이 만든 주소에서 당신은 언제든지 미국 정부의 변화를 위한 급진적인 것을 지지했습니까?

A: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Q: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있나요?

A: 네.

Q: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까?

A: 한국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Q: 이 대한인국민회는 언제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A: 아니요.

Q: 미국에 당신이 알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A: 제가 아는 한 저는 적이 없습니다. 저의 활동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난번에 미국에 온 진짜 목적이 뭐였어요?

A: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둘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이 나라의 교육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교육 업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장을 했었습니다.

셋째, 옛 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Q: 여기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A: 아내, 남동생 1 명, 아들 2 명, 딸 2 명입니다.

Q: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A: 로스앤젤레스, 106 피게로아 입니다.

Q: 상하이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A: 원래는 8 개월을 머물려고 했는데, 내년 1 월까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8 개월까지 머물고 싶습니다.(허락받았습니다. 8 개월 남았습니다)

☆ 12. 로즈데일 묘지, 183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입구에 'Angelus Rosedale Cemetery' 라고 쓰인 간판이 있다. 이 곳에는 도산과 함께 활동하던 초기 한인 283 명이 잠들어 있고 그중에 21 명이 미주 독립유공자로 확인 되었다.

옛 돌비석들의 다양한 모양이 가뭄에 말라가는 잔디와 키 큰 팜쭈리 녹색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선조들이 반기는 인사가 느껴진다.

독립유공자들의 활동을 되새겨보기 위하여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한국 국립묘지' LA 로즈데일묘지 안내 책자를 들고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섰다.

로즈데일 묘지(Rosedale Cemetery)는 1884 년부터 남가주에서 소수민족이 인종차별 없이 묻힐 수 있는 곳으로 근처 도산 광장에 드나들던 초기한인들은 1910 년부터 이곳에 안장되었다. 장례, 묘지, 화장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이곳은 지금도 빈자리가 있다.

앞으로 건설업자에 밀려 댄 장소로 가는 것 아니냐고 관리실에 물었더니 전혀 이사 갈 계획 없이 영원하다고 한다. 매년 관리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안장할 때 지불하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고 한다. 독립 유공자들은 대전 현충사로 이장해 가도 묘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비석만 보고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루에 다 찾지 못하고 담 벽 가까이 있는 묘비와 또 몇 분은 비석 모양 사진을 보며 찾았다. 이해련 삼촌 이암 묘비 바로 옆에 차상달 목사(1905-1992) 묘비가 있는 걸 보고 나는 흠칫 놀랐다. 미주에서 국제정세에 밝은 그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섰다.

하나하나 묘비를 다 찾아보고 나서야 비석 사이로 부는 바람결 따라 도산의 향기가 스며들어 나는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었다.

이제 한인타운에서 사람들 만날 일이 있으면 나는 놀만디와 워싱턴 근처에 있는 이 묘지 장소를 제안 한다. 그리피스 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이곳에 모여 한 바퀴 운동 삼아 돈다. 선조들의 업적을 서로 논하며 정보를 업데이트 하다보면 지루하지 않다.

2002 년 가을부터 애국선열 추모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한인 단체들이 해마다 추모 및 헌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민회 창립일 (2 월 1 일), 임시정부 수립일 (4 월 11 일), 순국선열의 날 (11 월 17 일), 3.1 절 (3 월 1 일) 그리고 광복절 (8 월 15 일)에는 이곳에서 순국선열 묵념을 한다.

이 묘지에 잠들어 있는 초기 한인들을 발걸음 따라 분류해 보았다. 위치 파악을 거쳐서 비석에 있는 글과 책자를 비교해 가며 선조들의 업적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부터 메모해 업데이트 하는 중이다.

1. 한시대 (1888 년생. 독립장) 하와이 이주/ 상해임정에 군자금 지원/ 대한민국민회 건축위원/ 딜라노 농장
2. 한(박)영숙 (1892. 건국포장) 딜라노 대한여자애국단 단장/ 흥사단/ 한시대 부인
3. 한(문)성선 (1862. 애족장) 대한여자 애국단/ 딜라노 국민회 창립위원 / 한시대 모친
4. 최진하 (1889. 독립장) 대한민국민회 총회장/ 신한민보 주필/ 상해임정에 독립금

5. 송헌주 (1880. 독립장) 1907 년 헤이그밀사 통역/ 1917 하와이국민회 부회장/
1939 년 국민회 총회장/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축위원장
6. 임치호 (1879. 애족장) 새크라멘토 농장 주선/ 네바다주 참외 농장/ 월로스 비행소
감사
임(차)인재 (1895. 애족장) 맥스웰 지방회 /대한여자 애국단/ 임치호 부인
7. 이 암 (1884. 애족장) 공립협회 /1910 년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1920 년 월로스
비행학교/ 이해련 삼촌
8. 이성례 (1884. 건국포장) 대한여자애국단 맥스웰 지부 단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 이암 부인
강영문 (1888. 애족장) 도산공화국이라고 한 강명화 3 남/ 시카고에서 식당/1961 년
국민회 대표회의 헌장 수정위원
9. 강(박)영복 (1892. 건국포장)대한인국민회/ 오빠 박희도는 33 인 / 흥사단 단우/
강영문 부인
10. 임준기 (1883. 애족장) 공립협회/ 대한신민회 발기/ 국민회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월로스 지방회
11. 장인명 (1886. 애족장) 대한인국민회 대의원/ 시카고 대한인공동회 발기인/1944
한국외교위원부 부장
12. 안석중 (1862. 애족장) 공립협회/ 레드랜드 지방회/ 1908 년 장인환, 정명운 사건
알림
13. 한재명 (1869. 애족장) 하와이 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 신한민보사
사무원
14. 방사겸 (1880. 건국포장) Samuel Bhang 대동교육회/ 대동보국회 발기인으로
국민회와 통합 주도/ 쿠바 인삼장사/ 평생 일기 남김
15. 손덕인 (1876. 건국포장) 대한인국민회 후신인 하와이 교민단 총회장/ 임시정부 김구
지원/ 1933 년 대한인국민회 재조직에 하와이 연결
16. 마춘봉 (1896. 건국포장) Joseph Marr / 공립협회/ 국민회/ 레드랜드 지방회/ 월로우
비행사 간사/ 흥사단
17. 김종학 (1879. 건국포장)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 박용만 지원/ 다뉴바 삼일절 연설
/딜라노 지방회
18. 박충섭 (1886. 건국포장) 공립협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딜라노 지방회 / 한시대와
사돈

19. 구정섭 (1884. 대통령표창) 리버사이드에서 과일상/ 대한인국민회 과일상/ 박충섭 처남

☆ 13. 도산 스퀘어 광장, Jefferson Blvd & Van Buren Pl, Los Angeles

대한인국민회에서 제퍼슨 길 건너 가로등 위로 5m 쯤 올라간 곳에 DOSAN AHN CHANG HO SQUARE 사인이 붙어 있다.

도산을 중심으로 선조들이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삼일절을 기념해 31 가에 등지를 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동네이다.

지금은 제퍼슨 부근 지역이 USC 대학교 확장 공사에 밀려 동네가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USC 소유 건물 사이로 주변 고가옥 대신에 아파트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그래도 조용한 이 동네에 자연사 박물관과 우주선, 올림픽 경기장, 거대한 장미정원이 있고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 비치로 가는 전철이 지나는 녹색 나무 물결이 춤추는 이곳이야말로 우리 이민문화 유적지로는 최적지일 것이다.

제퍼슨 일대를 돌면서 선조들의 웃음소리를 더듬는다.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흥사단 단소, 로즈데일 묘지, 도산 패밀리 하우스 등 유적지 부근에 토속촌을 만들면 좋겠다.

옛 한국풍 무드가 다시 살아나 일제 강점기에 동네 주민들이 독립군에게 대접하던 좁쌀 섞인 보리밥, 구운 옥수수, 감자, 고사리, 산나물, 설렁탕 등을 여기 와서 맛보고 디저트 과일로는 단연 오렌지 껍질을 벗기며 리버사이드 농장에서 오렌지 하나를 따도 조국을 생각하자는 도산 정신을 되새기고 거액의 독립자금을 기부한 최초의 백만장자 김호 선생이 중가주에서 발명했다는 털 없는 복숭아도 먹어보는 체험장이 후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히트친 파칭코 드라마에 꽃힌 아들이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그시절 보리밥만 먹고 어떻게 일본사람들 밑에서 살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낡은 옷에 추워 눈물 콧물 흘리고 풀죽 먹으며 배고팠고 어른들은 독립군을 중심으로 일본과 싸웠노라는 대화를 전해 듣는 뒷모습이 기특해 보였다.

이민 후손들이 이동네 한번쯤 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미주에서 독립운동가로서 공헌이 많은 도산 흔적을 되살려 우리 민족정신을 다시 일깨우기에는 이곳이 최고의 순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동지회(2716 Ellendale Place) 건물이 있던 곳이 있다. 전에 있던 건물은 이미 허물어져 없고 그 자리에 새로 건축한 2 층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민역사에서 옛건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버몬트 에비뉴와 제퍼슨에서 시작해 점점 활동영역을 넓혀 한인사회 중심이 올림픽 큰길로 올라와 지금 지도를 보면 한인타운이 LA 최고의 중심지이다. 일본타운과 중국타운은 옛날 명성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반해 한인타운은 편리한 지하철 중심지로 다인종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타운이다.

한인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00 년에 들어 공적이 있는 선구자들의 스퀘어 현판식이 거리에 하나 둘 들어서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기존 현판이 어디에 있나 보려고 해도 좀처럼 가로등 주위를 두리번거리도 신문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경 쓰지 않으면 눈에 잘 띠지 않는다.

나는 도산우체국이 있고 병원에서도 도산 병실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타운 여기저기에 도산 얼굴이 보여 그야말로 도산 스퀘어 현판이 제일 변화한 한인타운에 있으면 좋겠다. 같은 이름으로 또 설치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산의 이름을 딴 현판을 설치한다거나 길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류 열풍은 이제 할리우드를 넘어 그리피스 산까지 뻗어가고 있다. 산 정상에서 금빛 야경을 바라보며 라라랜드 영화에 나오는 별빛 아래 탭댄스를 추는 청춘과 레이저 우주쇼를 겸한 천문대가 있는 그리피스 산은 우리 이민역사와 함께 한다.

흥사단은 정월 초하루 새벽 6 시면 깜깜한 가운데 서로 이름을 부르며 확인해 가면서 그리피스 산 정상에 오른다. 그때 나는 무거운 보도용 ENG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 정상에 올라 갔다.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팽과리 치고 한쪽에서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합창한다. 나라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지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서 선조들의
 땀과 노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니
 그야말로 함께 '만세'를 나도 몰래 두 팔
 올려 소리쳐 보곤 한다.

이제는 무겁지 않아도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도 많고 스마트폰으로도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일상에서 찍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록이고 후대들을 위한 의무다.

5년 전 나는 중국 동북 3성 탐사 팀에 끼여 유적지 촬영을 했다. 상해임시정부에 갔을 때 보훈처 후원으로 1919년 당시 책상, 의자, 침대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청산리 전투장에서의 승전기념탑, 헤란강을 건너 운동주 생가와 우물터, 장백산 가는 길, 눈을 감으면 생생히 그 순간들이 살아있다.

특히 도산이 이상촌 건설을 위해 찾아다니던 만주별판, 시국연설을 하다가 구금되었던 길림 감옥, 망국의 한을 품고 쫓기던 상해, 윤봉길 사건 배후로 흥커우 공원 부근에서 체포된 현장 등을 중국여행이 풀리면 다시 가보려고 나는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끝)

나는 오늘도 새벽 바람을 헤치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알함브라 시를 시작으로 우버 앱을 켜다. 손님에게서 감염되었는지 2년 전 코로나 19에 걸렸던 나는 일본인 아내에게 죽거들랑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1989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치요다공업예술학교에서 영상과 음향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일본에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 그러나 8.15 광복절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전쟁에 패망한 종전기념일로 묘한 분위기가 흐른다. 아내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1994년 LA 공항에 내렸다. 전공을 살려 TV 방송국을 시작으로 2000년 한국 위성방송 보도국 카메라 기자로 일하면서 다민족 속에 살아가는 미주 한인 역사에 눈이 떠졌다.

2017년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와 그 일대를 여행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항일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일을 계기로 인터넷을 뒤지며 미주 독립운동사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알면 알수록 그의 인품과 사상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안창호 선생은 알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 해답을 찾으러 나는 오늘도 액셀레이터를 밟는다.

김범 (Bowm Kim)

bowmkim@gmail.com

A True Patriot of Korean Independence

Pyong Chun Kim

[1. A Peasant]

A true Patriot of Korean independence Dosan Ahn Changho was born on Nov. 12, 1878, and he died at age 61, on March 9, 1939.

He was a second son, and he had a brother and a sister. He was born on a tiny island called Dorong Island located at the eastern estuary of the Daedong River in greater Pyongyang city. His father had been a poor sharecropper but dared to move to the small island and fortunately gained his farm and the second son. Their house with mother was well kept. After several years of farming, his parent's noticed Dosan was growing fast and extremely smart.

They sent him to a traditional private school where a fusty old man teaches proverbs, social manners, poems, and literary skills. Dosan asked his teacher for leads on people who might have books to lend. Once Dosan got a letter of introduction, Dosan asked his parents for a day off from working the farm plus ferry boat fares. Then Dosan went to Pyongyang city to find the book lender as addressed by the teacher.

At the time, most books were either printed in Japanese or Japanese books printed in Chinese. Books printed in Korean were made in Korea. Often Dosan had to bite the bullet and remind himself of an old maxim, "A good farmer does not complain about the land." All in all, his parents could see that Dosan was reading many books in winter - even in the farming season Dosan read after farm work in the evening under an oil lamp or candlelight.

In the last stretch of his monthly journey to the city, Dosan dropped by a store and bought 10 cookies and inserted them in a book bundle. This was a precious treat since sugar was imported from China and expensive. So, he gave two cookies (Yak Kwa) to his sister. After this side trip, Dosan the happy farm boy finally arrived at Pyongyang city proper.

He encountered a big battle - modern ordnance including machine guns, cannons, and armored cars, and was shocked and fell. Explosions and bloody divots were everywhere for a few days. His book lenders were nowhere to be found.

Dosan had never even been close to a fight before. On his island, the battle was fought between the Chinese (Ching) army and the Japanese army and what's more two Korean divisions fought each other killing fellow Koreans with one division fighting for the Chinese and the other siding with invading Japanese and creating a great crisis. Later radio news reported that the Japanese side won the city.

According to a tabloid Dosan read, the Chinese, Russians, and Japanese were all hawks and trying to colonize the Korean Peninsula, seeing a good step ladder into the Pacific Ocean or Asian continent. Thus, they called for Korea to be strong enough to be independent. Dosan after the battle found himself angry. He mulled over that cri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osan, the crushing defeat of China discouraged the corrupt Korean King and he failed to get the support of Koreans.

Meanwhile, Japan was encouraging Koreans to be a buffer against Russia and China. Dosan thought it was a fortunate time to educate Koreans to be smart and be united; to be industrial and physically and militarily strong allowing mutual respect minus war. For that Korea needed cool scientists and proficient leadership. He thought of his successful experience of providing good seed selection to give water and care for many good harvests.

For that Dosan believed he needed more wisdom. Dosan left his beloved farm and

left for Seoul. Dosan went up to Seoul, the capital city of the kingdom of Chosun (Korea) when his age was nearing 20 years. He went to further his education and aspired to be a good leader for all Koreans.

There are no records of his activities, he met senior thinkers, who were moving Korea to be no longer a kingdom but instead to a modern democratic Republic, educators, and Avant Garde couriers as well.

Fortunately, Dosan met an American missionary who came to Korea to establish a Christian church and a modern western styled high school. Before obtaining the King's permission, the missionary had started to scout local boys and keep them in his house. He was one of the earliest Americans who ever came to Korea. Again, it can be assumed that Dosan did more than study because Dosan was a hard-working farm boy, and he had no money. Dosan must have done many tasks living at the house. The name of that missionary was Appenzeller who had become a good friend of the king of Korea. He had done a lot of modernization of Korea, the least of which was developing schools. His first school was Baejae school which still exists in Seoul, Korea.

From the latter half of 1800 American companies were bringing in Korean laborers into Hawaii, California, Mexico, and Cuba for sugar farming after Chinese laborers had worked for the railroad.

In 1900, Dosan, 22 years of age, decided to go to California, USA to join a sugar farming team. He told his girlfriend Ms. Lee who responded that she would like to join him on the journey. Right at the pier in Inchon port, wedding formalities were done, and marriage papers were signed. Together they walked up the plank and boarded a cargo ship bound for San Francisco as husband and wife.

[2. Farmland / Supervisor]

1900: As soon as Dosan and the other laborers arrived in San Francisco they went to the area where Koreans were working. They lived near farms. A few hundred groups lived in each area and those groups lived and worked in the widely dispersed location. They were unorganized and under disorderly and not hygienic conditions.

White neighborhood leaders were complaining that Koreans are noisy. Rowdy groups with frequent altercations, the complaints rained in that they were ruining the large area. Leaders urgently met, had a long and serious meeting and reached a conclusion. They anxiously asked Dosan to take charge and inspect each community to make sure that they met American standards and cooperative way of management as well as legal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s. Dosan agreed.

Dosan was more than a manager. He was a janitor too as he was clearing each dorm, cleaning windows, and taking care of garbage cans, etc. Korea has had no consular office and California state officials contacted Dosan for many paperwork questions. In the end he contacted Korean emigrants in not only Southern California but also Mexico and Cuba. Dosan had an office incorporated and registered as an entity named '국민회' which means 'citizen council' which grew to be the proxy offic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council collected an annual 5 dollar due per member and assets kept increasing. Often the citizen council treasurer paid travel expenses and incentives when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pay, for it had no dollars.

[3. Cooperator]

Dosan bought an offset printing machine for pamphlets to distribute Korean news overseas and mailed to not only many Korean farming communities in California but also to Mexico, Hawaii, and elsewhere. Everyone was very happy to read about their community and what was happening back home in Korea and the far East.

Dosan often traveled to many southern California villages and met Korean farmers on site and of course their houses and fields too. Although farming itself is beyond and

above his responsibility, he checked and found good growth of roots and stems and rich soil. He loved the land and Korean farmers; they were acclimatized to good, old civil institutions. He told himself 'This is good community building.' One day when he got back from a farmer's gathering, his wife told him she was pregnant.

Fortunes became a helper. On a fair California day, radio news said that President Teddy Roosevelt is planning a trip to the west and California too.

He thought of many good Americans who had helped to let Korean laborers continue to work on orange farms. The community was ever expanding and thriving. Many were able to find women to marry. Their following generations would really need families. And California would lead other states of the USA as a grand farming state. He thought of Koreans in beautiful California. He would continue to look after Heungsadan. Their security and success would lead Korea.

[4. Leadership]

1904 Dosan found a part-time job as a janitor in a hotel and his wife was working a laundry washing job. Both saved some money for Koreans in Korea.

Kitty Hawk saw the first flight by the Wright brothers in NC in Dec. 1903. New King Edward VII was crowned in Britain after the funeral of Queen Victoria in 1901. She had been immensely popular and bore 9 children related to numerous European aristocrats, not to mention kings of Eastern countries. Disunity could happen.

The status of Japan rose as she demolished the Chinese Pacific Fleet in the far east - rising since the Japanese war in 1895. On the contrary, the morale of the Russian far east fleet was at an all-time low.

In Korea, the construction of Incheon seaport was completed and open to the public, 20 miles long. With Japanese loans and technical aid,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especially Koreans, were so blissful that the new 20th century would bring new changes. Korean courtiers were worried that Koreans were expecting changes. Although the Russian far east fleet might be a counterbalance against the Japanese interventions and USA might be of aid in diplomacy.

1904 Dosan finished his travel preparations, checked and ran over all the records namely legal papers, accounting papers and receipts, letters and petitions of member laborers, mail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plans, and secret records of Heungsadan activities and blueprints by farm captains and went down to downtow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and had serious meetings with officers of organizations Dosan has set up. Meanwhile his deputy provided 3,000 dollars for Dosan to carry. Through his friend he acquired a steamship ticket leaving from Seattle.

In Santa Monica, Dosan bought a nice 3-piece suit and a tie. Then he was ready. The ship had been a merchant ship a bit converted to add extra cabins on deck for VIP passengers. She was bound for Tokyo from Seattle taking a few weeks.

Sometime later Dosan confided to Korean students in a meeting that it had been a good sail. He dined with the captain of the ship; beef steaks were served along with wine

Hearing music was a good treat during the long voyage. Dosan was a real music lover. There was no music when he was a young farm boy. Whenever he heard music, he could not help but conjure up beautiful nature background surroundings such as forests, rivers, idyllic and calm. All his life he had written many poems and or various lyrics. The Korean anthem, the content was written by Dosan. Many lyrics on a paper and ballad songs were written by Dosan. Dosan might have been a schmaltz. He gave many speeches to various groups of Korean students attending Japanese universities. They were very much impressed and organized Taekeuk societies. Dosan found many followers in Japan and became famous. Dosan then took a ferry that

carried him to Incheon port from Kobe port in Japan.

In Korea, he paid a visit to his teachers. His father, a Confucian teacher, the book lender, Appenzeller. Dosan often has said books are not only a teacher but also a school. He met many friends in Seoul including many young radicals and major reformists want to reform all the corrupt institutions and get rid of the king.

Instead, Dosan pushed modernism and gradual progress. In another meeting, Dosan met friends to organize Shinminhoe (new citizen society) and laid the groundwork for reform activities.

[5. School Builder]

Dosan in Seoul noticed the Royal family was involved with the help of American missionaries. Upon consulting elite Korean educators, Dosan went to the North. In Pyongyang, Daesung high school and Zumzin school were legally established. Dosan worked hard to make those two models, or a prototype School education based on ethos and ethnography. Headmasters from the North and South came to learn methods, curriculum, and independent guidelines to copy.

He told them that he was a hayseed who could not afford to drop in the field. South Korea needed a clear mind and healthy growth. He encouraged his associates and directors to get involved in local enterprises and establishments for a better future for their communities.

Dosan and his staff visited many villages like what he had done in California successfully and it worked.

1904 - News of radio and newspaper announced the emergency report that Russia-Japan war just broke out. It was the first war in the 20th century fought between two superpowers with the most modern weapons.

This was the result of the rivalry between Russia, who wanted to continue their mastership of ports and land in China and North Korea around far east Siberia and Japan, a new rising power who wanted to take over China and Korea as much as possible. The Russian Tsar Nicholas II and his advisors were weak and corrupt. Meanwhile, Japanese King Meiji and his advisors were smart. The Russian fleet at the Korean East coast and army around the eastern coast were indubitably beaten into quicksand.

1905 - The Russia-Japan war ended within a year. The world was stunned by Japanese military victories of the last two wars: China: the largest Asian nation and Russia: the largest white European nation. The Japanese were enthused while foreigners were getting wary.

Dosan in Korea was busy traveling rural areas, especially the Northern region. He was looking for land to farm and make a livable community. And plans for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He and his officers accompanied him spending some contract money etc. even ox cart road fees for wind breaking.

His officers and friends reported to him that a few more American missionaries came to Pyongyang city and built churches. The number of Christians is increasing. Dosan as usual told subordinates to give them help should they ask for help on the farm site.

One farmer in a community meeting asked, "What is your take on the Japanese's two victories?" Dosan answered crisply there had been 3 tigers surrounding Korea, a Chinese tiger and Siberian tiger have gone home. Now we should watch one island-tiger." A man from Pyongyang city is in the north of a 600 miles long Peninsula and located very closely to the frontier of China. Therefore, a long cold night was the order of nature in winter. His father taught him 'early onto the bed, early rise.' The farm boy was keeping that daily habit of waking up at 5 am. Now many churches in

Pyongyang ring the church bells so the whole city wakes up early. He felt churches have done well for the Korean.

Dosan believed Korea should be smarter and stronger.

[6. Yen of Japan]

On-site trips to various communities took a month or two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farmland. Dosan stayed longer in Pyongyang and Seoul.

His office in Seoul often sent messengers to report and get approval. At that time, he was needed in the Seoul office. Dosan was thinking hard how best to be equal to the Japanese so that Japan would respect sovereignty-power of Korea. Meanwhile American president T. Roosevelt mediated the execution of a peace treaty at Portsmouth. USA and Britain extended their power into Pacific and Southeastern nations for the USA was de facto Pacific power. Surely the world is becoming complicated more than ever before. International politics

Dosan was sent back to Seoul. There was big news, Japanese King Meiji's councilor Mr. Ito Hirobumi wanted to meet Dosan in a secret place located near the Yongsan railroad terminal. The small house was owned by a Japanese locomotive engineer. In a ten-tatami size room sat two couches.

Ito's cab arrived there at 6 pm. He and one secretary got into the room through the foyer, door ajar and sat on one couch. At 6:20 pm Dosan with his Korean manager in a small cab arrived. After two men took a careful look around and two men felt this small two rooms and one kitchenette hut had no one except them.

A drawing room was located by the door. The drawing room door was also ajar, and the two Koreans could hear some voices. Entered those two men and met two Japanese bowing welcome.

Two tall men stood confronting face to face and exchanged "How are you?" in Korean "Anyong Hasip Nika? Jowayo?" Ito said, "You are stately looking." Dosan responded, "You look so young and strong."

As had been mutually agreed the conversations took place in confidence. After rumor mongers passed hearsay on, the spilled beans contents are as follows: I do per intelligence find Dosan to be the most popular man, a politician standing out amongst many. He and his majesty, the King, aspire to construct a bulwark of peace for far East Asia. For that, an absolute tripartite alliance is a must among Japan, China, and Korea despite previous bickering and errors. Ito was known to be a well-educated and eloquent speaker, having the ears of King Meiji and was very ambitious.

An unknown aspect for Dosan and the Koreans is whether Japan had respect for Chinese and Koreans as equal partners in the alliance. Lately, Japan had persecuted many Chinese so Koreans had visions of bad blood growing in the Far East which could turn countries to other superpowers should the alliance take place.

Such dubiety could not help peace but was likely to cause another crisis. Dosan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alliance plan. In closing, Dosan excused himself that he had too much work to develop education and modernization projects. Ito was an old politician. Dosan thought of his workload for the next day to meet the Shinminhoe director to speed up the projects.

Suddenly Ito held the hand of Dosan and shook hands. He hopped to China with Dosan and to meet him again. Before he officially visited China in a low tone, he told Dosan that he wanted Dosan to make a cabinet, meaning become the Korean prime minister.

He was known later to have said to his secretary that Dosan was the only Korean

altruist. On the other hand, Dosan was known to have said to his manager that Ito was an old tiger, and I didn't want to be his food.

After 'sayonara' Dosan told the secretary to lock the door. He told Dosan the owner is to come back tomorrow morning on a new train. Outside with his manager, it was a chilly September evening. Dosan thought of labor in California. They are a better effort breeze there too. September 1906, DS established Kook Min Hwai (국민회) with a team with his farming workers.

Also, Heungsadan was established as a proper entity and the new eight directors were appointed to perform in patriotic and confidential duties.

[7. Prescience]

In few years, the King signed a humiliating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security of Korea and disarmed the Korean army immediately. More Japanese soldiers and policemen were assigned to major cities. Many Koreans and especially radical reformists were disappointed. Japanese were becoming too haughty towards locals.

Dosan saw why Korea was a weak and backward country despite having some culture. The culprit as seen with the eyes of a farm boy was the thousand-year-old disease of cliques and factionalism. In history, big conflicts happened due to small words.

Love, well-trained, can produce unity and harmony. Honesty was to produce trust. While Dosan having been educating Koreans radical reformists began to demonstrate their dissatisfactions in many cities in Korea, skirmishes and suppressions and surreptitious surveillance. That worried Dosan since his money was running out. Slowly police began to suspect the healthy and nonviolent organizations Dosan had established in various locations in Korea.

Dosan's master officers and team captains were instructed to keep on working noble

duties. Stay down till the situation improves. Because of the hairy situation of irrationality, Dosan stated, he would take refuge in California for about a year.

The meeting was a short 'stand low and bite the bullet till reunion.' En route to Europe (not Japan) he landed in New York and the train got him to Southern California; back to cool peaceful farmland, friendly smiling faces, the Pacific Highway and Santa Monica.

1909 He was home at last. He apologized to his family, 2 boys and a mother. The old couple had sex. Once-in-a-blue-moon incidents were not much for both parties.

Dosan told his wife he needed a lot of money to invest for a better future for Korea. She increased her working hours, but it was not easy work. He also searched quickly and found a labor job for a state project of water supply for fruit farms. The wage was earning good money though it was rough work. The pay rate for farm labor had increased and their cooperative chest was filling up well. After about one year of staying at home, he decided to go back to Korea where so many people were waiting.

[8. Success & Failures]

The Korean farm labors organization was shining proof of Dosan's good achievement from the very start. Two divisions of the workforce trusted Dosan and grew up to be prosperous and loving: True solidarity. They led other divisions in other zones and sent approval back to Dosan: 5 financings. The money was hard-earned and legally processed (IBS).

Later days of his activities in Korea and China his accountants testified that Dosan always refused to take money from questionable sources such as Japan, crooks, even churches, and temples. Even an agent for Lenin from Russia sent to him messages offering kickbacks. His secretary had to push him out. Japanese police frequently did

surprise audits and could not find any irregular fund transactions. The farm laborers were the sole supporters.

The officers of the farm labor division unanimously decide to double-down the fund from the last one after overseeing past investments. This time he was to bring about \$50,000 plus his family money of \$10,000. Total \$60,000 some dollars. Now Dosan thought he would build many communities and schools to match. He'll soon be on the road and over the Pacific.

1909 In the holiday season, a radical Catholic patriot, Ahn Joongkeun, assassinated Ito Hirobumi, a well-educated Japanese politician, and the king's chief councilor was shot.

1910 Japan annexed Korea into the Japanese empire. The Korean King signed that treaty.

1919 March 1st. All Koreans demonstrated for independence, the start of a democratic republic.

Korea was sold out by the Korean King. His family was bestowed the Japanese peerage of Duke.

Many demonstrators were arrested, and some were shot. Many small groups of patron groups started anti-Japanese activities and technocrats as well suppression over local people were rising.

Just after the annexation, Dosan returned to Seoul, Korea. He contacted his directors and officers in secret. He noticed that men became radicals, adopting a marine's fight to the death mode. When they were arrested and went to jail, the Japanese would happily watch dying Koreans in jail or shoot them to get practice as similar incidents had happened in India. Therefore, fight until we die is in no way a smart solution.

Again, he visited many small cities quietly. The government in France leased part of Shanghai city where Japanese police cannot come inside by international treaty. Come to Shanghai. I would help you.

That much he could because he had brought enough friends.

[9. Land Lease]

1919 Dosan after having seen many houses found a right plan inside France and leased part of Shanghai city. But the landlord asked for too high a rent price. So, he told one of his Shinminhoe staff to ask for details of the rent. The staff brought an old lady to bring a new property purchase form and inserted the signatures of both parties and the price both had agreed to.

Dosan paid the price in US dollars. He told the lady to have it reported and certified at the French city hall soon. Dosan told the staff who were living there. The second floor will be used as the new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ff was confused. He had just donated to the new owner, the Republic of Korea.

In exile: Dosan thought 'tomorrow he would send out for the new opening and to have a big name he had picked, 'The Republic of Korea.'

Dosan has had a basis for selecting the immovable property. Fresh surrounding water availability. Extra space in bathroom and kitchen rooms were sat multiple beds, coaches, chairs, pew, and structural safety. Dosan was used to maximizing accommodations to suit an army's requirements to have a community center in a farming area. That building plus the new house he provided, namely the two-story buildings, were considered enough for the half begun half done outpost.

He did not think the Republic of Korea needed a capitol building like that in Washington DC. But Dosan liked the American proverb 'man plans, God laughs.' The

next was well and fair.

So morning came calmly to the first overseas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nicknamed land of the morning calm.

April 10th, 1919, Dosan publicly announced the ope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in exile.

1912 Meiji Japanese emperor died. He died after a few years of ill health, aged 60. The Shogunate ended and he had reigned for 45 years. That change was called 'Meiji restoration' and the Diet was elected. He had good councilors including Ito Hirobumi, strongly led Japanese.

Japan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industrial state by the year 1900 AD. Japan became a world power. In 1909, Ito Hirobumi was shot dead by a Korean patriot in the northern border city Harbin. He had been known to be a moderate attempting bilateral once to control Korea with diplomacy.

1914~1918 World War I Allies: France, Britain, South Africa, Russia, Italy, Australia in Pacific theater.

1937~1945 Second Sino-Japan War, USA entered late 1937
Counterpart: Germany, Austria, Hungary, Turkey

Historians called the great war and its European theater 'war of attrition.' Journalists hopefully named it 'the war that would end all wars.'

The death toll was said to reach up or over five million. All over the world people saw the futility of human suffering and the importance of peace.

1941~1945 WWII happened Nazi - fascio nations-Germany, Italy, Turkey, Japan in

Asia and Allies: Britain, France, Britain Canada, Australia, China, USA and Russia.

1920 Dosan took care of the first two years as a sole financier paying for every expense. He was working officially as interior ministry-minister doing all the admin-works as an official and housekeeping the two buildings. Many patriots came to him with some money. The donation money was growing.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grew much. Likewise, his private corps were Heungsadan members such as Cho Byounwoo, Chang Chung, Song Jongik, Kyong Sang, Jung Wondo, Jun Ra, Yum Mansuk, Kang Won, Kang Yongso, Pyong An, Kim Hangjak, Hwang Hae, Kim Jongrim, and Ham Kyong. Sin Ik Hee also supported Dosan.

They are loyal and fervent Heungsadan members and overlapped government positions. Many junior members had wanted to elect him to power, but Dosan asked them to understand his modesty. A few seniors shown in portraits had suffered time in jail and not many had good conditions.

Dosan told them to vote for Seungman Rhee to be president of our exiled government. He continued his argument that, at that time of adversity, harmony and unity are almost needed. After all, Dosan is handling all the work including housekeeping and accounting etc.

In the meantime that interim government intelligence was getting many information that in Japan the military clique won power over moderates: prime minister Katsura Daro had pushed the wild annexation and just sent a retired general Terauchi as the governor-general for Korea and his two area junior generals to be in charge of security and police departments. Accordingly, suppression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was expected to be harsh in Korea and areas occupied by the Japanese army. An impact city was to rise.

[10. Denationalization]

1919~1930 Young Republic. Koreans at last have gotten rid of the corrupt king and his toad eaters began wearing golden emblems and were monthly paid as dukes by a chest of Japanese royal family funds while Koreans were considered second-class citizens of the Japanese Empire.

US President Wilson's decree in 1919 announced at the League of Nations regarding sovereignty rights for small weak nations worked in reverse. The demonstrations were impromptu acts and ended up with many people shot dead and jailed. The golden time (1895~1905) anything possible could have happened. Nevertheless, there was a tiny consolation.

Dosan and his crack team of Heungsadan and Sinminhoe made Korea a Republic without suffering a revolution. The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precarious soil: in China. Dosan was so busy with housekeeping and the function of the interim government where each minister was working hard. The security minister was expanding secret resistance in and outside Korea. He was planning to set up an army named the 'Independence army.' Each department needed a lot of dough. Dosan was so happy that so many Koreans were coming to Shanghai to provide manpower. Dosan encouraged them to purchase land in China to make a good farm. He thought that Korean-owned land has the same effect as expanding Korean territories. It was a dissention to Moses' exodus. Once those Korean refugees become rich, they would no doubt chip in to the far stronger of the Korean Republic.

Dosan accompanied those potential investors everywhere. Northern China and near Siberian land across the border and southernmost areas near Gwangju. Some farms wanted Dosan to visit for legal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exile office was almost self-sufficient even as demands were rapidly growing.

1931~1937 The so-called Manchurian conflict due to mutual animosity blew up to be the second Sino-Japan war. Japanese military command proclaimed martial law for

Korea and Manchuria territory. Many countries in that time were suffering economic downturns and Japan was no exception. Two divisions were dispatched from Korea.

But Chinese resistance was greater because the Chinese knew what had happened in Korea in 1919. The League of Nations criticized Japan for the massacre of non-combatant civilians. There had been too much evidence and witnesses. Japan could hardly deny. In 1933 Japan officially withdrew its membership.

The martial law worried Dosan much for many Korean refugees had just started farming and community building. Some were building schools too and trusted local banks and the Korean exile government that was Dosan's assistance. He had always been a non-violent man, and honesty was his number one trademark.

He just could not use 'force majeure' as an excuse or pretext. He worked so hard, harder to find some solution to continue to assist when the refugees could no longer find Korean friends to save their projects. For a while, he was the friend to save the project.

For a while he was thinking of going back to California, and an emergency came. His wife has sent him a letter that she was pregnant, and the second letter mentioned a daughter. He wanted to see her. He did not want her to only know her father posthumously.

His father had told him about the Kumgang mountain located near Northeast coast of Korea. He'd told Dosan they should go together, but it never happened. Dosan had worked nearby that resort, but he had no chance to visit. He reminisced. He once was on top of Palo Verdes, Dosan thought Palo Verdes could be as good. He would take his daughter to Palo Verde when he went back home.

[11. Reclamation of a Nation]

In 1931 Japanese started to take over major cities. From the early start of 1932, they

were getting close to Shanghai city. They have already warned their army to take the destination of Gwangju: the largest city in south China.

Dosan and his team: Shinminhoe, Kukminhoe, Heungsadan, consisted of youthful age people who were the backbone of the exile government, decided to pull up everything and move to the next safer city, change route to one of two cities Hwangjou and Jeonjang. Dosan stayed on in Shanghai because the extraterritoriality status agreed between Nationalist China and the Republic of France. However, the Japanese army did not recognize that their military police were everywhere.

1933 there in Shanghai during the last few years Korean resistance forces shot or interrogated a few Japanese generals. In the past in Korea, Japanese police had arrested Dosan and put him in jail, but he was released for he was never involved in violent incidents caused by reformists/anti-Japanese/patrons.

This time the governor general instructed the military-police unit to arrest Dosan, indicting him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security. After having done time in different jails in Korea, including the infamous Seodaemun prison, his friends and brother met Dosan after having filled out long-questionnaires.

Dosan told them not to come back again. One night two MPs came to see him. After both hands were shackled, they took him to General Motogiro. It was dark already at 7 pm. He looked at Dosan straight in the eyes. After about ten seconds he said succinctly, "I know where you came from and what you were doing. Too many Koreans respect you. We Japanese want you to go back home soon."

Dosan responded, 'not too many I should cook after.' Then you could stay but in a Korean prison. On the way back Dosan thought what the future would bring. The Japanese sentenced him to a four-year jail term. The guards were no help, but Korean wardens were very friendly, the cell was so dirty. One tap water faucet and a bowl for face washing and drinking. Once a week, there was a bath for 20 minutes in

a bucket. A bowl of cooked barley and a few pieces of pickled radish. Due to wartime martial law the area they could move in was reduced too.

Each cell had a pot which was used as a lavatory. Every evening at 6 pm, wardens collected waste into a wheelbarrow to dump into a big tank outside. Dosan was given initially a cell solely for himself but often three or four prisoners were pushed into a room, sized 6'x6'. Prisons were called 'Hogpin.' It is about the impact of hardship. Dosan after imprisonment suffered from gastroenteric disorder and suffered dermatitis for long years till his discharge. In 1936 he was released from Daejeon prison. Dosan was hospitalized for a while. He went back to his home, often hospitalized as Dosan was no longer young, healthy, and smart.

His brother sent a telegram to his home in California and included a clause 'Do not come here. They might hurt you.' He told his brother that he would like to find a nice and quiet place for convalescence because he was too busy. It was cold midnight, and his brother told his son that Uncle Dosan had tried to build too many utopias. It was 9th March 1939. He was buried in the quiet but public cemetery in Manguri near the East Gate of Seoul city. After the police were checking all visitors for one year.

All the model farms were taken by the Communists. China and Russia by 1949. Korean exile government survived in Chung by JV Day. Dosan Ahn, Changho was a very good farm straw, instead of giving in to fatalism he did what he could for young Koreans. What he did was just a drop in a bucket. The size of the bucket does not matter. What he did in his life involved som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Looking at him, he is the key person to moral priority. During his 60 years of life, his family had land for half a year. The rest was spent on Koreans. Truly Dosan was an altruist. Had he not been persecuted by prison term he could have lived longer and could have done much more.

At any rate, Korea is fortunate this man's wisdom has become the strong foundation

for modern The Republic of Korea and future generations. He was a complicated man: But there were some clues and hints and the following:

His concept of folk high school was influenced by Lutheran minister/teacher/philosopher NFS Grundig who had helped a lot to modernize Denmark. His speeches have similarities with the early Quakers of the USA. He had a similarity in growing background with Ben Franklin. His nonviolence is related to Gandhi of India.

Dosan was active about 120 years ago. His teachings are of very fundamental threading. His guidelines of Heungsadan have three points: virtue, intelligence, and physical standard, which could be used effectively online and PR works, etc. in this fast-changing 21st century. Far more advertisements are recommended of the fact that Korea produced hero Dosan in diversified media.

Seminars on Dosan and Korean cultural use of sports media can be effective, some research is in need.

Final Overview and Foresight (by the Writer)

After four pages for quick references to foreign similarity, the 20th century was regarded as the most tumultuous era of all recorded human history and, just after the wicked war of WWI, worldwide depression affected superpowers.

We're all out to hunt any loot workers especially Comintern was organized to realize the ideals of the communist manifest. Reformers get violent and in 1921 Shanghai communist party was established and People's Liberation Army (PLA) in 1931. Many radical chiefs were competing. But in Jangsu province quickly announced an independent country named the Soviet.

This was Southwestern province and Mao being a Southerner knew how to speak the dialect and quickly started steering the helm. However, Chiang Kai-shek (Kuomintang)

was leading China and fought Japanese invaders, Martin Short was briar, washing farmers of a communist utopia. In 1949 Mao after a Long March beaten Kuomintang and took over northern Chinese capital Beijing. According to rumors, China's Chiang Kai-shek met Dosan in 1919 in Shanghai. He welcomed Dosan and promis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as he was awaiting American aid. Kuomintang's last capital was Chongqing in 1940. He financially helped Dosan to build up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 record shows 1941 and 1945.

Dosan established model farms and Dongmyong school and ran them well which proves Dosan was the harbinger, creating model farms and schools right in the south of China ahead of communists. Mao saw that Dosan had done a good job for the proletariat.

[12. Fallen Angel]

Dosan lived an exemplary life as a public leader who was always conscious of public conscience, justice, democracy, ethos, and humanism. He was so altruistic and saintly that the Japanese governor was afraid of the Korean crowd for conceivable riots.

The prosecutor transferred Dosan to many jails so that the public would not know where Dosan would be, namely, Taejon, Busan and Seodaemun prisons in Seoul. In the cold winter he had to sleep on cold cement floor of a solo cell. Yet he was a model prisoner who had cleaned the cell better than others. As a farm boy, he was used to cleaning every nook and corner. His father had the guts to get on an uninhabited small island to survive. He was a farm boy.

His mother taught him to help each other in love. His wife gave him unending support no matter what ... Then some books were his teachers!

Still a farm boy! It has always been the love for man and plant. However, he could be and would be remembered as one good farm boy. Peter Pan..... to put it mildly for

young Koreans and foreigners.

Israel is fortunate to have historical pair of heroes: Abraham and Jesus. Korea has such a pair: Dangun and Dosan. Rich grain companies like Mitsui came to Korea and requisitioned lands for Japanese farmers. Poor Korean sharecroppers wanted to come over to China. Dosan fought to level the playing field and tried to develop farmland for them as much as possible. Dosan has foresight for a better future for fellow Koreans.

Nevertheless, alas, Dosan did not realize the wicked threat of communist dictatorship. Right after the Victory over Japan Day (V-J Day), a Russian major general landed in Wonsan, North Korea with a lad. The lad, a Russian army captain and 33 years old, was appointed to rule North Korea, which fell to the vicious whims of KGB thugs. All down the drain, so many good people are suffering the worst hardship due to the tyranny of communists.

Though he was a bad husband and father to his children. Thank the USA and the good state of California they were said to have done well. The positivism of his life has benefited contemporary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The treaty of Shimonoseki confirmed Chinese control of Korea as tributary status.

Dosan regularly received secret reports and money through messengers. Thereafter king Gojong renamed Korea an Empire and himself an Emperorship. Then he signed an annexation into Japan: Then Japan gave him the official Japanese aristocracy title Duksoong. Ita Wang. Meanwhile many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resistance) wanted to establish a Korean Exile government inside the Siberian border area. But after some negotiations, they all approved the plan for Dosan to be stationed in the Shanghai French control area. In another world, the young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was born to function. The continuity of an empire as the same entity.

What is a revolution without the spill of blood and thunder? Dosan was paying the

rent of two offices and paying the ministers and officers etc. including President Rhee Syngman. A smooth continuity was carried over, even after WWII to young elites trained by Dosan. For example, President Syngman Rhee was three years older than Dosan while Koo Kim two years older. The seniors and juniors and all respected Dosan who wanted to work as a working Prime Minister. After the V-J Day, there were multiple sabotages, revolts, etc. let alone the recession during the Korean war.

Thanks to Dosan, Korea is kicking and thriving as the world's tenth-ranked economic power. The dreams of Dosan educating the young have worked well. This peaceful and optimistic farm boy died on ninth day of March 1939, whil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Nazi was busy preparing to attack Poland.

On the warm third day of September 1939. Nazi over and Poland. This was the most outrageous war against humanity called World War II.

Against harsh fate, Dosan did not give in and was thinking of model farmhouses, irrigations, schools, hospitals, and churches as far as affordable for rural farmers. Had he been healthier, he would have continued the same work. He and his spirit are estimated to always be with farmers and the nation.

This writer recommends people read the only available book on Dosan entitled Dosan An, Changho author by Lee, Kwangsoo. More materials should be better available soon, for the foresight of Dosan is evergreen. ***

[Bio]



Pyong Chun Kim

Tel: 424-375-5309

1945~1961 Chungpa Elementary School

1961~1967 Seoul Middle School, Seoul High School

1967~1970 Attended Korea Foreign Language French
Dept for 2 Years.

1971~1981 Worked in Korea Marine Development
around

1981~1991 Liaison Officer at Qingdao Port, China for

Over 10 Years.

1992~upto Present. Retired Living on 4S Social Security Benefit

광개토대왕 비문에 실린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새로운 고찰 Reexamination of Imna Gala(任那加羅) in the Stele

이돈성

Abstract: The Book of Song has the same name and characters of Imna Gala(任那加羅) as engraved in the Gwanggaeto Stele. Silla, Imna Gala, and all other small town-states were around the western shore of Balhae Bay. Old name of Silla known as Xiē la(薛羅), Sala (斯羅), and Sila (尸羅) were near the Balhae Bay along with Baekjae and Hyu-In (休忍) before the King Gwanggaeto. Many phonetic variants of Silla and Gala had been moving around the Eastern Part of Asia.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was the last place.

The King Gwanggaeto lived in Manchuria during the turbulent period and assassinated. His son king Jangsu chased out his rivals. Silla moved the capital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took the refugees, adapted the Buddhism, and became a strong nation.

Taoist Elders went up to the eastern part of Himalaya Mountains through the ancient trading route and taught the locals. The new religion emerged around the kingdom of Sikkim region, spread out along the Indus River valley to the entire subcontinent during the 3rd century BC, and evolved to many variant forms of Buddhism. Southern Buddhism came to the southern part of China and spread up to the Balhae Bay during the Eastern Jin (東晉; 317-420) dynasty. It replaced the Eurasian Buddhism from the west through the silk-road, assimilated with the folk religion, left a new branch of Buddhism which is Mahāyāna Buddhism, "Miruk-bul" by Korean.

The southern sea-route of Yellow Sea was established around 479. The King Beopheung (法興王: r. 514–540 AD) adapted Southern Buddhism. Silla unified Korea in 668. The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went to the Japanese archipelago,

cultivated the locals, and made the new island nation strong. Wei(倭) changed the name to Nihon in 670.

주제어:4-5. 백익. 흥산문화. 환단고기. 임나가라(任那加羅). 원시불교. 팔리어. 미륵신앙. 인도. 근자. 지나. 태국 화랑. 남조, 대리국. 삼태극.

- | | |
|-------------------|---------------------|
| I. 머릿말 | IV. 삼한 사람들이 해상로를 개발 |
| II. 광개토대왕 전후 시대 | V. 가락국 허황후 화랑 가야금 |
| III. 원시불교의 발생과 전래 | VI. 맺음 말 |

I 장: 머릿 말

남조 송나라(宋;420 -479 년) 역사서 송서(宋書)에 실린 왜(倭) 국왕이 한의 7 나라 (韓七國)를 다스렸다는 신라 임나가라(新羅任那加羅)와 같은 글자가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다.⁵¹ 뒤를 이은 남제 (南齊; 479-502 년)에는 같은 글자 가라국왕 하지 (加羅王荷知)가 478 년에 사신을 보냈다. 그 뒤를 이은 양나라 (梁; 502-559) 역사서에는 같은 글자 신라가 작은 나라여서 그 전 에는 못 오다가 521 년에 백제 사신을 따라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했다.⁵² 하지가 살았던 가라국의 위치를 현재 지도에서 찾았다.

전국시대 말기에 요동만 -발해만 연안에서 해하 (海河) 수계에 “신라 왜 가야 백제,

⁵¹.

[宋書](#):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別本云。阿育王在西竺大香華國。太元 (376-396 年) 是東晉皇帝晉孝武帝司馬曜的年號。 [十六國春秋](#): 鮮卑烏丸高句麗百濟新羅休忍等諸國遣兵三萬助北海公重戍薊諸國 [三國志弁辰傳](#): 倭 有瑟,其形似筑

⁵².

[南齊書](#):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為鎮東大將軍、 [梁書](#): 魏時曰新盧，宋時曰新羅，或曰斯羅。其國小，不能自通使聘。普通二年(521)，王募名秦，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고구려, 낭랑 말갈등 여러 부족 국가”가 서로 인접해 있었다.⁵³ 그 지역에 공손씨가 올라와 부여왕의 대릴사위가 되었다. 고구려 왕자 발기(拔奇) 세력을 흡수 하고 연왕이라 했다. 사마씨가 원주민 세력을 이용하여 연왕 공손연(公孫淵, ? ~ 238 년)을 제거 하고 조위로 부터 양위를 받아 서진(西晉; 265-317)이 나타났다. 전란 중에 일부는 만주 내륙으로 도주 하고, 많은 삼한의 후손들이 황해의 동서 해안을 따라 흐터졌다.

진서와 책부원귀에 [금미달에서 떠난 사람들이 남중국 해안 4000 여리에 걸쳐 신미제국(新彌諸國) 20 여국을 이루고 살았다]고 남겼다.⁵⁴ 황해 남쪽 항로가 개발 되기 전이다. 이를 송서에는 왜 백제 신라 임나가라 진한 변한 “倭百濟新羅 任那加羅 秦韓慕韓” 일곱 나라는 왜왕이 다스렸다고 했다.

고구려 왕자 발기가 비류와 김일제의 후손에 동참하여 강남에 정착 했다. 그후 동남아로 진출 하여 남방불교를 강남에 전파 했다. 양자강 하류 남경 가까이 거발성(居拔城)에 수도를 두었던 대륙 백제는, 성왕(轉輪聖王; 재위: 523 년~554 년) 시절에, 황해의 동서를 증행하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절에 풍월주 사다함(斯多舍, 547 년? ~ 564 년)의 화랑도가 한반도에 있던 가락국을 정벌 했다. 그때 우륵이 신라에 가야금(加耶琴)을 전했다.⁵⁵

⁵³. [史記](#)

平準書:唐蒙、司馬相如開路西南夷，鑿山通道千餘里，以廣巴蜀，巴蜀之民罷焉。彭吳賈滅朝鮮，置滄海之郡，則燕齊之間靡然發動。 [通典](#) 新羅: [新盧，宋時曰新羅，或曰斯羅]

⁵⁴. [晉書](#) 列傳第六 衛瓘 張華 劉卞:

撫納新舊，戎夏懷之。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去州四千餘里，歷世未附者二十餘國，並遣使朝獻。於是遠夷賓服，四境無虞，頻歲豐稔，士馬彊盛。 [冊府元龜](#): 晉張華為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撫納新舊戎夏懷之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去州四千餘里歷世未附者二十餘國並遣使朝獻，於是遠夷賓服四境無虞頻歲豐稔士馬強盛

⁵⁵. [三國史記](#): 真興王立:

「十二年春正月，改元開國。三月，王巡守次娘城，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特喚之。王駐河臨宮，令奏其樂，二人各製新歌奏之。先是，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以象十二月之律，乃命于勒製其曲。及其國亂，操樂器投我，其樂名加耶琴。

불교가 번창 했던 시절에 원나라가 중원을 점령하고 편찬한 송사(宋史) 에는, 980 년(至道二年)에 부족장 급가라 니(峇伽羅膩)가 태원 지역에 있었다.⁵⁶ 백제, 임나(任那)와 왜는 같은 글자로 기록 했고, 신라(新羅)와 가라(加羅)는 여러 지역에 여러 글자로 나타났다. 불교의 어음을 가차전주 하여 적은 이름자다. 이 가설을 증명해 본다.

1 절:동북아 역사 요약: 만리 장성 이북 광활한 지역은 황하문명권 밖이라 중원사람 들이 편찬한 기록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Silent Majority; SMa”라고 간략하여 표현 했다.⁵⁷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사용 했던 시기에, 장소와 용도에 따라 어음을 결정 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이 치수사업을 완성하고 황하문명을 이루 었다. 내릴 강, 북녘 북, 흰 백(降,北,伯) 북적(北狄), 백적(白狄), 백작(白翟),적인(狄人), 빛 (comb, sun-ray) 등 몇몇 글자 어음속에 두 문화권 의 관계가 남아 있다.⁵⁸ 햇불(torch; 白,自)을 천정 까지 올려, 온 (all, whole) 방안이 밝아 진다 하여, 흰백(白)자 에서 숫자 백(百)을 만들어 온 (Ohn) 으로 읽었다. 고전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어음이 이렇게 남아 있다.

여러 부족이 합심하여 치수사업을 하던 공공 “龔工, 共工”이라 부르던 집단이 강수(降水)가 분수(汾水)와 만나는 산서성 지역에서 나타 났다. 그때에 우의 아버지와 동이 수령 백익이 산해경을 만들어 젊은 용우(禹) 를 시켜 치수 사업을 이끌었다. 그러다 분란이 생겨 어른이신 백익(伯益) 을 지도자로 뽑았다. 그가 왕검(王儉)이란 칭호를 받았다. 순임금이 은퇴 했던 해지 연안 명조(鳴條)에 수도를 정하고 공공(邛邛) 시대

⁵⁶. [宋史](#):至道二年，徙延州都巡檢使兼署州事，改本路副都部署，與範重召等五路討賊。有峇伽羅膩數族率眾來拒，保興選敢死士數百人銜枚夜擊，殲之。引師至監城，吳移、越移四族來降，惟峇伽羅膩十四族怙其眾不下，乃與尹憲襲擊之，夷其帳千餘，俘斬七千餘級。

⁵⁷.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실존 인물이었다. The legendary Dangun Wanggeom was a real person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⁵⁸. [Lee Mosol: Ancient History of Korea: Mystery Unveiled. Second Edition. By Xlibris. 2020.](#) (韓原之戰)

p 8 Session 1: Study of Northeast Asian History. <https://ctext.org/zh:北狄>. 逸周書 王會解: 獨鹿邛邛，邛邛善走者也。孤竹距虛。不令支玄模。不屠何青熊。東胡黃羆。山戎戎菽

부터 써오던 이름 평양으로 바꾸고 왕검조선(王儉朝鮮)을 선포 했다.⁵⁹ 이 지역을 한, 가한 혹은 칸이라 부르던 지도자들이 다스린다 하여 한원(韓原)이라 했다.

치수 사업 말기에 분란이 생겨 도산(塗山)에 모여 회의를 했다. 용우를 지지 하던 일파가 백익을 죽이고 하(夏)나라를 세웠다.⁶⁰ 상호상부하며 평화롭게 살던 고조선 영역에 처음으로 처참한 권력 투쟁이 나타났다. 이를 (가상인물) 황제와 동이 수령 치우가 싸웠다고 한다.⁶¹ 여씨 춘추 에서는 작병(作兵)이란 말을 '주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황제를 이겼다'고 풀이 했다. 사서에는 치우 천왕을 "구리지군(九黎之君) 또는 구리치우(九黎蚩尤) 라고도 한다. 구리난덕(九黎亂德) 이라 했다.⁶² 구리는 난리뿐 아니라 덕(德, 惠, 息)을 또한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다. 시경 운한(詩經 雲漢) 에는 서주(西周)의 백성을 여민(黎民) 이라 했다.⁶³ 옛적 시경의 문구를

⁵⁹. [山海經](#)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竹書紀年](#) 帝舜有虞氏: 帝居于鳴條. 商自陟征夏邑. 克昆吾. 大雷雨, 戰于鳴條. [焦氏易林](#): 鳴條之郊, 北奔犬胡. 左衽為長, 國號匈奴.

⁶⁰. [禮記](#)

祭法: 夏之衰也, 周棄繼之, 故祀以為稷. 共工氏之霸九州也, 其子曰後土, 能平九州, 故祀以為社. 帝嚳能序星辰以著眾; 堯能賞均刑法以義終; 舜勤眾事而野死. 鯀鄣洪水而殛死, 禹能修鯀之功. 黃帝正名百物以明民共財, 顓頊能修之. 《說文》云: 大頭也. 魚容切, 四. 爾雅 釋地: 西方有比肩獸焉. 與邛邛岨虛比, 為邛邛岨虛齧甘草, 即有難, 邛邛岨虛負而走

⁶¹. [詩經](#)

韓奕: 奕奕梁山, 維禹甸之, 有倬其道. 韓侯受命, 王親命之, 纘戎祖考, 溥彼韓城, 燕師所完. 其追其貊, 奄受北國, 因以其伯. [詩經](#): 亦孔之邛. 維王之邛.

⁶². [史記](#): 其後三苗服九黎之德. [史記](#) 五帝本紀. 三苗在江淮, 荊州數為亂

[漢書](#): 顓頊帝春秋外傳曰, 少昊之衰, 九黎亂德, 顓頊受之, 乃命重黎.

[孟子](#) 萬章曰: 「舜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殺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誅不仁也.」, [尚書 虞書](#) 舜典: 分北三苗.

⁶³. [이돈성 지음: 古朝鮮 찾기. 책미래. 2016.](#) P 141 중원과의 전쟁 기록에서. 蚩尤與赤帝之戰. 黃帝與蚩尤之戰. 蚩尤請來了風伯雨師, 「天大晦冥」, 雷電交作, 衝破了應龍的水陣.

인용한 흥범의 왕도 (王道)에서 도덕경이 나타났다.⁶⁴

초기 공동체 였던 엄숙한 공공국의 지도자 가 덕있는 사람 (邛邛君之德)이 었다. 그를 우러러 보았다.시경에 앙앙(印印)이란 문구가 있다.⁶⁵ 구리난덕 (九黎 亂德) 이란 문구 속에 고구려의 어원과 도덕경의 관계가 있다. 세 지도자 (三, 參仙, 參禪)의 후손이라 삼묘 (三苗)라는 글자로도 기록 했다. 서주가 완성되고 실행한 박람회에 나타난 공공 (邛邛)은 북쪽에서 왔다.

황하문명 발생지에서 지도자 백익을 잃은 고조선 후에는 남쪽 세력과 오랫동안 싸우다가 최후에는 수도 아사달이 점령 당했다. 북쪽으로 올라 갔던 사람들이 잃어 버린 역사를 복원한 기록이 환단고기다.

고조선의 한 지류는 한원(韓原)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들을 부여 (夫餘),부유(蜉游,浮游) 란 글자로 기록 했다.⁶⁶ 양산(梁山)일대에 살다가 사천성(益州)을 지나 남쪽 으로 도망 갔다.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의 노인이 고조선 발생지에 전해 오던 설화를 히말라아 산맥 동쪽 수지(隨地) 에다 전했다. 아사달이 점령하던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종교적으로 승화 시켜 원시 불교가 나타났다. 그지역 인도 사람들이 노자가 전해준 내용을 번역 하여 불경의 초안을 남겼다. 그 내용이 다시 중원에 전래 되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수정 보충하여 첫 불교 기록인 대루탄경 (大婁炭經)이 나타났다 ⁶⁷ 그에는 비류 (比流) 도술(兜率) 미륵(彌勒) 유리(琉璃), 환인 (桓因) 수미산 (須彌山) 하는 한국 고대사에 보이는 글자가 실렸다.

⁶⁴. [강희자전](#): 德：凡言德者，善美，正大. [墨子](#)

兼愛下，《周詩》曰：『王道蕩蕩，不偏不黨，王道平平，不黨不偏。《易·乾卦》君子進德修業。《詩·大雅》民之秉彝，好是懿德。 [尚書](#)

洪範: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無反無側，王道正直。會其有極，歸其有極。

⁶⁵. [爾雅](#) 釋訓: 顯顯邛邛君之德也. [詩經](#): 顯顯印印、如圭如璋、令聞令望。豈弟君子、四方為綱

⁶⁶. [Lee Mosol: Ancient History of Northeast Asia Redefined. By Xlibris. 2018.](#) p Etymology of Few words, Buyeo (夫餘) and Goguryeo.

⁶⁷. 漢傳佛教與東方文化.任繼愈. 中華佛學學報第 12 期 (1999 . 7 月出版).中華佛學研究所發行.

북쪽 으로 피해 갔던 고조선 사람들이 내려와 주여왕 (周厲王, ? ~ 기원전 828 년) 을 잡아 가고, 공공국의 지도자 화(和) 가 다스렸다.⁶⁸ 이를 주공 단과 소공 석이 다스려 공화 (共和) 라고 했다.⁶⁹ 급층에서 죽간이 발굴 되어 개가 백익을 죽였다(益乾啟位, 啟殺之)는 사실이 밝혀 졌다.

아버지를 빼앗 겼던 주선왕 (宣王)이 한후(韓侯) 에게 끝없이 넓은 북쪽 땅을 통치해 달라고 부탁 했다. 자신이 요청 하여 이룩된 화친맹약을 깨고 한후의 영역을 점령하여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 옛 부터 전해 오던 전설을 상형 글자로 새겨 놓아 첫 기록이 나타났다.⁷⁰ 이를 노예들이 만든 글자란 뜻에 예서(隸書)라 했다. 산중에 있던 중산국 지도자가 잡혀 새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하여 그를 중산부(仲山甫) 번후(樊侯)라 했다. 번후 (樊侯; 變汗) 가 지도하여 만든 글자가 “주籀, 전篆, 예서 隸書” 로 진전 되었다. 이를 정통한자 번체자(傳統漢字, 正體字; 繁體字, 繁体) 라고 한다.⁷¹

고조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천할시(斯)로 표기 했다. 그들이 부르던 민요가 시경의 국풍에 나타난다. 시서경(詩書經)의 원조다.⁷² 국풍에는 후에 만들어 붙인 이름이라 “夏 罇 燕”풍이 없다.고조선 사람들이 순임금이 살던 해지연안 명조(鳴條)에서 지도를 들고 북쪽으로 올라가 흉노국의 지도자가 되었다.⁷³ 흉노 또한 고조선의 후예다. 진수의 삼국지 에는 “역경에는 때때로 고려언어 (高麗言) 가 있다”고 했다

⁶⁸. [晉書](#):太康二年, 汲郡人不準盜發魏襄王墓, 幽王既亡, 有共伯和者攝行天子事, 非二相共和也。其《易經》二篇, 與《周易》上下經同。

⁶⁹. 夏商周斷代工程. [史記](#) 周本紀: 召公、周公二相行政, 號曰「共和」。共和十四年, 厲王死于虢。

⁷⁰. [이돈성 지음: 古朝鮮 찾기. 책미래. 2016.](#).. Seoul Korea. 1 장 어떻게 찾았나.

⁷¹. <https://zh.m.wikipedia.org/zh-hant/%E9%9A%B8%E8%AE%8A> : 隸變, 是漢字由小篆演變為隸書的過程, 大約發生在秦漢之間, 是漢字發展的轉捩點.

⁷². [이돈성 지음: 古朝鮮 찾기. 책미래. 2016.](#) P 85 시경(詩經)에서.

[西周 - 維基百科, 自由的百科全書 \(wikipedia.org\)/ 共和與中興.](#)

⁷³. [焦氏易林](#): 鳴條之圖, 北奔犬胡。左衽為長, 國號匈奴。主君旄頭, 立尊單于. [三國志](#) 鍾會傳: 弼注老子, 為之指略, 致有理統。著道畧論, 注易, 往往有高麗言。太原王濟好談, 病老

삼한(三韓; 馬韓, 辰韓, 弁韓)을 기록 할 때 변한을 변 또는 시(卞, 示, 弁)로 바꾸어 기록 했다. 설문해자에 금예변작(今隸變作)이란 표현이 많이 있다.⁷⁴ 새싹의 상형글자를 초(楚)나라 지역에서는 복(菴), 진나라 지역에서는 공(秦謂之蕘)이라 부르고, 변한(變汗, 弁韓)사람들은 순이라 읽는다. 고죽군(孤竹君)이 있던 지역 사람들이 죽순(Bamboo shut; 舜: 艸也)이라 부르던 어음이 어질 었다는 유우씨(有虞氏)에 붙었다.⁷⁵ 삼한의 선조들이 상형글자를 만들었다. 한자(漢字)가 아니라, 클한 한자(韓字)가 옳은 표기다.

2 절:조선(朝鮮)이란 이름의 이동 경로: 북쪽에서 내려와 분하(汾河, 汾水) 계곡에서 합심하여 치수 사업을 시작 하던 시절에 아사달(阿斯達)을 수도로 정한 조선(朝鮮)이 나타났다. 사마천은 치우와 싸웠다는 가상 인물 황제를 체계화하여 중화문명권의 시조로 만들고, 치우가 통솔 했던 고조선 연맹체를; 구려(九黎), 삼묘(三苗), 북발, 산융, 숙진 이라고 기록 했다.⁷⁶

춘추시대 초기에 제 환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군사를 이끌고 북쪽 세력을 토벌하러 갔다. 비이지계(卑耳之谿)에 이르러 활 한번 못쏘고 도망 갔다. 관자에 발조선(發朝鮮)의 지도자를 북주후 모 또는 막(北州侯莫)라고 했다.

춘추에는 조선을 미약한 선우가 다스리던 나라(鮮虞國)라 했다. 조선이 전국책과 다시 나타났다. 사마천은 조선을 더 북쪽으로 밀어 만주땅 에 붙였다.⁷⁷ 조선은 해하

⁷⁴. <https://zh.m.wikipedia.org/zh-hant/%E9%9A%B8%E8%AE%8A> :

隸變，是漢字由小篆演變為隸書的過程，大約發生在秦漢之間，是漢字發展的轉捩點。

⁷⁵. 說文解字: 變：更也。眞：僂人變形而登天也。

舜：艸也。楚謂之菴，秦謂之蕘。蔓地連華。象形。从舛，舛亦聲。凡舜之屬皆从舜。今隸變作舜

⁷⁶. 史記 五帝本紀: 黃帝者，少典之子，姓公孫，名曰軒轅。

謹兜進言共工，堯曰不可而試之工師，共工果淫辟。四嶽舉鯀治鴻水，堯以為不可，於是舜歸而言於帝，請流共工於幽陵，以變北狄；放謹兜於崇山，以變南蠻；遷三苗於三危，以變西戎；殛鯀於羽山，以變東夷；四罪而天下咸服

⁷⁷. 史記 五帝本紀: 北發，西戎、氐、羌，北山戎、發、息慎，鳥夷，四海之內咸戴帝舜之功。

방언에수계를 따라 발해만에 이르는 지역을 뜻했다.

서주의 북쪽 제후국 진(晉; 明出地上 晉) 자는 [이미 해가 떴다는] 뜻 글자로 발해(勃海)와 조선(朝鮮)이란 글자와 같다. 한국어로 진이라고 읽는 제후국 셋 “晉, 秦, 陳”이 중화문화권에 나타났다. 한 무제 때 부터 북주(北州)란 뜻의 영역을 더 북쪽으로 밀어 불모지 흉노 땅을 뜻했다.

고조선 영역 산서성(山西省作, 隸省)에 있던 진(晉)나라가 “조위한 趙 魏 韓”셋 으로 분열된 삼가분진(三家分晉) 이후에 나타난 위나라의 역사서 위서(魏書)에 단군왕검에 관한 기록이 실렸다. 진나라 승상으로 진시황 송덕비문을 남긴 이사(李斯)는 한거중국(韓居中國)이란 문구를 남겼다.⁷⁸ 삼한의 선조들이 중원 땅에 살았었다는 뜻이다.

강희자전 해(解)자 풀이에, [북위 에는 해비씨(解枇氏)와 비씨(費氏, 毗)가 있었다. 고구려 성에 북씨(北 bèi/) 씨가 있었다. 북은 별(Star)이다. 대(代)라 했다]라고 실렸다.⁷⁹ 백적(白狄, 白翟, 北狄)이 구주의 북쪽, 산중에 있다 하여 중산구(中山國)이라고 했다.⁸⁰ 해하 수계 상류에 대국(代國)이 세대(世代, generation. 歲)의 어원이 되었다. 세(歲)자에 물수변을 붙여 그곳 여울가에 살던 부족을 예맥족이라 했다. 지도자가 활을 잘 쏘아 항아(姮娥)의 남편을 예(羿)라고 한다. 삼국지 한전에는 기자의 후손인 한후(韓侯) 즉 조선후(朝鮮侯)의 성이 서주왕실의 핏줄과는 다른 예맥(濊貊, 貉)의 핏줄이라 모성 한씨(冒姓韓氏)라 했다. 흰옷을 입는다 하여 백적이라 했던 예맥족 모성 한씨가 한반도로 내려 왔다.

전국시대 고조선의 수도 금미달(今彌達)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맥군남여(南閩)를 따라

⁷⁸. [三國遺事](#): 駕洛國記. 迦葉原 阿蘭弗. [신라의 수도 이전](#):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揚子·方言》比。代也.

⁷⁹. [강희자전](#):

代。更也，替也。《書·皋陶謨》天工人其代之。又世也。《家語》古之王者，易代改號，取法五行。又不還曰代。又國名。趙之先有代國。《應劭曰》古。漢代郡屬幽州，魏改爲州。

⁸⁰.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B1%B1%E5%9B%BD>. 白狄 中山國

내려와 창해군이 나타났다. 그 일대에 오팡이 들어가 조선을 매멸시켜 창해지군(滄海之郡)이 생겼다. 연의 장성이 양평(襄平)에서 끝났다. 예인(濊印)이 나온 신라의 발생지다.⁸¹ 그곳에서 공손연이 잡혔다. 발해만 연안에 “비미, 미추홀”하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들이 해양권을 관장하여 한해(瀚海)란 이름을 황해(黃海)에 붙였다. 이를 한서에는 조선재 해중(朝鮮在海中)이라 했다. 황해를 행단하는 남쪽 항로를 백제와 가라(加羅)국 하지가 개통한 시절에 만주에 있던 신라가 한반도에 내려 왔다.⁸²

사마천이 폐허가 된 고조선 수도에 양평(襄平)이란 글자를 만들어 붙였다. 일연 스님이 한서 내용을 인용하여 평회성 의의(平壤城, 宜矣)라 했다.⁸³

한서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육지와 바다로 흐터져 나갔다는 사실을 은미하게 기록했다.⁸⁴ 모두들 지나쳐 버렸던, 물수 변을 붙이지 않은 발해(勃海)란, 글자 뜻을 간략히 설명 했다. 신선이 사는 세 산봉우리에 [이미 우뚝히 해가 떠서 올라 간다는 뜻을 지닌 글자가 진(晉; 晉)자]다. 그들의 어음을 음차한 글자가 발해(勃海, 渤海), 훈역한 글자가 조선(朝鮮)이다.

II 장: 광개토대왕 전후 시대

역사의 흐름을 고려 하면서 사서와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풀이 하면, 광개토대왕의

⁸¹. [三國史記](#):

國號徐那伐。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為六村：闕川楊山村，二曰突山高墟村。高墟村長蘇伐公望楊山麓。北溟人耕田，得濊王印，獻之。改始林名鷄林，因以為國號。

⁸².. [신라의 수도 이전: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⁸³.. [三國遺事](#): 應邵曰。故朝鮮國也新唐書注云。平壤城。古漢之樂浪郡也國史云。

據上諸文。樂浪即平壤城。宜矣 [太平御覽](#):

《漢書》曰：燕王都薊，大風拔宮中樹七圍已上十六枚，壞城樓。

⁸⁴. [漢書志](#) 郊祀志上: 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此三神山者，其傳在勃海中，去人不遠。
[漢書志](#) 天文志:朝鮮在海中，越之象也；居北方，胡之域也。

격전지는 남만주에서 해하 수계에 이르는 지역이 었다.

가까이 홍산문화권 사람들이 산너머 의무려산 일대에 정착 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이 만주에 전해 오고 있었다. 청나라 말기에 장병린(章炳麟: 1868~1936 년) 이 남긴 구서(鳩書)에는 “만주 지역이 계림과 말갈(雞林 靺鞨)의 영역이 되었다.”고 한탄 했다.⁸⁵ 그가 외국인 이라고 칭한 계림 과 말갈(鷄林 靺鞨)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건국 초기에 나타난 이름이다. 말갈(靺鞨, Mòhé)이 해(奚, 亥, 解)족 이다. 중앙아시아 에서 만주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 들이 수도를 평양(平壤)이라고 했다.

후주(後周, 951- 960) 시대 돌궐 가한이 다스리던 영역에 평양무초(平壤 茂草)란 문구가 있다. 수나라 양제가 돌궐과 협약을 하려고 개민가한(啟民可汗) 을 찾아 갔다. 그 막사에는 이미 고구려 사신이 와 있었다.⁸⁶

잃어 버렸던 환단고기 초본이 20 세기 초, 일본 구주에서 나타났다. 현재 많이 사용 되는 삼국유사는 일본에서 1902 년(明治三十五年)에 출판 되었다.⁸⁷ 그 서문에 실증된 편명; “사편 斯編”은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고, “말갈발해조 靺鞨渤海條”는 만주역사를 뜻했다고 본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르기를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수도를 흘승골성(訖升骨城)에 정하고 나라를 북부여(北扶餘)라고

⁸⁵. 鳩書：則以雞林、靺鞨之賓旅，而為客帝於中國也何損？知是，而逐滿之論，殆可以息矣。

⁸⁶.

隋書：先是，高麗私通使啟民所，啟民推誠奉國，不敢隱境外之交。是日，將高麗使人見，勅令牛弘宣旨謂之曰：「明年當往涿郡。爾還日，語高麗王知，宜早來朝，勿自疑懼。存育之禮，當同於啟民。如或不朝，必將啟民巡行彼土。」使人甚懼。啟民仍扈從入塞，至定襄，詔令歸藩

⁸⁷.

三國遺事校訂三國遺事敘：一斯編。本無目次。今據編中標題補之。又第一卷靺鞨渤海條闕二葉。第三卷南月山條闕一葉。伯巖寺石塔舍利條闕二葉。其他或佚標題。或脫篇名。

했다.⁸⁸ 고조선의 수도 금미달에서 만주(滿洲)로 올라가 세로 나라를 세운 부여씨가 사제권을 이어 받았다.

태평광기에는 해부루(解扶婁)가 불교 전래와 신라의 옛 이름 시라(尸羅)와 관련되어 나타난다.⁸⁹

햇님의 후손 석(昔脫解)씨가 휴인(休忍)을 정벌하고 왕이 되어 벌휴 이사금(伐休泥師今, ?~196년)이라 했다. 활잘 쏘는 예(羿;濊)의 후손이라(羅)자를 성씨로 하여 여러 부족국가를 이루었다고 급취편에 실렸다.⁹⁰ 예의 후손 고조선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지나는 여울을 사수(斯水)라 했다.

천진 일대에 정착 했던 비류왕 후손과 남쪽에서 올라온 휴도왕(休屠王) 김일제의 후손이 화친 하여 공손도 세력이 나타났다. 고구려 왕자 발기(拔奇, ? ~ 197년)가 이에 동참했다. 추모왕의 후손과 비류의 후손은 남만주 발해 요동만 해안에서 오랫동안 싸웠다. 고구려는 요하를 방어 선으로 서쪽 세력을 견제 했다. 사마씨가 공손연을 토벌 할 때 고구려도 오환 선비족과 같이 참전해서 238년에 공손연을 양평성에서 잡았다. 그후 숙신씨가 고구려를 배반하여 조위의 관구검(毌丘儉, ? ~ 255년)이 고구려를 침략

⁸⁸. [三國遺事](#):

北扶餘古記云。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天帝降於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三國史記](#)：始祖沸流王，其父優台，北扶餘王解扶婁庶孫。母召西奴，生子二人，長曰沸流，次曰溫祚。優台死，寡居于卒本[北扶余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wikipedia.org\)](#)。

⁸⁹. [太平廣記 幻術一](#)

扶婁國人：南垂有扶婁之國。其人善能機巧變化，易形改服，大則興雲霧，小則入纖毫。綴金玉毛羽為衣服。或為巨象獅子龍蛇犬馬之狀。或為虎口中生人，或於掌中備百獸之樂，宛轉屈曲於指間。得粗得精，代代不絕。乃欲謂之婆侯伎。則扶婁之音訛耳。出《拾遺錄》。

⁹⁰. [潛夫論 五德志](#):

羿恃己射也，不脩民事，而淫于原獸；棄武羅、伯因、熊髯、彥圍，而用寒泥。泥、柏明氏讒子弟也。柏明氏惡而棄之。夷羿收之，信而使之，以為己相。泥行媚于內，

했다.⁹¹ 그당시 백제 장군 진충(眞忠)이 한나라 낭랑(漢樂浪)을 친입 했다가 돌려 주었다. 같은 사람 진충(眞忠)이 신라의 이별찬이 되어 국정에 참여했다. 이를 은유법으로 [시조 사당이 있는 금성(金城)에 여우가 울고 금성(金星, 太白星)이 달을 침범 했다]고 기록 했다. 신라 수도를 금성 또는 월성이라 했다. 낙랑에서 자객을 보내 백제왕을 죽였다.⁹² 관구검에 쫓기던 동천왕은 옥저(沃沮) 땅으로 피란을 갔다. 전쟁이 끝나 고구려는 돌아 가고, 남아 있던 세력이 신라라고 했다.⁹³ 그 곳에 호동왕자가 사냥을 갔던 최리왕의 낭랑국이 있었다. 이는 모두 남만주에 있었다.

대륙으로 흐터져 갔던 김일제 후손은 떠돌이 생활을 했다. 신라의 제 일족은 김가(金哥), 먼 선조를 방이(旁佗), 수도를 의의(宜矣)라고 했다.⁹⁴ 도깨비 방망이 방이(旁佗) 설화 내용에 누애와 코끼리가 나온다. 의의란 글자가 삼국유사에, 양평성을 평회성 의의

⁹¹.

[三國志](#)高句麗傳: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正始三年,宮寇西安平,為幽州刺史毋丘儉所破。語在儉傳。東沃沮傳:毋丘儉討句麗,句麗王宮奔沃沮,遂進師擊之,宮奔北沃沮 [三國史記](#):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大守太守劉茂、朔方帶方大守太守王遵弓遵,伐高句麗,王乘虛,遣左將眞忠,襲取樂浪邊民,茂聞之怒,王恐見侵討,還其民口

⁹². [三國史記](#)

儉攻陷丸都城,屠之。乃遣將軍王●,追王。王奔南沮南沃沮,至于竹嶺,軍士分散殆盡,唯東部密友獨在側,謂王曰.王分軍為三道,急擊之,魏軍擾亂不能陳,遂自樂浪而退

⁹³. [通典](#) 新羅:

初曰新盧,宋時曰新羅,或曰斯羅.魏將毋丘儉討高麗,破之,奔沃沮。其後復歸故國,留者遂為新羅焉,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兼有沃沮、不耐、韓、濊之地。其王本百濟人,自海逃入新羅,遂王其國。其國小,不能自通使聘。

⁹⁴. [太平廣記](#)

新羅:新羅國有第一貴明鈔本「貴」作「國」。族金哥。其遠祖名旁佗。有弟一人,甚有家財。其兄旁佗。因分居,乞衣食。國人有與其隙地一畝,乃求蠶穀種于弟,弟蒸而與之。旁佗不知也。其後子孫戲錐求狼糞,因雷震,錐失所在。出《酉陽雜俎》@.방이(旁佗)설화

“平壤城。宜矣” 라고 숨긴 글자다.⁹⁵ 의성(宜城)이란 삼국유사에 실린 사언의 후손들(僞斯焉)이 사는 신선의 도성이라 했다.⁹⁶ 평회성을 사마천은 양평 (襄平), 위서 (魏書)에는 평양(平壤) 이라고 했다.⁹⁷ 고조선 수도 뿐만 아니라, 지나 (支那) 라고 하던 남쪽 지역에 신라가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은미 하게 기록 했다.

환도성이 황폐되어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平壤)으로 옮겼다고 했다. 시조 사당을 증축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 결화를 했다.⁹⁸ 졸본주 태자하 연안 숙신씨 본향이던 곳이다. 이를 삼국사기에는 옛적에 선인왕검이 살던 평양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 이라 했다. 왕검조선 수도에 붙인 평양 이란 이름이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나타났다.

1 절: 고구려 수도 평양의 위치: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왕이 남쪽으로 평양에 이르니, 신라 사람이 편안 하게 (而) 왕에게

⁹⁵. [三國遺事](#):

樂浪國前漢時始置樂浪郡。應邵曰。故朝鮮國也新唐書注云。平壤城。古漢之樂浪郡也國史云。

樂浪即平壤城。宜矣。故後代金氏諸王皆以末鄒為始祖。宜矣。意在斯焉古朝鮮王儉朝鮮。

[三國史記](#):中國史書也, 猶存楚語「穀於菟」、匈奴語「撐犁孤塗」等。今記新羅事, 其存方言, 亦宜矣。臣等以為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為國號, 宜矣。

⁹⁶.

[康熙字典](#):僞:《唐韻》音匣。《玉篇》引為價也。與鄆同。縣名。《前漢·地理志》僞屬陳留郡。《註》同鄆。又《國名記》僞, 邳姓。今襄之宜城, 楚之鄆都。音焉。神仙名。《揚子·太玄賦》納僞祿於江淮兮。《註》二神仙名。 [三國遺事](#):意在斯焉古朝鮮王儉朝鮮

⁹⁷. [魏書](#) 帝紀第五 高宗紀: 和平四年七月壬午

詔曰:「朕每歲以秋日閑月, 命群官講武平壤。所幸之處, 必立宮壇, 糜費之功, 勞損非一。宜仍舊貫, 何必改作也。」八月丙寅, 遂敗於河西。

⁹⁸. [三國](#)

[史記](#):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或云王之都王儉。新羅遣使結和。秋九月, 王薨。葬於柴原, 號曰東川王

아뢰었다. 그후 실성마립간 (實聖麻立干, 재위 402년 ~ 417년)이 평양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다.⁹⁹ 금사 (金史)에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평양이 태자하 다리 건너 있던 요양기 올로홀필라 (兀魯忽必刺) 라고 했다.¹⁰⁰ 대왕이 자객을 만나 다같이 치명상을 입고 승하 했던 곳이다. 이 곳으로 아들 장수왕이 천도 했다. 건국 초 부터 시조 사당 (始祖廟)을 모시던 남만주 졸본주의 평양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다.¹⁰¹ 수서와 당나라 때에 작성된 살수대첩을 보면 평양이 오늘의 요양(遼陽)이 분명 하다. 국내성 (國內城) 과 한성(漢城) 을 별도(別都)라고 했다.¹⁰²

오늘의 평양시(平壤市)는 장수왕이, 옥리하(郁里河) 연안, 즉 대동강 하구 강서 유적지에 있던 백제 한성(漢城) 을 점거한 이후, 양원왕 부터 36년 동안 지은 고구려 평원왕 (平原王)의 장안성(長安城)이다.

원나라 때에 편찬된 송사(宋史)에는 고구려 후손인 왕건이 옛 현토군이 있던 지역에서 고려를 세워 후에 한반도로 내려 왔다고 했다.¹⁰³ 왕건의 선조는 황하문명의 발생지

⁹⁹.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三: 實聖尼師今立. 十二年

雲起狼山，望之如樓閣，香氣郁然，久而不歇。王謂：「是必仙靈降遊，應是福地。」從此後，禁人斬伐樹木。新成平壤州大橋

¹⁰⁰. [金史](#) 志第五: 遼陽府. 本渤海遼陽故城，遼完葺之，郡名東平。升為南京，府曰遼陽。

遼陽倚。東梁河、國名兀魯忽必刺，俗名太子河，為遼東盛國。

¹⁰¹. [三國史記](#): 王如卒本，祀始祖廟. 榮留王，王幸卒本，祀始祖廟。

[通典](#) 高句麗: 隨山屈曲，南臨涇水，在遼東南千餘里。城內唯積倉儲器械，寇賊至，方入同守。王別為宅於其側。

¹⁰². [隋書](#): 南臨涇水. 復有國內城、漢城，並其都會之所. [通典 邊防二](#)

高句麗: 自東晉以後，其王所居平壤城。自為慕容皝來伐，後徙國內城，移都此城。亦曰長安城，隨山屈曲，南臨涇水。城內唯積倉儲器械，寇賊至，方入同守。王別為宅於其側。其外有國內城及漢城，亦別都也。

¹⁰³. [宋史](#): 高麗，本曰高句麗。禹別九州，屬冀州之地，漢之玄菟郡也。在遼東，蓋扶餘之別種，以平壤城為國邑。隋煬帝再舉兵，唐太宗親駕伐之，皆不克。長興中，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封高麗國王。至王建，以平壤為西京。王居開州蜀莫郡，曰開成府. @. 以新羅為東州樂浪府，號

구주의 중심부 기주(冀州)에서 나타 났다. 만주에 자리 잡은 부여의 별종이, 평양에 수도를 정했다. 이곳을 수양제와 당태종 이 점령을 못하고, 당고종 때에 이적이 뿌리를 뽑았다. 그후 중원이 분란한 시절에 왕건이 현토군 도독이 되어 고려왕으로 책봉 되었다. 왕건의 손자 소(昭) 가 951 년 에 현토주 도독 고려국왕 (玄菟州都督 高麗國王) 이 되었다. 송나라 사신을 따라 왔던 서경 (徐兢, 1091-1153) 또한, [왕건이 현토군 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밝혔다. 고려는 삼경이 있다고 했다.

만주 원류고(滿洲源流考)에는 요사 내용을 인용하여 발해의 수도 였던 흘한주 (忽汗州)에 동단국을 두었다.¹⁰⁴ 발해를 점령하고 흘 한성(忽汗州, 忽汗城)을 빼앗아 그왕 대인선 (大諲譭, ? ~ 926 년)을 동단국 왕으로 책봉했다. 명나라가 원나라 역사(元史)를 편찬 했다. 그 내용에 [고구려를 침략 했던 수 양제와 당태종은 장수왕(王高璉)이 살던 고구려 수도를 점령하지 못했다] 고 기록 했다. 고구려 유민이 안승 (安勝; 安舜) 을 왕으로 모셨다는 한성이 옥리하 연안의 옛 백제 수도였다. 신라 문무왕 (文武王; 626-681)이 사찬수미산 (須彌山)을 보내 안승을 왕으로 봉했다. 문무왕 마지막 조에 신원을 알수 없는 수세란 사람을 한성주 총관 (漢城州 揔管 藪世)으로 했다, 그가 모반하여 주살 했다.¹⁰⁵

동천왕은 만주 땅에 전해 오던 북부여기(北扶餘古記), 단군기 (檀君記) 동명기(東明記) 등, 중원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고기를 알고 있었다.

東京。平壤為鎮州，號西京。西京最盛。總之，凡三京。@顧愔《新羅國記》一卷。@顧愔撰，原釋闕。@顧愔生卒年不詳。知与大诗人顾况为从兄弟关系，是苏州海盐县横山(今属浙江)人

¹⁰⁴. [欽定滿洲源流考](#):

遼史忽汗州故平壤城也號中京顯德府太祖攻渤海拔忽汗城俘其王大諲撰以為東丹王國 [遼史](#):

忽汗州:

中宗賜所都曰忽汗州，封渤海郡王。十有二世至彝震，僭號改元，擬建宮闕，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為遼東盛國。忽汗州即故平壤城也，號中京顯德府。

¹⁰⁵.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六](#):

倭國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為名。漢城州揔管藪世取百濟□□□□□國，適彼事覺，遣大阿滄真珠誅之。十二□□□□賁書所六□□□僮事同□異可□

국권을 되 찾은 동천왕은 졸본부여에 돌아와 추모왕이 수도로 정했던 곳을, 옛 적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의 수도에 붙였던 명칭을 따서, 평양이라 했다. 진수가 금조선(今朝鮮)이라고 숙신(肅愼)씨 마을에 붙인 이름이다.¹⁰⁶

요하 서쪽에서 태어난 유리명왕의 아들이 제 4대 민중왕(閔中王: 44년 ~ 48년)이다.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민중원(閔中原)에 이르러 석굴을 발견 하고 이곳에 자신을 장사 지낼 것을 명하였다. 민중원이 본계(本溪) 수동(水洞, 名隧穴)이다. 그곳 서낭당에 수신(木隧於神, totem pole)을 차려 놓고 치루던 개천절을 동맹(東盟)이라고 했다.

전국시대 말기에 천독국 도인 시라(道人尸羅)가 수래에 불상을 싣고 연나라 수도에 왔다.¹⁰⁷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시라(尸羅)와 음이 같은 시라성(斯羅城)이 있다. 삼국 초기 역사에 나타난 지명과 부족명을 보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이름이 많이 보인다. 재상 아란불(阿蘭弗)은 불교 신자 또는 승려 였다. 석가모니를 처음 목욕 시켰던 유하(油河)가 한국 상고사에 왕모유화(柳花)로 기록 되었다.¹⁰⁸ 유리(瑠璃明王), 또는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은 유리(glass, crystal) 같이 깨끗하고 맑은 왕이란 뜻이다.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년 ~ 371년)이 같은 북부여의 후예인 모용황과 백제에

¹⁰⁶. [三國志](#) 濊傳: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三國史記](#): 肅愼來侵, 屠害邊民氓. 王謂群臣曰王大悅, 拜封達賈為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¹⁰⁷. [太平廣記](#): 天毒國道人:

燕昭王七年, 沐骨之國來朝, 則申毒國之一名也. 有道術人名尸羅. 云. 發其國五年, 乃至燕都. 喜術惑之術. 於其指端, 出浮圖十層, 高三尺, 乃諸天神仙. 尸羅歎水為霧霧. 闇數里間. 俄而復吹為疾風, 霧霧皆止. 又吹指上浮圖, 漸入雲裏. 又於左耳出青龍, 右耳出白虎. 更張口. 則向見羽蓋螭鵠. 相隨從口中而出. 尸羅常坐日中 出《王子年拾遺記》

¹⁰⁸.

[大唐西域記](#): 傍有小河東南流. 土俗號曰油河. 是摩耶夫人產孕已. 天化此池光潤澄淨. 欲令夫人取以沐浴除去風虛. [三國遺事](#): 云我是河柏之女名柳花. 與諸弟出遊.

[三國史記](#):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扶餘王解夫妻老無子.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 葬之, 遂立神廟

수모를 당했다. 백제와 싸우다 평양성(平壤城)에서 전사 했다.¹⁰⁹ 고구려는 다시 산 너머 국내성으로 피해 갔다. 국내성에서 광개토 대왕이 태어났다. 중국 사람들은 이 일대에 단군설화와 관련된 환인(桓因)이란 이름을 붙였다.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승려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보냈다. 소수림왕(371-384) 2년에, 불상과 불경이 고구려에 전래되었다. 그후 374년에는 아도(阿道)가 불도를 전했다.

아도(阿道; 我道)란 나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불교를 전한 사람을 아도라 했다. 침류왕(枕流王, ? ~ 385년) 집권 시기에도 나타났다. 그 전에 신라에도 나타났다. 당시 호승 마라난타(胡僧摩羅難陀)가 옥리하(郁里河)로 알려진 대동강 하구, 백제 수도 한성(漢城)에 불교를 전했다.¹¹⁰

광개토대왕 이전에 남방불교가 발해만 일대에 전래되었다. 백제 침류왕(枕流王; 재위 384년-385년)의 어머니가 아이부인(阿爾夫人)이고, 신라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 재위 230~247)의 부인이 아이혜(阿爾兮)다. 모두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남방불교를 따라 올랐을 이름자다. 남조역사에 왜오왕이 다스렸다는 “任那加羅”와 같은 글자가 광개토대왕 비문에 실렸다.

2 절: 광개토 대왕의 생애: 대왕은 다물(多勿; 되 물려) 정신을 다해 옛 땅을 되 찾으려고

¹⁰⁹. [三國史記](#): 故國原王.

十三年春二月，王遣其弟，稱臣入朝於燕，貢珍異以千數。燕王●乃還其父尸，猶留其母為質，移居平壤東黃城。遣使如晉朝貢

四十一年，百濟王率帥兵三萬，來攻平壤城。王出師拒之，為流矢所中。薨。葬于故國之原。百濟蓋鹵王表魏曰：「梟斬劍首。」過辭也

¹¹⁰. [三國遺事](#):

按古典記云。東明王第三子溫祚。以前漢鴻佳三年癸酉。自卒本扶餘。至慰禮城。立都稱王。十四年丙辰。移都漢山 胡僧摩羅難陀至自晉。迎置宮中禮敬。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

四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曆. [三國史記](#):

金大問本新羅貴門子弟。聖德王三年，為漢山州都督，作傳記若干卷。其『高僧傳』、『花郎世記』、『樂本』、『漢山記』猶存。枕流王

秋七月，遣使入晉朝貢。九月，胡僧摩羅難陀自晉至，王迎之，致宮內，禮敬焉。佛法始於此

많은 전쟁을 하다 젊은 나이에 승하(昇遐)했다. 대왕의 격전지는 모두 요동 발해만 일대였다. 대왕의 사망 원인이 비문에 실렸다.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不迎王. 王于忽本東岡, 黃龍負升天

태자하를 끼고 있는 수도 평양 옆에 별도로 시조사당과 각종 병기를 보관 하던 곳에 황룡국에서 보낸 자객을 만나 치명상을 입고 같이 죽었다.

황룡국은 요하 건너 옛 우거왕이 살던 위만조선의 수도다. 유리명왕의 아들 해명(解明)이 인질로 잡혀 갔다 활을 꺾어 버려 힐책을 받고 자살 했던 곳이다. 그곳을 별도 의의(別都 宜矣) 라고 했다.¹¹¹ 의(儀.宜) 두자는 같은 뜻으로, 의성(宜城) 또는 의의(宜矣)란 문구는 나라를 잃은 백익(伯益)의 후손들이 정착 했던 수도에 붙여던 이름이다.¹¹²

광개토대왕 비문을 필자는 여러 차례 설명 했었다.¹¹³

흔히 “말 이을 이, 而”로 읽는 글자는 능할 능으로 풀이해야 옳다. 麒麟의 수염을 묘사한 상형글자라 했다. 수염이 자란 건장하고 능력이 있는 서쪽 에서 온 월지국 사람 호(胡:而, 鬣)을 묘사한 글자다.¹¹⁴

¹¹¹. [三國史記](#): 孝子之事親也 若文王之為世子. 解明在於別都, 以好勇聞, 其於得罪也, 宜矣

¹¹². [呂氏春秋](#)

[貴直論](#): 亡國之主, 不可以直言. 左右皆曰「鄉之死者宜矣。」 [康熙字典](#): 伯益能儀百物. 儀讀與宜同. 本作宜所安也. 宜, 隸作宜. 《襄陽耆舊記》曰: 宜城縣東北角, 有熨斗陂

¹¹³. [The Imna Gara\(任那加羅\) engraved in the Stele was in the China](#)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¹¹⁴. [說文解字](#) 而部: 而: 頰毛也. 象毛之形. 《周禮》曰: 「作其鱗之而。」凡而之屬皆從而.

今俗別作鬣, 非是. 《集韻》奴登切, 音能. 《釋文》鄭讀而曰能, 能猶安也. [다음사전](#): 而 말 이을 이, 편안할 능, 능히 능

문제의 “능왜이 신묘년 래(而倭以辛卯年來)란 문구는, 그 전의 전쟁에서 얻어온 왜인 포로 중에, 바다에서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才能, skill)이 있는 자들이 드디어 “신묘년(가을)에 대왕의 군영에 와서 (來)” 이들을 사공으로 사용(以)하여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고구려 군사가 바다를 건너 (발해만 동남쪽 요동 반도 끝에 이르러 백제가 가장 중요시 하던 통상로에 있는 높은 나무가 없는 대머리 산, 독산(禿山; 성 사면이 바다로 싸인) 성을 함락 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대왕 원년 겨울 10 월에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쳐서 함락 시켰다. 그 성은 사방이 험준하고 바닷물에 둘러 싸여서 왕은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공격 한지 20 일 만에야 함락 시켰다.¹¹⁵

대왕의 비문에 실린 지명은 모두 사기 조선 열전과 한서 지리지 낭랑군, 요동군 일대에 있던 지명이다. 인용한 비문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의무여산을 지나 (갈석산?) 산을 뒤로(負山) 하고 염수의 북쪽(鹽田上; Salt farm)에 이르러 그 지역에 있던 3 부락 6~7 백 진영(當營)을 파하고 소, 말, 양떼를 많이 노획해 왔다. 그곳에서 돌아 오면서 양평으로 가는 길 (襄平道)을 따라 올라와 역성, 북풍에 이르러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을 하며 (요하 동쪽으로) 돌아왔다. 백잔과 신라가 옛적 같이 속민(結和)이 되어 조공을 바쳐왔다. 도망가는 왜를 추격하여 임나가라 (任那加羅)에 이르러 종발성(從拔城; 敦拔城) 하니, 성은 즉각 항복하여 신라(新羅)인으로 지키게 했다.¹¹⁶ 발성은 고구려 왕자 발기 (拔奇가 살던 성(城) 이다.

평양성(平穰城)과 미추성국(彌鄒城國)이 같은 활당을 받아 묘지를 관리 했다. 당시 여러 소읍국가 (xx 國)가 있었다. 이름자에는 “나라 (那羅) 산나성(散那城)등” 햇빛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란 뜻이다.¹¹⁷

¹¹⁵. [三國史記](#)

廣開土王，諱談德，故國壤王之子。生而雄偉，有箇●之志。故國壤王三年，立為太子。王薨，太子卽位。南伐百濟。攻陷百濟關彌城。其城四面●絕，海水環繞，王分軍七道，攻擊二十日，乃拔。

¹¹⁶. <http://www.ancienthistoryofkorea.com/>대륙백제 중시조 고환 (高歡)의 혈통- 2: 陳留高氏:

¹¹⁷.

[水經注](#):那：何也，都也，於也，盡也，詩云受福不那那多也《說文》西夷國安定有朝那縣。《玉篇》

후에 발기(拔奇)가 강남으로 가서 손책과 친하여 남경 주위에 정착 했었다. 발기가 살던 곳이라 하여 거발성(居拔城)이라 했다. 그 성을 양나라 때에 후경(侯景, ? -552 년)이 점령 했다. 그때 그 곳에 남방불교가 번성 했다.

남북의 언어가 달라 기록이 분분 하다. 고조선의 부족 한예가 해하 상류 호타하 유역(韓穢沙水城國. 靑古城國)에 살았다.¹¹⁸ 고조선 사람들이 “爹; 아버지 다”라 부르던 사음자를 북방인과 남쪽 강(羌)족의 언어라 했다.

북송(北宋) 시대에 편찬된 백화사전격의 4 대서(四大書)로 알려진 태평광기(太平廣記), 태평어람(太平御覽), 책부원귀(冊府元龜), 문원영화 (文苑英華)가 있다. 문원영화 (文苑英華)에는 해외 여러 나라에 관한 사연이 실려 있다. 표국(驃國)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오늘의 태국(Siam) 이라 했다. 그로 부터 해안을 따라 남방불교 가 전래 되던 사실이 적혀 있다. 진덕왕과 진평왕의 관계도 실렸다.¹¹⁹ 또한 장보고 (新羅人張保臯)와 정년 (鄭年)에 관해 자세히 읊었다. 흑치상치와 사다함(斯多唵, 풍월주 재임: 562 년 ~ 564 년)이란 글자도 있다. 책부원귀 에는 강남서 (江南書云) 내용을 인용하여 송나라 황제와 강남국 주의 대화에서 용사다식(用斯多食) 폐사다 (弊斯多)하는 글귀가 실렸다.¹²⁰ 토번 랑 사다 (吐蕃浪斯多)란 문구도 있다. 사다(斯多)란 글자는 고조선의 후예를 *똥은 말썽 꾸러기* 라는 뜻으로 기록 했다. 지나(支那)라고 부르던 강남 넓은 지역에 있던 신라 사람이 한반도에 올라와 위용을 떨친 사람이 사다함이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영호징(令狐澄)이 신라기(新羅記) 와 신라국기 (新羅國記) 를 남겼다고 했다. 그러나 송사(宋史)에는 삼국사기에 실리지 않은 고음(顧愷)이 신라국기

何也。又多也。《詩·小雅》受福不那。又《集韻》安貌。《詩·小雅》有那其居。《玉篇》俗言那事。後漢·韓康傳》公是韓伯休那。《說文》本作那。廣韻：爹：羌人呼父也。北方人呼父

¹¹⁸. [水經注](#) 汝水：水出魯陽縣北將孤山北長岡下，東歷永仁三堆南，又東逕沙川，世謂之沙水

¹¹⁹. [文苑英華](#):新羅王真德永徽五年合從本傳作元年新羅 王真德即新羅王金真平女也平卒無子女乃嗣立為王. [廣韻](#) 哿 爹:北方人呼父. 沱：滯沱沙水往來兒. 爹：羌人呼父也. 說文爹，善父也.

¹²⁰. [冊府元龜](#): 江南書云：皇帝恭問江南國主劉承 用斯多食. 弊斯多一昨再辱使

(新羅國記)를 남겼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와 신라가 해상권을 장악한 기록도 있다.¹²¹ 신라에서 제일 가는 귀족이 김가(金哥), 선조 이름을 방이(旁佗)라 했다. 그들이 나침판을 달고 행해를 했다.¹²² 당(唐)나라의 단성식(段成式)이 남겼다는 유양잡조(酉陽雜俎)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 방이(其遠祖名旁·)의 글자를 감추었다.¹²³ 유양(酉陽)이란, 당나라 세력이 미치지 않았던 방대한 남쪽 지역이다. 지나(支那)라고 부르던 강남지역에는 객가(客家)가 많았다. 북쪽에서 내려온 삼한 사람들이 살던 자그만 성을 객가라고 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해상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당나라 언어로 의사 소통을 했다. 신라의 특산물로 공작과 해무(孔雀, 解舞)를 바쳤다. 왜국인(倭國人) 한지화(韓志和)를 중국이 비룡위사(飛龍衛士)로 썼다. 그가 나침판을 개발한 해비(解飛)다. 고음(顧愔)의 신라국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렸다고 본다.

3 절: 신라의 수도 이전: 신라는 나라를 잃은 조선 사람들이 여섯 마을에 흐터져 살던 곳에서 나타났다. 후에 김씨의 시조로 모시는 김알지가 금성(金城) 서쪽, 닭이 우는 숲속에서 태어났다 하여 계림(雞林)이라 했다. 삼국유사에 실린 평괴성(平壤城)은 풀이를 못하고, 서울이란 뜻이 있는 의의(宜矣)란 글자를 [건의 또는 상의 했다]는

121 .

宋史:賈人由海道往外蕃，令以物貨名數並所詣之地，報所在州召保，毋得參帶兵器或可造兵器及違禁之物，官給以券。擅乘船由海入界河及往高麗、新羅、登萊州境者，罪以徒，往北界者加等。顧愔《新羅國記》一卷

¹²². **太平廣記** 新羅: 東南與日本隣。東與長人國接。常使弓弩數千守之，由是不過，新羅國有第一貴明鈔本「貴」作「國」。族金哥。其遠祖名旁佗。其兄旁佗。新羅國獻孔雀，解舞。新羅國有人於江淮。其畫佛像真仙人物子女，皆神也。唯鞍馬鳥獸，竹石草木。@。韓志和者，本倭國人也，中國為飛龍衛士。善雕木為鸞鶴鳥鵲之形。唐韓幹，京兆人也。其後果能狀飛龍之質，盡噴玉之奇。

¹²³. **酉陽雜俎:** 新羅國有第一貴族金哥。其遠祖名旁·，有弟一人，甚有家財。其兄旁·因分居。南人相傳，秦漢前有洞主吳氏，土人呼為吳洞。有女名葉限，少惠，善陶一作鈎金，父愛之。未歲父卒，為後母所苦，常令樵險汲深。 **舊唐書:**前地理書以黔州屬酉陽，今則改入巴郡

뜻으로 풀이 했다.¹²⁴

당서와 만주원류고 에는 백낙천(白居易 樂天, 772 년 ~ 846 년) 의 시문을 인용하여 만주 길림(吉林)은 신라의 별명 계림에서 유래된 이름이라 했다. 금나라의 시조 함보가 신라 사람이란 기록이 있다.¹²⁵

광동성 계림(桂林) 또한 지나(支那) 영역에 살던 신라의 별명 계림(鷄林; 雞林) 과 관련이 있다.¹²⁶ 십육국시대 하북 지역에서 활거 하던 모용수 (慕容垂; 326~396) 가 모용진(慕容鎭)을 계림왕(桂林王)에 봉했었다.¹²⁷ 선비족 모용씨는 부여의 후손이다. 고구려사람 고운이 모용운이 되었다.

¹²⁴. [三國遺事](#): 樂浪即平壤城。宜矣。或云樂浪中頭山下靺鞨之界。皆稱某王。不言居西乾等。豈以其言鄙野不足稱之也。今記新羅事。具存方言亦宜矣。羅人凡追封者稱葛文王。[說苑](#) 脩文宜矣，夫子之言也！」

¹²⁵. [欽定滿洲源流考](#):

新羅一作斯盧一作新盧雞林附。其妄也若夫三韓命名第列辰韓馬韓弁韓，而不詳其義意當時三國必有三汗，各統其一，史家不知汗為君長之稱，遂以音同誤譯，而庸鄙者甚至訛韓為族姓，若唐時所稱雞林，應即今吉林之訛，而新羅百濟諸國亦皆其附近之地。

按遼宋以後每以雞林稱高麗金元時亦以雞林郡公為高麗封號蓋新羅嗣王既世襲都督雞林遂為新羅之通稱迨渤海盛而新羅偏安南境又為高麗所併故高麗亦襲是稱號雖地非其舊而名仍沿之耳興光本名與太宗同先天中則天改焉而。

[舊唐書](#): 白居易傳居易最工詩當時士人爭傳雞林行賈售其國相率篇易一金其偽者相輒能辨之案雞林即今吉林詳前疆域門

¹²⁶.

[大越史記全書](#): 置桂林今廣西明貴縣是也、南海即今廣東、象郡即安南，以任囂為南海尉，趙佗為龍川令龍川，南海屬縣，領謫徒兵五十萬人戍五嶺。蒼梧唐曰益州，古甌貉，我越之地、鬱林桂林郡，漢武更名、合浦秦象郡，廉州之屬郡、交趾、九真、日南秦象郡、珠崖、儋耳並在大海中九郡。自是漢始置刺史、太守。初，帝之先世閩人或曰桂林人有名京者，來居天長即墨鄉

¹²⁷. [晉書](#): 鬱林郡秦置桂林郡，武帝更名。

[晉書](#)慕容垂: 垂潛遣其桂林王慕容鎭、驃騎慕容國於黎陽津夜濟，壁于河南。[通典](#): 十六國前燕將慕容垂討丁零翟釗於滑臺，次於黎陽津

垂潛遣其桂林王慕容鎭、驃騎慕容國於黎陽津夜濟，壁於河南。桂林、南越之地

의의(宜矣)란 뜻: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피란을 와서 신라가 성장했다. 왕이란 칭호를 쓰기 전, 내물 마립간(奈勿 麻立干, 재위: 356년 ~ 402년) 때 부터 눌지 마립간(訥祗 麻立干, 재위 417년 ~ 458년) 을 거쳐 지증왕(智證王, 437?~514년)이 어린 시절인 478년 경에 수도를 옮겼다. 삼국사기에는 그당시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의의(宜矣)란 글자를 썼다. 고구려 해명왕자, 의의(宜矣)라고도 했다. 건의 또는 상의란 뜻으로 썼다.¹²⁸ 의의란 글자는 전국시대 문헌에 실렸지만 풀이가 혼미 하다.

강희자전에는 제사왈 의(祭社曰宜)라 했다. 토신에 제사를 지내던 곳, 서울을 뜻한 글자다. 한서지리지 내용을 인용하여 [마땅할 의(宜)와 거동 의(儀)는 같은 뜻이다. 옛적 백월 땅(古百越地)에 속했던 월주(粵州)를 의주(改宜州)로 바꾸었다]고 했다. 그곳은 백익의 후손들이 살던 풍요로운 곳이라 백익 능의백물(伯益 能儀百物)이라 했다. 남사(南史)에는 신라는 수도를 건모라(健牟羅)라 하고, 후경이 점령한 곳을 의의(宜矣)라 했다. 통전과 태평어람에서 이를 인용 했다.¹²⁹ 신라가 남쪽 지나(支那) 땅에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은밀하게 기록 했다.¹³⁰ 책부원구에는 글자가 비슷한 탐모라(耽牟羅)로 바꾸어 수서에 나오는 오늘의 대만섬(躡牟羅)을 뜻했다.

법흥왕립(法興王立)이란 글자에 사연이 있다. 한반도에 정착한 신라에 [불교가 왕성

¹²⁸. [三國史記](#):奈勿王之曾孫, 王薨, 諡曰智證。新羅諡法始於此。

法興王立。諱原宗, 今記新羅事, 其存方言, 亦宜矣。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為國號, 宜矣。@ 解明在於別都, 以好勇聞, 其於得罪也, 宜矣。

¹²⁹. [南史](#):

新羅, 其先事詳北史。《註》祭社曰宜。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國有六啄評、五十二邑勒。其拜及行與高麗相類。無文字, 刻木為信。語言待百濟而後通焉。

處以危邦, 死其宜矣. [冊府元龜](#):

梁高祖普通二年新羅王募秦始遣使隨百濟奉獻其俗呼城曰: 健矣。羅其邑在內曰, 啄評在外曰, 邑勒亦中國之言郡縣也。語言待百濟覆通。觀屈原離騷之作自是狂人死其宜矣

¹³⁰.

[康熙字典](#):《註》祭社曰宜。冢土, 社也:《傳》宜者, 和順之意《前漢·地理志》伯益能儀百物。儀讀與宜同。庸置粵州, 改宜州. [冊府元龜](#):

梁高祖普通二年新羅王募秦始遣使隨百濟奉獻其俗呼城曰: 健矣。羅其邑在內曰, 啄評在外曰, 邑勒亦中國之言郡縣也。語言待百濟覆通。觀屈原離騷之作自是狂人死其宜矣

했다하여 국가의 기반(諱原宗)을 닦았다]는 뜻이 있다. 신라가 가라연맹을 합병하고 영토를 확장하던 시절에 중원 세력이 처음으로 한반도 남해안을 거쳐 유구까지 이르렀다. 수서에는 가라국은 없다. 백제와 신라의 지역이 얽히고 설켜 지역도를 그릴수가 없다고 했다.¹³¹

남조 역사서에 부여(夫餘)씨 왜오왕이 나타 났다. 앞서[금미달에서 떠난 사람들이 남중국 해안 4000 여리에 걸쳐 신미제국(新彌諸國) 20 여국을 이루고 살았다]는 지역이다.¹³² 그들이 동남아 해안을 따라 천축국에 까지 이르렀다. 개로왕(蓋鹵王)은 바다 건너 북위 와, 한반도에 이사 오고 있던, 신라에 구원병을 청했다. 그러나 구원병이 도착 하기 전 475 년에 성은 함락 되었다.¹³³ 백제 한성이 점령 당한 이후 백제와 가라국(加羅國)왕 하지의 사신이 남제에 갔다 479 년에 돌아 왔다. 같은 책, 같은 해에, 같은 남제의 지도자가, “新羅·任那·加羅·秦韓” 등 6 국 을 부여씨 왜오왕에게 통치 하라고 했다.¹³⁴ 가라국(加羅國)이 같은 사건 479 년 기록에 두번 나온다. 하지왕의 가라국은 왜왕의 통치 영역이 될수 없다. 한반도에서 도사마국(都斯麻國)을 지나 왜에 갔다. 구지봉이 있는 하지왕(國王荷知)의 수도였다. 그곳을 수나라 이전에 신라가 흡수 했다.

4 절: 신라의 골품제도: 김씨 왕으로는 미추이사금(味鄒泥師今, 재위: 261 년 ~ 284 년)이

¹³¹. [隋書](#): 新羅國, 或稱斯羅。大業以來, 歲遣朝貢。新羅地多山險, 雖與百濟構隙, 百濟亦不能圖之

¹³². [晉書](#) 列傳第六 衛瓘 張華 劉卞:

撫納新舊, 戎夏懷之。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並遣使朝獻。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 頻歲豐稔, 士馬彊盛。 [冊府元龜](#): 晉張華為都督幽州諸軍事 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撫納新舊戎夏懷之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去州四千餘里歷世未附者二十餘國並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四境無虞頻歲豐稔士馬強盛

¹³³. [三國史記](#):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為之形也。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¹³⁴. [南齊書](#):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建元元年, 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為鎮東大將軍。 Ancient history of Korea. Second Ed. P 150

처음이다. 그가 김알지의 6 대손이라 한다. 김가의 수도라 하여 금성 (金城)이란 이름이 나타났다. 금성을 14 대 유례 이사금 (儒禮尼師今; 284 년 ~ 298 년) 14 년에 정체불명의 이서국이 친입했다. 그때 김씨 왕조가 시작 되고 운제부인(雲帝夫人), 갈문왕 (葛文王), 월성 (月城) 이라는 수도가 나타났다. 백제에도 월성이 있었다.¹³⁵ 월성이란 불교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지존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동남아 해상로가 열려 남쪽 지나 영역에 있던 신라와 교류가 활발 하여 한반도 신라 왕실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양쪽 부모가 모두 왕의 자손일 경우에 성골(聖骨)이라는 골품제가 나타났다. 첫 여왕 선덕여왕 (善德女王 德曼, ? ~ 647 년)이 성골이다. 진평왕(真平王)과 마야 부인(摩耶夫人)이 선덕왕 덕만의 부모다. 마야부인(摩耶夫人)의 혈통은 불명이나,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다.¹³⁶ 마야부인과 사다함 (斯多含)은 선조 이름을 방이 (旁奄)라 했던 대륙 신라의 김가다. 방이 설화가 전해 온다. 그당시에 세웠다는 삼랑사 (三郎寺) 는 장소가 불명 하다.

여진족(金朝)이 만든 해편 (海篇)에는 삼랑을 산동 반도에 있던 비석 이름 (碑名) 이라 했다. 남쪽 사람들은 석삼 자를 털모 자와 비슷한 상형자로 “蠻人呼參爲毛” 기록 했다. 고조선이래 전해 오던 삼랑신 (毛郎神), 즉 환웅과 같이 내려온 풍백 우사 운사 (風伯雨師雲師) 세 지도자 를 모신 사원이 삼랑사다.¹³⁷ 최치원 (崔致遠)이 남긴 난랑비서 (鸞郎碑序) 에 지도층의 언행 지침이 되는 풍류도 (風流徒)의 내용이 실렸다.

5. 절: 백제 왕제천 급 오제지신 (王祭天及 五帝之神): 중국문헌을 살펴 보면 신라와 백제 가야는 모두 한해 동서 연안에 있었다. 동이 강국이었던 백제 는 황해 (黃海, 翰海) 의 동서 두 곳에 수도를 두고 해양권을 장악 했었다. 백제의 부용국 이었던 가야의 수도는

¹³⁵ . [三國遺事](#):伊西國人來攻金城按雲門寺古傳諸寺納田記云. 金氏始立父仇道葛文王. [三國史記](#): 儒禮尼師今十四年 伊西古國來攻金城, 我大舉兵防禦, 不能攘。忽有異兵來, 其數不可勝紀。人皆珥竹葉。

¹³⁶ . [三國史記](#): 真平王立。諱白淨, 真興王太子銅輪之子也。母金氏萬呼一云萬內。夫人, 葛文王立宗之女。妃金氏摩耶夫人, 葛文王福勝之女。王生有奇相, 身體長大, 志識沉毅明達。

¹³⁷ . [강희자전](#):《海篇》毛郎, 碑名。毛郎神, 本三郎神也。蠻人呼參爲毛, 轉聲爲三。又毛陽鎮, 在沂州費縣。又村名。行唐西有毛趙村。

우륵이 남긴 상하 가라도 (加羅都) 라는 기록을 보아 한반도 남쪽 두곳에 있었다. 하지왕의 가라(加羅) 와 같은 글자다. 개로왕이 대동강 하구에 있던 옛 수도 한성을 빼앗겼다. 한반도에 있던 부여씨가 왜 (倭)에 총통 (大率檢察) 으로 보냈던 개로왕의 동생이 돌아와 혼란에 빠진 백제 지도층 을 수습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¹³⁸ 개로왕의 조카가 일본에서 태어난 동성왕 (東城王,? ~ 501 년) 이 한해의 해상권을 다시 회복 했다.

백제는 전성기에 22 곳 담노 (擔魯)라는 큰 마을에 부여씨의 자손을 봉했다. 담로를 때로는 수도로 사용 했다. 중원을 다시 통합한 수서에는 백제 왕제천 급 오제지신 (王祭天及 五帝之神)이라 했다. 삼국사기 또한 책부원귀(冊府元龜) 를 인용하여 같은 문구를 남겼다. 삼국에서 백제왕 만이 전통적인 중원 황제의 역할을 했다는 표현이다. 삼국유사에 “백제 전성기 에는 아침 저녁 실새 없이 세 봉우리 를 날아 다녀 비상왕래 (飛相往來)라”고 표현 했다.¹³⁹ 강남, 한반도, 일본 열도 세 곳에 백제의 성도 (盛都) 가 있었다는 뜻이다. 광운에 부여(夫餘)씨의 발원지라 한 곳이 거발성 (居拔城) 이다.¹⁴⁰ 발해고(高) 씨가 강북 업 (鄴)에 북제(北齊: 550 ~ 577 년) 를 세웠다. 백제는 동성왕 무녕왕 성왕 때에 한해의 동서 두 곳에 수도를 두고 남방 에서 들어온 불교를 받아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 었다.¹⁴¹ 그 시절에 열도 부여에는 [새가 난다는 뜻의 비조 시대

¹³⁸. [三國志](#) 倭人傳:

使大倭監之。自女王國以北，特置一大率檢察，諸國畏憚之。常治伊都國，於國中有如刺史。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왜인전\(倭人傳\)의 새로운 고찰-3: 대화국\(大和國\)의 기원: Etymology of Yamatonokuni \(大和國\).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¹³⁹.

[三國遺事](#):因名龍岳又郡中有三山。曰日山吳山浮山。國家全盛之時。各有神人居其上。飛相往來。朝夕不絕又泗泚崖又有一石。可坐十餘人。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所居北龜旨是峰巒之稱若十朋伏之狀故云也有殊常聲氣呼喚。眾庶二三百人集會於此。有如人音。隱其形而發其音曰。此有人否。九乾等云。吾徒在。又曰。吾所在為何。對云龜旨也。

¹⁴⁰. [廣韻](#) 魚:餘:今吳郡有之風俗通云吳公子夫概奔楚其子在國以夫餘爲氏今百濟王夫餘氏也

¹⁴¹. [冊府元龜](#):

治固麻城其外更有五方中方曰：古沙第且翦愚汕諸嵌方曰：得安城南方曰：久知下城西方曰：刀先城北方曰：熊津城以子弟宗族分據之。又云：其都曰：居枝城國南海行三月有眈牟羅國南北千

(飛鳥時代) 가 나라 (奈良, 那羅)에 수도]를 두고 나타났다. 전성기에 있었던 22 담노 (擔魯) 중에 알려 지지 않은 담로는 동남아에 있었다.

III 장:원시불교의 발생과 전래:

현장의 서역기에는 옛적에 전해오던 명사를 당나라 초기 어음으로 설명 했다.¹⁴² 그후에 나타난 각종 불교기록에 쓰인 글자를 종합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원시불교의 발생지와 분포 및 전래를 알수있다.

1 절: 글자 속에 사실이 있다: 저자 불명의 노자서승경(老子西昇經)이 둔황(敦煌)에서 나타났다. 서승이란 글자는 노자가 도덕경을 갖고 서쪽으로 올라 갔다는 뜻이다. 초나라 역사서 도올(橈杻)과 같은 뜻으로 노자는 차마고도를 따라 올라 갔다.

1 항: 불교가 나타난 곳:장건(張騫)이 서역을 여행하는 도중에 대나무와 죽장 촉포(竹杖, 蜀布)를 보았다. ¹⁴³ 그전 부터 서촉지역과 인도는 교류가 있었다. 초기에는 스님을 부도(浮屠)라 했다. 떠돌이 백정이란 뜻이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 합당하지 못한 글자다. 단군왕검을 잃은 사람들을 묘사한 시문이 시경 종사(蠡斯) 부유(蜉蝣)다. 이와 관계가 있는 글자다.

석가모니칭호의 꼬깔 모(牟)자는 “소가 우는 소리, 馬/牟;móu mù mào 의 상형자”다. 그가 유목민의 후예란 뜻이 있다. 출생지가 람비니원(嵐毘尼園), 부친이 설두야 (屑頭耶),

餘里東西數百里土多獐鹿附庸於百濟百濟自西行二日至貊國西南島居者十五所皆有城邑。南齊太宗建元元年七月祭五帝之神於明堂有功德之君配明堂制有五室從尚書僕射王儉議也

¹⁴². [大唐西域記](#):

則可無大過矣。始可與言譯也。李老曰。美言者則不信。信言者則不美。韓子曰。理正者直其言。言飾者昧其理。是知垂訓範。物義本玄同。庶祛蒙滯。昇-climb up

¹⁴³. [史記大宛列傳](#):

騫曰：「臣在大夏時，見邛竹杖、蜀布。問曰：『安得此？』大夏國人曰：『吾賈人往市之身毒。身毒在大夏東南可數千里。其人民乘象以戰。其國臨大水焉。』」

생모를 마야(摩耶, maya)라고 한다.¹⁴⁴ 어머니가 일찍 죽어 이모(姨母)가 길렀다. 산들바람이 부는 골짜기에 살던 빛을 숭상하는 유목민의 외손(外孫)이다.¹⁴⁵ 석가모니의 모계(婆) 언어가 불교 공요어 팔리(婆羅門僧, 佛陀波利 Pali language)어가 되었다.

부다가 탄생한 지역에 흐르는 여울을 유하(油河)라 했다. 갠지스강 (Ganges River)의 한 지류다. 그 물가에서 애기를 목욕 시켰다. 기독교에서 이르는 세례 성사(洗禮聖事, baptism)의 기원이다. 같은 어음이 하백의 딸 유화(柳花)로 북부여의 건국 신화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타난다.¹⁴⁶ 출처를 고기운(古記云), 또는 단군기(檀君記云)라고 했다. 흥산 문화 권에 전해오던 예기가 불교 발생지에 전해졌다는 증거다.

2 향:가라(加羅)의 어원: 여러글자로 표기된 가라는 향나무를 태워 기도를 드리던 타가라(Tagara;多伽羅)의 사음자다.¹⁴⁷ 석가모니가 생불이 되어 육신으로 나타난 기특(奇特)한 곳, 즉 성스러운 곳을 승가라(僧伽羅)라고 했다.¹⁴⁸ 사자(獅子, 嗣子)상을 세워 놓은

¹⁴⁴ [三國志](#)倭人傳:

臨兒國，浮屠經云其國王生浮屠。浮屠，太子也。父曰屑頭邪，母云莫邪。[大唐西域記](#):土俗號曰油河。是摩耶夫人產孕已。其母摩耶自天宮降於此處。世尊隨機示教利喜。

¹⁴⁵ Pali-English Dictionary: māyā: [f.] fraud; deceit; magic; jugglery.

¹⁴⁶ [三國史記](#):

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問之曰：「我是河伯之女，名柳花。古記云：「東明王十四年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太后禮葬之 遂立神廟。[三國遺事](#):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知之而往不返壇君記云。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壇君記云產子名曰夫妻。

¹⁴⁷ [User dictionary](#): Tagara, 多伽羅之略, 香木名. 伽羅陀:菩薩之位名。譯曰度邊地。

入伽羅陀者, 此云度邊地也. [太平御覽](#)

獅子: 獅子國, 東晉時通焉, 天竺旁國也. 宋文帝元嘉五年, 其王剌利摩訶南遣使貢獻. 梁武帝大通元年, 后王迦葉伽羅訶犁耶亦使使貢獻

¹⁴⁸

[大唐西域記](#):僧伽羅國。古之師子國。又曰無憂國。即南印度。其地多奇寶。又名曰寶渚。昔釋迦牟尼佛化身名僧伽羅。會場西北渡河至阿奢理貳伽藍唐言奇特庭宇顯敞佛像工飾。[User](#)

섬나라 옛 사자국 (古之師子國) 을 스님이 다스려 승가라국 이라 했다. 남방불교가 발해만 연안에 이르러 스님에게 맡겨 다스리던 나라가 임나가라(任那加羅)다.¹⁴⁹ 후한 위진시대에 걸쳐 발해만 서남쪽에 임성(任城)이 있었다. 성을 맡겼다는 뜻이다.. 도덕경의 무위(無爲) 사상을 지키는 나라라 사자국 (古之師子國) 을 무위국 (無憂國)이라고 했다. 무우왕(無憂王)이 다스렸다.

3 항:인도(印度)의 어원: 황로 사상이 차마고도를 통해 인도 동북쪽 산악 지대 전래 되었다. 서로를 존경하여 현지인 (婆羅門 Brahmanas)들은 동쪽 운남성 에서 오라온 사람들이 살던 곳을 수지(隨地)라 했다. 이곳을 위키 피디아 에서는 네팔의 옛 고을 신자촌(信仰村.Sinja 信者 Valley)이라고 했다.¹⁵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시/Sa (斯)라고 했다. 시경과 수경주에 많이 나오는 고조선 후예 를 뜻한 글자다. 고구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수산곡 (隨山谷)이라고 했다. 장승(totem pole)을 세워 놓은 지역 이란 뜻이다.¹⁵¹ 노자가 올라간 수지, 신자촌에도 장승이 남아 있다. 처음으로 솔도파 (率堵波, 率都婆; Stupa)가 설치 되었다.¹⁵² 환두 (謹兜 驩兜) 가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곳을 상징한 건문이

dictionary:僧伽藍摩 Samghārāma 之略，譯曰眾園。為僧眾所住之園庭，寺院之通稱也。見僧伽藍摩條

¹⁴⁹ [太平廣記 幻術一](#)

天毒國道人:燕昭王七年，沐骨之國來朝，則申毒國之一名也。有道術人名尸羅。發其國五年，乃至燕都。喜術惑之術。於其指端，出浮圖十層，乃諸天神仙。尸羅歎水為霧霧。又吹指上浮圖，漸入雲裏。更張口。則向見羽蓋螭鵠。相隨從口中而出。尸羅常坐日中，漸漸覺其形小，或化為老叟，或變為嬰兒，倏忽而死，如向之形。神怪無窮。出《王子年拾遺記》

¹⁵⁰. https://en.wikipedia.org/wiki/Nepal/Medieval_Nepal:_Sinja_Valley.

¹⁵¹. [三國志 高句麗傳](#),

都於丸都之下。多大山深谷，無原澤。隨山谷以為居，食澗水。無良田，雖力佃作，不足以實口腹。其俗節食，好治宮室，於所居之左右立大屋，祭鬼神，又祠靈星、社稷。

¹⁵².[大唐西域記](#):

印度之人隨地稱國。殊方異俗遙舉總名。語其所美謂之印度。印度者。唐言月。月有多名。斯其一稱。言諸群生輪回不息。無明長夜莫有司晨. 사기에 身毒國 후한서에 天竺國

도술 (兜率; 彌勒天) 이다.¹⁵³

수지 사람들은 새로 정착한 곳을 천부(天符)인 (印)이 도착 한 (度; reach to. deliver to) 곳이란 좋은 뜻으로 인도라고 했다. 선비족 우문씨의 우문 (宇文) 이란 글자는 위(하늘로) 부터, 글자(天符印) 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비족 탁발부는 아사달에 살던 집안 이란 뜻이다.¹⁵⁴ 그 곳에서 발해만 으로 내려와 정착 했던 신라 여섯 마을을 모모 댁[xx 宅 family clan] 이라 했다. 당나라 현장이 인도를 방문한 때에도 천부경이 아사달에 있었다.

인도 지도자 에게는 수지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세로왔다 하여 무위지교 미신 (無為之教彌新) 이라 했다. 도가 경전에는 모두 무위지익 (無為之益) 이라 한다.¹⁵⁵ 사마상여는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을 대표한 가상 인물을 무시공 (無是公) 이라 했다. 또 무시인 명 천자지의 (無是人也, 明天子之義) 라 했다. 한서에는 현명한 천자가 죽었다 하여 망시공 (亡是公) 이라 했다.¹⁵⁶ 무위지교란 [왕공대인 (王公大人) 의 가르침이란 뜻]이다.¹⁵⁷

¹⁵³. [史記](#) 五帝本紀: 謹兜曰: 「共工旁聚布功, 可用。」堯曰: 「共工善言, 其用僻。」
[莊子](#)在宥:堯於是放謹兜於崇山, 投三苗於三峽, 流共工於幽都, 此不勝天下也夫

¹⁵⁴. <https://www.ancienthistoryofkorea.com/family-names-of-xian-bei-tribes/>

¹⁵⁵. [馬王堆](#) 老子甲:

天下之至柔, □騁於天下之致堅。無有入於無間, 五是以知無為□□益也。不□□教, 無為之益。
[道家](#)

道德經: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無有入無間, 吾是以知無為之有益。不言之教, 無為之益, 天下希及之

¹⁵⁶. [史記](#) 司馬相如列傳:

相如以「子虛」, 虛言也, 為楚稱; 「烏有先生」者, 烏有此事也, 為齊難; 「無是公」者, 無是人也, 明天子之義。[漢書](#): 「亡是公」者, 亡是人也, 欲明天子之義。

¹⁵⁷. [왕공대인\(王公大人\)의 뜻: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墨子](#):

子墨子言曰: 「古者王公大人為政於國家者, [孔子家語](#):德如泉流, 至于今, 王公大人述而弗忘。[漢書](#):司馬遷稱「春秋推見至隱,易本隱以之顯,大雅言王公大人,而德逮黎庶,小雅譏小己之得失,其流及上。」

4 항: 대루탄경(大樓炭經): *술으로 낙서를 한 큰 사원에 얽힌 사연을 모집한 책*이란 뜻이다. 아사달에 전해 오던 태고적 역사와 어음이 대루탄경 에 실려 있다. 아사달에서 싸운던 장면에 종교관을 더해서 은유적 으로 기록 했다. 그에 실린 석제환인(釋提桓因)이란 문구는 제석 (帝釋)이 환인 을 만나 지존 (至尊)의 자리를 놓고 단판을 해보자는 뜻이 있다. 이를 불가 (일연 스님)에서는 환인 위제석 (桓因謂帝釋)이라 했다.

급총죽간에 나타난 왕중왕이 된 [백익이 개를 제후 (乾啟)로 임명 하니, 개가 백익을 죽였다] 는 사실을 양서의 저자가 인용 했다.¹⁵⁸ 후경 (侯景: 503-552 년)이 거발성을 점령하고,북제가 나타난 전환기를 석이에란하 (昔夷羿亂夏), 견용액주 (犬戎厄周) 라, 즉 [옛적에 왕검 조선의 주민 들이 우왕의 아들 개가 세운 하나라와 싸웠고, 서주를 괴롭 혀다]는 사실에 비유 했다. 백익 살해 사건은 산해경을 비롯한 선진 문헌 여러 곳에 실렸다.¹⁵⁹

5 항: 불교 문양(佛敎 Logo)에는 삼태극 문양이 있다: 천부경을 받은 고조선 사람들이 연산역(連山易)을 남겼다.¹⁶⁰ 단군설화에 나오는 세 보좌관 “風伯 雨師 雲師”이 삼랑신 (三郎神; 毛郎神)이다. 셋이란 뜻을 삼“三 參”로 기록 했다. 삼을 털모자와 비슷한 글자“參爲毛”라 했다. 이에 약초란 뜻에 풀의 뜻을 붙여 산삼(山蔘)이란 이름자가 나타났다. 밝은 햇살이 비춘 세 산봉우리가 있던 발해(勃海)에서 산삼이 났다. 숨겨 놓았던 발조선 땅에 장도 (銀粧刀)를 지닌 세 유목민 남자 삼랑(毛郎)이 살았다는 뜻이다.

¹⁵⁸. [梁書](#):夫道不恆夷, 運無常泰, 斯則窮通有數。若乃侯景小豎, 叛換本國"昔夷羿亂夏。雖曰人事, 抑乃天時。昔夷羿亂夏, 犬戎厄周, 漢則莽, 晉則敦, 玄構禍, 方之羯賊, 有逾其酷, 悲夫!

¹⁵⁹. [Ancient Korean Religion: Polaris and Small Dipper. 단군왕검이 실존 인물이다: 백총장군 현령비, 朝鮮이란 글자의 이동 \(百蟲將軍顯靈碑\)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¹⁶⁰. [太平御覽 禹妃](#):故《連山易》曰:「禹娶涂山之子, 名曰攸女, 生啟是也。」. [水經注](#) 淮水: 故《連山易》曰: 有崇伯鯀, 伏于羽山之野者是也. [古三墳 山墳](#): 天皇伏犧氏連山易爻卦大象

삼극(三極) 으로 표기 되고, 삼태극 문양의 근간이 되었다.¹⁶¹

도가에서 지존으로 치는 북극자미궁 (北極紫微宮)에서 자금성 (紫禁城) 이란 이름이 나왔다. 천부경 (天符經) 의 무시일석 (無始一析)에서 황제에 버금가는 무우왕 (無憂王) 이란 칭호가 나타났다. 온천지 사방을 밝히는 만 (卍)자 와 태극 문양을 원시 불교에서 인용해 갔다.¹⁶² 도교 에서 말하는 무위 (無爲) 가 와전되어 무우 또는 아육 (唐言無憂 舊曰阿育; No one above) 이란 낱말이 나타났다. 아육 (阿育) 이란 내가 위 (I am the highest, 唯我獨尊, 至尊, 無爲)란 옛적 어음이다.¹⁶³ 삼국유사 여러 곳에 나온다.

6 항: 한국 고유의 칠성사상: 삼국유사에 풍백(風伯)우사(雨師) 운사(雲師) 와 같이 3000 명을 거느리고 내려 왔다는 기록에서 나타났다. 산해경에 우공운우 (禹攻雲雨)라는 문구가 있다. 우가 상유를 죽이고, 운사 우사를 공격했다. 풍(風) 우(雨) 운(雲) 자와 짝은 구름을 뜻한 우뢰 뢰(雷; 靄雲)자 가 있다.¹⁶⁴ 세 동반자와 단군을 살해한 세력과의 오랜 싸움을 묘사한 기록 이 치우와 황제가 싸웠다는 탁록전 설명에 있다. 백익을 수호하다 죽어 모두 별이 되었다.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삼태성 (三台星), 북두칠성과 견우직녀 하는 전설과 그에 연유된 어음이 한국어에 [북두고리 같은 손. 북두 갈구리] 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¹⁶¹. <https://ctext.org/zh>

毛：《字彙》蘇甘切，音三。《海篇》毛郎，碑名。毛郎神，本三郎神也。蠻人呼參爲毛，轉聲爲三。又毛陽鎮，在沂州費縣。《隋書》：琅邪郡舊置北徐州，後周改曰沂州。

¹⁶². [宋高僧傳](#) :玄奘也立五種不翻。謂譯字譯音爲一例。胡語梵言爲一例。重譯直譯爲一例。一譯字不譯音。即陀羅尼是。二譯音不譯字。如佛胸前卍字是。三音字俱譯。其書豎讀。同震旦歟。至吐貨羅言音漸異 度蔥嶺南迦畢試國。

十：數之具也。一為東西，丨為南北，則四方中央備矣

¹⁶³. [user dictionary](#):

阿育 Aśoka, 舊稱阿恕伽。新稱阿輸迦。譯曰無憂。西紀前三百二十一年頃，於印度創立孔雀王朝之旃陀掘多大王 (Chandragupta) 孫也。統一全印度，大保護佛教

¹⁶⁴. [山海經](#): 共工之臣曰相柳氏，九首，以食于九山。相柳之所抵，厥為澤谿。禹殺相柳。有禹攻共工國山。焦氏易林: 師: 夬 泰：雷行相逐，無有休息。戰於平陸，為夷所覆

논형에는 백익 살해 사건이 은미하게 기록 되었다. 또한 길험편(吉驗篇)에 동명(東明)의 부여 건국 설화가 실렸다.¹⁶⁵ 전허(論衡雷虛)편 <하왕조가 이루어지던 시절에 살인 사건이 일어 났다. 이를 세간에는; 세워 놓은 나무 (장승)를 자른 사람이 하늘에 용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가 살인자 > 라고 했다. 전허(雷虛)란 글자에는 루탄경 (樓炭)과 같은 뜻이 있다.

감허(感虛)편에는 다제 다능한 백익이 우물을 만들어 마을이 생겼다. 재의(祭意)편에는 일월성진 세 별이 되었다고 했다.¹⁶⁶ 해를 설명한다는 뜻의 설일(說日)편에는 우사(雨師)를 [靄 떨어질 운, 우리 곤]으로 떠러진 별“星靄如雨”이라고 설명 했다.¹⁶⁷

우사(雨師)가 견우성 (牽牛)이 되어, 북극성 (해, 日, sun.단군왕검 백익을 뜻한)을 옆에서 보좌 하는 칠성신앙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농기구 가대기 또는 무논을 고루는 씨레(plough) 또는 국자(Dipper) 라 한다. 백익이 군사 훈련 목적으로 사냥을 권장하여 납형절이 나타나고, 바둑을 창안 하여 실내에서는 작전 계획을 익혔다.¹⁶⁸ 칠성 신앙에는

¹⁶⁵. [論衡](#): 吉驗:東明走, 南至掩澆水, 東明得渡。因都王夫餘, 雷虛:盛夏之時, 雷電迅疾, 擊折樹木, 壞敗室屋, 時犯殺人。世俗以為「擊折樹木、壞敗室屋」者, 天取龍; 其「犯殺人」也, 謂之陰過。教. [論衡](#): 感虛:《傳書》又言:「伯益作井, 龍登玄雲, 神棲崑崙。」

¹⁶⁶. [論衡](#):祭意: 群神謂風伯、雨師、雷公之屬。風以搖之, 雨以潤之, 雷以動之, 四時生成, 寒暑變化。日月星辰, 人所瞻仰。水旱、人所忌惡, 四方、氣所由來。山林川谷。此鬼神之功也。

¹⁶⁷. [康熙字典](#): 靄:《集韻》羽敏切。《說文》雨也。齊人謂雷為靄。齊人謂靄為靄。公羊傳:夜中星靄如雨。齊人謂雷曰靄。《集韻》王問切, 音運。義同。

¹⁶⁸. [太平御覽](#)星中:《詩》曰:睨彼牽牛, 不以服箱。注:「睨, 星明貌。河鼓, 謂之牽牛也, 教

우물 정(井) 자가 같이 붙어 나온다. 첫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떠다 장독대에 놓았다.¹⁶⁹ 백익 이기씨 (伊耆氏)가 북 (鼓, Drum) 을 고안 했다.¹⁷⁰ 백익이 처음으로 우물을 파서 마을이 생겼다. 가공인물 황제가 우물을 팠다 하고, 그를 실존 인물 하나라의 시조로 하우(禹)씨로 바꾸어 웅달샘에 우물이란 어음을 붙였다. 불교경전에는 우(禹)를 소 (牛) 사자(嗣子, 獅子)로 음차 하여 기록 했다.

홍산문화권의 종주국인 부여에서는 출전에 앞서 소를 잡아 발굽이 붙었나 버러졌나(牛觀蹄)에 따라 결정 했다. 소는 우(禹)의 세력을 상징 했다. 시월 상달 개천절을 영고(迎鼓) 라 했다.¹⁷¹ 이는 북을 만든 사람을 맞아 드리는 행사란 뜻이다. 옛부터 큰 행사에는 북을 치는 풍속이 나타났다. 이아의 하늘 설명과 태평어람에 별 (星中) 을 설명한 내용에는 “河鼓謂之牽牛” 라 했다.¹⁷² 시경 대동에 견우란 글자가 있다. 여걸도 나타났다. 무녀와 견우 가 만나는 날 이란 음력 칠월 칠석 무렵에 피는 나팔꽃 (morning glory)을 견우화 (牽牛花)라 한다. 태평어람에는 모시정의 에서 풀이한 “河鼓謂之牽牛也” 문구를 되풀이 했다. 이 문구의 풀이가 구구 하다. 남쪽 형초 사람들은 하고를 큰 북 담고(檐鼓)라 견우성(牽牛星)을 뜻했다.¹⁷³ 문헌을 종합해 보면 [河伯을

¹⁶⁹.

[Dictionary](#) : 古者伯益初作井今作井見經典省。《世本》伯益作井。《汲冢周書》黃帝作井。《玉篇》穿地取水，伯益造之，因井爲市也。古文井與刑通用。《左傳》有井伯，卽邢伯。

¹⁷⁰. [Dictionary](#)

鼓：伊耆氏造鼓。故謂之鼓。樂書，鼓所以檢樂，爲羣音長。星名。《爾雅·釋天》河鼓謂之牽牛。春秋鼓國，白狄別種。扶餘國，正月，國中連日大會飲樂，名曰迎鼓

¹⁷¹. [三國志](#)

夫餘傳：以殷正月祭天，國中大會，連日飲食歌舞，名曰迎鼓，於是時斷刑獄，解囚徒。在國衣尚白，白布大袂，履革鞜。有軍事亦祭天，殺牛觀蹄以占吉凶，蹄解者爲凶，合者爲吉。

¹⁷². [user dictionary](#):

阿育 Aśoka，舊稱阿恕伽。新稱阿輸迦。譯曰無憂。西紀前三百二十一年頃，於印度創立孔雀王朝之旃陀掘多大王 (Chandragupta) 孫也。統一全印度，大保護佛教

¹⁷³. [山海經](#): 共工之臣曰相柳氏。有山名殤塗之山。有雲雨之山，有木名曰欒。禹攻雲雨。禹殺相柳。共工臣名曰相繇。禹湮洪水，殺相繇，其血腥臭，不可生穀，其地多水，不可居也。

위해 북을 치는 사람이 견우]다.

우(禹)가 방풍씨(殺防風氏)를 죽였다는 예기는 선진문헌 여러 곳에 실렸다.¹⁷⁴ 산해경에는 우가 치수 사업의 실패를 백익의 보좌관의 잘못으로 몰아 상유(相柳)를 죽이고, 분수연안의 공공을 공격(禹攻共工)하고, 또한 운우(攻雲雨)를 공격했다.¹⁷⁵ 이 때에 우(禹)가 폭력을 가하여 우격(禹擊) 다짐이란 낱말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풍운아(風雲兒)의 어원이다.

위험(危險)이란 글자는 왕검이 살던 곳, 즉 왕검성(王儉城)을 올라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결과에서 나온 문구다. 이 견우성 별 자리 (Small Dipper, Plough) 또한 주객을 바꾸어 쓸어 낸다는 쓰래박, 평편하게 땅을 고른다는 뜻에서 소 두마리가 끄는 농장기 “쌍 쓰레”란 말이 생겼다. 옛적에 소 등에 짐을 실을 때에 당기는 끈을 북두끈, 북두 고리, 북두고리 같은 험한 손 이란 표현이 있다. 그 들을 추모하여 한민족 고유의 칠성신앙으로 전해 오고 있다.¹⁷⁶ 쟁인에게 의사 전달이 잘못 되어 일곱개 (별) 빛이란 뜻이 가지로 전해 저서 칠지도 (七支刀)가 나타났다.

7 항: 수미산(須彌)을 묘고산(妙高山)이라 했다: 삼묘(三苗)를 삼위(三峯)에 몰아내고 공공(共工)을 유도(幽都)로 유배 보냈던 높은 항산(恒山, 常山, 桓山, 嵩山)을 뜻한 글자다. 동서남북 네곳을 통치하는 수미(須彌)를 보호 하는 자를 사천왕(四天王)을 금은동철

¹⁷⁴. [竹書紀年](#): 帝禹夏后氏: 帝即位, 居冀。頒夏時于邦國。五年, 巡狩, 會諸侯于塗山。

八春, 會諸侯于會稽, 殺防風氏。秋八月, 帝陟于會稽。禹立四十五年。帝啟:

元年癸亥, 帝即位于夏邑。

二年年, 費侯伯益出就國。王帥師伐有扈, 大戰于甘。六年, 伯益薨, 祠之。八年, 帝使孟涂如巴涖

¹⁷⁵. [강희사전](#): 檐: 屋檐。爾雅·釋天》河鼓謂之牽牛。《郭註》荆楚人呼牽牛星爲檐鼓。檐者荷也。

¹⁷⁶. [Lee Mosol: Ancient History of Korea: Mystery Unveiled. Second Edition. By Xlibris. 2020.](#) p 225. The Seven-Branded Sword(七支刀). P. 226 Zen Buddhism in the NEA

륜왕(輪王)이라 이름했다.¹⁷⁷ 금륜왕(金輪王)이 사방(四方)을 다스린다.¹⁷⁸ 인도 동북쪽 차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茶城)에 전륜성왕(輪王之苑囿)이 기거했다.¹⁷⁹ 불교국 백제와 신라에서도 륜왕(輪王)이란 이름들을 썼다.

하(夏) 나라 영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덕경을 옮겨 우(禹, 昔禹)를 숭상했다.¹⁸⁰ 돌기둥 또는 나무 위에 올려 사자(獅子, lion) 상을 놓았. 산해경 속신(肅慎) 씨 마을에 나타난 웅상(樹名曰雄常, Totem pole)의 변형이다.

8 항: 아사달을 수미산(須彌山) 또는 비구(比丘)라 했다. 최고의 지도자를 곤륜(昆侖)이라 했다. 제일 높은 제사장이 되살아 나서 사는 높은 곳을 곤륜산(崑崙山) 수미산(須彌山), 또는 소미로산(蘇迷盧山)이라 했다.¹⁸¹ 그 곳은 찾을 수가 없다. 미로(迷路,

¹⁷⁷. [大唐西域記](#):

末田底迦舊曰末田地訛略也阿羅漢之所造也。羅漢以神通力攜引匠人。升睹史多天舊曰兜率他也。又曰兜術他。訛也親觀妙相。蘇迷盧山唐言妙高山。舊曰須彌。

¹⁷⁸. [大唐西域記](#):

昆明道閉。謬肆力於神池。遂使瑞表恆星。鬱玄妙於千載。夢彰佩日。秘神光於萬里。暨於蔡愔訪道。摩騰入洛。經藏石室。

飛英天竺。文傳貝葉。太宗文皇帝。金輪纂禦。寶位居尊。啟玄妙之津。書揄揚之旨。蓋非道映雞林。譽光鷲岳。蘇迷盧山唐言妙高山。

¹⁷⁹. [大唐西域記](#):

從烏鐸迦漢茶城北踰山涉川。行六百餘里至烏仗那國。唐言苑。昔輪王之苑囿也。舊云烏場。或曰烏茶皆訛北印度境遂 Pali English dictionary.

¹⁸⁰. [大唐西域記](#): 此藥叉神變現異形。或作師子。或作蟒蛇猛獸毒蟲。上作師子蹲踞向階羅。

城西南有比羅娑洛山唐言象堅山神作象形。故曰象堅也。昔如來在世。象堅神奉請世尊及千二百大阿羅漢。山巔有大盤石。如來即之。其後無今人謂之象堅窳堵波也。亦雲中有如來舍利一升餘

¹⁸¹. [大唐西域記](#):

為一佛之化攝也。今一日月所照臨。諸佛世尊皆此垂化。現生現滅導聖導凡。蘇迷盧山唐言妙高山。舊曰須彌。又曰須彌婁皆訛略也四寶合成。據金輪上。日月之所照迴。

mirror, maze)의 어원이 되었다. 요순시절에 삼묘 환두 (驪兜) 를 북쪽 분수연안 공공국에 있는 항산에 [귀양을 보냈던 무리가 되살아 나타났다]는 전설을 설명 했다. 되살아 났다는 뜻이 회소곡 (會蘇曲) 이다. 신라 초기 육부 촌장 (六姓始) 이 살던 시절, 유리아사금 당시 도솔가 (兜率歌)가 나타났다.¹⁸²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 (烏忌日)이라고 한다.¹⁸³ 삼죽오와 관련된 표현이다. 도교에서는 상원(上元) 이라고 한다. 옛적에 월력(月曆)정월 대보름 다음날 아침이 천축국 새해 첫날이 었다.¹⁸⁴ 현재의 스리랑카는 사자국(師子; 嗣子 獅子國 Lion) 국 또는 승가라국 (僧伽羅國)이라 했다. 나라이름은 세 선인 즉 삼랑 (毛郎, 三郎) 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들은오랫동안 음력을 썼다.

아사달(阿斯達, Asadal)의 음과 뜻을 이리저리 바꾸어 적은 글자가 비구 (比丘)다. 아사달에 큰 사원이 있어 그 건물에 수도자가 많이 있었다.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을 비구니(比丘尼) 라 했다. 아사달이 점령 당한 상황을 제석이 싸우던 곳(常與帝釋戰鬥之神)이라 했다. 인도 설화에는 불가에서 쓰던 아수라 (Asura) 를 악한 귀신 무리로 나타 묘사 했다. 아수라장 (阿修羅場) 이란 용어가 여기서

¹⁸².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一:負家一女子起舞歎曰:「會蘇, 會蘇!」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會蘇曲》。於是鄰國百姓聞而來者衆矣。是年, 民俗歡康, 始制兜率歌。此歌樂之始也。 [三國遺事](#): 劉聖公更始元年癸未。甲申即位改定六部號。仍賜六姓始作兜率歌。復感慈氏。從兜率駕雲而下。與師受戒法。師勸檀緣。鑄成彌勒丈六像。復畫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

¹⁸³. [三國遺事](#): 自爾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忌慎百事。不敢動作。以十五日為烏忌之日中

¹⁸⁴.

[大唐西域記](#):每歲至如來大神變月滿之日出示眾即印度十二月三十日當此正月十五日也此時也或放光或雨花。僧徒減千人。

習學大乘上座部法。律儀清肅戒行貞明。昔者南海僧伽羅國。其王淳信佛法發自天然。有族弟出家想佛聖迹。遠遊印度寓諸伽藍。於是返迹本國。王躬遠迎。

생겼다.¹⁸⁵도사유적지(陶寺遺址) 로 발표된 곳이 아사달 이다.¹⁸⁶ 그곳에서 싸우던 용사를 아라한(阿羅漢), 또는 나한 (羅漢) 이라 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최 측근이었다. 사살 되기도 했다. 하여 죽음시 시라 (尸羅)란 글자가 불교 전래 경로 여러곳에 나타난다. 신라의 어원이다. 같은 음의 시라성(斯羅城)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다.

9 항: 원시불교의 발생지에 고조선 후예가 정착 했다: 당태종 시절에 현장이 천축국을 방문하고 [어린 왕자가 노자로 부터 배워 믿음이 바뀌었 다는 구마라 나다 (拘摩羅邏多 Kumara; 童子王)왕을 만나 대화를 했다.¹⁸⁷ 인도 동북쪽에 수지(隨地)를 지나 복지국 (至那 僕底國)을 한봉질자소 (漢封質子所) 라 했다. 관노 (隸;slave, servant) 였던 사람들이 살던 곳 이다. 인도기(印度記)에 이르기를; 한왕자 (漢王子) 가 그곳에 정착 하여 동쪽땅을 몹시 그리워 했다. 고향에서 봉숭아와 자두를 갖고 가서 심었다. 봉숭아를 지나이(至那爾, 至那爾), 오얏을 지나도불 달라 (那羅闍弗但邏) 라 한다. 당시 인도에서는 현장 (玄奘)이 살던 곳을 진단 (震旦) 이라 부르던 동쪽 큰 나라 (東土), 즉 진나라 (大秦)를 마하지나국 (摩訶至那國) 이라고 했다. 그곳에 힌눈이 덮힌 산맥을 흑령(黑嶺)이라 했다. 나(那)에 이른 다는 뜻의 지나(至那)란 글자를 명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 하여 동쪽에서 온 사람들 이라 했다. 오월춘추에는 "오태백의 선조, 후직의 후예가

¹⁸⁵.<https://ctext.org/zh> 阿修羅:

Asura , 又作阿須羅。新稱阿素洛。譯曰非天。其果報勝似天而非天之義。為常與帝釋戰鬥之神。名義集二曰：「阿修羅，舊翻無端正。 [大唐西域記](#):

石室西南隅有巖岫。謂之阿素洛舊曰阿脩羅。又曰阿須倫。又曰阿修羅。皆訛也宮也。往有好事者深閑咒術. @.

黑嶺已來莫非胡俗。雖戎人同貫。而族類群分。畫界封疆。大率土著。建城廓務殖田畜.

¹⁸⁶. [陶寺遗址 - 维基百科，自由的百科全书 \(wikipedia.org\): Taosi - Wikipedia](#) :

¹⁸⁷. [大唐西域記](#):大唐國來請求佛法。王曰:

大唐國在何方。經途所互去斯遠近。對曰。當此東北數萬餘里。印度所謂摩訶至那國是也。王曰。嘗聞摩訶至那國有。秦王天子。少而靈鑒長而神武。昔先代喪亂率土分崩。兵戈競起群生荼毒. @.

印度記曰。窣堵波中有多舍利。或有齋日時放光明。或有齋日時放光明。從此東行五百餘里至那僕底國北印度境。昔經部拘摩羅邏多唐言童受論師.

수지에 가서 연영종지술(研營種之術)을 가르쳤다” 고 했다.¹⁸⁸

동이족 숙신씨 마을에는 환웅을 뜻한 형상 (雄常, 하루방, totem pole) 을 세웠다. 이를 복상수(服常樹; 옷입은 나무) 또는 사랑간수 (伺琅玕樹) 라고 했다.¹⁸⁹ 용우가 죽인(禹殺) 공공국 상유 (相柳, 相繇)를 허신(許慎)이 상형 (相 象形) 자를 설명 하면서 수체 힐굴 (隨體詰誦) 이라 했다.¹⁹⁰ 서낭신이 길한 예기 를 하려는 모양과 같이 그럴듯 하게 그려 놓은 글자가 “日. 月” 이란 상형자 라고 설명했다.¹⁹¹ 진수가 남긴 고구려 전에는 [웅상을 세워 놓고 산간지역에서 맑은 여울 물을 마시며 살았다]는 문구가 있다. 시경에 “무종궤수無縱詭隨” 란 문구가 있다. 거짓말을 따르지 말라로 풀이 했다. 환웅상을 숭배 하던 고조선 신앙과 관계가 깊은 문구다.¹⁹²

10 항: 범서(梵書)란 글자의 기원: 허신은 [범(梵)자가 서역 불가에서 쓰는 글자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 현종이 남쪽나라를 읊은 시 제목을 제범서 (題梵書)라 했다. 맹자는 시가 죽고 역사서가 세 곳에서 나왔다고 했다. 진지승(晉之乘), 노지 춘추

¹⁸⁸. [吳越春秋](#): 吳之前君太伯者, 后稷之苗裔也. 堯聘棄使教民山居, 隨地造區, 研營種之術

¹⁸⁹. [山海經](#) 肅慎之國在白民北, 有樹名曰雄常, 先入代帝, 於此取之.

¹⁹⁰. [山海經](#)

海外北經:共工之臣曰相柳氏, 九首, 以食于九山. 相柳之所抵, 厥為澤谿. 禹殺相柳, 其血腥, 不可以樹五穀種. 在崑崙之北, 柔利之東. 相柳者, 九首人面, 蛇身而青. 不敢北射, 畏共工之臺. 臺在其東, 臺四方, 隅有一蛇, 虎色, 首衝南方. [山海經](#)大荒北經:

共工臣名曰相繇, 九首蛇身, 自環, 食于九土. 禹湮洪水, 殺相繇, 其血腥臭, 不可生穀, 其地多水, 不可居也. 禹湮之, 三仞三沮, 乃以為池, 群帝是因以為臺. 在崑崙之北.

¹⁹¹. [說文解字](#) 序::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誦, 「日、月」是也. 三曰形聲.

[詩經大雅](#)

民勞:惠此中國、以綏四方. 無縱詭隨、以謹無良. 民亦勞止、汔可小休. 惠此中國、以為民逯. 無縱詭隨、以謹愷悌. 惠此京師、以綏四國. 無縱詭隨、以謹罔極.

¹⁹². 隨 따를 수, 게으를 타 1 따르다 2. 거느리다 3. 몸에 지니다 4. 따라서. Follow, listen to, submit; to accompany; subsequently, then. 墮 떨어질 타, 무너뜨릴 휴 1. 떨어지다 2. 무너지다 3. 깨뜨리다

(魯之春秋), 초지도울 (楚之檣杵) 이라고 했다.¹⁹³ 산서성의 실권자였던 범선자(范宣子)가 그를 찾아온 손님에게 <산서성 사람들은 세록(世祿, *가계의 혈통을 기록한 책자*) 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고조선 사람들의 기록이 중국역사서의 기원이다.

범(范)선자의 선조들이 지켜오던 가치관을 히말라야 산맥 수지에 전하여 글로 남겼다. 범서(Sanskrit)는 산서성과 관계가 깊다는 뜻이 글자에 있다. 해상로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었다. 안전을 기원하는 선도성모(仙桃聖母) 상을 모시고 돛을 달아 바람을 타고 멀리가는 배를 범선(帆船)이라 했다.

맹자(孟子; ~기원전 289 년?)의 이루하(離婁下) 편명은 산서성에 있던 부루국(扶婁國) 사람들이 떠러져 내려 갔다는 뜻이다. 또한 도울(檣杵) 이란, 도 즉(도덕경)을 갖고(서)쪽으로 올라 갔다는 옛 한국어 사음자다. 태평광기 에는 “루사덕婁師德. 재상루사 宰相婁師” 문구가 많이 있다. 산서성에서 덕있는 단군(宰相)의 한 지류가 남쪽으로 내려가 북송시대 문헌이 부루국인(扶婁國人) 이 나타났다. 이를 요술쟁이(幻術)에 비유하여, 상나라 부열(傳說)이 노예로 일하던 부암(傅巖)에 접 붙였다.¹⁹⁴

북쪽으로 올라가 북부여를 세우고 왕자를 해부루(解扶婁)라 했다. 여러 글자로 적은 비류수(沸流水), 비류왕(比流王)이란 글자는 부루(扶婁)의 어음 변화에서 온 글자다. 맹자 이루(離婁), 즉 부루가 떠난 사연의 상하편에는 고조선의 발생부터 전국시대까지의 사연 이 실려 있다.

전국시대 제후국 연(燕)의 권력을 잡았던 자지(子之, ? - 기원전 314)에 관한 기록 또한 흥미하다.¹⁹⁵ 연소왕(燕昭王; ?-279 BC) 시대에 도술인 시라(尸羅)가 불상(浮圖)을

¹⁹³ [孟子](#)

離婁下:孟子曰:「王者之迹熄而詩亡, 詩亡然後春秋作。晉之乘, 楚之檣杵, 魯之春秋, 一也。其事則齊桓、晉文, 其文則史。孔子曰:『其義則丘竊取之矣。』」

¹⁹⁴ [太平廣記](#) 幻術: 扶婁國人, 南垂有扶婁之國。其人善能機巧變化, 易形改服 [太平御覽](#) 四夷樂: 西夷之樂曰離, 南夷之樂曰任。王子年《拾遺記》曰: 成王之時, 南垂之南有扶婁夷國

¹⁹⁵

[史記](#): 燕噲既立, 齊人殺蘇秦。蘇秦之在燕, 與其相子之為婚, 而蘇代與子之交。及蘇秦死, 而齊

수래에 싣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 때에 해하 수계 고조선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불교 문화가 도착 했다.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당시 이름에 불교 경전에 많이 보인다.

2 절: 황로 사상이 원시불교의 기원:

노자(老子)가 서쪽으로 가서 호(胡), 즉 천축국 지도자 에게 도덕경을 가르쳤다. 같은 뜻이다.는 기록을 동진의 도안(道安: 312-385) 이 인용 했다. 언어를 서로 이해 할수 있었고, 스님들이 도덕경 두편을 사용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했다.¹⁹⁶ 무위(無爲) 를 음이 같은 글자로 바꾸어 마우리아 제국 (Maurya Empire:기원전 320 년-기원전 185 년) 왕의 호칭으로 사용 하고, 불교를 인도 전역에 퍼뜨리고 사자상 (lion statue, 桓雄像, 嗣子)을 세웠다.

고조선 삼묘의 후예가 묘족 (苗族)이다. 묘족은 고양씨의 후손 으로 산서성에서 천축국에 갔다.¹⁹⁷ 그곳 부라만 도인(婆羅門道人)이 새로운 교리를 배웠다고 대루탄경에 실려

宣王復用蘇代。燕噲三年，與楚、三晉攻秦，不勝而還。子之相燕，貴重，主斷。蘇代為齊使於燕，燕王問曰：「齊王奚如？」對曰：「必不霸。」燕王曰：「何也？」對曰：「不信其臣。」蘇代欲以激燕王以尊子之也。於是燕王大信子之。子之因遺蘇代百金，而聽其所使

¹⁹⁶. [宋高僧傳](#): 卷第三:

故道安云。斯為不易矣。或曰。漢魏之際盛行斯意。致使陳壽國志述臨兒國云浮屠所載與中國老子經而相出入。蓋老子西出關過西域之天竺教胡為浮屠。此為見譯家用道德二篇中語。便認云與老子經互相出入也。設有華人能梵語與西僧言說。兩相允會。

¹⁹⁷. [孟子](#)

萬章上:萬章曰：「舜流共工于幽州，放驩兜于崇山，殺三苗于三危，殛鯀于羽山，四罪而天下咸服，誅不仁也。」。《屈原·離騷》帝高陽之苗裔兮。《左傳·晉人與之苗。《註》苗，晉地。

있다.¹⁹⁸ 소는 하우 씨 후손을 뜻하고, 피해 갔던 백익의 후손을 사슴 개 닭으로 기록했다. 인도에서 소를 신성시 하는 (Holy cow) 풍속이 나타났다. 삼묘의 묘자에서 고양이 묘(貓)자를 만들어 불교 사원에 고양이 상을 세웠다. 체계가 잡힌 새로운 종교가 운남성을 따라 돌아와에 도교에 큰 변화를 이르게 전국시대 부터 위진 시대에 여러 도학자가 나타 났다. 도학자 갈홍 (葛洪)이 한 본보기다.¹⁹⁹ 도가의 초기 경전이 역이다. 초시역림, 연산역(連山易)등 몇몇 역경이 나타났다.²⁰⁰ 주역계사(繫辭)에 미륵천지지도(彌綸天地之道)란 문구가 있다. 지도자 [미彌의 룬(綸 倫)이 자연의 법칙, 우주관]을 설명했다.

3 절: 원시불교의 증원 전례:

대루탄경에는 도솔(兜率), 미륵 (彌勒),비류 (比流) 유리(琉璃), 수미산 (須彌), 시라(迦羅尸羅)등등, 한국 상고사에 나오는 이름이 실렸다.

장건(張騫)이 한무제 때에 서역을 다녀 왔다. 무제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에 휘말려 왕망이 신조를 세웠다. 이러한 시대에 토속신앙을 비롯한 각종 신앙이 번창 했다. 그때 부터 신독(身毒)국을 천축국(天竺國)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황노 부도를 모시는

¹⁹⁸. [大樓炭經](#):若有婆羅門道人。行求牛。奉牛

意戒具足。若有婆羅門道人。行求狗道。奉狗意戒行具足。若有婆羅門道人。行求鹿道。奉鹿意戒具足 死後生鹿中。若有婆羅門道人 行 求雞道者。

¹⁹⁹. [說苑](#)

敬慎:孔子之周, 觀於太廟右陛之前, 有金人焉, 三緘其口而銘其背曰: 「古之慎言人也. 戒之哉! 戒之哉! 無多言, 多口多敗; 無多事, 多事多患. 安樂必戒, 無行所悔.

《漢書·藝文志》有《黃帝銘》六篇, 今已亡. 《金文銘》據學者考證, 即為《黃帝銘》.

道家向來被稱為黃老之術, 以《金人銘》對照《老子》, 갈홍(葛洪)도교

이론가·의학가·연단술가(煉丹術家).

²⁰⁰. [史書](#) 古三墳. [水經注](#) 淮水: 「故《連山易》曰: 有崇伯緜, 伏于羽山之野者是也.

사당(黃老 浮屠之祠)을 짓고, 부도 (浮圖)란 글자도 사용했다.²⁰¹ 산동성 사람으로 강남에 정착 했던 사람이 남긴 모자 (牟子) 에는 광서-광동성에는 불교가 성했다고 했다.²⁰² 대당 서역기와 송고승전에 [지나(支那) 라고 알려진 광부에 불경을 전했다] 는 기록이 있다.²⁰³ 십육국춘추에도 실렸다.²⁰⁴ 원시불교가 들어온 차마고도를 통한 교류는 중원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장의 서역기 또한 마등 (摩騰) 이 곤명도가 막혀 (昆明道閉) 통하지 못하고 먼길을 돌아 낙양에 도착해서 불경을 석실에 보관 했다고 한다.²⁰⁵ 동진(東晉:317 ~ 420)시절에 해상로 를 따라 남방불교가 중국 동해안에 이르렀다. 월지국에서 달을 숭상 했다.

발해만 연안에 있던 백제 설라 휴인 (百濟及薛羅 休忍)을 남방불교 영향을 받아 설을 신으로, 가라 (加羅)를 스님에게 통치권을 일임한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 광개토태왕비에

²⁰¹. [後漢書](#) :

天竺國一名身毒，在月氏之東南數千里。俗與月氏同，而卑溼暑熱。其國臨大水。乘象而戰。其人弱於月氏，脩浮圖道，不殺伐，遂以成俗。聞宮中立黃老、浮屠之祠

²⁰². [大唐西域記](#)

序:昆明道閉。謬肆力於神池。遂使瑞表恆星。秘神光於萬里。暨於蔡愔訪道。摩騰入洛。經藏石室。同風類俗略舉條貫。異政殊制隨地別敘。印度風俗語在後記。曰阿耨尼國舊曰烏耆。

[舊唐書](#):《牟子》二卷牟融撰。牟子 漢桓帝時蒼梧太守牟融著書號牟子，推美釋氏。

²⁰³.

[宋高僧傳](#):釋智慧者。北天竺迦畢試國人。常聞支那大國文殊在中。錫指東方誓傳佛教。乃泛海東邁。垂至廣州風飄卻返抵執師子國之東。釋極量。中印度人也。支那印度俗呼廣府為支那。名帝京為摩訶支那也乃於廣州制止道場駐錫。 [大唐西域記](#):大唐國來請求佛法。王曰。嘗聞摩訶至那國有。

²⁰⁴ .:

[十六國春秋](#):法明罽賓人少而好學為弗若多羅所知及長氣幹高爽神識明悟與眾不群博覽經典潛思八禪遊心七覺時人方之浮頭婆馱孤行山澤不避虎兇晉隆安中至廣州住白沙寺善誦毗婆沙律咸稱為大毗婆沙時年已八十五徒眾八十五人晉故丹陽

²⁰⁵.

[大唐西域記](#):徙置懷於印竹。昆明道閉。謬肆力於神池。遂使瑞表恆星。鬱玄妙於千載。夢彰佩日。秘神光於萬里。暨於蔡愔訪道。摩騰入洛。經藏石室。

“新羅, 任那加羅”로 나타났다. 여러 곳에 있던 신라의 수도 월성 (月城)은 지존 (至尊)의 거처란 뜻이 있다.

4 절: 미륵 보살(彌勒菩薩)의 유래:

신라가 발해만 연안에 나탄 6 부춘장에 성씨를 주던 시절에 처음으로 개천절을 기리는 도솔가 (兜率歌)가 나타났다. 유리이사금 (儒理尼師) 5년 왕망의 신조를 대치한 유성공 시절이다.²⁰⁶ 동진(東晉: 317-420) 시대에 석도안이 고조선 영역 태행산 (太行恒山 創立寺塔)에 사탑을 짓고 수도승이 되었다. 그가 고조선 토속신앙에 원시불교를 접붙인 신흥 종교가 미륵 신앙 (彌勒信仰) 이다.²⁰⁷ 서진 회황제 (西晉 懷皇帝: 284년 ~ 313년)가 그를 하늘 나라 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도솔 (兜率)의 지도자라 하여 미천 석도안 (彌天釋 道安)이라 했다. 고조선의 언어 풍속이 불경에 반영 되어 미륵 도솔(彌勒, 兜率)이란 이름이 초기 불교에 나타났다. 자전에는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 왔다는 도솔천(兜率天) 에서 났다고 한다.²⁰⁸ 환웅 (桓雄)의 가르침이 미륵 (彌勒)신앙 으로 한국에 나타났다.

동진의 법현 (法顯:337-418)이 남긴 불국기(佛國記) 에는 석가모니 탄생을 [동주 평왕(周平王;기원전 781-720) 때에 노인들이 미륵보살상 (彌勒菩薩像)을 세웠다.

²⁰⁶. [三國遺事](#):

劉聖公更始元年癸未。即位年表云。甲申即位改定六部號。仍賜六姓始作兜率歌。 [三國史記](#): 儒理尼師今五年。兜率民俗歡康，始制兜率歌。此歌樂之始也。

²⁰⁷. [三國遺事](#): 生義寺石彌勒 興輪寺壁畫普 彌勒仙花 未尸郎 真慈師. 新耕作故云也。畚乃俗文也。

<https://www.ancienthistoryofkorea.com/-etymology-of-mitianshi-daoan/>

²⁰⁸.

[大唐西域記](#):三佛經行側有窣堵波。是梅怛麗耶唐言慈即姓也。舊曰彌勒訛略也菩薩受成佛記處。

User dictionary

Maitreya, 新稱彌帝隸, 梅低梨, 迷諦隸, 梅怛麗, 每怛哩, 梅怛麗藥, 昧怛[口*履]曳。菩薩之姓也。譯曰慈氏。名阿逸多, 譯曰無能勝。或言阿逸多為姓, 彌勒為名。生於南天竺婆羅門家。紹釋迦如來之佛位, 為補處之菩薩。光佛入滅, 生於兜率天內院。

미륵대사가 석가의 뒤를 이어 받지는 않았다 (非夫彌勒大士 繼軌釋迦)고] 했다.²⁰⁹ 석가모니 이전에 인도에 들어가 도를 가르쳤다는 노자(老子; elders)가 환웅(桓雄)상을 갖고 가서 불교가 나타 났다는 뜻이다. 상나라 말기에 기자 보다 먼저 살았던 상용(商容, 相容) 이 기록에 나타난 첫 노자(老子) 다.²¹⁰ 상나라 두 현인이 갔던 곳이 산서성 분수 계곡 아사달(阿斯達)이다. 자부선인이 살던 것이다. 고조선 사람들이 모시던 환웅상이 미륵 보살상(彌勒菩薩像)으로 변하여 섬나라 세일 론“Ceylon. Sri-Lanka”, 사자국(古之師子國) 남천축국에 나타났다.²¹¹

불교 발생지 현지인 사제들(Brahmin. Brahman)이 고조선 말로 전해진 내용을 경전으로 만든 대루탄경(大婁炭經)을 [옛적에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던 육서(六書) 방법]을 모두 인용하여 한어(漢語)로 번역 했다.²¹²

IV 삼한 사람들이 해상로를 개발

양자 방언과 설문해자에는 선(船)자 뿐, 범(帆)자는 없다. 불가를 뜻한 석명(釋名)에 처음 실렸다. 범(帆; 巾,凡. 颺, 颺)자는 알 환에 천을 달아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란

²⁰⁹. [佛國記](#): 僧問法顯。佛法東過其始可知耶。顯云。訪問彼土人。皆云。古老相傳。

自立彌勒菩薩像。後便有天竺沙門。齋經律過此河者。像立在佛泥洹後三百許年。計於周氏平王時。由茲而言。大教宣流始自此像。非夫彌勒大士繼軌釋迦。

²¹⁰. [古朝鮮과 夏 商의 관계-3: 문화와 역사. 상용\(商容\) 과 관저\(關雎\)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鷓冠子](#)

泰鴻:同和者仁也, 相容者義也, 仁義者, 所樂同名也, 能同所樂, 無形內政, 故聖知神方調於無形, 以為神明之根者也, 地受時以為萬物原者也。神聖詳理

²¹¹. [User dictionary](#): 彌勒:

Maitreya, 新稱彌帝隸, 梅低梨, 迷諦隸, 梅怛麗, 每怛哩, 梅怛麗藥, 昧怛[口*履]曳。菩薩之姓也。譯曰慈氏。名阿逸多, 譯曰無能勝。或言阿逸多為姓, 彌勒為名。生於南天竺婆羅門家。紹釋迦如來之佛位, 為補處之菩薩。光佛入滅, 生於兜率天內院。

²¹².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실존 인물이었다. The legendary Dangun Wanggeom was a real person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Fallacy of 六書.

뜻이다.엄사치가 타고 한낭랑(漢樂浪)에 갔다.²¹³

신대왕의 맏아들 발기(拔奇)가 강남으로가서 손책의 친구가 된 이후 오나라는 풍력을 이용하는 큰 배를 만들어 고구려와 교류 했다. 손책이 전당에서 해적호왕(海賊胡玉)을 만났다. 진시황명에 따라 발해만에서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주(夷洲; 대만섬)에 정착 했다.²¹⁴ 북쪽사람들이 해안을 따라강남으로 먼저 내려 왔다.

1 절: 범선(帆船)의 유래: 범(帆)이라 읽는 글자를 환(fan) 이라고 읽었다. 둥근 밝은 물체의 상형자 로 [해 달 새알] 등을 암시했던 글자다. 범선의 범자는 고조선 영역에서 유래 했다. 오환(烏桓 烏丸)의 성산인 향산, 즉 아사달과 관련된 글자다.²¹⁵ 그 지역에 속신씨가 웅상을 세우고 살았다.²¹⁶

서낭신(隨體 隨神)에 매달은 천 조각이 바람에 날리는 형상을 뜻한 글자가 돛 범(帆)자다. 범선으로 동남아 해안을 돌아 남방불교가 강남에 들어 왔다. 스님이 배를 타고 먼 지역 땅으로 가는 장면이 불교 서화에 있다. 불교에 관한 설명에는 선도 성모 수희 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란 문구와 같이 수(隨)자가 여러 곳에 실렸다. 복숭아 나무를 심었던 마을에서 석가모니 어머니(慈氏母, 摩耶 Māyā; Eum-Maya) 와 이모(佛姨母)가 나서 선도성모 라고 했다. 범선(帆船) 위에는 안전한 항해를 인도 하는 성모상(慈氏母, 聖母

²¹³. [三國志](#) 韓傳: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女王國東渡海千餘里 去女王四千餘里。黑齒國復在其東南, 船行一年可至 計其道里, 當在會稽、東冶之東

²¹⁴. [山海經](#):先以六書。服常樹, 其上有三頭人, 伺琅玕樹。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詘: 詰詘也。一曰屈襞。从言出聲。 詰: 問也。从言吉聲。 [詩經](#)民勞: 無縱詭隨。

²¹⁵. [字書](#) 釋名:釋船:

帆, 泛也, 隨風張幔曰帆, 使舟疾汎汎然也. [古文] 颺 《廣韻》音凡。《集韻》舟上幔以帆風。 《廣韻》船使風。船使風也。《玉篇》與帆同。塞外有烏桓山。一作烏凡。《魏志·烏丸傳》太祖引烏凡之衆, 服從征討, 而邊民得用安息。又通作罔 樹木

²¹⁶. [三國志](#) 孫策傳: 父共載船至錢唐, 會海賊胡玉等從匏里上掠取賈人財物. 其友士拔奇.[三國志](#) 吳書二: 恂等到安平口

遣將軍衛溫、諸葛直將甲士萬人浮海求夷洲及亶洲。亶洲在海中, 長老傳言秦始皇帝遣方士徐福將童男童女數千人入海, 求蓬萊神山及仙藥, 止此洲不還. 但得夷洲數千人還。

摩耶 Māyā; Eum-Maya, Goddess) 또는 사자상을 조각한 나침판을 설치 했다. 중세기 항해선박 (medieval voyager) 선두에도 나타났다.

왜왕이 다스렸다는 삼한의 후손들이 나침판을 개발하여 범선을 타고 중국 동남아 해안으로 진출 했다. 그후 부터 한반도 서남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 국가들이 앞에 형용사를 붙여 “xx 가야”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신라는 불교에 입적한 법흥왕이후 해상강국, 백제를 제압하고 극동의 강국으로 등장 했다. 그때에 마야 부인, 풍월주, 화랑, 처룡하는 이름이 나타났다.²¹⁷

진서에는, 서진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신라 백제(新羅, 百濟)란 이름이, 동진 말기에 복건성 이남 지역에 나타났다. 서진말기 291년에 발성(拔城)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발기의 후손이 살던 곳을 발성(拔城)이라 했다.²¹⁸

2 절: 항해의 필수 요소 나침판:

동진시대 부터는 동남아 해로를 통하여 남방불교가 남조에 들어 왔다.²¹⁹ 송서에는

²¹⁷.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실존 인물이었다. The legendary Dangun Wanggeom was a real person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²¹⁸. [晉書](#):

東倭重譯納貢，鮮卑名王，皆遣使來獻。天子歸美宰輔，又增帝封邑。是歲，扶南等二十一國、馬韓等十一國遣使來獻。宣帝之平公孫氏也，其女王遣使至帶方朝見，其後貢聘不絕。及文帝作相，又數至。天下兵起，大戰。日門，下有拔城。冊府元龜：開拔奇之津使天下馳騁而起矣。

高岱字孔文受性聰達輕財貴義其友士拔奇取於未顯所友八人無名氏皆世之英偉也。

²¹⁹. [三國志](#)倭人傳:

循海岸水行，歷韓國，乍南乍東，計其道里，當在會稽、東冶之東。女王國東渡海千餘里。絕在海中洲島之上，或絕或連，周旋可五千餘里。

범선으로二三萬里를 항해 했다는 기록이 있다.²²⁰ 황해 남쪽 항로를 백제가 개발 했다. 통일 신라에서 배 만드는 부서를 두었고 (중원에 없는?) 좋은 활과 나침판을 사용 했다. 문무왕 말기에 당승법안 (唐僧法安) 이 자석과 좋은 포궁(砲弩)만드는 방법을 구해오라는 황제의 명을 전했다.

통전 지남차 (指南車) 편에 나침판의 유래를 설명했다.²²¹ 신빙성 있는 자세한 설명은 북위의 사관 최홍 (崔鴻, 478- 525)이 쓴 십육국춘추 (十六國春秋)에 실렸다. 중국 오호 십육국 시대 후조의 제 3 대 황제 석호 (石虎 : 334 년 - 349 년)가 출처를 알수 없는 불교에 심취한 해비 (解飛: Xiè Fēi; fl. 334–349) 를 임용 했다.²²² 해비 (解飛; 解批, 解毗)는 고구려와 부여의 성씨다. 그는 다재 다능한 정인이었다. 그가 자석을 사용하여 남쪽 을 가리키는 목각을 수레 위에 설치 했다. 그 기술을 동진 시대에는 배에 붙여 지남주 (指南舟)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허수아비 사자상을 세우고 울릉도를 정벌 했다는 막힐 울(鬱, 위, 우)자 또한

²²⁰. [宋書 卷九十七列傳第五十七 夷蠻](#):

南夷、西南夷，大抵在交州之南及西南，居大海中洲上，相去或三五千里，遠者二三萬里，乘船舉帆，道里不可詳知。外國諸夷雖言里數，非定實也。

²²¹. [通典 指南車](#):

魏明帝青龍中，令博士馬鈞紹而作焉。車上有木仙人，舉手恒指南。車箱迴轉，所指微差。晉亂復亡

東晉義熙十三年，劉裕平長安，始得此車，復修之。一名司南車。駕駟其下，制如樓，三級，四角金龍銜羽葆。刻木為仙人，衣羽衣，立車上，車雖迴運，而手恒指南

²²². [十六國春秋](#):

解飛，不知何許人。機巧若神，妙思竒發。虎至性好佛，眾巧奢麗，不可勝紀。飛嘗為虎作檀車，廣丈餘，四輪作金佛像，坐於車上，九龍吐水灌之。又作一木道人恒，以手摩佛心腹之間。 [宋書](#)

"指南舟:石虎使解飛，姚興使令狐生又造焉。宋武帝平長安，始得此車。其制如鼓車，設木人於車上，舉手指南。車雖回轉，所指不移。晉代又有指南舟。索虜拓跋燾使工人郭善明造指南車，彌年不就。扶風人馬岳又造 [https://bf.wiki2.wiki/wiki/Xie_Fei_\(inventor\)](https://bf.wiki2.wiki/wiki/Xie_Fei_(inventor))

남방불교에서 나온 글자다. 사다함(斯多含)이 앞서 들어 갔다는 전단양(梅檀梁)이 대당서역기에 전단울금(梅檀鬱金)으로 실려 있다.²²³

한해를 통치 하던 부여씨의 뒤를 이어 해상왕 장보고(張保皋 ? ~ 846 년) 가 나타났다. 그가 처형된 이후 부터 신라는 사양길에 들어 간다. 그러한 혼란기에 신라 사람들이 불교의 성역 으로 피란을 갔다고 본다. 고려 초기 에도 해상 교류가 왕성 했다. 서양에서는 이슬람교가 번성했다. 불교 전래 해로를 따라 동남아지역으로 진출 했던 중동 문물이 한반도 들어 왔다.²²⁴

고려의 군부세력 삼별초(三別抄)가 원나라에 대항해 싸우다 최후로는 옛적 부터 잘 알려진 수로를 따라 환사씨가 다스리던 유구에 정착 했다. 곤륜인(昆侖人)을 통해 의사 소통이 가능 했던 곳이다.²²⁵ 곤륜이란 남소의 표신(驃信, 驃國)과 같은 제사장을 뜻했다유구의 수도 파라(波羅)란 글자가 표신이 옳은 남소와 여러 불교 서적에 실렸다. 같은 글자가 동남아 임파 부남(林邑 扶南) 광동지역에 나타났다.²²⁶

²²³. [大唐西域記](#):

金銀銅鐵每加摩瑩。饌食既訖嚼楊枝而為淨。澡漱未終無相執觸。每有溲溺必事澡灌。身塗諸香。所謂梅檀鬱金也。君王將浴。鼓奏絃歌祭祀拜祠沐浴盥洗。遂使瑞表恆星。鬱玄妙於千載。美文德之盛。鬱為稱首。北拘盧洲舊曰。鬱單越。鳩樓。訛也金輪王乃化被四天下。

²²⁴.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²²⁵.

[隋書](#): 流求國，居海島之中，當建安郡東，水行五日而至。土多山洞。其王姓歡斯氏，名渴刺兜，不知其由來有國代數也。彼土人呼之為可老羊，妻曰多拔茶。所居曰波羅檀洞。KBS 역사저널 그날. 마도 3 호선의 비밀. KBS 역사추적 - 삼별초는 오키나와로 갔는가로 갔다

²²⁶. [通典](#): 天子從昆侖道入。昆侖道，即依黃帝時制也， [舊唐書](#):

廣州地際南海，每歲有昆侖乘舶以珍物與中國交市。舊都督路元睿冒求其貨，昆侖懷刃殺之。

自林邑以南，通號為「昆侖。貞臘國，在林邑西北，本扶南之屬國，「昆侖」之類。 [新唐書](#):

廣州昆侖殺其都督路元睿。武后時，累遷廣州都督。南海歲有昆侖舶市外區琛琲，前都督路元睿冒取其貨。 [驃國 as Key word](#).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을 지나(支那)라고 하던 남쪽 오지(奧地)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들이 세력을 모으자 당이 두차례 걸쳐 정벌을 시도 하다 실패 했다. 지상의 낙원 으로 알려진 남조를, 원나라 쿠빌라이가 정벌 했다. 백제 양호(梁浩)가 원 세조 4년(1263년)에 사신으로 갔다.²²⁷ 고려 에서도 사신을 보냈다. 남조에 살던 삼한 사람들은 원나라 통치를 피해 분산 되었다. 옛부터 알려진 차마고도를 따라 원시불교 발생지에 이르렀다. 허황옥의 선조가 내려온 길이다. 그 곳에서 불교 성직자 들의 환영을 받아 옛 한국어가 파리어 (婆尼 Pali language)에 남아 있게 되었다 고 본다.

다른 한 부류는 매콩강을 따라 동남아 해안으로 내려와, 부여씨의 후손이 동남아 해안을 따라 천축국에 다니던 사람들과 만났다. 매콩강 해안에는 삼한의 혈통을 이어 받은 세 지류가 만나 방대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3.절: 지나 (支那)의 어원: 현장(玄奘;602년 - 664년)의 서역기에 지나는 전왕 대진(大秦)의 국호(至那者前王之國號) 라고 했던 표현을, 당 현종 (唐玄宗; 685년 - 762년)이 정벌하지 못한 남조 표신을 비하해서 읊은 시문 제법서(題梵書)에 가지 지자 지나(支那)로 바꾼 글자가 China 의 어원이 되었다.²²⁸ 현장은 지나 (至那) 를 형용사로 동쪽(東土)에서 온 사람들(斯, 東夷)이 정착한 인도 동북지역에 사용 했다. 당나라 사람이 편술한 유양잡조(酉陽雜俎)에 김일제 후손의 한 지류가 강남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왕의 성씨를 김가(金哥), 먼 선조를 방이(旁缶), 수도를 의의(宜矣) 라고 기록 했다. 기록에는 누애치는 예기와 코끼리가 나온다. 남쪽 지나라고 부르던 백월 (百越), 월주(粵州)에 신라 수도가 있었다.²²⁹ 원사(元史)에 이르기를 복건성에 신라현(新羅縣) 이

²²⁷. 元史 本紀第六 世祖三:

四年春正月.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 禁僧官侵理民訟. 辛亥, 封安肅公張柔為蔡國公, 以趙璧為樞密副使. 癸丑, 敕封昔木土山為武定山, 其神曰武定公; 泉為靈淵, 其神曰靈淵侯. 高麗國王王禎遣使來朝, 詔撫慰之. 城大都. 帝撫慰之曰. 무우왕 無憂王 Ashoka [Origin of Tibetan Buddhism « Lee Mosol's Book Collection](#) .

²²⁸.

唐玄宗《題梵書》:鶴立蛇形勢未休, 五天文字鬼神愁. 支那弟子無言語, 穿耳胡僧笑點頭. [支那 - 維基百科, 自由的百科全書 \(wikipedia.org\)](#).

²²⁹. [太平廣記 蠻夷二 新羅](#)

又新羅國有第一貴明鈔本「貴」作「國」。族金哥。其遠祖名旁缶。其兄旁缶。因分居, 乞衣食。其

있었다.²³⁰ 운남성에 있던 지나황제(支那皇帝)가 다스리던 사람들이 원나라의 친입을 받아 매콩강을 따라 태국(泰國; Siam) 땅에 내려와 살았다. 시라(尸羅 Sila)와 음이 비슷하다. 중국의 특산물로 명주견사(Silk)가 서양에 아려져 동남아 지나(支那)에 있던 작은 왕국 시라(尸羅 Sila, 新羅)가 Cina의 어원이 되었다.

4 절:화랑의 어원: 패르샤 왕자가 이슬람교 발생시기에 피란을 갔다. 그곳은 풍요롭고 코끼리가 있었다. 폴투갈 사람들이 처음으로 동남아 해안에 도착했다. 청나라 말기에 위원(魏源)은 이태리 선교사가 만든 만국지도 내용을 인용하여 해국도지(海國圖志)를 만들었다. 태국을 섬라(暹羅)라고 했다.²³¹ 지나(支那)의 일부였던 씨암(Sayam)으로 알려졌던 태국(泰國)이다. 이곳이 꽃다운 실라(Sila)공주 화랑(花娘, 花郎, Farang)의 출원지다. 섬라(暹羅)와 음이 비슷한 이름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탐라(耽羅)]어음이 타이완(Formosa, 夷洲)과 제주도에 붙었다.

남조 역사서에는 신라 수도를 “x 모라 牟羅”라고 적었다. 수서에 복건성 앞에 있는 대만을 “x 모라 桴牟羅”란 글자로 적었다.²³² 섬의 크기가 남북이 천여리(南北千餘里) 동서가 수백리, 백제의 부용국이라고 밝힌 이섬을 제주도라고 잘못 인식한다. 태국에 화랑의 모습 “Giant Farang Guard Statue”을 세웠다. 그와 비슷한 석상이 제주도 하루방이다.²³³

後子孫戲錐求狼糞，因雷震，錐失所在。出《酉陽雜俎》：晉安郡太康三年置。統縣八。原豐新羅宛平同安候官羅江晉安溫麻。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苻堅伐慕容桓於遼東。遣使拜百濟王餘句為鎮東將軍，領樂浪太守。

²³⁰. [元史](#):汀州路。唐開福撫二州山洞置州，治新羅，後改臨汀郡，汀州宋隸福建路。

²³¹. [海國圖志](#) 卷五: 東南洋一海岸之國。

萬國地理全圖集》曰：四大地之中，亞齊亞最廣大。大地北極出地二度，至七十八度，英國中線偏東。南及印度海，有東京、暹羅、北耳西海隅。

²³². [三國史記](#)：遼東道安撫副大使遼東行軍副大揔管兼熊津道安撫大使行軍揔管上柱國樂城縣開國男劉仁軌

²³³. [Wikipedia](#): 「Giant Farang Guard Statue at Wat Pho in Bangkok, Thailand.

V 가락국 허황후 화랑 가야금

1 절: 가락국 허황후: 수로왕(首露王)이 허황후를 만난 곳은 구지봉이 있는 오늘의 김해시다. 그곳에 가락국 수로왕의 부인 허씨의 비석이 있다.

가락국과 수로왕은 중앙 아시아에 이르렀던 원시 불교가 육로로 전래된 발해만에 나타났다. 가라연맹이 신라와 같이 한반도 남쪽에 정착한 이후 남방해상로를 따라 들어온 남방불교에 결부 시켜 허황후가 나타났다.

가야국(加耶國) 수로왕(首露王) 이서국(伊西國) 하는 이름이 신라 초기 발해만 연안에 나타났다. 후에 한반도로 옮겨 졌다. 가락국기에 자주색 실이 내려 다섯개의 알이 내려와 다섯 가야의 지도자(五伽耶之主)가 나타났다. 수로왕이 여섯 가라 연맹체의 수장이 되었다는 가락이란 글자는 내려 왔다는 뜻이 있다. 그가 자리잡은 곳을 자성(茲城)이라 했다.²³⁴

이서국 또한 서쪽에서 왔다는 뜻이다. 그때 죽엽군이 나타났다. 모두 서역 에서 온 오손족이다. 그곳에 구자(龜茲)국이 한나라와 화친을 하여 교류가 왕성 했었다.²³⁵ 대당 서역기에 굴지국(屈支國)이 옛적 구자국(龜茲)이라 했다. 이에서 구지가(龜旨歌), 구지봉(龜旨峯), 하지왕(荷知王), 구지하성(久知下城) 하는 이름 이 금관가야의 수도 김해시에 결부 되었다.

허황후의 선조는 불교 발생지역인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옛 통상로 차마고도를 통해 지나(支那)라고 알려진 운남성에서 이르렀다. 태평광기 에는 신라에 관한 예기가 많이

²³⁴. [三國遺事](#):

伊西國人來攻金城.金官五伽耶按駕洛記贊云.垂一紫纓.下六圓卵.五歸各邑.一在茲城則一為首露王.餘五各為五伽耶之主.金官不入五數當矣.而本朝史略.

²³⁵. [前漢紀](#)

孝宣皇帝紀二:龜茲王及其夫人來朝.龜茲夫人.即烏孫公主女也.自以得尚漢外孫.[大唐西域記](#):屈支國.東西千餘里.南北六百餘里.國大都城周十七八里.屈居勿反支國舊日龜茲

실렸다. 출처를 당나라 사람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라 했다. 당시 지나는 당나라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풍문에 들은 예기를 모아 기록 했다. 내용에는 도깨비방망이 설화가 실렸다. 키 큰 사람이 사는 나라와 키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털보들이 사는 나라(長鬚國), 코 큰사람(鼻長)이 사는 사이에 방이(旁缶)를 시조로 하는 김씨(金哥)의 신라(新羅)가 있었다.²³⁶ 코끼리와 누애를 치던 곳이었다.

남쪽나라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고난을 치루던 예기가 설화로 많이 남아 있다.²³⁷ 항아(嫦娥)가 궁수 예(羿, 백익)의 불사약을 훔쳐먹고 달에 가서 두꺼비가 되었다. 해 안에는 삼족오, 달안에는 토끼 한마리와 두꺼비가 있다는 기록도 있다. 지나 지역에 살았던 도가(道家) 곽홍의 포박자(抱朴子)는 남쪽 지역을 설명 하며 원숭이는 5 백년을 자라 확(獮, 고릴라?)이 되고, 두꺼비는 3 천년, 기린은 2 천년을 산다고 했다.²³⁸

지나(支那)라고 부르던 강남에는 객가(客家)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가락국 수로왕 비문에 새겨진 보주(普州)는 보자군(普慈郡)과 같이 사천성 양자강(長江) 수계에 있었다.²³⁹ 허씨는 운남성에서 해안으로 나와 남방 향로를 따라 원화, 화랑, 풍월주가 나타 나던 시절에 한반도 낙동강 하류에 이르렀다.

가락국기(駕洛國記)는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년 ~ 1083년) 때에 김해 지주사가

²³⁶. [太平廣記](#) 新羅:

新羅國有第一貴明鈔本「貴」作「國」。族金哥。其遠祖名旁缶。有弟一人，甚有家財。其兄旁缶。因分居，乞衣食。國人有與其隙地一畝，乃求蠶穀種于弟，弟蒸而與之。旁缶不知也。他日有中旨，令與一官謫去，特授長江縣尉，稍遷普州司倉而終

²³⁷. [論衡](#) 說日: 儒者曰: 「日中有三足烏，月中有兔、蟾蜍。」.

²³⁸. [說苑](#)

猿壽五百歲變為獮。獮壽千歲。蟾蜍壽三千歲，騏驎壽二千歲。 , [酉陽雜俎](#): 舊言月中有桂，有蟾蜍，故異書言月桂高五百丈，下有一人常斫之，樹創隨合。人姓吳名剛，西河人，學仙有過，謫令伐樹。釋氏書言須彌山南面有閻扶樹，月過，樹影入月中。或言月中蟾桂地影也，空處水影也，此語差近。《後漢·天文志》嫦娥竊羿不死藥，奔月，及之，為蟾蜍。

²³⁹. [舊唐書](#): 普州中隋資陽郡之安岳縣。武德二年，分資州之安岳、隆康、安居、普慈四縣置普州

지었다.²⁴⁰ 폐허가 되어 밭으로 쓰던 땅에 수로(水路)를 만들고 물을 넣어 신답평(新沓坪)이라 했다. 삼국사기에 나타나지 않는 수로(水路)란 글자가 삼국유사에 몇차례 실렸다. 성덕왕(聖德王) 때에 강릉태수로 가던 사람의 부인을 바다에서 나타난 용(龍)에게 잃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해가(海歌)를 불렀다. 그 내용에 [거북아 거북아 어서 수로부인(水路夫人)을 내놓아라(龜乎龜乎出水路)] 하는 구절이 있다. 꽃을 따서 수로부인에게 바쳤다는 헌화가(獻花歌)도 이 때 나타났다. 한국에 없는 사자상을 실은 배로 우산국을 정벌 했다. 모두 음과 뜻을 이리저리 돌려 만든 글자다. 답(沓)자 가 설문해자에는 없다.

열하일기에 답(沓)자 설명이 있다.²⁴¹ 가락국이 있던 밭에 수로(水路)를 만들어 논(沓)으로 제 정리 하면서 만든 글자라 짐욕(朕欲) 정치 경도(定置京都)라 했다.²⁴² 신라 말기 경덕왕이 석도안(釋道安)을 존경 하여 도안현(道安縣)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남겼다. 가라국왕 하지(加羅王荷知)가 살던 곳에 수로(水路)를 만들어 가야금 노랫가락이 들리는 가락국(駕洛國)수로왕(首露王)이라 했다. 김유신의 12대 선조가 수로왕이다. 그가 어서 왔는가 아무도 모른다. 일설에는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 한다. 후한건무(後漢建武) 18년에 구봉(龜峰)에 올라가 가락(駕洛)의 9촌(村)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加耶)라 하였다. 후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²⁴³ 고조선 발생지 구주(九州, 九疇)의 뜻을 살려 구지봉에 올라가 내려다 본 광경을 “망 가락 구촌 望駕洛九村”이라 했다. 구촌의 이름이 없다. 김유신의 증조를 구해(仇亥)손이라 했다. 가라연맹은 고구려와 같은 유목민(亥, 解, 蓋)이 었다.

²⁴⁰ .

隋書: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牟羅國, 其船得還, 經於百濟, 昌資送之甚厚, 並遣使奉表賀平陳.其南海行三月, 有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麀鹿, 附庸於百濟.

²⁴¹ . 熱河日記「所謂沓洞 以其長時沮洳 故我人所名云 沓本無字 我東吏簿水田二字合書作會意 借音沓

²⁴² . 三國遺事:朕欲定置京都。仍駕幸假宮之南新沓坪是古來閑田。新耕作故云也。沓乃俗文也

²⁴³ . 三國史記

金庾信, 王京人也。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為金官國。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仇充, 或云仇次休, 於庾信為曾祖。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庾信碑亦云:「軒轅之裔, 少昊之胤。」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 同姓也。

진흥왕 때에 나이 십오륙세 였던 젊은 화랑 사다함 (斯多唵)이 압장서서 전단량 (旃檀梁), 즉 구름다리 건너 정문으로 들어가 깃발을 꽂아 562 년 에 가야국(加耶國)을 정벌 했다. 가라(加羅 加耶)언어로 성문, 즉 사원으로 드러가는 곳에 세워 놓은 여문(閨門 Torii)을 (다리 양梁 구름운)양운이라 했다. 그 위에 신라 화랑의 깃발을 달았다.²⁴⁴ 갑작스런 친입에 성은 아수라 장이 되었다. 백제의 담로 (簾魯) 였던 구지하성 (久知下城) 이다.²⁴⁵ 그곳에 살던 하지왕 (荷知王)이 남제(南齊) 에 사신을 보냈던 곳이다.²⁴⁶

아수라장 (阿修羅場) 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아수라 (阿修羅) 와 음이 같은 아소(阿蘇)란 이름을 일본 구주에 있는 활화산에 붙였다.²⁴⁷ 처음 그곳을 발견한 불교국가 수나라가 붙인 이름이다.

서쪽에서 오던 배가 동쪽으로 갔다. 가야는 신라 보다 먼저 한반도 남쪽에 도착하여

²⁴⁴. [三國史記](#):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奈勿王四世孫。異斯夫，襲加羅一作加耶。國。

先入●檀梁●檀梁，城門名。加羅語謂門為梁云。。其國人，不意兵猝至，驚動不能禦，大兵乘之，遂滅其國 云南=雲南省

²⁴⁵. [北史](#):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遂為東夷強國。初以百家濟，因號百濟。其都曰居拔城，亦曰固麻城。其外更有五方：中方曰古沙城，東方曰得安城，南方曰久知下城，西方曰刀先城，北方曰熊津城。王姓餘氏，號「於羅瑕」，百姓呼為「韃吉支」，夏言並王也。 [三國志](#)

倭人傳於羅屬大秦，其治在汜復東北，從於羅東北又渡河，斯羅東北又渡河。斯羅國屬安息，與大秦接也

²⁴⁶.

[南齊書](#):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為鎮東大將軍

²⁴⁷. [dictionary](#):

阿蘇羅之略。譯曰非天。西域記九曰：「阿素落，舊曰阿修羅，又曰阿須倫，又曰阿蘇羅，此皆訛也。」見阿修羅條。阿蘇羅 見阿修羅條

낙동강 하구에 자리를 잡고 점차로 상류로 올라 갔다.²⁴⁸ 또 하나는 두꺼비 나룻터란 뜻에 섬진강(蟾津江)이라 했다. 낙동강과 섬진강 수계에 가라연맹국이 있었다.

2 절:가야금(伽倻琴)의 유래: 가야국 악기라 가야금(伽倻琴)이라 한다. 현악기는 태고적 부터 있었다. 유목민이 쓰던 삼현금(三絃琴) 악기가 해금(奚琴), 호금(胡琴)이다. 이에 현을 더하여, 현학금(玄鶴琴), 비파(琵琶)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변진한(弁辰傳)이 살던 발해만에서는 축과 같은 현악기 실(瑟, 其形似筑)을 사용 했다.²⁴⁹ 고조선 유민이 6 마을에 살던 신라 발생지다. 그곳에서 철전을 쓰던 가야 백제 왜가 나타나 바다로 진출 했다. 가야금을 만든 가실왕은 발해만 연안에서 내려온 고조선의 후예다.

상나라 고종이 죄수로 일하던 수미를 축어부험(筑於傅險) 즉 아사달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현인을 얻었다. 역수에서 연태자가 자객으로 형가와 그의 친구 음악가 고점려(高漸麗)를 보냈다. 고점려가 변치(變徵)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축은 본래 5 현금으로 5 음이 있었다. 여기에 변한 지역(今彌達)에서 개발한 변궁 변치(變宮, 變徵)두음을 더 했다.²⁵⁰ 자객 형가(荊軻)가 실패 하자 같이 갔던 고점려가 축(筑)으로 진시황을 때렸다.²⁵¹ 그러한 내력에서 현악기에 축이란 이름이

²⁴⁸.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三: 奈勿尼師今 十八年,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兩國和好, 約為兄弟。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則去, 固其所也。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百濟聞之, 不復言。

²⁴⁹. [三國志](#)

弁辰傳: 魏略曰: 明其為流移之人, 故為馬韓所制。魏略曰: 其國作屋, 橫累木為之, 有似牢獄也。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俗喜歌舞飲酒。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今辰韓人皆褊頭。男女近倭, 亦文身。便步戰, 兵仗與馬韓同。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²⁵⁰. [史記](#) 刺客列傳:

至易水之上, 既祖, 取道, 高漸離擊筑, 荊軻和而歌, 為變徵之聲, 士皆垂淚涕泣。又前而為歌曰: [사기열전 1](#): 김원중 옮김. 2007년 민음사. P.657 슬픈소리이다.

²⁵¹. [燕丹子](#)

卷上: 高漸離擊筑, 宋臆和之。 [論衡](#) 書虛: 《傳書》又言: 燕太子丹使刺客荊軻刺秦王, 不得, 誅死。後高漸麗復以擊筑見秦王, 秦王說之; 知燕太子之客, 乃冒其眼, 使之擊筑。

붙었다.²⁵²

우륵과 가실왕이 어느 가야 사람 인가는 뚜렷하지 않으나 같은 나라 사람이다.²⁵³ 같은 글자 가야산 (伽倻山) 가야사 (伽倻寺)하는 이름이 섬진강 과 낙동강 수계에 나타났다. 낙동이란 동쪽 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진흥왕순수비 (眞興王巡狩碑)가 있다. 가야산 (伽倻山) 서쪽 섬진강 수계에 있던 가야국 들은 진흥왕 이후에 백제에 흡수 되었다.

가야국 가실왕(加耶國嘉悉王)은 고점려(高漸麗)가 쓰던 고조선의 현악기 축(筑)에 현을 더하여 12 현금 (十二弦琴)을 만들었다. 우륵은 금관가야 사람이었다. 고국을 진흥왕에게 빼앗겼다.²⁵⁴ 망국의 한을 담아 상하 가라도 를 읊었다. 우륵이 신라에 가서 가야금을 전하고 읊은 곡 이름에 하 상 가라도 (加羅都)가 있다. 그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가야 하나를 더 병합 했다. 모두 만주에서 내려 왔다. 백제 무령왕(武寧王 斯麻, 재위: 501-523년) 이름이 사마다. 수서에 실린 도사마(都斯麻)가 백제의 구지하성 (久知下城)이다. 낙동강 하구 구지봉이 있는 김해시가 그들의 고향이다.

3 절: 임나(任那)는 의역(意譯)이요 가라(加羅)는 음역(音譯)한 글자다:

가라란 어음의 여러 사음(寫音)자는 모두 오호 십육국시대 남조 역사 기록에 나타난다. 가야산(伽耶山)은 인도 동북부에 있는 영산(靈山)이라고 부르던 천애 (天涯) 의

²⁵². [史記](#) 殷本紀: 帝武丁即位，思復興殷，而未得其佐。得說於傅險中。是時說為胥靡，筑於傅險。

²⁵³. [三國史記](#):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先是，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加耶亡國之音。乃命于勒製其曲。及其國亂，操樂器投我，其樂名加耶琴。 <https://zh.wikipedia.org/zh-hant/嘉悉王>

²⁵⁴. [隋書](#): 文林郎裴清使於倭國。度百濟，行至竹島，南望舩羅國，經都斯麻國，迴在大海中。

요새(要塞)다.²⁵⁵ 산정상에는 솔도파(率堵婆)라는 위쪽이 뾰족한 불교의 탑이 있다. 무위왕(無憂王)이 여러 곳에 석탑을 세웠다. 동진 시대에 2,000 리 떨어진 사자국으로부터 남방불교가 강남에 이르렀다. 스님이 신임을 받아 다스려 임나가라 (任那加羅)라 했다.

나라(那羅) 또는 날라(捺羅) 라고도 적은 글자는 옛 한국어를 음역한 글자다.²⁵⁶ 이를 국가 또는 날 비(飛, fly)로 풀이 했다. 서역기에 금왕 본 나라연천지 조운(今王本那羅延天之祚胤)이라, 즉 하늘로 부터 내려온 왕의 후손이란 뜻이다. 천손강림(天孫降臨)사상에 근거한 글자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삼족오 (三足鳥)가 후에는 장닭으로 상여에 올려 놓았다. 상나라 시조 은계(殷契)의 어머니 간적 (簡狄)이 제비(帝妃; 제비, swallow) 알 (玄鳥卵)을 먹어 임신하여 상나라 시조를 낳았다.²⁵⁷ 그녀는 서쪽에서 온 유목민(城氏之女)의 여자로서 제국 고신씨(帝嚳高辛氏)의 두째 부인이었다.

신라가 수도를 한반도로 옮기고 남방 불교를 따라 올라온 김일제의 다른 후손이 올라와 신라에 성골(聖骨)이란 명칭이 나타났다.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 ~ 632 년)의 이름은

²⁵⁵. [大唐西域記](#): 東至小川澤。泉池澄鏡林樹青蔥。有僧伽藍。

商諾迦縛娑舊曰商那和修訛也大阿羅漢所持鐵鉢量可八九升。及阿羅漢於中漱口嚼楊枝。

越黑嶺入北印度境至濫波國北印度境。

²⁵⁶. [大唐西域記](#):

今王本那羅延天之祚胤。婆羅門之種也。字婆塞羯羅伐摩唐言日胄號拘摩羅唐言童子自據. [User dictionary](#)

Nara - nari, 那羅為男性, 那里為女姓。言男女兩性之會合, 為那羅那里之娛樂。理趣釋上曰: 「妙適者, 即梵語蘇羅多也。蘇羅哆者, 如世間那羅那里娛樂。」「那羅, 此云力。即是掙力戲, 亦是設筋力戲也。」二曰: 「那羅, 翻上伎戲。」正言捺羅, 此云人

²⁵⁷. [史記](#)

殷本紀:殷契, 母曰簡狄, 有城氏之女, 為帝嚳次妃。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婆羅門之種也。字婆塞羯羅伐摩唐言日胄號拘摩羅唐言童子自據. [User dictionary](#)

Nara - nari, 那羅為男性, 那里為女姓。言男女兩性之會合, 為那羅那里之娛樂。理趣釋上曰: 「妙適者, 即梵語蘇羅多也。蘇羅哆者, 如世間那羅那里娛樂。」「那羅, 此云力。即是掙力戲, 亦是設筋力戲也。」二曰: 「那羅, 翻上伎戲。」正言捺羅, 此云人

백정(白淨), 부인이 마야 부인(摩耶)이다.²⁵⁸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다. 백정이란 불가의 부도(浮屠), 즉 떠돌이 소백정(白丁,屠殺者, butcher)이다. 다른 글자로 부도(浮圖)라고 적기도 한다. 옛적에 쓰던 한국어가 불교 경전과 현대 한국에 살아 있다.

스님 도림(浮屠道琳)이 백제왕을 찾아 갔던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앞을 지나는 강이 옥리하(郁里河)라 했다. 이 또한 높은 사람이 사는 마을을 지나는 강이란 뜻이다. 백제 개로왕(蓋鹵王, ?~475년)과 바둑을 두었다는 도림은 남방불교 스님이었다. 평양 교외에 단군능 지하 궁전 벽화는 불교 풍이 많이 섞였다.²⁵⁹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三日浦)는 신라 국선이 놀다 남긴 이름이라 한다. 속초 가까이 아야(阿耶)진 이란 해수욕장이 있다. 설악산 북쪽에는 미시령(彌時嶺)이 있다. 높다는 뜻(鬱為稱首)의 사슴자 울(鬱)을 붙인 [울릉도, 울진, 울산바위] 하는 이름 들이 신라 영역에 나타났다. 모두 남방 불교가 신라에 전래된 이후에 나타난 이름이다.

남방 불교가 전래된 시절에 동남아 특산물이 한반도에 이르렀다. 현지음이 잘못 번역되어 뜻이 다른 글자로 나타나기도 했다. 옥으로 만들었던 규를 상아로 만들고 사자 허수아비로 우산국을 정벌 했다.

4 절: 남방과의 교류가 신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는 화랑도가 나타났다. 신라 진평왕 시대 원광 법사(圓光法師; 542년 ~ 640년)가 초씨역림(焦氏易林)에 나오는 일신오심(一身五心)을 불교에 접붙여 세속오계(世俗五戒) 나타났다.

²⁵⁸. [三國史記](#):

真平王立。諱白淨，真興王太子銅輪之子也。母金氏萬呼一云萬內。夫人，葛文王立宗之女。妃金氏摩耶夫人，葛文王福勝之女。王生有奇相，身體長大，志識沉毅明達。

²⁵⁹. [단군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오계의 원천은 백익(益)의 경계하라는 몇 구절을 불가에서 적용 했다.²⁶⁰ 유가에서는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문자(斯文)로 작성된 금인명(金人銘)을 환제가 한 예기라 한다. 스님이 가르친 다섯 가지 계율이 신라 화랑 (花郎) 오계의 뿌리가 되었다.

수서에 “新羅 百濟 皆以倭為大國”란 문구가 있다. 다개(皆)자는 백제의 부용국을 모두 포함 했다는 뜻이다. 신라 백제 가야 연맹 여러 불교국가 들이 왜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대륙을 잃고 열도로 피해 갔던 부여씨가 수야제에게 보낸 서한에 [해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 천자에게 무양 (沒處天子無恙) 한가 하는 문구] 가 실려 수양제가 크게 화를 냈다.²⁶¹ 일본 승려가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친서를 전했다. 일본은 백제로 부터 흙명 천왕 13 년 (欽明天皇;539 – 571 년)에 불경을 전해 받았다고 했다.²⁶² 이를 양나라 승희원년 (梁承聖), 즉 552 년이라 했다. 위덕왕(威德王, 525- 598 년)시절에 후경이 거발성을 점령하던 무렵이다. 원나라 때에도 강남 복건성에 신라(현)가 있었다. ²⁶³ 그

²⁶⁰. [尚書](#)

虞書:益曰:「吁!戒哉!儆戒無虞,罔失法度。罔遊于逸,罔淫于樂。任賢勿貳,去邪勿疑。疑謀勿成,百志惟熙。罔違道以干百姓之譽,罔咈百姓以從己之欲。無怠無荒,四夷來王。

²⁶¹. [隋書](#):倭國.無文字,唯刻木結繩。敬佛法,於百濟求得佛經,始有文字。知卜筮,尤信巫覡。新羅、百濟皆以倭為大國,多珍物,並敬仰之,恒通使往來。

隋大業三年,其王多利思比孤遣使朝貢。使者曰:「聞海西菩薩天子重興佛法,故遣朝拜,兼沙門數十人來學佛法。」其國書曰「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無恙」云云。帝覽之不悅

²⁶².

[宋史](#):日本國僧裔然與其徒五六人浮海而至,獻銅器十餘事,並本國《職員令》、《王年代紀》各一卷。裔然衣綠,自云姓藤原氏,父為真連;真連,其國五品品官也。裔然善隸書,而不通華言,問其風土,但書以對云:「國中有《五經》書及佛經、欽明天皇即位十三年,壬申歲始傳佛法于百濟國,當此土梁承聖 552/2/11 - 553/1/29 承聖元年元年 壬申歲始傳佛法于百濟國

²⁶³. [元史](#):本紀第六 世祖三:乙巳,百濟遣其臣梁浩來朝,賜以錦繡有差。禁僧官侵理民訟。

乙卯,高麗國王王禕遣使來朝.元史 地理四:

昆陽州,下。在滇池南,僊、獯雜夷所居,有城曰巨橋,今為州治。閻羅鳳叛唐,令曲旂蠻居之。段氏興,隸善闡.今夷中名其地曰羅伽甸 [[元史](#)]:

汀州路,唐開福、撫二州山洞置州,治新羅,後改臨汀郡,又仍為汀州。宋隸福建路。

지명을 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 에는 남조 역사서에 실린 신라에 관해 설명 했다. 신라어의 많은 명사가 만주어를 사음한 글자라고 했다.²⁶⁴

문무왕이 특사로 사찬(沙飡) 수미산(須彌山)을 보내, 왕실의 후손 안승을 왕으로 봉하여 장수왕이 빼앗은 부여경의 한성(漢城)에 살도록 했다.²⁶⁵ 오늘의 한반도에 있는 평양은 고구려 유민이 설립한 안승(安勝, 安舜)의 후고구려(後高句麗) 수도 였다.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고양이 석상은 천축국에서 성수로 쓰던 사자(獅子)상이 고양이 석상으로 나타났다. 달을 숭상하던 불교에서 만월을 뜻한 상원을 사찰 이름으로 사용 했다.

VI 장: 맺음 말

백익을 잃은 고조선의 한 부족이 사천성을 지나 운남 지역에 정착 했다. 그 지역 도사(道士)들이 옛적부터 알려진 길을 따라 올라가, 히말리아 산맥 동쪽 수지(隨地)에 천부경을 전했던 곳이라 인도(印度)라 했다. 그곳에서 원시 불교가 나타났다. 같은 길을 따라 내려와 지나(支那) 방대한 지역에 불교가 전파 되었다. 마술사 시라(尸羅)가 전국시대 연나라 수도에 불상을 갖고 와서, 불교 문화가 해하(海河) 수계 상류 임유관(臨渝關) 일대 금미달(今彌達)에 알려 졌다. 금미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만주 땅에 북부여가 나타났다. 그때에 고조선의 사제권이 부여씨에게 넘어갔다.

帝欲通好日本，以高麗與日本鄰國。

百濟遣其臣梁浩來朝，賜以錦繡有差。禁僧官侵理民訟。朝議興兵討暹國、羅斛、馬八兒、俱藍、蘇木都刺諸國。會蘇木達國亦遣人因俱藍主乞降。]

²⁶⁴. [欽定滿洲源流考卷十八](#): 梁書新羅土地肥美宜植五穀多桑麻作縑布。

北史新羅田甚良沃水陸兼種其五穀果菜鳥獸物產略與內地同。隋書新羅田甚良沃水陸兼種物產輿華同。"新羅"梁書新羅國有六喙■五十二邑勒詳後語言條內其官名有子賁旱支齊旱支謁旱支壹告支奇貝旱支按滿洲語哈濟親近也新羅官名不止于此而此數官皆有旱支二字之稱與哈濟音實相近或皆屬近臣之稱耳

²⁶⁵. [三國史記](#): 陷王所都漢城，殺其王扶餘慶，迎致漢城中。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六](#): 遣沙飡須彌山封安勝為高句麗王。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公太祖中牟王..仁教被於玄菟。本支不絕，年將八百。至於津

해하(海河) 수계 상류에 살던 고조선 사람들이 맥군 남려(蕤君南閩)를 따라 발해만 일대로 내려와 왔다. 이를 창해지군 이라 했다. 그곳에 부여의 혈통을 지닌 비류가 정착했다. 그 곳에 살던 삼한 사람들을 한(可汗, 韓)이 다스렸다. 삼한의 한 부류를 왜(倭)라고 했다. 왜오왕이 다스리던 부족이 동남아로 내려가 운남성 에서 매콩강 을 따라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지나 (支那) 땅에 여러 불교 국가를 이루었다. 사마씨가 강남으로 이주한 이후, 동남아 해안을 따라 남방 불교가 광동성 해안에 전래 되었다. 그 곳에서 해안을 따라 발해만 일대에 전래 되어 설라 휴인 (薛羅, 休忍)이라 하던 이름이 신라 (新羅), 임나 가라 (任那加羅) 란 이름으로 바뀌었다.²⁶⁶

남만주에 있던 신라와 금관가라는 광개토 대왕 이후에 한반도 남쪽으로 수도 를 옮겼다. 황해의 남방 해로가 개발된 후에 남방불교가 한반도로 전래 되어 신라를 부흥 시켰다. 동남아에 있던 작은 왕국 신라의 공주 화랑 (Farang) 이 남자로 바뀌어 제주도에 하루방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섬나 (Siam)와 음이 비슷한 이름이 대만(擘牟羅) 과 제주도에 붙었다.

동남아에 있던 신라 공주 화랑에서 호랑도란 이름이 나타났다. 가락국 수로왕 부인 허황옥이 공주 화랑이었다. 진흥왕 23 년(537 년) 에 나마신득 (奈麻身得)이 신무기 포노(砲弩, cross bow)를 만들었다. 사다함 (斯多唵) 의 화랑도가 백제의 부용국이었던 김해 가야국 (加耶國, 駕洛國)을 정벌 했다.²⁶⁷ 가락국 음악기 가야금을 우륵이 신라에 전했다. 허황옥의 딸이 신라 선덕 여왕 이다. 신라 귀족 출신 원광 스님이 불교의 세속오계를 근간으로 화랑 오계를 남겨 신라 젊은이의 가치관이 확립 되었다.

²⁶⁶. [晉書](#) 志第五 地理下:晉安郡太康三年置。統縣八。原豐新羅宛平同安候官羅江晉安溫麻。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苻堅伐慕容桓於遼東。遣使拜百濟王餘旬為鎮東將軍，領樂浪太守。

²⁶⁷. [三國史記](#) 新羅本紀:奈鮮尼師今立，伐休王之孫也。加羅王子來請救。王命太子于老與伊伐滄利音將六部兵往救之。于勒所製十二曲：一曰下加羅都，二曰上加羅都。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時人請奉為花郎，不得已為之。眞興王命伊●異斯夫，襲加羅一作加耶國。

양자강 하류 남경 일대에 있던 백제 수도 거발성 (居拔城)이 549 년에 점령 당했다. 대륙북제와 강남에 있던 진(陳) 나라를 수나라가 병합하던 시절에 중원세력이 만든 큰 배가 백제 영역이 있던 대마도에 표류 되었다. 그때에 처음으로 중원 세력이 황해의 남쪽 항로를 따라 한반도 남단 항구를 지나갔다. 그 곳을 백제의 부용국 이었던 금관가라를 도사마국 (都斯麻國) 이라 했다. 가락국왕 하지 (荷知)의 수도였다. 구자(龜茲)국에서 왔다는 뜻에 구지봉이라 이름을 붙인 경남 진해시를 구지하성 (久知下城)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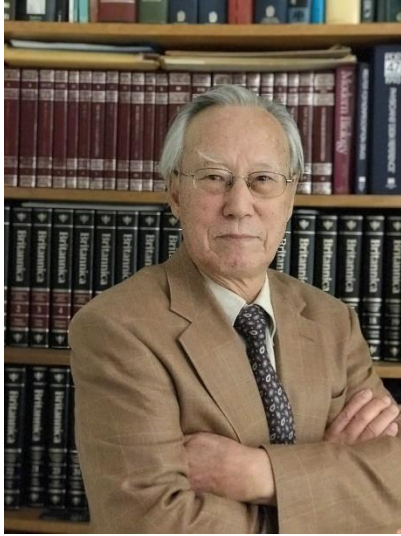
일본 영역에 여관 (許家)이 많은 섬나라 일지국(一支國)이 있었다. 대마도 와 일지국 사이가 현해탄이다. 대륙을 잃는 열도백제 부여씨 왜왕이 603 년 에 사신과 함께 스님 10 여명 을 수양제에게 보네 불경을 배우도록 했다. 일본이란 이름은 화랑도 였던 김춘추가 백강 전투에서 왜를 물리치고 고구려 마저 흡수한 뒤에 나타났다. 왜가 혼슈 동쪽에서 두번째 혼(魂)이란 뜻의 니혼(日本; 二本) 이란 새 나라를 세우고 670 년에 신라에 알렸다. 그후 당나라에 알렸다. 문무왕은 구주에 사는 왜의 침입이 우려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겨 문무왕 무덤으로 알려진 대왕암 (大王岩) 이 울산 앞 바다에 있다.

불교가 강남에 전래된 시기에 있던 신라 임나가야 (新羅 任那加羅)라는 이름자가 남방불교를 따라 발해만 연안에 이르러 광개토대왕 비문에 같은 글자로 실렸다. 옛 한국어를 음역한 글자를 잘못 풀이 하여 불교경전 대루탄경에 실린 글자 또한 옳바로 풀이 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바꾸었다.

이렇게 번역이 잘못 된 사실을 일본 열도 사람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풀이 하여 임나가야 일본부 (任那加羅日本府)라는 낭설이 나타났다.

끝

January 15th, 2022. Revised August 15th, October 12th, 2022



Don Seung Lee, MD, MPH
mosollee@gmail.com

Retired physician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Georgetown University in 2010. My first book in Korean "뿌리를 찾아서 (Searching for the Root)", was written in 2011 Following articles had been submitted: Etymology of Khitan Empire; Name of Khitan came from the Hédàn 赫旦 in the Shijing. Early China Wu the Great of China and Nine Provinces. Cambridge JAS

The Queen Bimiho (倭女王卑弥呼) was the Queen of Baekjae(百濟).

Linguistic and Historical examination of Bal Joseon -發朝鮮考. To JNEAH.

Despite of many articles to academic journals, none had been accepted. My theory is a lone voice from over the great wall. Decided to self-published my Academic views and made my website: Many articles uploaded in my website and Face Book:

<http://www.ancienthistoryofkorea.com/삼한-三韓의-후예-後裔들/>

- 2013: Ancient History of the Manchuria. Redefining the Past. By Xlibris, USA.
- 2015: Ancient History of Korea. Mystery Unveiled. By Xlibris, USA.
- 2015 November: Co-author; Korean Heritage Room. Cathedral of Learning University of Pittsburgh.
- 2016 August 8th: 古朝鮮 찾기. In Search of Old Joseon. 책 미래. Seoul Korea.
- 2018 Ancient History of Northeast Asia Redefined 東北亞 古代史 新論. By Xlibris, USA.
- 2020 October: Ancient History of Korea. Mystery Unveiled. Second Edition First appearance i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present my theory in 2019. Several public speeches to the Korean American organization.

Submitted the full manuscript for new Book in Spring 2023

We need another Voice. Taoism to Buddhism. By Xlibris

‘거짓말문화 척결 국민행동’이 시급하다

한검택

도산 안창호선생을 아버지로 착각했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종종 아버지를 도산 안창호선생으로 착각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거짓말이란 말을 코흘리개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배웠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선생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런 탓으로 나는 심심찮게 동구 밖 야산에서 아카시아나무를 꺾었다. 그곳이 나의 회초리 공장이기 때문이다. 히죽거리며 지나치는 동네사람들을 의식하며 내가 맞을 회초리를 고르는 기분은 어린마음에도 죽을 맛이였다.

짐작컨대 당시 거짓말들은 대부분이 오이와 참외서리일 터였다. 곰곰 생각해보지만 달리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초중학생이던 1960년대 당시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가 흔했던 오이와 참외서리였으니까. 학교에서 돌아와 몇몇이 산그늘에서 꿀망태를 채운 후, 쇠꼴을 걸고 낫치기를 하다 근처 밭에서 두세 개를 따 목을 축이는 거였다. 그러나 그렇게 용인됐던 오이나 참외서리도 아버지에게는 중범죄였다. 자기 돈으로 사거나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은 모든 게 남의 것이고, 따라서 그런 걸 탐하거나 취하는 건 도둑질이고 징역을 가야하는 일이라는 거였다.

그러니 주인이나 다른 입소문을 통해 나의 서리 가담을 아시면 즉시 무릎을 꿇려 앉힌 후 이실직고를 명하셨다. 그럼 대개는 누가 하자고해서 했다느니, 망만 봤다느니 하며 발뺌부터 했다. 순순한 자백이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을만한 정보망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주범임을 확인한 아버지는 단호했다.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셋째 아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되다니 배신감마저

드는 빛이었다.

"잘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아버지가 목소리를 한 박자 올리며 다그쳤다. 일순 아버지의 얼굴에서 냉장고의 냉기 같은 바람이 훅!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기어드는 목소리로 '잘못했습니다'만 연발했다.

"가서 회초리 세 개 꺾어와!"

그럼 나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동구 밖 야산으로 향했다. 아카시아와 싸리나무 중 아카시아 나무를 선호했다. 휘청대며 매끄러운 싸리나무보다 가시를 떼어내도 우툴두툴한 아카시아 나무가 덜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카시아 나무의 우툴두툴한 부분이 아버지의 감성을 자극해 손의 힘을 노글노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다.

죽을상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세 개 들고 들어가면 아버지는 어떤 것으로 맞고 싶냐고 물으셨다. 그럼 나는 민주적인 회초리를 가장한 아버지의 잔인함을 무시하듯 양쪽 바지춤을 무릎까지 추켜 올린 채 목침위로 올라섰다. 그럼 아버지는 하나하나 엄지와 검지로 나무 가지를 훑어보신 후 반반한 것으로 하나를 고르셨다.

"몇 대를 맞을까?"

아버지가 또다시 민주적인 회초리를 과시하셨으나 나는 그저 징징거릴 뿐이었다. 그런 경황에도 히죽거리시는 아버지의 눈과 마주치자 배꼽이 움찔거렸다. 그러나 나는 배꼽을 다잡아 계속 징징거렸다. 한대나 두 대만 맞고 싶었으나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읊소작전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세 대만 맞을까?"

나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어들어가는 대답과 함께 주억거렸다. 고문과도 같은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랄뿐이었다. 그만하면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건만 계속 그러시니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나, 둘, 하고 세? 하는 말과 함께 회초리가 종아리에 작열했다. 그러나 징징대는 말투로 둘, 하던 나는 일순 푸하하 웃음보를 터뜨렸다.

"회초리가 종아리에 닿지도 않았는데 둘이야?"

"빨리 때려주세요, 빨리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게 징징대며 빨리 때려달라는 화상이라니!, 아버지와 나는 또다시 애매한 웃음보를 교환했다. 크게 아프지도, 그렇다고 전혀 안 아프지도 않은 때는 그렇게 끝이 났다. 계속 징징거리는 나를 묘한 표정으로 훑쳐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또다시 배꼽이 움찔거렸지만 재차 안간힘을 쓰며 다잡았다.

이런 내 꼬라지를 애매한 빛으로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매가 참새를 낚아채듯 나를 품안으로 끌어안으셨다. 그리고는 온몸이 으스스해질 듯 껴안으신 후 조곤조곤 말씀하셨다.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죄가 미워서 그런 거야. 너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든 나쁜 마음이 미워서 그런 거야."

그런 경황에도 그럼 죄와 나쁜 마음을 때려야지 왜 나를 때리냐는 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으나 꿀꺽 삼켰다. 어린 나이에도 개전의 정이 없음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짓이자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말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계속 하게 된다고 하셨다. 그러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양심이란 가시가 있어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그게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남들이 알아본다며, 그러면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셨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이었지만 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의 충정을 무시한 채 내놓고 거짓말을 한 게 20대 초반이었다. 당시 공고 기계과를 졸업한 후 몇 군데 공장을 전전하던 나는 질식할 듯 한 공장 분위기에 절망했다. 그래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며 군 입대를 기다리며 지낸 터였다. 먹고사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으니 군에서 제대할 때까지 차차 생각하기로 했던 것이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기술만이 살길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채근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환갑이 지나며 부쩍 농사일을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도 돕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 보고 싶은 책을 보고 끼적거리는 기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 생신을 며칠 앞둔 때였다. 이웃집 자전거를 빌려 타고 20여리 면소재지의 오일장에 가 시장을 봐오라고 하셨다. 도시와 연결된 버스가 면소재지까지만 다녀 20여리 황톳길을 한 시간 넘게 걸어 다닐 때였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원시생활인 탓으로 곳곳한 시골 인심이 남아있어 노인들 생신을 가히 60여 호 동네잔치로 치를 지경이었다. 우리 집 두 방이 모자라 이웃집 안방과 사랑방까지 빌릴 정도였다. 아침은 동네의 이십여 노인들과 대여섯 집안네 식구들을, 점심은 동네의 나머지 중장년들을 불러 떡국수를 대접했다. 돼지고기나 생선 같은 귀한 반찬들은 아침에 쓰고 없으니 점심때 흰떡이 몇 개 섞인 국수를 냈다. 설이 지난 직후이다 보니 흰떡이 있었다. 반찬 역시 흔한 김장김치와 안방 윗목에 시루에 안쳐 키운 콩나물, 역시 집에서 키운 콩으로 만든 두부와 메밀묵 정도면 훌륭했던 것이다.

짐작컨대 제일 비싼 돼지고기 값을 뺀튀기해서 아버지께 드릴 잔돈을 착복했을 터였다. 가히 80키로 짜리 쌀 한가마니인 짐을 실은 짐자전거를 20여리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잔돈의 액수부터 물으셨다. 나는 남은 돈이 없다고 했다. 의아한 빛으로 거꾸 물으셨지만 시치미를 떼며 잡아땀다. 그러나 아버지는 뭔가 미심쩍다는 빛으로 뻘뻘 나를 바라보셨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에 나도 놀랐지만 내 입으로 뱉은 말이니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본능에 튀어나온 두 번째 거짓말에 더더욱 놀랐다. 불장난을 저지른 꼬마처럼 덜컥 겁이 날 지경이었다. 콧잔등이 화끈거리며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고, 짐 끈을 풀며 물건을 내리는 손길이 후덜덜 떨리기도 했다.

그리고 보름 후쯤 오일장을 다녀오신 아버지가 대뜸 물으셨다.

"지지난 장날 돼지고기 값을 얼마를 줬다고 했지?"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었다. 어제 장에 가셨을 때 정육점에서 물어보셨을. 터였다. 그러나 나는 까먹었다고 시치미를 댔다. 여하튼 거스름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우겼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한번 거짓말을 하니 두 번 세 번이 자동으로 나왔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당시 틈만 나면 책을 보고 글을 쓰는 문학열병에 시달리던 나는 보고 싶은 책은 많은데 돈은 없어 거의 공황상태였다. 특히 순수문예지인 월간 '현대문학'의 정기구독을 갈망하던 터였다. 그러나 자갈밭 두어 뚝과 해거리로 바닷물에 목욕을 하는 방조제 밑의 논 서너 배미로 여덟 식구가 근근이 먹고사는 집안 형편에 돈을 만져보는 것은 꿈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다 일손이 부족한 남의 일을 갈 때도 대부분 품앗이니 더더욱 그랬다.

소설이라기보다는 내 멋대로 끼적인 잡문수준의 글이지만 꿈만은 커서 '현대문학' 신인추천작들의 수준과 심사평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언감생심 신춘문예나 '창작과 비평'같은 문예지는 꿈도 못 꾸고 '현대문학'이 만만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만져보니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낼 수도 없는 일이니 도리가 없다는 듯 체념의 빛으로 돌아서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렇게 회초리를 들며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건만 쇠귀에 경 읽기라니.... 그때의 아버지의 처연한 모습에 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충동을 어찌할 수 없었다. 흡사 나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간주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로소이다! 하는 자책의 빛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내 고개는 천근만근이 되어 들기가 어려웠고, 얼굴 역시 간단히 술을 마신듯 화끈거리며 진땀이 흐르는 이상증세가 일었다. 아니 얼굴이 흥측하게 일그러진 것 같기도 했다. 그래 거울을 자주 볼 지경이었다. 다른 식구들 앞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아버지 앞에서 증세가 심했다. 시선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기 바빴고, 혀 역시 가벼운 마비증세가 생겨 말투 역시 중언부언이었다. 당시 곳곳에 붙어있던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가 간첩이 아닌 나를 두고 만든 표어로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편찮으시자 18 세 위의 배다른 형에 의해 9 세에 생모와 함께 분가를 당한 아버지가 생전에 제일 싫어하신 게 거짓말이었는데, 이렇게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13 세에 생모마저 돌아가셔서 천애의 고아가 되신 아버지가 그렇게도 강조하신 게 거짓말을 하지 말란 거였는데....

그럼에도 난 차일피일 사죄를 미루기 바빴다. 꼭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랬노라고, 그 책을 사보지 않고는 미칠 것만 같았다는 말이 수도 없이 입가를 맴돌았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을 떨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거짓말은 할 수 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자식은 그러리라 믿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셨을 텐데 그걸 못했다. 그러다 팔순이 지나 구순의 오르막길을 허위허위 오르시자 겨우 죄송하다는 말을 웅얼거렸다. 책이 너무 사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노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셨을 때 이실직고를 해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하시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설움처럼 밀려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나마 실토를 하고나니 진정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자수해 광명을 찾은 기분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거짓말을 하지 마라.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말을 절감한 게 이때였다. 몇몇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였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일곱 번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였다.

점점 힘들어지는 일

1977 년 26 세에 n 라면 서울공장에 입사를 했다. 공고 기계과를 졸업하다보니 취직도

잘됐고 월급도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많으니 도리가 없었다. 공무과 자동 정비반(자동포장기 정비반) 소속으로 생산과 포장실에 파견돼 라면과 스낵, 스프 자동포장기의 정비를 했다.

당시 n 라면은 회사 창립 20 여년이 돼가는 80년대 초까지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내놨지만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부터 추위가 풀리는 이른 봄까지나 라면이 팔렸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리를 날렸다. 그렇다보니 가을부터 봄까지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2교대 작업을 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루 8시간 일을 하며 휴일을 착실히 쉬었다. 라면박스에 껌과 별사탕을 넣기도 하고 몇 박스 이상 사면 고급 탁상시계를 주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엔 한숨소리가 진동을 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하는 기혼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동생 학비를 벌기위해 아니면 시집갈 밑천이라도 벌기위해 계와 적금을 들고 있는 미혼여성들은 여성들대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루 3시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 야간근로를 안하면 월급봉투가 쪼그랑박처럼 훌쩍하기 때문이다. 장가 밑천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계를 잔뜩 들어 회사까지 버스로 30여분 거리를 자전거 통근을 하던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1980년대 초중반 몇 가지 신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며 열년 내내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2교대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장안의 화두는 온통 생산성향상이었고, 과별 경쟁을 하는 생산성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원가절감과 함께 더 좋은,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분임토의니 제안이니 하는 일들도 강제적으로 했다. 제안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건씩인가를 의무적으로 써내게 했다.

동시에 현장게시판엔 주별 월별 생산목표량과 달성량이 그래프로 그려져 게시되었다. 조별 생산량도 매일매일 게시되었다. 그렇다보니 너무나없이 출근하면 현장게시판부터 둘러 전날 생산량과 상대조 생산량을 비교해 봤다. 작업시작 전 조회 때마다 북한주민들처럼 손뼉을 치며 하는 합창도, 불끈 쥔 주먹을 하늘을 향해 날리며 목표량 달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상대조보다 생산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반장들의 훈시였다. 상대조보다 생산량이 적으면 게으르고 성의가 없어 그렇다는 듯 생난리를 쳤다.

상대조보다 항상 많은 생산을 해야 하고, 매일매일 전날보다 많은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답답했다. 원가절감을 하며 더 좋은, 더 많은 라면을 만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생산성향상의 의미가 포장지를 줄이고 작업 인원을 줄여 작업자들의 열을 빼놔도 상관없다는 식이라니 답답했다.

3 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안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게 이때부터였다. 생리휴가는 물론 연월차 휴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무시하고 8 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거나 휴일 출근을 안 할 경우 다음날 현장사무실로 불려가 사유서를 썼다. 그리고 10 명이 하던 라인 작업을 9 명에게 시켜 동료들을 힘들게 한 대역죄인으로 매도를 당했다. 이런 과심죄로 평일 사전 허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하기도 했다. 생리휴가와 연월차 휴가가 남아 있어도 그랬다. 아가씨들이 월급이 틀리다고 해 계산을 해보니 그랬다.

이러니 너무나 열이 빠져 멍한 상태였다. 내가 사람이 맞는지, 기계나 노예가 아닌지, 도무지 왜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꿈과 희망에 벅차야 할 출근길이 생지옥이라도 끌려가듯 무거웠고, 저녁 퇴근길은 무사히 탈출한 듯 해방감을 만끽했다. 즐겁고 활기가 넘쳐야 할 일터가 금방 비라도 쏟아질듯 잔뜩 찌푸린 하늘이었다. 도대체 이 많은 라면을 누가 다 먹는 거냐며 푸념이 난무할 지경이었다.

나와 우리 부서원인 자동 정비반(자동포장기 정비반)원들이 생산과 반장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일은 제일 힘들면서 월급은 제일 적은 미혼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봐온 탓이었다.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갖은 설움을 받기 때문이었다. 공무과 소속이지만 생산과에 파견돼 라면과 스낵, 스프의 자동포장기를 정비하다보니 그랬다.

걸핏하면 시말서, 하다못해 라면에서 나사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와도 자동포장기 운전수에게 시말서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때리는 뭐보다 말리는 뭐가 더 밍다고, 개구리 울창이 시절을 잊은 채 옛 동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여반장들에게 한 두 마디씩 바른 소리를 했던 것이다. 반장이라고 빨간 모자에 일당 300 원 수당을 더 받는다는 이유로 옛 동료들을 더 괴롭히니 나도 모르게 그랬다.

상대조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출근하면 16 대의 라면포장기를 돌며 기계속도를 올리고, 퇴근 때면 내리는 여반장들의 행태도 문제였다. 기계속도를 과도하게 올리니 포장 불량은 물론 기계고장이 잦고, 그렇다보니 가동률이 떨어져 정비반원들에게 추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 못하는 기계라도 적정 속도가 있거늘, 이를 무시하고 올리니 그런 거였다.

이 문제로 언쟁을 하고나면 바로 공무과 사무실에서 호출 령이 떨어졌다. 공무과 자동 정비반의 하는 일이 기계고치는 일인데 그 일이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였다. 하나라도 생산을 해 팔아야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도 하는 게 아니냐며 생산성향상에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였다. 사람과 기계가 망가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이었다.

1975 년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자재과 주임인 성낙선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한 후 10 여 년간 반장출신 노조위원장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며 지낼 때였다. 노동조합 사무실이 반장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될 때이기도 했다. 그러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부장님으로 착각될 지경이었다. 아랫배가 적당히 나온 살찐 돼지를 연상시키는 풍채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는 얼굴이 그렇게 보였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처럼 상의만 사무실 직원 유니폼으로 입은 것도 그랬다. 사원들 유니폼의 디자인이나 옷감이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복과는 질적으로 달랐을 때였다.

노조위원장은 그의 옛 동료들인 반장들조차 어느 동네에서 누구와 사는지,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그래선지 사장님이 타던 차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상가가 몇 개가 된다는 소문만이 반장들을 통해 들릴 뿐이었다. 노조사무실에 가면 민주공화당 동작구지구당 조직부장이란 액자가 걸려있다고도 했다.

그러니 4 월초 2 만여 평 회사 야적장에 라면과 스낵이 산맥처럼 쌓이면 임금협상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았고, 5 월 하순 라면과 스낵이 트럭에 실려 나가면 임금협상이 타결됐음을 눈치 챘다. 그럼 어김없이 다음날 식당 게시판에 임금인상안이 게시되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임금협상을 했는지 회사 측 대표와 노조위원장 외엔 아무도 몰랐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이었다. 물론 임금인상도 미혼 여성의 경우 일당 2-300 원 정도를 넘지 않았다.

1980 년 초 서울공장이 경기도 안양공장으로 증설 이전을 했다. 그러나 지옥으로 알았던 서울공장은 안양공장에 비해 양반이었다. 우선 서울공장에선 분당 90 이었던 라면포장기의 속도가 안양공장은 130 으로 분당 40 개가 더 포장되어 나왔다. 지축을 흔들며 돌아가는 기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수리가 찌릿 거리며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말이 자동화지 사람의 손이 없으면 엉망진창인 반자동화였다. 자동화란 이름으로 10 명이 하던 일을 7-8 명으로 줄였으니 작업자들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일 하다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최신시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사람 잡는 공장이었다.

그렇다보니 현장은 파스냄새로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다. 너나없이 손목부터, 팔뚝, 어깨죽지, 허리까지 파스로 도배를 한 탓이었다. 12 시간 2 교대 때니 앞섰어 해지도록 하루 640 분을 기계라인에 붙어선 채 83,200 개의 라면과 25,600 개의 과자를 받아내니 당연했다. 자동포장기가 라면은 분당 130 개씩, 스낵은 40 개씩 토해내니 오전 오후 10 분씩 화장실 시간과 식사시간 한 시간 등을 빼면 그랬다.

게다가 스낵포장실의 기계운전자의 경우 물엿이 들어간 과자가 투입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혀 원숭이처럼 수시로 기계 위를 오르내리며 슈트를 두드려 패야한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빗자루를 들고 기계주변도 쓸어야 한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과자를 박스에 담는 박스입과 바닥청소, 기계운전자가 따로따로였는데 생산성향상이란 이름으로 야금야금 줄여 기계운전자 혼자 다하는 것이다. 그래도 일하다 쓰러져 실려나간 사람이 없으니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다.

회사에선 시장 점유율이 얼마로 올랐는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공식 지정식품으로 지정됐다는 하마 입이 찢어지게 자랑을 했지만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 무덤덤했다. 부산, 안양, 안성공장 등 계열사를 포함해 공장이 10 여개로

늘어났지만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리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도, 돈을 벌기위해 사는 것도 아닌 모호한 삶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는커녕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니 당연했다.

그렇다보니 여자화장실은 가히 휴게실이었다. 항상 박스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얼른 볼일을 본 후 잠시라도 눕거나 앉아 다리와 팔뚝, 허리를 주무르기 위해서였다. 박스를 깔고 앉거나 누우면 시말서라고 엄포를 냈지만 화장실 휴게실의 박스는 없어지지 않았다. 자유로운 화장실 출입은 물론 짬짬이 바깥을 드나들며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라인작업인 미혼 여성들은 오전 오후 10 분 화장실 시간과 식사시간만이 휴식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 화장실 휴게실이 엉뚱하게도 동료들을 불신과 반목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10 분을 1-2 분만 넘기면 다른 사람 화장실 생각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매도를 당하기가 일쑤였다. 반장은 반장대로 다음 화장실 순번 자는 순번자대로 대놓고 그랬다.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면 다음부터 화장실 교대시간이 늦거나 아예 해주지를 않기도 했다.

그럼 오줌을 싸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보란 듯이 화장실을 가기도 했다. 갑자기 한명이 빠져나가니 라인작업은 엉망이 되고, 반장과 작업자들은 모든 책임을 화장실에 간 작업자에게 뒤집어 씌웠다. 3 시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안하면 사무실로 불려가 사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그로인해 동료들이 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봤냐느니 하는 어쭙잖은 회유 협박을 일삼았던 것이다. 2 일전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생리, 연차, 월차휴가의 경우 사무실로 불려 올라가 사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가히 별보기 운동이자 천리마운동이었다.

거짓말도 크게 자주하면 대중들이 믿는다?

1979 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틈을 비집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이글거리던 민주화 운동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민주화운동의 불길이 공장 담까지 넘실거리 뿌리 깊은 어용노조의 민주화 운동에도 불길을 당겼던 것이다. 전두환 독재정권과 기업주들이 거리마다, 공장마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일처럼'이란 대형 현수막들을 내걸고 다독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족처럼은 커녕 가족처럼인 노동현장의 분위기는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그 덕으로 입사 8년 만에 노조사무실을 처음 구경한 게 1985년 봄이었다. 미혼 여성조합원의 일당이 몇 백 원인가 인상되었다는 임금인상안이 식당게시판에 게시되었을 때였다. 등쪽에 들러붙은 배를 움켜쥐고 채 우동처럼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허겁지겁 식당을 찾은 노동자들은 너무나없이 흥분했던 것이다.

주 6일 메뉴가 라면일 때였다. 12시간 근무이니 간식까지 해서 하루 2-3끼를 라면을 먹을 때였다. 대형 가마솥에 한꺼번에 3-40명분의 라면을 끓이니 처음 먹는 사람은 밀가루 냄새가 역겨운 설익은 라면이고, 나중 먹는 사람은 퉁퉁 불어터진 우동라면이었다.

스낵 1과 성정숙 등 몇몇 여성 노동자들은 라면을 먹는 등 마는 등 한 후 노조사무실을 쳐 들어갔다. 그들은 노조사무실 출입문 양쪽을 활짝 열어젖힌 채 쭈뼛거리는 동료들에게 우리들의 사랑방이라며 들어올 것을 채근했다. 그러자 노조사무실은 노동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노조위원장에게 임금협상안을 만든 대의원 회의록과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장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은 이유도 캐물었다.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노조규약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대의원을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그저 꿀 먹은 벙어리였다. 뭐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었다. 연신 진땀만 뻘뻘 흘리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다. 그걸 구경하는 것도 묘한 즐거움이었다. 밖에서는 각과의 과장, 주임들이 경비들과 함께 서성이며 불법집회라며, 작업시작 시간이 돼간다며, 1분이라도 늦으면 작업장 무단이탈이라며 다그쳤지만 단 한명도 꿈적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굴한 표정의 관리자들과 경비들을 구경하는 것 역시 묘한 즐거움이었다.

의외로 노동조합법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현장 비치와 노조규약의 공개, 그리고 대의원의 직선제 등을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해 싱겁게 해산을 했다. 그렇다보니 몇몇 노동자들은 작업시간이 몇 분 늦었다. 그러자 관리자들은 그들을 사무실로 불러 불법집회와 작업장 무단이탈이라며 시말서를 요구했다.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작업을 안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어 시간을 가뉘놓고 그러니 대부분 시말서를 썼다.

그리고 한 달 후엔 노동조합의 불법 무법적인 운영을 신랄하게 따지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던 말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서이동이 있었다.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숙청을 당하듯 뿔뿔이 부서이동을 당했다. 여자들의 경우 남자들 부서로, 아니면 힘이 들거나, 외지고 냄새가 심해 대부분 기피하는 곳이었다.

대부분이 두어 달 후에 있을 대의원 출마를 위해 열심히 부서원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선거운동을 도와온 사람들이었다. 물론 노조사무실 항의 주동자인 스낵 1 과 포장실의 성정숙도 여자들 부서인 스낵 1 과 1 층 포장실에서 남자들 부서인 2 층 기계실로 부서이동을 당했다.

그리고는 각과의 부장 과장들은 대의원 출마예상자들을 하나씩 현장사무실로 불러 출마를 종용하거나 포기를 회유 협박했다. 평소 바른말을 해 이미 충분히 밉보여 더 이상 밉보일 게 없는, 따라서 대부분 단독출마인 민주당들에겐 출마포기를 종용했다.

평소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 뚝배기 쓰고 쫓아가듯 출마하는 어용후보들 역시 출마포기를 회유했다. 쫓대가 없어 언제든 관리자와 어용노조의 회유에 넘어갈 사람들이니 어용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양보를 하라는 거였다. 하나같이 부서의 단합을 위한 거라고 했다.

두어 달 전 스낵 1 과 성정숙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처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구경시켜준 공무과 자동 정비반의 전수철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노동조합의 불법 무법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관리자들에게도 할 말을 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대의원 출마를 강력히 요청받은 터였다. 그렇다보니 자의반타의반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열심히 부서원들을 만나 노동조합의 민주화에 대해 역설하고 다닌 터였다. 그런 만큼 경쟁 후보가 없었고 거의 무투표 당선 분위기였다.

입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공무과 자동 정비반의 오세우와 기계정비반의 이경수가 갑자기 외부세력의 조정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보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녔다. 두 사람 다 반장들과 가깝고, 그렇다보니 어용노조나 관리자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었다.

특히 기계정비반 이경수는 꼴통중의 꼴통인 서울공장 기계정비반 박인우 과장의 친 처남이었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이들이 반장들과 함께 자동 정비반과 기계 정비반 사무실을 드나들며 과장들과 수군거리는 게 목격된 터였다. 뿐만 아니라 자동 정비반과 기계 정비반 과장인 정윤구와 송지영 두 과장이 각기 부서원들을 회사 밖으로 불러내 술을 사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 터였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자동 정비반의 전수철을 떨어뜨리기 위한 갈라먹기 작전이 시작되었다. 기계정비반 과장은 부서원들을 하나씩 사무실로 불러들여 부서의 단합을 강조했다. 자동 정비반 과장은 전수철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하나씩 불러 전수철이 외부 불법단체에 드나들며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그를 지지하면 회사에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할 테니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냐는 회유와 협박이었다. 이런 이간질은 회사 안은 물론 회사 밖 술집에서도 계속되었다. 공무과의 기계정비반과 자동 정비반이 각각 30 명으로 총 60 명이니 그런 갈라먹기 방법이 동원된 거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선 느닷없이 남자들 부서에서는 남자들만, 여자들 부서에는 여자들만 출마할 수 있다는 자유당식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다. 3 개 공장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할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노조위원장의 입으로 한 성정숙 낙선법이었다. 여자들의 부서에서 남자들의 부서로 부서이동을 당했지만 반장들의 사랑방이었던 노조사무실을 조합원의 사랑방으로 바꾼 이후 남자들에게도 인기폭발 중인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차기 노조위원장으로 회자될 정도였다.

그러나 노사 합동 자유당 식 선거와 갈라먹기 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무과는 전수철이 쉽게 당선되었다. 스낵과 포장실 역시 입바른 소리를 하는 송인자가 싱겁게 당선되었다. 이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몇몇 민주파 대의원들의 당선으로 노동조합과 현장은 생기가 돌았다. 흡사 혈액순환이 안 돼 안색이 좋지 않던 사람이 불그레 화색이 도는 느낌이었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보고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공개적 활동 탓이었다.

그러자 바빠진 건 엉뚱하게도 관리자들이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공개적인 활동들이 하나같이 불법이라는 거였다. 불법집회, 불법유인물, 작업장 무단이탈이란 말이 난무했다. 그 불법의 주모자들인 대의원들은 물론 참가자들을 연일 사무실로 불러들였고 시말서를 요구했다. 내 소속 부서인 공무과 자동 정비반의 정윤구과장 역시 대의원인 전수철은 물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 들였다.

그와 입사동기이자 나이도 비슷해 가장 친한 내가 단연 1 순위였다. 전수철이 외부 불순단체에 출입을 한다느니, 계속 만나면 회사에선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느니, 회사 생활이 힘들어 질수도 있다느니 하는 이간질과 분리작전이었다.

회사 창립 이래 최초인 1987년 파업은 이렇게 굶을 대로 굶아 터진 종기였다. 노조창립이래 12년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 회사대표와 노조위원장 외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게 n 라면의 임금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4월초 2만 여 평 회사 야적장에 라면과 스낵이 산맥을 이루면 임금협상이 임박했음을 눈치 챘다. 일요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2교대로 하던 작업이 일요일을 꼬박 쉬며 하루 8시간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리고 5월말 경 야적장의 산더미라면과 스낵이 실려 나가고 예전처럼 일요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작업으로 바뀌면 임금협상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럼 어김없이 다음날 식당 게시판에 임금인상안이 게시되었다. 이런 밀실협상의 민주적 공개적 협상을 요구한 게 1987년 파업이었다.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나오는 길에 의무실을 들러 소화제인 노루모를 타먹으며 일을 할 때였다. 주 6일 메뉴가 라면이니 하루 두 세끼 라면을 먹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린 탓이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빗대 라면박스 뒷면에 매직으로 쓴 '우리는 실험쥐가 아니다. 밥, 밥, 밥을 달라!'가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노조위원장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뽑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뽑자는 게 두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대의원들이 노조위원장을 뽑는, 그레 노조위원장 선거 때마다 남자대의원들에겐 백지수표가, 대부분이 미혼 여성인 여성대의원들에겐 냉장고와 장롱이 오고가던 때였다. 그 다음이 일당 몇 백 원인가 임금의 추가인상과 자유로운 연장휴일근로와 생리, 월차, 연차휴가 사용보장 등이었다.

요구 조건을 대부분 쉽게 들어줘 민주파 조합원들만의 힘으로 일으킨 회사 창립 이래 최초의 파업은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끝이 났다. 그런 충격 타인지 이신희 생산본부장은 파업이 끝난 다음날부터 연일 전체 조회와 대자보를 통해 악선동을 일삼았다. 외부 불순단체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일부 불순세력들이 노조를 장악해 회사를 망하게 하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해 월남처럼 공산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였다.

이 후 n 라면 현장은 때 아닌 물어보기 놀이가 축제처럼 벌어졌다. 불순단체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며, 노조를 장악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 적이 있냐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해 월남처럼 공산화 시키려고 한 적이 있냐며 서로 묻는 놀이였다. 이를테면 즐겁게 의심하기였다. 목사님이 설교하듯 생산본부장이 확신에 차 얘기하니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다. 1,200 여 안양노동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서로 물어보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생산본부장은 계속 그런 악선동을 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안성공장과 부산공장은 동토의 왕국으로 회사 측과 어용노조의 말만이 진실로 통하는 곳으로 불순세력의 타도를 위해 안양공장을 쳐들어가자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이었다. 그러니 '거짓말도 크게 자주하면 대중들이 믿는다.'고 선동했던 히틀러의 심복인 괴벨스의 말이 절감됐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의 구사대 특채

파업이 끝난 지 한 달 만인 87년 9월 중순이었다. 노조 사무실엔 유도선수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박박 밀고, 앞 이빨은 한 개가 빠져 험하니 비어 있었고, 웬만한 초등학생 넓적다리만한 팔뚝은 빗살무늬 같은 칼자국

흥터가 난무해 섬뜩한 친구였다.

그가 안양지역의 조직폭력배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를 출소한 한상복임을 안건 한 달 후였다. 그의 임무가 구사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뿌리 깊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꾼 대기업 사업장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인지 한상복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조사무실에 죽치고 앉아있거나 현장을 배회하며 민주노조 세력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게 일이었다. 소속이 스낵을 기름에 튀기는 스낵 1과 2층 후라이실이라지만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그랬다.

특히 야근 때면 술에 만취된 채 각목을 들고 들어와 빨갱이들 때려죽인다며 현장을 누비며 공포의 도가니로 만드는 게 일이었다. 기름 장갑을 끼고 기계를 고치다가도 그가 왔다는 전갈이 오면 피신하기 바빴다. 그렇게 어용노조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인 공무과 대의원 전수철을 찾아 현장을 한 바퀴 휘저은 후 들르는 곳이 우리 부서인 자동정비반 사무실이었다.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 팔뚝에 피를 낭자하게 한 후 유리조각을 고드름처럼 오드득오드득 씹으며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인사였다.

그리고 사무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앉아있는 민주파 부서원들의 주변을 향해 유리파편을 흩뿌리듯 뺨는 게 두 번째 인사였다. 그렇게 사무실 안을 배회하며 민주파 부서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빨갱이새끼들은 다 때려죽여야한다는 말을 중언부언 늘어놓는 게 세 번째 인사였다. 입사동기예다 나이도 비슷한 관계로 전수철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나에게서는 이따금 머리 위를 재떨이삼아 담뱃재를 털거나 검지와 중지롤 가위처럼 펴서 눈알을 후벼 파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빨갱이새끼들은 눈깔을 빼버려야 빨갱이 짓을 못한다는 거였다.

그럴 때마다 경비실과 숙직실로 전화를 하지만 경비들과 숙직자들은 그의 뒤를 줄개처럼 줄줄 따르며 이제 그만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되뇌었다. 그의 직속상관인 스낵 1과 부장 역시 그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안양공장의 2인자인 이부석 노무담당이사였다. 아무리 천방지축 날뛰다가도 이부석 이사에게 전화만 하면 슬금슬금 종적을 감추었던 것이다.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노사합동 불순분자 빨갱이 타령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구사대 한상복은 회사 측과 어용노조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면 대의원회의에서건

노사협상장에서건 입구에서 기다렸다 맥살을 잡고 흔들었다. 생산본부장인 이신희 상무는 전체 조회나 대자보를 통해, 구사대인 한상복은 현장에서 불순분자 빨갱이타령을 합창했다. 그럼에도 구사대인 한상복은 1987년 입사 때부터 1993년 토사구팽당할 때까지 이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단체협약의 징계조항을 펴들고 찾아가 따져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느니, 노동조합의 노선갈등에 회사 측이 개입하면 3자 개입이 된다는니 하며 이죽거렸던 것이다.

1987년 파업이후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무실에 앉아 작업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 창문들이 일제히 대형 투명유리창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어용노조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형유리창문 앞으로 자리이동 시켰다. 사무실에 앉아 작업자들을 어항 속 금붕어 관찰하듯 보는 게 관리자들과 반장들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강당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특강이 열렸다. 무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니 무슨 경제연구소 소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강의였다. 주로 월남패망, 수출의 어려움, 영국의 고질병인 파업, 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회사 경영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였다. 이 강의를 위해 작업시간을 3시간을 단축시키며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해줬다.

그러니 반드시 들어야 했다. 자도 좋으니 참석만 하라고 관리자들이 애걸을 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냥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경비실에서 명단을 적어 올렸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불려가 경위서를 써야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듣보잡 교육이었다.

수천 번 말해진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인 1989년 파업 역시 어용노조를 배제한 채 민주파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힘으로만 한 13일간의 파업이었다. 1989년 4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은 하루 12시간 2교대를 8시간 3교대로 바꾸는 게 쟁점이었다. 그레 2교대 때 임금의 80%만을 책정한 노조 측 요구안이 49.3%였다. 이는 이미 3교대를 하고 있는 롯데와 해태 노동자 임금의 80%선이었다.

그만큼 n 라면의 임금이 박했다. 시내와 식당 게시판에 일 년 열두 달 모집공고가 나붙어도 인원 총원이 안 돼 스낵포장실의 경우 30 여대의 기계 중 10 여대가 흉물처럼 서 있을 지경이었다. 기존에 다니던 여성 노동자들은 물론 입사한지 일 년만 되면 3분의 2 가 덜 힘들고 임금이 나은 전자회사로 옮기기 때문이었다. 공원에서 생산원, 생산사원 등으로 호칭도 바꾸고, 추천자에게 추천수당을 주는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거든 짧지나 말지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코피 터지게 시키고, 개돼지 취급까지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게 당연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 대표인 이신흥 생산본부장은 49.3%를 인상하면 58 억이 적자라며, 세상에 49.3%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어디 있냐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공개적 협상과 노조운동을 주장하는 두 명의 민주파 대표들을 향해 노노 노사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매도했다. 회사대표들의 눈치만을 보며 민주파들을 견제하는 어용노조 대표들과 그렇게 환상의 콤비를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신흥 회사 측 대표는 임금과 단체협약안 최종안의 조합원총회 인준을 명시한 노동조합 규약인 체결권의 개정이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회유협박을 하기도 했다. 노사 대표의 밀실야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1987 년 파업직후 신설한 노조 규약이었다. 1975 년 노동조합 결성 이래 12 년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회사대표와 노조위원장 외엔 아무도 모르는 게 n 라면 노사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의 이런 노노 분열 술책에 어용노조 측 대표들은 노골적으로 동조를 했다. 신바람이 난 어용노조 측 대표들은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화학연맹'을 찾아가 노조규약의 체결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반면에 민주파 대의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노동 상담실을 찾아 갔다. 당연히 '한국노총 화학연맹'의 유권해석은 불법이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노동 상담실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이었다.

그러자 스낵 2 과 대의원인 송인자가 회사 측의 1988 년 하반기 재무제표를 복사해 노조 측 협상대표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대량 배포했다. 회사 측이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이름도 애매모호한 각종 총당금으로 수백억씩 쌓아놓은 재무제표였다. 제조원가의

10%도 안 되는 임금 등 노무비,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3,380 명에 103 억 원인데 반해 임원과 사무직의 임금이 1,399 명에 66 억 원인 임금 격차가 압권이었다.

그렇게 허를 찔린 생산본부장은 불법유인물을 뿌렸으며 노사협상을 중단한 채 3 개 공장 구석구석에 민주세력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대자보를 써 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관리자를 통한 민주파 노동자들의 1 대 1 면담과 전체 조회를 통해 민주세력을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보름 가까이 6 차 협상을 했으나 회사 측의 23.3 프로만 고수하며 노조 측의 양보안만을 요구하면서 그랬다. 이에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떠밀리듯 3 개 공장 대의원모임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했다. 다음날부터 '49.3% 임금 책취' 리본을 달고, 연장근로와 점심시간 체육행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때만 되면 점심시간을 이용한 과별 배구나 족구시합을 반강제로 했던 것이다.

그러자 노무관리실 박인상 과장이 '49.3% 임금 책취' 리본을 단 노동자들을 향해 그런 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악선동을 대놓고 했다. 노동법에 보장된 준법투쟁인 리본달기가 빨갱이 짓이라니, 이는 이글거리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1975 년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자재과 주임인 성낙선을 내세워 어용노조를 만든 후 십 수 년간 반장출신 어용노조위원장과 밀실야합을 만끽하며 n 라면 식 노사화합을 즐겨온 어용노조 중독증이었다.

그러니 회사 측은 진지한 협상보다는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었다. 노골적으로 민주파의 두 대표들을 향해 외부 불순세력에 놀아나지 말라며 노조대표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바빴다. 이에 노동조합은 떠밀리듯 조합원 총회를 열었고, 85%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돌입이 가결됐다.

투표결과에 충격을 받은 노조위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틀 후인 월요일 아침부터 안양과 안성, 부산공장의 동시 파업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월요일 아침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야적장으로 모여들자 돌연 파업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땅으로 꺼진 듯 하늘로 솟은 듯 종적을 감추었다. 그래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힘만으로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인 1989년 파업이 13일간 일어난 거였다. 엄밀히 말해 회사 측이 파업을 유도한 거였다. 파업이 일어나면 업무방해로 경찰이 강경파를 잡아가 손도 안대고 코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 등으로 소송을 걸어 코를 꿔 코뚜레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파업을 노노, 노사 불신을 조장해 노조를 장악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불순세력들의 책동이라고 매도하기 바빴다. 외부불순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한거라고도 했다. 3개 공장 대의원 모임인 대의원대회와 3천 조합원총회를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된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대강당의 전체조회와 현장 구석구석의 대자보를 통해 막무가내로 그런 악선동을 즐겼다.

13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협상대표들이 43.3%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한 후였다. 노조 측 협상대표들을 비롯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문에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 대표인 이신희 상무는 회사 측 대표의 말을 못 믿냐며 능쳤다. 이 문제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밤늦도록 신경전을 벌였다. 49.3%를 인상하면 58억이 적자라며 시간을 질질 끌다 50여 억의 적자를 감수하며 43.3%를 인상해준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였다.

그러자 파업지도부의 일원으로 노사협상의 노조 측 대표로 참석한 전수철이 조합원들을 설득해 노사 대표들이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미심쩍지만 공식 노사협상에서 회사 측 대표가 한 약속이니 믿어보자는 말에 수긍을 한 거였다. 너나없이 조합원들의 힘만으로 한 13일간의 파업에 지친 나머지 그러기로 한 터였다.

그러나 다음날 현장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파업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합의문에 명시해주지 않은 건 두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꿈수타결이라는 거였다. 그래 일손들이 안 잡혔고 법정근로기간인 8시간만 일 하고 퇴근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녹초가 되도록 11시간 라인에 붙어서 일해 봐야 껌 값에다 일할 기분도 아니니 몸이나 편히 쉬자는 거였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게 회사 측의 대자보였다. 꿈수타결에 항의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만하고 퇴근한 노동자들을 전원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내용이였다. 3시간 연장근로 안하고 돈을 안 받겠다는 건데 무단결근이라니! 이에 분개해 다음날 주간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오후 5시 퇴근했다.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들의 항의 인파로 연일 떠들썩했다.

꼼수타결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자 이신홍 생산총본부장은 전 조합원들을 주야별로 대강당에 모아 긴급 조회를 했다. 역시 외부 불순단체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일부 운동권들이 노조 장악을 위해 일으킨 불법파업이라는 거였다. 조합원들의 호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임금을 문제 삼아 일으킨 거라는 거였다.

이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1일 5억의 매출손해를 감수하면서 파업을 지연시켰다고도 했다. 아직도 현장에는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을 선동할 외부 불순세력들이 있으니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엄숙히 당부하기도 했다.

각과의 부장과 과장들 역시 부서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운동권 세력의 선동에 의한 연장근로거부의 문제점과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도록 주의를 하라는 내용이였다. 또한 스낵 1과 파업지도부의 대의원들에게는 5,600만 원에 대한 손실 소견문이 강요되기도 했다. 파업이 시작되던 날 연장근로의 거부로 생산이 중단되어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소감을 쓰라는 얘기였다. 이렇듯 현장은 뒤숭숭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민주파의 대표적인 대의원인 전수철과 송인자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서가 날아온 건 파업이 끝난 지 11일만의 일이었다. 마지막 협상 때 파업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찰떡같이 했음에도 개떡같이 무시한 셈이었다. 끝까지 합의문의 명시를 거부하며 회사 측 대표의 말을 못 믿냐며 뭉개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2인은 군사작전 하듯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한 후 정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 1차 징계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집단 항의로 무산되자 일주일 후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핵심적인 민주파들을 사무실에 불러올려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끄는 사이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각 현장은 관리자들과 반장들이

작업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감사하면서.

그리고 각 현장에는 해고된 2 인이 외부 불순단체의 사주를 받아 회사를 전복하려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이들과 계속 접선을 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엄포도 있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해고 작전이었다. '한번만 말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남지만 수천 번 말해진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선동을 절감한 날이었다.

거짓말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신념이 된다?

민주노조의 두 줄기를 잘라낸 n 라면은 본격적인 민주세력 뿌리 뽑기에 들어갔다. 민주파의 뿌리들을 그대로 둘 경우 새싹이 돌아 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려한 조치일 터였다. 뿌리를 뽑아버리던가 그게 안 되면 계속 뿌리를 뽑지 못하도록 척박한 땅으로 옮겨 심는 일이었다. 외딴부서나 회사 측 관리자의 친인척이나 어용세력이 몰려있는 곳, 아니면 남자들만 있는 부서로 여자조합원들을 보내는 일 등의 인사이동이었다.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열의와 투쟁성이 불붙은 조합원들을 일단은 위축시킬 수 있고, 예상되는 대의원 출마를 봐서도 회사 측으로서는 꽃놀이패였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그런 조건에서는 대의원의 당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남자들 부서인 가공과로 쫓겨난 두 여성노동자들처럼 남자들이 일하는 부서나 어용세력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부서이동이 된 여성노동자들이 안양공장을 통틀어 30 여명에 이르렀다. 하나같이 회사 측의 입장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서로 간 거였다. 대부분이 자기 부서에서 대의원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민주파 조합원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며칠간의 항의 끝에 사표를 쓰고 나갔지만 대부분은 몇 시간 항의를 하다 회사의 인사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파 대의원들이 출퇴근시간에 탈의실에서 하는 해고 항의집회를 구경하고 왔다는 이유로 라면실 자동포장기 운전수가 라면을 기름에 튀겨 스팀으로 찌는 한증탕 같은 납형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어떤 여성 조합원은 1 층 포장실에서 2 층 스프통을 운반하는 곳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출근 즉시 탈의실에서 옷만 갈아입고 즉시

작업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죄가 되어 추궁을 당했다. 조그마한 권리주장이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대로 오지 않고 잠시 동료와 얘기를 해도 선동이 되고 근무지 이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 인의 해고와 30 여명의 부당인사를 항의하는 탈의실의 공청회는 주야로 연일 계속되었고, 해고자들 역시 정문 앞에서 출퇴근 조합원들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회사 측과의 홍보전은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회사 측에서 새로운 대자보를 써 붙이면 해고자들 역시 회사 측의 악선동의 의도를 폭로하는 새로운 홍보물을 배포했다. 그럼 회사 측 역시 해고자들의 홍보물 내용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즉각 써 붙였던 것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취하겠다면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절감한 게 이때였다. 일제시대 지하단체 같은 'n 라면 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지하신문인 소식지 '징소리'를 만들어 3 개 공장에 배포한 게 1989 년 8 월 7 일이었다. 정부와 회사 측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막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시키는 것은 외부 불순단체가 아닌 정부와 회사 측이란 사실을 재삼 절감했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부끄럽게도/이제야 신문이 나왔네./이제야 신문을 보았네. /말이라고/다 말이 아니듯/신문이라고/다 신문이 아니지....' 하는 창간시와 3 교대 실시의 문제점(죽음의 고역 같은 생산성향상 20% 목표, 2 교대 인원으로 3 교대, 11 명 하던 일 8 명으로.)을 특집으로 다룬 신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란?'과 '해고자의 글', 군 입대중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하나뿐인 피붙이인 남동생에게 콩팥을 떼어주는 장영자 여성노동자를 돕기 위한 '일일찾집' 등의 기사도 있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순분자가 되는 것은 반대자들을 불령선인, 반동으로 몰아 숙청시킨 일제 공산독재 수법이었다. 회사 측과 어용노조가 반대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나쁜 짓이라는 식의 회사 측의 비상식적인 선전은 더 이상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었다. 해고자와 징소리가 회사 측의 허구적인 선전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폭로해왔기 때문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눈과 귀를 강제로 막을 수는 있어도 생각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n 라면에서 처음 구경하는 신문인 '징소리'는 조합원의 막힌 귀와 가려진 눈을 뜨게 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다. 타자를 쳐 마스터를 뜯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문이지만 그런 특효가 있었다. 모두가 우리들의 얘기였고 또 우리가 하고 싶고 듣고 싶던 얘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임금협상의 상황이나 과정도 징소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움직임 또한 징소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회사와 노동조합에서는 비상령이 떨어졌고, 징소리를 배포, 소지하거나 보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하겠다는 포고문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징소리를 선전해주는 효과만 낼 뿐이었다. 각 부서별로 부장이 수백 명씩 강당에 모아놓고 특별조회를 하며 징소리와 해고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바빴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따분해 줄거나 하품만 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며 퇴장을 하기까지 했다. 상식과 순리를 거역하는 것은 곧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서클회에 대한 재검토설이 나돈 것도 이즈음이었다.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이 많은 서클이 일단 주목의 대상이었다. 내가 이끌고 있던 '상록문학회' 회원에 대한 개별 회유와 협박이 제일 심했다. 회장이 파업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기타회는 회사에서 아예 해산시켜 버렸다. 회원 중 몇 명이 파업지도부에 끼었던 꽃꽃이회도 일단 문제의 서클로 낙인이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화장실에서의 징소리 배포혐의자라며, 화장실을 보내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여반장이 민주파 여성노동자들의 화장실 교대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레 여반장과 여성조합원들이 샷대질을 해가며 입씨름을 하기도 했다. 사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 것도 반장들이 전화를 이용하려고 온 것처럼 따라와 엿듣기도 했다. 이러니 현장 안은 가히 공포의 분위기였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고자들의 생활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경비실 옆 출근카드기 옆에 놓은 모금함이 수시로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비들이 숨겨놓거나 눈에 안 띄는 구석진 곳으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모금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해고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합원사이의 단결력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일 터였다.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2 인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 난리인 것은 내친김에 민주세력을 뿌리째 뽑아 없애겠다는 속셈일 터였다. 그래 그 추종세력들을 갈가리 찢어놓는 것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장악해 회사를 문 닫게 하려는 불순세력들을 초토화시켜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일 터였다. 그런 원대한 목표아래 안양공장 현장 곳곳에는 두 해고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대문짝만한 악선동 대자보가 연일 내걸렸던 것이다.

공 고

신록의 계절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하절기가 다가오는 이때 n 라면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간 진실된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종업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 라면 창립 24 년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생산에 몸담아온 저로서는 지난 일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특별조회에서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프고 어두웠던 일들을 빨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과 동시에 굶아터진 상처는 단호히 수술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n 라면'이라는 일터는 일부 특정 소수인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공개법인으로서 국가사회와 전 종업원과 그 가족 그리고 주주들을 위하여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n 라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생활의 터전을 위함이며 또한 회사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성장되어야 하겠기에 회사를 전복기도하려는 불순세력은

단호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두 사람은 불순노동단체인 '안양노동상담소' 산하 '노동교육문화연구소 우리자리회'에 가입하여 사물놀이 소모임반 등에서 활약하면서 각종 불온유인물을 제공받음과 아울러 허위자료를 유포하는 등

1. 1989년 4월 18일자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 중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안양노동상담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안양 우리자리회' 등에서 불온유인물, 화염병 등을 압수하고 '안양노동상담소장' 정규재'를 구속'
2. 전혀 사실과 다른 경영 자료를 배포하므로써 회사와 종업원간의 불신감을 조성(증권감독원 25기 n 라면 재무제표)하고, 외부세력과 규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분규 중에 이러한 사실을 전 종업원들에게 밝히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임금투쟁'이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종업원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자제를 해왔습니다.

처음 분규발생 당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중에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업원들을 선동하여 위원장 불신에서 집행부불신 등으로 노노 분규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그 후 전종업원이 이에 호응하지 않자 '임금투쟁'이라는 구호로 바꾼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바 있습니다.

또한 분규과정에 있어서도 안성과 부산공장의 전 종업원은 안양의 분규가 임금투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전혀 협상의 진전이 없어 몇 차례 난항을 거듭하자 다수의 협상의지를 가진 안양과 부산 및 안성공장의 대표들이 협상안을 제시하여 이를 회사는 적극 수용합의 하였던 사실을 이 기회에 밝혀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와는 협상 아닌 투쟁으로 일관하였으며 외부 불순세력과 규합하여 불법 파업을 자행하였던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그 책임을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이외에 어떠한 외부단체와 규합하여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을 위해서 배격하여주시기를 전 종업원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n 라면 가족 여러분.

이제 지난 일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고 조직사회에서 질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규정된 법질서를 준수하여 질서와 화합 속에 밝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1989. 5. 31.
생산총본부장

생산본부장은 가히 손바닥으로 탁자를 탕탕 치며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이였다. 그런 굳건한 신념이 없다면 저렇게 집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터였다. 새삼스레 '거짓말도 100 번을 하면 진실이 되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신념이 된다.'고 선동했던 나치의 나팔수인 괴벨스의 말이 귓가를 찌렁찌렁 울리는 느낌이었다.

일본의 거짓말 문화를 답습한 기업문화

안양시내에서 해고자들을 만난 후 땡땡 거리로 해서 야간 출근을 할 때였다. 지금은 지하도로가 생겨 건널목이 없어졌지만 당정리 철도건널목을 이 일대에서는 땡땡거리로 불렀다. 땡땡 거리에서 회사까지는 남자걸음으로 6-7 분 거리, 가로등 하나 없는 음산한 거리였다. 6 월이긴 하지만 저녁 8 시가 다돼 어둑한 거리를 총총히 걷고 있었다. 저녁 8 시가 출근시간이니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땡땡 거리를 100 여 미터쯤 지났을 때였다. 검은색 승용차가 내 옆을 스치듯 회사 쪽으로 질주해갔다. 계속 내달릴 듯 하던 승용차가 흐린내다리 못미처에서 멈춰 섰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와는 30 여 미터의 거리였다. 뒷자리에서 사람의 머리형체가 가늘어올랐고, 희미한 무언가를 보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모습이 뒤 유리창으로 어른거렸다.

뒤에 오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듯 한 정면형의 머리 형상이었다. 도로를 따라 허름한 공장들이 들쭉날쭉 들어서있고, 곳곳에 잡초만이 무성한 나대지가 방치돼있는 곳이었다. 그래 인근 공장에 불일이 있거나 소변을 보는 일 외엔 정차할 일이 없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내 출발할 모양이었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검은색승용차의 앞에도, 뒤에도, 움직이는 물체라고는 오직 나하나 뿐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쭈뼛거리며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 힘을 모으며 뒷좌석의 얼굴을 응시했다. 차안의 물체는 미동도 않은 채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이였다. 다가오고 있는 나를 응시하는 게 분명했다.

나는 더욱 눈을 치켜 뜬 채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다. 차 번호판이라도 봐두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4-5 미터 정도 접근했을 때였다. 검은색승용차가 쏜살같이 n 라면 쪽을 향해 내달렸다. 번호판을 막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설맞은 짐승처럼 질주하던 승용차는 n 라면 정문을 10 여 미터 지나 옆의 금성중공업 정문근처에 사뿐히 정차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어둡한 구석이었다. n 라면 정문 앞은 보안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회사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차안에서 식별하기가 쉬울 터였다.

차의 뒷좌석에서는 역시 사람의 머리 형상이 솟아올랐고 뭔가가 잘 보이지 않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를 또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문 앞을 4-5 미터 정도 다가가자 검은색 승용차는 이내 둔포사거리 쪽으로 내달렸다. 멍하니 서서 보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파업기간 중 대표적인 민주파 대의원인 송인자양의 자취방이 털린 이후 늘 신경을 쓰던 터였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유독 조합원과의 만남 일지와 노동교육 단체의 참가 일지, 'n 라면 민주노조쟁취 추진위원회'의 일지 등만 없어졌던 것이다. 그래 'n 라면 민주노조쟁취 추진위원회' 모임을 자주 하던 여성노동자의 자취방도 다른 곳으로 옮긴

터였다. 통장인 골목입구의 동네슈퍼 아줌마가 갑작스런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캐물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과의 만남도 주변을 둘러보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면 가차 없이 장소를 옮겨왔던 것이다. 안 그래도 인근 타 회사의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감시와 미행사례를 솔하게 접하며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오던 터였다. 그럼에도 막상 차량미행을 직접 겪고 보니 오싹한 기분이었다.

그런 며칠 후인 1989년 6월 10일이었다. 저녁 8시 30분경 출근투쟁을 마친 해고자들과 함께 몇몇이 둔포 신사거리에 있는 문찬식이네 집을 갈 때였다. 봉고차를 몰고 가던 문찬식이 백미러와 룸미러를 번갈아보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다는 거였다. 골목길로 들어서도 계속 따라온다는 거였다. 신사거리 문찬식의 집골목으로 접어들자 문제의 검은색 승용차도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문찬식은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오겠다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2인의 해고자를 비롯한 봉고차 안의 4인은 검은색 승용차를 주시하고 있었다. 승용차안의 사람도 미동도 없이 봉고차만을 응시하는 눈치였다. 검은색 승용차의 사람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명씩 두 명인 것 같았다. 십여 미터의 거리였다. 2-3분이 되도록 사내들은 처음 그대로 봉고차만 응시하고 있었다.

문찬식이 비디오카메라와 몽둥이를 들고 왔다. 어른 팔뚝 굵기의 한발은 뒹직한 각목이었다. 전수철이 각목을 뒤로 숨긴 채 앞장섰고 문찬식이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뒤따랐다. 지나치듯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다. 승용차가 손에 닿을 정도로 다가갔을 때였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며 두 사내가 내뿜었다. 각기 다른 방향이었다.

“도둑이야!”

전수철이 고함을 치며 소방서 방향의 사내를 뒤쫓았다. 그러나 사내는 말 그대로 비호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가쁜 숨을 내쉬며 전수철이 되돌아왔다.

그리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한 우리는 아연했다. K도경 대공과 소속 나형주 형사의 신분증과 두 해고자의 확대증명사진이 서류봉투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해고자들이 입사 때 회사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n 라면 안양공장의 노무차장인 장영만의 명함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신분증의 소유주는 이내 돌아와 미행사실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 사실은 2 일후 '불순조작 음모를 폭로한다!' 란 제목으로 해고자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폭로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회사는 다음날 생산본부장 명의의 '불온유인물 살포에 대하여'란 제목의 대자보를 안양공장 곳곳에 붙였다.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조합원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판에 박힌 악선동이었다. 회사의 노무차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명함을 준 것뿐이라는 얘기였다. 당시 해고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던 폭로유인물과 회사 측의 반박 대자보는 다음과 같다.

불순조작 음모를 폭로 한다!

n 라면 조합원 동지들께 알립니다.

지난 6 월 10 일(토요일) 우리 해고자 두 사람이 출근투쟁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뒤를 미행하는 포니 승용차가 있음을 눈치 채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자 그들은 길에 차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쳤으며, 차속에서 그들의 신분증과 함께 우리 해고자들의 신상명세서, 확대사진, 동태를 기록한 메모 등이 나왔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자료들이 회사 노무과 장영만 차장의 명함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회사 측과 한패인가?

우리를 미행한 사람 중 한명은 K 경찰국 대공과 나형주 순경이었으며, 그는 우리를 미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 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경찰 신분증, 주민등록증 증거 확보)

해고도 서러운데 불순분자 웬말이냐!!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을 해고 시킨 후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는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두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궁여지책으로 조합원들과 우리 해고자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의뢰하여 불순분자 딱지를 붙이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뺨마저 없어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쫓겨나 살길이 막연하여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측은 악랄하게도 불순분자로 몰아 우리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고자 두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합원 여러분의 격려만 있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끈끌하게 일어나 복직되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1989. 6. 12.

n 라면 해고자 전수철, 송인자.

불운유인물 살포에 대하여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실업율과 무역수지가 넉 달째 적자를 보고 있고 외국기업이 고임금과 노사분규 등으로 투지매력을 잃고 속속 떠나고 있는 경제현실 속에서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란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실질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이때, n 라면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장생활이 더더욱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존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공개법인 n 라면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외부적 환경요인도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공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외부세력과 규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단호히 배격하고 질서와 화합 속에서 밝은 직장을 만들고자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승복한 두 사람이 '불순조작 음모를 폭로한다!'는 등의 유인물로 자신들을 오히려 변호하고 n 라면 가족의 한마음을 분열시키려는 행위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면직된 두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회사 정문에서 1986년 해고자인 이영재가 한 행위와 똑같이 머리띠, 플래카드, 및 각종 유인물들을 동원해 회사를 출입하는 전 n 라면 가족의 동정을 모으려고 행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8일자로 안양노동상담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장 정규재를 구속하는 등의 과정에 있어서 현재 공개수배중인 경기남부노련 의장 임상순, 간사 허미홍에 대한 조사 중 전수철과 송인자가 '우리자리'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15일전쯤 경찰국 수사요원이 두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요구 차 방문하였을 때 장영만 차장이 명함을 건넨 사실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민중의 지팡이가 회사와 한패'등으로 왜곡 해석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므로써 자신들에게 동정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면직된 두 사람은 'n 라면인'이 아니며 어떠한 술책과 기만에도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슬기로운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영원히 후세에 물려줄 n 라면을 위하여 다 같이 힘 모아 노력합시다. 끝으로 무더운 하절기에 전 n 라면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989. 6. 13
생산본부장

어이가 없었다. 대공과 형사들이 승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미행하고, 해고자들이 입사 때 회사에 제출한 서류들과 안양공장 노무과장의 명함이 그들의 차안에서 나왔음에도 이토록 당당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도망쳤던 형사가 제 발로 돌아와 미행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썼음에도....

지난 10 여 년간 지켜본 회사 측의 이런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해대는 일종의 마타도어였다. 해고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면담했던 생산본부장이 해고자 전수철이 여성노동자들을 선동했다고 몰아붙이다 나와 전수철이 호되게 되받아치자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걸 보면 그랬다. 지난 10 여 년간 노조민주화 세력들이 무슨 대단한 반국가, 반사회 단체의 조직원인 양 매도했으나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해줄 것을 수도 없이 간청했지만 불순세력만 앵무새처럼 노래했던 것이다. 불순세력과 관련해 단 한명의 노동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일언이폐지하고,

n 라면의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들은 반대자들을 불령선인, 반동,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숙청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몬 일제 공산독재자들의 수법이였다.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 고 한 레닌의 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크게 하라, 그것을 단순하게 하라, 그것을 말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한 히틀러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나치당의 두목 히틀러의 수하에서 선전상으로 있던 괴벨스가 즐겨 하던 '거짓말도 100 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속담이 일본에도 있는 것이다.

"嘘も 100 回言えば本当になる. 우소모 핫카이 이에바 혼또니 나루"

거짓말도 100 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는 이런 식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속담들이 일본에

100 여 개가 된다는 거였다. 자연스레 일본의 대표적인 악질 거짓말인 간토대지진 학살사건이 떠올랐다.

1926 년 일어난 간토대지진에 대한 백과사전의 기술은 가히 충격이었다. 간토지방이 대지진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아수라장이 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자 매일신보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한다.'는 기사를 1 면에 대서특필했다. 이 기사를 다른 신문들이 1 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그러자 내무성은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와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주의하라는 문서를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그로인해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려한다는 소문이 횡행했다. 그러자 몽둥이와 일본도, 총으로 무장한 자경단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돼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하며 한국식 복장을 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일본말이 조금만 서툴면 한국인으로 간주해 즉시 살해했다. 이렇게 사냥하듯 찾아다니며 살해한 한국인이 6 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어느 보도엔 2 만여 명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보니 일본은 틈날 때마다 나치의 만행을 사죄하고 반성하는 독일과는 달리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모른 채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으로 생각해 거부한다는 거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n 라면의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들이 일본의 거짓말 문화를 답습한 기업문화 탓이었다. 회장님의 부모 형제들의 고향이 일본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확신처럼 드는 것이다. 달리 이해를 할 방법이 없었다.

1978 년 7 월 12 일 환갑의 노모와 30 세의 아내, 3 세, 백일 된 남매 등 네 식구를 뒤로한 채 서울 신길동 대신공장에서 까마득한 우물 속으로 투신한 32 세의 임성철(가명) 노동자를 언론을 통해 두 번이나 죽인 것만 봐도 그랬다. 평소 바른말을 한다는 이유로 연장과 휴일근로에서 계속 배제되고 임금인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자 술을 마신 채 회사를 들어가 관리자들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런 거였다. 그러다 경찰차가 출동하자 우물 속으로 투신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김대중의 선거 자금을 댄다는 이유로 강제로 문을 닫은 삼학소주에서 사용하던 까마득하게 깊고 얼음처럼 차디찬 주정용 우물이었다.

그럼에도 회사 관리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D 일보와 K 신문은 야간에 잠을 자다 들켜 시말서를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를 해 두 번이나 죽였다. 그런가하면 노동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 임금인상에 불만을 품고 그랬다고 보도한 H 일보와 주간 H는 시내 가판대에 깔린 지 두시간만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에 의해 모두 수거되었다. 주간 H는 오후에 발매된 2 판에선 임성철형 사망사건 기사가 빠진 채 여성생리용품 '템포' 광고가 실렸던 것이다.

1993년 10월 12일 국회 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개 무시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은 나의 보복성 해고와 1993년 노조위원장 선거 때 3개 공장과 3천 조합원의 집으로 우송한 흑색선전물을 흔들어 보이며 진상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을 향해 공안기관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흑색선전물이라며 비분강개했던 것이다. 친절하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명기한 '현대사회연구소' 명의의 '여보게! 거미는 무얼 먹고 사는지 아는가!'라는 16쪽짜리 소책자로 조직 표까지 만들어 민주세력을 반체제 세력의 조직원으로 매도한 흑색 선전물이었다.

그럼에도 n 라면은 개 무시하며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의제자백을 했다. 흑색선전물의 명의단체로 명시된 '현대사회연구소'는 단체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맞지만 흑색선전물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도용해 만든 것 같으며 발뺌을 했다.

안양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역시 n 라면 안양공장에 위 흑색선전물과 비슷한 내용의 '나비와 송충이'란 책자는 있는데 참고용으로만 갖고 있었지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전화를 내게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누구 의심 가는 사람이 없냐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막강한 외부 배후세력이 있음을 암시하며 답답해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n 라면은 2007년 9월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나에 대한 '민주화 운동자' 인정과 복직권유를 콧방귀를 뀌며 거절하기도 했다. 노조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해고이므로 '민주화 운동자'라며, 복직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국가기관의 권유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10 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친 자료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 운동자'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콧방귀를 꺾며 반민주 반노동자 기업임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런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 문화의 근원은 1910년 한일합방이후 한 세기 넘게 이 땅에 뿌리내린 일본의 거짓말 문화 탓이라는 생각이다. 해방 후인 1948년 일제시대 친일세력들을 처벌하기 위해 7,000여명의 반민족행위자들을 구속했으나 반공이 더 급하다며 이승만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무력화시킨 탓이라는 얘기였다. 이후 친일세력들이 70여년간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롯한 군사독재정권과 손잡고 애국 민주인사들을 불순분자 빨갱이로 매도하며 일본의 거짓말 문화를 퍼뜨린 거였다.

그렇다보니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이기는 게 정의인 세상이 된 거였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번만 말해진 거짓말은 거짓말로 남지만, 수천 번 말해진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는 괴벨스의 말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짓말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구한말 학생들에게 틈만 나면 거짓을 버리라고 주창한 도산 안창호선생의 찌렁찌렁한 음성이 귓전을 울리는 이즈음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자 1908년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였다.

아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하였으니 내 평생에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리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痛悔)하라.

문학의 탈을 쓴 일본의 거짓말문화

일본의 거짓말문화 퇴치운동의 시급함을 절감하게 한 게 둘째 종질녀인 정희였다.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형의 둘째딸이었다. 자신의 종조부인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네 어른들을 '그자들' 어쩌구하는 글을 써 고향의 친구들에게 돌린 거였다. 20 여 년 전 고향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수필집을 하나씩 돌렸다는 얘기였다. 큰누이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자들' 어쩌구하는 표현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희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여름방학 때면 시골집에 내려와 고향의 또래들과 친분이 있는 터였다. 사촌형이 첩살림을 차린 지 10 여년 밖에 안 되고, 팔아먹을 유산이 많이 남아있을 때이니 남양만과 사촌 네 염전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별장 같은 집을 갖고 있었다.

정희가 수필을 쓴다는 말은 얼핏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글을 쓰다니 어이가 없었다. 일제이후 100 여 년간 일제와 친일세력들에 의해 온 나라를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린 일본의 거짓말문화가 문학의 탈을 쓴 채 우리 집안까지 파고든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그자'는 '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다. 존경의 의미와는 반대의 의미이니 무시하는 말이라는 얘기였다. 일언이폐지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네 어른들이 도둑놈, 사기꾼이란 얘기였다. 그동안의 파렴치한 행태로 보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었다. 명색이 당고모인 큰누이가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친구들에게 책을 돌리고 시치미를 떼는 걸 보면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염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니, 고향마을 사람들의 서운함이니 하는 정희가 쓴 글들이 검색됐다. 염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어쩌구하는 표현은 도둑놈, 사기꾼들인 집안 어른들에게 속아 염전을 헐값에 빼앗겼다는 얘기일 터였다. 고향사람들의 서운함 어쩌구 역시 그들의 파렴치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며 집안 네의 출입을 가로막은 걸 두고 하는 얘기일 것이다. 고마운 것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옛 성인들의 말처럼 사촌네 식구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다.

이런 악성바이러스인 일본의 거짓말 문화의 폐해를 강조하자니 사촌 네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집안의 흑역사를 고백하고자 한다. 불편한 진실을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이기는 게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거짓말도 크게 자주하면 대중이 믿는다고 선동했던 나치세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거짓말도 100 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식의 거짓말 옹호 속담들이 100 개나 되는 일본의 거짓말 세상이 아님을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각설하고,

1913 년생인 아버지는 9 세에 분가, 13 세에 고아아닌 고아가 되셨다. 당신의 아버지가 요즘말로 치매가 들자 18 세 위의 배다른 형이 서모와 함께 분가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4 년 후 아버지의 생모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런 탓으로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형 네와 우리 집은 내가 어릴 적부터 성골과 진골과도 같이 다른 분위기였다. 사촌 네는 서울에 살며 제대로 학교도 다녔지만 우린 아우와 나만 겨우 공고를 졸업했을 뿐 나머지 4 남매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다. 사촌 네는 서대문 영천에서 쌀가게를 하며 고향에 염전과 방앗간, 산과 논밭 등 할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땅땅거리며 살았지만 우리는 일곱 식구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자갈밭 몇 뼛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런 탓으로 아버지보다 세살 아래 조카인 사촌형이 삼촌 같았고, 작은 아버지인 아버지가 조카 같았다. 사촌형이 오면 반드시 쌀을 꺾다 쌀밥을 대령할 정도였다. 우리는 보리쌀도 아껴먹기 위해 농번기 땀 저녁을 수제비로, 농한기 땀 김치국물에 보리쌀을 한줌 넣고 끓인 김치죽으로 연명하면서도 그랬다. 서울에서 어쩌다 내려오는 큰어머니 역시 어머니를 하인대하 듯 했다. 아니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건 기본이고 어머니의 고무신을 바깥마당 아래 남의 논으로 집어던지는 게 취미일 지경이었다.

땅을 판다는 소문에 아버지가 사겠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하곤 남한테 팔고 서울로 올라간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보다 세 살 아래 여동생이 심하게 아파 20 여리 면소재지의 당골을 부르러가려 하자 자기가 이르고 가겠다고 하곤 그대로 서울로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그래 항상 근심어린 표정의 어머니가 어린 나에게도 짠했었다. 어머니가 갓 50 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동네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말이 큰 어머니 때문에 생긴 속병이라는 얘기였다. 그래 난 하나뿐인 내 여동생과 어머니를 죽인 원흉으로 큰어머니를 저주하며 살았다.

어쨌거나 사촌형은 32 세 때인 1948 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사업을 한답시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먹는 재미로 살았다. 그러면서 첩살림을 시작했다. 첩의 큰딸이 나와 동갑인 1952 년생이니 그 무렵이었다. 뜻을 세우는 나이라는 입지에 첩살림의 뜻을 세운 셈이었다. 그리고는 본처와의 사이에 낳은 10 남매에 첩과의 사이에 남매를 더 낳아 축구팀인 12 명을 채웠던 것이다.

중학교까지 고향마을에서 다닌 내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사촌형은 고향마을의 염전과 이웃동네의 방앗간, 그리고 서대문 영천에 쌀가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사촌형이 직접 한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남에게 맡긴 채 밖으로만 나돌았다. 그러니 하나같이 서서히 망해갔던 것이다. 어린 내가 보기에 유산 팔아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았다. 그렇다보니 잊을만하면 나타나 문중의 어른이자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아버지에게 문중의 장리쌀을 얻어달라고 조르는 게 일이었다.

그런 사촌형이 결정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한 게 60 년대 후반 서대문 영천의 쌀가게를 맡아한 먼 친척이 외상장부를 갖고 내 튼 후였다. 사촌형이 사흘이 멀다 하고 내려와 문중의 장리쌀을 더 얻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다. 20 여 년간 유산 팔아먹는 재미로 살며 야금야금 문중의 장리쌀을 갖다 쓴 게 100 여 가마가 되는데 더 얻어달라는 거였다.

땅거미가 질 무렵 서둘러 저녁 설거지를 끝낸 누나들이 친구네로 마실을 떠나고 나면 사촌형이 바람처럼 나타났다. 밤색 코트에 역시 밤색 중절모를 쓰고 누런 서류봉투를 옆구리에 낀 채 축 처진 모습이었다. 검은 뿔테안경까지 쓰니 영락없이 지친 소파 방정환 선생이었다. 서울에서 면소재지까지 버스로 서너 시간 걸릴 때였다. 그것도 수원부터는 덜컹대는 비포장도로였다. 그리고 면소재지에서 20 여리 비포장 길을 한 시간 넘게 걸어 다녔던 것이다.

그렇게 사촌형이 느닷없이 나타나면 집안은 가히 비상사태였다. 아버지는 어서 쌀을

꺾다 밥을 지으라는 엄명과 함께 누나들에 대한 호출령을 발동했다. 그럼 어머니는 바가지를 든 채 부엌에 우두망찰 서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오늘은 또 누구 네를 가서 쌀을 꾸나! 아니 도대체 조카가 뭐 길래 매번 쌀밥인가!'하는 어머니의 처연한 모습이 잔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밥을 하지 않고 뭐하냐며 치도곤을 할 땐 아버지에게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우리 식구들은 칠월 칠석과 명절 등 일 년에 두세 번 쌀밥을 구경함에도 사촌형은 허구한 날 쌀밥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천국으로 생각했던 서울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게 이때였다. 사촌형이 서울 사람답게 소파 방정환선생처럼 밤색 중절모에 밤색 코트, 뿔테 안경, 옆구리에 누런 서류봉투를 들었지만 어깨가 축 처진 채 세상 근심걱정을 혼자 짊어진 듯한 표정 탓으로 추레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세살위지만 명색이 작은아버지 집을 뺨질나게 드나들며 눈깔사탕 하나 사들고 온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니 어린마음에도 서울거지란 말이 뇌리를 맴돌았다. 매번 죽을상으로 와 문중 쌀을 얻어달라며 애걸을 하니 이집 저집을 다니며 빌어먹고 사는 거지와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 천지지만 오손도손 사는 시골생활이 훨씬 행복함을 절감했던 것이다.

내가 초중등학교 때의 일이니 1960년대 초중반일 터였다. 그날도 온 세상의 근심걱정을 혼자 짊어진 듯 들어온 사촌형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읊소하듯 종종의 장리쌀을 더 얻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첩살림을 차린 195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갖다 쓴 게 원금만 쌀 100가마라며 어렵다고 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한답시고 전부 남에게만 맡기고, 밑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인 첩살림에 빠진 사람한테 문중 쌀을 100가마나 줬다며, 그런데도 원금과 이자를 단 한 푼도 갚지 않는다며 귀 먹은 욕을 먹느라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자 사촌형은 한동안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그러더니 염전이라도 팔아달라고 했다. 논밭과 방앗간 등 팔아먹을만한 건 다 팔아먹고 염전만이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을 때였다. 당시 염전은 염부를 두고 하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다. 그렇다보니 개흙으로 된 방조제가 해마다 터져 염전은 물론 인근 논들을 바다로 만들어 인근 농지 소유자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다. 특히 염전과 붙어있는 우리 논은 제대로 된 벼 수확이 불가능했다. 한창 크고 여물어야 할

시기에 바닷물이 덮쳐 못 크고 못 여물어 부서부서한 싸라기밥이 우리 집의 쌀밥이었던 것이다.

그래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아버지가 해마다 두세 차례씩 인부들을 사 가래질로 염전방조제 보수공사를 해온 터였다. 그렇다보니 당시 염전은 우리 집의 원수덩어리였다. 5-6 미터 거리의 뿔밭에서 가래 삽으로 개흙을 떠 방조제로 던져 붙이는 가래질 작업은 다섯 명이 한 조가 기본이었다. 한명이 가렛장부를 잡고 이리저리 가래 삽의 위치와 각도를 잡아주면 양쪽에서 두 명씩 가래 줄을 잡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당겨 앞으로 던지는 고된 일이었다. 그렇다보니 다섯 명의 하루 세끼 먹을 걸 머리에 이어 나르는 엄마와 누나들이 죽을 맛이였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 거의 3-40 분 거리를 일 년에 두세 차례씩 두어 달을 그 짓을 하니 열불이 나는 것이다. 1 키로 넘는 방조제를 한삽한삽 개흙을 떠서 붙이고 다지다보니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래도 일 년 중 물이 제일 많이 미는 백중사리 때면 해거리로 태풍이 찾아와 소금창고 처마까지 바닷물이 넘실대는가 하면 염전의 수리채가 인근 논 위를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 다른 염전들은 매달 음력 보름과 그믐날 물이 많이 미는 사리를 앞두고 툼툼이 가래질 작업으로 방조제를 개흙으로 보강하지만 사촌형네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조카네 일이라고 농사일도 바쁘데 염전일 까지 맡아 하셨다. 바닷물을 염판에 깔아 소금을 안치고, 수시로 염도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소금을 굵어 그 힘든 어깨지게로 소금창고로 옮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주인처럼 염전 일을 하셔 어릴 적 염전이 우리 걸로 알았을 지경이었다. 식구들은 물론 집안 네들까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것들 버릇만 더 나빠진다고 야단이었지만 아버지는 염전이 염전노릇을 해야 우리 논도 논 노릇을 한다며 염전을 챙기셨다.

그럼에도 사촌형은 당연한 듯 소담보듯 했다. 아니 작은 아버지인 아버지를 인부처럼 취급했다. 그렇다보니 염전 방조제의 가래질 인부들 품삯도 모르는 체 하기 일쑤였다. 누가 하라고 했냐는 듯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불러 시킨 일이니 마지못해 여기저기서 꺾다 품삯을 치렀다. 그럼에도 사촌형은 오면 소금창고부터 열어봤고, 두어 달에 한 번씩 화물차를 불러 소금을 실어 내다 팔았다. 이게 사촌형의 염전에 대한 유일한 관심이자 애정이였다.

그런 애물단지지만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소금 값이 없어 염전이 뚝값임을 들어 극구 만류했으나 사촌형은 막무가내로 팔아달라고 매달렸다. 확답을 안 해주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얼굴이었다. 첩도 돈이 마르기 시작하자 살길을 찾아 떠나고 남매는 본가로 보내져 천덕꾸러기 노릇을 할 때였다.

그래 아버지가 선친의 유산을 남의 손에 넘기느니 집안 네의 장손인 큰댁의 종질에게 떠넘기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러자 돈이 부족했던 큰댁 종질이 이웃마을의 영재를 끌어들이어 함께 샀던 것이다. 그리고 쌀 중개상으로 도시를 드나들며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던 큰댁의 큰 종질이 염전의 개흙 염판에 사금파리를 깔았다. 그러자 불순물 천지로 거무튀튀하던 소금이 곱고 흰 소금으로 바뀌어 소금 값이 폭등을 했다. 그걸 지켜본 사촌형의 율화병이 급격히 악화된 거였다. 남대문 로터리에 사무실을 얻어 광고 일을 하는 등 몇 가지 일로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자신이 모르는 일을 남의 손에만 의지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래 몇 년을 서울 집 골방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싸맨 채 생손가락 앓는 소리를 내며 식구들을 달달 볶다 1971년 첩의 고향인 대구의 여관에서 객사를 했던 것이다.

그래 문중에선 회의를 통해 100가마인 문중 쌀의 원금만이라도 값을 것을 결의해 문중 어른인 아버지가 상도동의 사촌형네를 가서 질부와 장손을 불러 앓힌 채 통보했다. 20여년간 장리쌀을 가져간 날짜가 뺨뺨이 적힌 치부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믿고 맡긴 먼 일가가 외상장부를 갖고 내튀어 쫓딱 망한 서대문 영천의 쌀가게를 비롯해 사업을 한답시며 유산을 팔아먹는 재미로 살아온 삶의 행태와 첩살림에 빠진 과정들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사촌형은 첩살림을 한 20여년을 본가와 발길을 끊어 처자식들은 집안이 거덜 난 과정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거짓말문화 퇴치 국민행동`이 시급하다

아버지가 문중의 회의내용을 통보한 보름 후부터 사촌형의 장남인 큰 종질의 편지폭탄이 달거리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편지봉투가 미어터질 정도의 묵직한 대여섯 장짜리에다 내용도 충격적이니 가히 편지폭탄이었다. 문중의 세 사기꾼들의 꼬임에 넘어가 염전을 헐값에 빼앗겨 자기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었다는 얘기였다. 문중회의의

원금상환 결정을 전한 제 종조부인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 염전을 산 큰댁의 큰 종질, 그리고 그이 아우인 큰댁의 작은 종질이 사기꾼 3 인방이라는 거였다. 큰댁의 작은조카는 사업을 한답시고 유산을 팔아먹는 재미로 사는 것도 모자라 밑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라는 첩살림까지 차린 것에 대해 대놓고 바른말을 해온 터였다. 그런 반건달 생활을 하며 문중의 장리쌀까지 100 가마씩 갖다 쓰고 이자도 원금도 모른 채 계속 손을 내미니 한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촌형네 큰 종질은 다음 달이면 차디찬 감옥의 창살에 갇힐 것이니 각오를 하라느니, 함배산을 제 작은 할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가 가로챘다느니, 염전 방조제의 가래질 품값을 가로챘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초급경사로 오르기도 힘든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산의 풀을 아버지가 가을에 베어 말렸다 땀나무로 쓰는 걸 두고 하는 얘기였다. 가래질 인부들 품삯 얘기는 제대로 품삯을 쥐보지도 않고 하는 도둑이 제 발 저려 하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사촌형의 건달행각을 대놓고 비난했던 큰댁의 작은 종질을 겨냥해 작은 종질부와 큰댁 머슴이 사랑채에서 붙어먹었다는 얘기까지 추가하기도 했다.

사촌 네 큰 종질은 이런 파렴치한 편지폭탄을 우리 집과 고향의 두 종질뿐 아니라 동네의 몇몇 유지들에게도 투하했다. 그러면서 장사 지낸지 일 년도 안 된 제 아버지 묘를 파헤쳐 고양시 원당의 자기네 산으로 이장했다. 그리고는 묘에서 물이 났던지 제 아버지를 질질 끌어다 물구덩이에 처박았다는 얘기까지 편지폭탄에 추가했다. 그것도 모자라 네 여동생들을 내려 보내 한밤중에 세 집 돌레를 빙빙 돌며 '도둑놈! 사기꾼!'을 연호하며 강강술래를 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와 두 어머니 제사 때면 어김없이 동네 앞바다에서 잡은 낙지퀘미를 든 채 상경하셨다. 우리들은 물론 집안 네들이 후레자식들이라며 상경을 극구 만류했으나 그 자식들 보러 가는 게 아니라며, 아버지 어머니 제사 모시러 가는 거라며 가셨다. 그러나 집안 네들은 6.25 때 서울 시흥동에서 우리 동네인 서해안 끝단의 남양만까지 하루 종일 우마차를 끌고 피난 짐을 실어다 준 공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며 비분강개했다. 아버지가 6.25 전쟁 통에 우마차를 끌고 피난 짐을 날라준 걸 두고 하는 얘기였다.

할아버지 재산인 서울의 집과 가게, 시골의 땅과 방앗간을 가진 채 호의호식하던 사촌형이 보리쌀 한말이면 뺄 수 있는 제 작은 아버지의 징용을 모르는 체 했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배편으로 일본으로 출발하는 인천을 향해 거의 하루를 걸어 반월에 다다르자 일제가 항복했다는 소식에 만세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오셨다는 슬프면서도 기쁜 아버지의 징용탈출기였다. 제사도 까맣게 잊고 산다며, 제사를 무슨 장난처럼 지낸다며 혀를 꼴꼴 차면서도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 다녀야 한다며 제사 때마다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사촌형네 장손의 후안무치가 똥구멍으로 공부를 한 탓이라고 했다. 동네방네 보내는 편지 역시 똥구멍으로 쓴 거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잡놈처럼 살고 더럽게 편지를 쓴다는 얘기였다. 머리로, 가슴으로 공부를 하고 손으로 편지를 쓰면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일순 탄복을 했다. 소위 일류대로 꼽히는 K대 국문과를 나온 사촌형 네 큰 종질의 파렴치한 행태를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머리와 가슴으로 공부를 하고 손으로 편지를 썼다면 이럴 수가 없었다. 이후 쌀 100가마와 똥구멍공부는 사촌 네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1920년대 서당 구경도 못하신 일자무식 아버지에게 이런 촌철살인이라니! 배워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일자무식인 무지랭이만도 못하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됐던 것이다.

3년여 온 동네에 투하됐던 편지폭탄이 갑자기 '뚝!' 하고 그쳤다. 그리고는 사촌네 식구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우리 집으로 몰려 내려왔다. 그리고는 아저씨! 할아버지!를 후렴처럼 불러대며 우리식구 뒤를 졸졸 따랐다. 도둑놈, 사기꾼 집에 왜 왔냐며, 밀쳐내도 기를 쓰고 고개를 들이밀며 들어왔다. 그렇게 몇 년을 드나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후 제 조부모와 아버지의 묘를 고향의 선산으로 다시 모셔야겠다고 했다. 납골당을 하겠다는 얘기였다. 집안 네들은 하나같이 핏! 핏! 콧방귀를 날렸다. 집안 네라고 바쁜 농사철에 모든 걸 작파하고 제 아버지 장사까지 치러줬더니 질질 끌어다 물구덩이 속에 처박았다더니, 작은 할아버지와 집안의 형님들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더니 왜 다시 오냐는 얘기였다.

그러자 큰 종질은 선산의 지분이 있다고 했다. 일제 말기 다섯 집이 쌀 한말씩 거둬 산 선산이었다. 그러나 사촌형은 십 수 년 후 쌀 한말을 되찾아간 터였다. 사업한답시고 유산을 하나하나 팔아먹는 재미로 살며 첩살림까지 차려 반건달로 살다보니 한 푼이 아쉬웠을 터였다. 그럼에도 큰 종질은 막무가내로 지분을 고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아버지를 비롯한 조부모를 고향선산으로 다시 모시겠다는 게 일산의 신도시 조성으로 원당의 부동산이 폭등해 팔겠다는 얘기였다.

그래 집안 네에선 재차 파렴치한 편지폭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네 아버지가 갖다 쓴 100 가마의 문중 장리쌀이 문중의 재산이니 다만 얼마라도 갚으라고 했다. 그러나 조카들은 못 들은 체 농치며 아저씨! 할아버지!를 연호하며 스토커처럼 우리 식구들을 따라다녔다.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선산 합동별초 때도 열심히 참석했다. 점심 전에 끝내기위해 먼동이 틀 때부터 시작해 사오천 평 선산의 별초가 열추 끝나가는 오전 11 시경 나타나 어슬렁거리다 가는 것으로 참석을 갈음했다.

그러니 큰댁의 작은 종질은 사촌네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만 들리면 대문간에 솟돌을 갖다놓고 식칼을 벱! 벱! 갈았다. 대문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배때기를 찢러 죽인다는 거였다. 그렇다보니 큰댁의 두 종질 네는 얼씬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농치시는 아버지의 약점을 노려 우리 집만 드나들었다. 영락없이 쫓아도 흠뻑거리며 드나드는 도둑고양이였던 것이다. 그래 난 사촌형네 종질들을 보면 빨리 사기로 고소하라며, 그럼 무고와 공갈,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임을 천명했다. 둘째 종질이 그 유명한 k 대 법대를 중퇴했으니 무고와 공갈, 명예훼손이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인가를 알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10 여년 후 도둑놈 사기꾼으로 매도당했던 아버지를 비롯한 고향의 두 종질들이 모두 돌아가시자 차 트렁크에 선물을 잔뜩 싣고 후임 증친회장 집을 뺨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런 몇 년 후 문중회장은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촌형네 납골당을 밀어붙였다. 몇 십 년 전 얘기로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게 이유였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뒷자리에 우리 할아버지인 그들의 증조할아버지 자손 4 대를 모두 모셔야한다는 주변의 강권에도 아랑곳없이 한쪽에 자신들의 조부모, 부모, 형제 등

3 대만 모신 납골당을 설치했다. 가능한 큰 뿌리부터 모셔야한다는 종친회장의 권유도, 재력이 있어 납골당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부터 4 대를 모시려고 40 위짜리로 여유있게 한 거라고 했지만 복잡해서 싫다며 자기 할아버지부터 3 대만. 모셨던 것이다.

증조할아버지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복잡해 싫다니 어이가 없었다. 자기네 할아버지는 큰할머니의 소생으로 성골이지만 작은 할아버지인 우리 아버지는 작은할머니 소생으로 진골이란 얘기였다. 한 마디로 종자가 다르다는 얘기였다. 그 유명한 k 대 국문과 출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망발이었다. 아버지의 촌철살인대로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똥구멍으로 한 말이 아닌 가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

이러니 납골당 공사를 하는 날 집안 네에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사촌 네는 이후에도 납골당만 도둑고양이처럼 다녀갔다. 족제비도 낫짝이 있다더니 동네에는 안 들렸다. 아니 못 들렸다. 한식 때 합동차례도, 추석 전 합동별초 때도 하나같이 사촌네 식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이라도 걸면 통명스레 대꾸했다. 몇몇은 사촌네 식구들이 들으란 듯이 들릴락 말락 하게 '쌀 100 가마!', '똥구멍공부!'를 주문처럼 읊조리기도 했다. 차디찬 창살이 있는 감옥으로 보낸다더니 왜 안보내냐며 이죽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도 아니고, 집안 네도 아니게 지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촌네 종질들은 작은 사촌형네 집안행사 때 만나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오랜만이라느니, 자주 만나자느니 하며 요설을 늘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작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을 도둑놈.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죄와 종중의 재산인 100 가마 장리쌀의 상환을 요구했다. 그럼 하나같이 우린 모른다며, 큰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얼버무렸다. 주모자인 큰 종질 역시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깐 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언젠가 큰형님 생신 때 우리 할아버지 자손만의 종친회를 만들어 나와 사촌 네 셋째 종질을 우리 집과 사촌 네 집안의 총무로 임명했다며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큰형님과 사촌 네의 큰 종질이 충효사상에 대해 강의를 한다고 했다. 나는 움찔거리는 배꼽을 가까스로 다잡은 채 자료를 훑어봤다. 일순 역겨운 생선비린내가

스치며 비위가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오줌을 질금거리며 요절복통을 할 지경이었다.

“도둑놈 사기꾼의 자식이 총무를 맡아도 되는 거요? 아버지가 차디찬 감옥의 창살에 갇힌다는데 총무를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료를 큰 종질을 향해 밀친 후 그의 두 눈을 응시하며 이죽거렸다.

“가장 좋은 충효사상은 사촌형이 20 여 년간 갖다 쓴 문중 쌀 100 가마를 갓고, 유산 팔아먹는 재미로 사업을 하며 첩살림에 빠진 아버지의 분탕질을 종조부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죠. 그게 순서죠. 그게 진정한 충효사상이죠.”

그러면서 안주머니에서 폐쇄등기부등본을 꺼내 큰 종질 앞으로 펼쳐보였다. 일제 강점기인 1934 년 사촌형을 비롯한 다섯 집이 쌀 한말씩을 거둬 선산을 산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한답시고 유산 팔아먹는 재미로 살며 첩살림까지 차려 돈에 쪼들리던 사촌형이 십 수 년 후 쌀 한말을 되찾아갔던 것이다. 그래서래 1981 년 특별조치법 때 집안 네 여덟 집의 공동명의로 바꿀 때 사촌형은 빠져있었다. 모두들 숨을 죽인 채 폐쇄등기부등본을 응시했으나 나는 사촌형네는 선산의 지분이 없다는 말만 거꾸 강조했다. 사촌네 식구들은 하나같이 흠뻑으로 변한 표정으로 잔기침을 하며 폐쇄등기부등본만 응시했다. 이렇게 큰 종질의 원대한 꿈인 우리집안의 종친회는 흐지부지 끝이 났던 것이다.

이토록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한답시고 유산을 팔아먹는 재미로 살며, 그것도 모자라 20 여 년간 밭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라는 첩살림에 빠져 남남처럼 지냈음에도 그런 글을 쓰다니 어이가 없었다. 이걸 지고지순한 문학의 한 장르인 수필이 아니라 지라시이자 흑색 선전물이었다. 굳이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문학의 길이다.'라고 한 타골의 말이 아니라도, '옳은 것을 찬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다.' 라고 한 다산 정약용의 말이 아니라도 이걸 문학일수가 없는 것이다. 새삼스레 큰 종질의 파렴치한 행태를 똥구멍으로 한 공부, 똥구멍으로 쓴 글씨로 명명했던 아버지의 촌철살인이 절감되는 것이다.

생활비는 물론 11 남매 학비를 당시 k 대 국문과를 나와 농어촌공사에 다니던 제 큰오빠가 댄 걸 뻘히 알면서도, 그래 아침 등교시간 때면 학비를 타기위해 2 층 큰오빠 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11 남매가 줄을 섰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서 그랬기 때문이다. 큰오빠와 같은 k 대 법대를 다니던 둘째 오빠가 학비조달이 안 돼 학교를 중퇴하고 그 무렵 창립한 3 사관학교에 입교를 한 것도, 큰오빠가 소실자식까지 11 남매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느라 40 이 다 돼 결혼한 것도 뻘히 알면서도 그랬으니 기가 찰 일이었다.

일언이폐지하고, 사촌 네 종질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제 아버지가 갖다 쓴 고향의 문중 쌀 100 가마를 갚지 않으려는 자작극이었다. 사업을 한답시며 유산을 팔아먹는 재미로 살며 20 여년을 밑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라는 첩살림을 즐긴 제 아버지의 분탕질을 고향의 어른들에게 뒤집어씌운 악질 사기수법이기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거짓말도 자주 충분히 하면 진실이 된다던 나치의 나팔수인 괴벨스의 선동 따라 하기이기도 했다. 거짓말도 100 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식의 거짓말 옹호 속담이 100 개나 된다는 일본의 거짓말문화도 마찬가지였다. 1919 년 한일합방이후 100 여 년간 일제와 친일세력들이 이 땅에 씨 뿌린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기도 한 것이다. 아니 끊임없이 사회 불신과 분열을 획책한 망국병인 것이다.

이게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일본의 거짓말문화 퇴치 국민행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선인 망국병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절규가 새삼스레 귓전을 때리는 이즈음이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애국국민들의 적극적인 거짓말 퇴치운동이 시급한 때이다. 국민 개개인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게 정의라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항의의 표시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때다. 인터넷 댓글과 불매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집요함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다시는 악질적인 거짓말들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연락처: km97han@hanmail.net

색인

김범	145
김상안	16
김용환	72
김재동	11
김재실	5
김평춘	175
배수지	114
서경원	9
이돈성	200
이창수	13
장철우	7
최영배	15
최주석	136
한겸택	265
Dorothy Joo Kowal	36



2022

도산의 한민족경영

The 1st Dosan International Essay Contest

의의: 도산 사상의 현대화 및 세계화

응모기간: 2022 년 6 월 1 일 - 10 월 31 일

시상일: 2022 년 도산 탄신일

수필 주제: 대학생: 한류(韓流)와 도산 안창호
대학원생: 도산 사상의 현대화 및 세계화
일반: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

응모전 안내: <http://ykausa.org/> 또는 <http://kaupa.org> 홈페이지 참조

수필 (논문 포함) 응모: dosanessay@gmail.com

주최: 흥사단 미주위원회

후원: LA 총영사관,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 YTV America,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미주), 안창호 기념사업회(서울), 흥사단 본부(서울),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t hashimaptg@hotmail.com or kaupahq@gmail.com

주관: OC 흥사단 (Orange County, USA), KAUPA(북미한인교수협회)

The 1st Dosan International Essay Contest

DOSAN 2022

